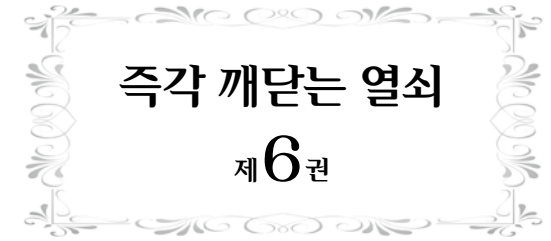




칭하이 무상사
The Supreme Master Ching Hai

즉각 깨닫는 열쇠 제6권



즉각 깨닫는 열쇠
제 6 권

칭하이 무상사
The Supreme Master Ching Hai

SM출판사

사랑의 길을 걷다

살아 계신 깨달은 스승의 발자취

우리는 작은 사랑을 찾아
높고 낮은 곳을 찾아다니며
세상 곳곳의
모든 존재와
작은 사랑을 나눕니다.

만나거나 함께 일하는 즐거움을 가질 수 있었던 이들에게 다정한 분으로 알려져 있는 칭하이 무상사는 사랑의 길을 걷자는 메시지대로 살고 있습니다.

유명한 인도주의자이자 예술가, 영적 지도자인 그녀의 사랑과 도움은 모든 문화와 인종을 초월해 전세계 수백만 명에게 전해져 왔습니다. 어려운 이들과 노숙자, 에이즈와 암 연구 센터, 미국 참전 용사, 불우한 노인, 심신 장애인, 난민, 그리고 지진·홍수·화재 등 천재지변을 당한 이재민들이 그 대상입니다. 그녀의 친절에 축복을 받은 것은 인간뿐만이 아닙니다. 다양한 종의 동물 역시 그녀의 무한한 자비심으로 큰 혜택을 받고 있습니다.

이런 무수히 많은 자선 활동 속에서 우리는 이 자상한 여인의 가장 두드러진 특징인 자비심을 목격하게 됩니다. 국제협회는 그녀의 사랑을 본받아 성장해 왔습니다.

“우리는 나눌 수 있는 것부터 나누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우리 내면에서 미묘한 변화를 느끼게 됩니다. 더 많은 사랑이 우리 의식 속으로 쏟아져 들어오고 그때 우리는 뭔가를 자각하게 됩니다. 그게 시작입니다. 우리가 이곳에 온 것은 배우기 위해서입니다. 성장하는 것을 배우고 우리의 힘과 무한한 사랑, 창조성을 활용하는 법을 배워 우리가 있는 모든 곳을 보다 아름다운 곳으로 만들기 위해서인 것입니다.”

초기 시절

칭하이 무상사는 어울락 중부에서 태어났습니다. 어린 시절 그녀는 가능한 모든 방법으로 병원의 환자들과 가난한 이들을 돕고 다친 동물들을 도와주곤 했습니다. 10대 후반에 유럽으로 유학을 떠난 그녀는 그곳에서 적십자사의 번역 일을 하며 계속 봉사했습니다. 그녀는 곧 아픔과 고통이 모든 문화 속에, 세계 어디에나 존재한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그리고 그 구제책을 찾는 것이 그녀 인생의 가장 큰 목표가 되었습니다. 그녀는 당시 독일 의사와 결혼해 행복하게 살고 있었는데, 이별이 두 사람 모두에게 대단히 힘든 결정이었지만 남편은 동의해 주었습니다. 이어서 그녀는 영적 깨달음을 찾아 2년이 걸린 구도의 길에 올랐습니다.

히말라야 순례

마침내 그녀는 인도의 히말라야 깊은 곳에서 깨달은 스승을 만나 내면의 빛과 소리를 관하는 명상 기법인 관음법문을 전수받았습니다. 그녀는 얼마간 수행한 후 완전히 깨닫게 되었습니다.

히말라야에서 돌아온 지 얼마 되지 않아 주변 사람들의 신실한 요청에 따라 칭하이 스승은 관음법문을 다른 이들과 함께 나누면서 그들에게

내면을 성찰해 자기 자신의 위대함을 찾도록 격려했습니다. 각계각층의 사람들이 관음법문을 통해 일상생활에서 더욱더 큰 성취와 행복, 평화를 얻었습니다. 얼마 후 미국과 유럽·아시아·호주·아프리카·남미, 그리고 주요 기관에서 칭하이 스승에게 강연을 요청해 왔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을 아름답게 만들기

인도적인 도움을 베푸는 숭고한 귀감이 되고 있는 칭하이 스승은 또한 사람들에게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을 아름답게 만들자고 격려했습니다. 그녀는 관음법문 명상을 통해 자생적인 재능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녀는 그림과 창작 예술품(아름답고 정교한 등불과 음악, 시 등), 미적 감각이 뛰어난 보석·의상 디자인을 통해 당신이 접한 사람들과 문화의 내적·외적 아름다움을 표현합니다. 1995년, 대중의 요청에 따라 그녀의 의상 디자인은 런던·파리·밀라노·뉴욕을 순회하는 국제적인 패션쇼를 통해 선보였습니다. 이런 예술 작품에서 얻어지는 수익금은 칭하이 무상사의 자선 활동을 위한 독립적인 재정원이 되어 어려운 처지에 놓인 신의 자녀를 돕는 그녀의 고귀한 임무를 뒷받침하고 있습니다.

세계적 인정과 스승님의 꿈

칭하이 무상사는 그 어떤 형태의 인정도 바라지 않지만 전세계 많은 정부와 개인 단체들이 그 사심없는 지원을 인정해 다음과 같은 수많은 상을 수여했습니다. 세계 평화상, 세계 영적 지도자상, 인권 신장상, 세계 시민 인도주의상, 인류를 위한 뛰어난 공익 봉사상, 2006 구시 평화상, 로스 앤젤레스 음악 주간 표창장, 2006년 제27회 텔리상 은상 등등. 미국에서는 2월 22일과 10월 25일을 ‘칭하이 무상사의 날’로 선포했습니다. 하와

이 호놀룰루 전임 시장인 프랭크 파시는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그녀는 위대한 자의 빛이며 모두를 위한 자비의 천사입니다.”

칭하이 무상사는 다른 사람들이 우리 미래에 대한 아름다운 비전을 발견하고 창조하도록 돕는 데 진정으로 헌신하고 있는 사람들 중 한 분입니다. 역사상 많은 위인들에게 꿈이 있었듯이 그녀 또한 그렇습니다.

“난 모든 세상이 평화로워지길 꿈꿉니다.

나는 모든 살생이 멈추기를 꿈꿉니다.

나는 모든 아이가 평화와 조화 속을 거닐기를 꿈꿉니다.

나는 모든 국가가 서로 화해하고 서로를 보호하고 서로 도와주길 꿈꿉니다.

나는 이 행성이 파괴되지 않길 꿈꿉니다.

수억 수조 년이 걸려 만들어진 이 행성은 대단히 아름답고 멋진 곳입니다.

나는 이 행성이 평화와 아름다움, 사랑 속에 지속되기를 꿈꿉니다.”

머리말

칭하이 무상사는 강연하실 때
어려운 문자를 사용하지 않고
평이한 구어체만 사용하십니다.
책을 출판함에 있어서도
대중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미사여구를 사용하지 않으십니다.
우리 제자들은
스승의 가피력을 감소시키지 않기 위해
범부의 두뇌로 내용을 함부로 바꾸지 않았습니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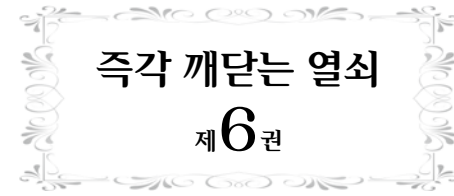
CONTENTS

차례

	사랑의 길을 걷다.....	3
	머리말	7
1장	흑신통과 백신통	13
2장	뱀 벌레.....	75
3장	깨달음에는 불상이 필요치 않다	119
4장	관음법문 수행에는 치유력이 있다	145
5장	부처는 어떻게 범부가 되는가.....	161
6장	우란분절의 유래	207
7장	히말라야 산에서의 스승님.....	253
8장	팔경법의 새로운 해석.....	287
	관음법문 입문과 5계	313
	간행물 안내.....	316

도움말

영적 스승이자 예술 디자인을 창작하시는 칭하이 무상사는 내적 아름다움을 표현하는 모든 방식을 사랑하십니다. 이 때문에 스승님은 베트남을 '어울락'으로, 대만은 '포모사'로 부르십니다. '어울락'은 베트남의 옛 이름으로서 '행복'을 뜻하며, '아름답다'의 뜻을 가진 '포모사'는 그 섬나라와 국민들의 아름다움을 보다 완벽하게 반영합니다. 스승님은 이러한 이름을 쓰면 그 나라와 국민의 영성이 고양되고 복이 찾아온다고 생각하십니다.



즉각 깨닫는 열쇠
제 6 권

칭하이 무상사
The Supreme Master Ching Hai



1장

흑신통과 백신통

1장

흑신통과 백신통

1987. 9. 20. 포모사 타이베이 무량광 명상센터

오늘은 흑신통과 백신통에 대해서 말하겠어요. 여기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신통을 좋아하지요.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에게 어떻게 신통을 사용하는지 가르쳐 주겠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은 나에게 신통이 없다고 생각할 테니까요. 나에게 신통이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 있나요?

흑신통과 백신통은 가장 간단한 일인데 어떻게 나에게 없을 수 있겠어요? 내게는 무엇이든 다 있습니다. 흑신통·백신통도 있고, 붉은 신통, 녹색 신통도 있으며, 노란색·남색·회색·커피색 등 무슨 신통이든 다 지니고 있습니다. (대중 웃음) 배우고 싶거든 먼저 등록하세요. 그러면 내가 여러분이 필요로 하는 신통을 근거로 해서 여러분에게 가르쳐 주겠습니다. 여러분, 신통에 대해 듣고 싶습니까? (대중: 듣고 싶습니다.) 좋아요. 이제 흑신통과 백신통에 대해서 이야기 하겠어요.

흑신통도 본래는 백신통이었어요. 흑은 곧 백이고 백은 곧 흑이지요. 이것은 『금강경』에서 말한 것과 같습니다. 내가 마음대로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왜 흑이 백일까요? 왜냐하면 이 힘도 창조주의 힘이기 때문입니다. 알겠습니까? 음陰은 양陽이고 양 또한 음입니다. 양이 없으면 음도 없으며, 음이 없으면 곧 양도 없습니다. 음양의 조화가 없으면 세계는 존재하지 않지요.

흑신통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수행으로 얻은 큰 힘을 이용해서 나쁜 일을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을까요? 일체유심조一切唯心造이기 때문입니다. 이해하겠습니까? 예를 들어, 우리가 보약을 너무 많이 마셨을 때도 병이 날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나요? 한번은 나의 스승이 나에게 안마 약을 마시게 했지요. 마시고 난 뒤 하마터면 죽을 뻔했어요. 계속 토하고 싶었지만 스승이 주신 것이라서 마시지 않을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억지로 마셨지요. 마시자마자 곧 토했지만, 토하고는 또 삼키기를 연거푸 몇 번이나 했습니다. 안마 약은 본래 안마하는 데만 사용하는 것이지 마시는 게 아니에요. 다행히 죽지 않고 지금까지도 아직 살아 있습니다. 중독도 되지 않고요. 어떤 약은 외용으로 바를 수는 있지만 마시면 중독이 됩니다.

신통도 마찬가지입니다. 만일 우리가 그것을 좋은 곳에 사용하면 백신통인 것이고, 나쁜 곳에 사용하면 흑신통인 것이지요. 신통도 이와 같이 다를 게 전혀 없습니다.

(강연을 들으려고 잇따라 많은 사람들이 들어옴) 넓은 바깥세상을 두고 놀러 가지도 않고 굳이 이곳에 와서 여럿이 꼭 끼어 앉아 강연을 들

으려고 하다니, 여러분은 정말 미쳤어요! 내가 흑신통을 사용해서 여러분을 조종한 것이 아닐까요? (대중 웃음) 내가 여러분을 조종해서 무엇하겠어요? 골칫거리만 더 늘어날 뿐이지요. 나는 지난밤 밤새도록 명상을 했기 때문에 낮에 잠깐 자려고 했지만 그럴 수가 없었습니다. 시자가 와서 “많은 사람들이 강연을 들으려고 왔습니다.”라고 했거든요. 한 사람보다는 당연히 많은 사람들이 중요하니 할 수 없이 내 잠을 희생해야 했지요. 사람이 많아질수록 내 일도 더 많아 집니다. 내가 좋아한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나는 흑신통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흑신통이란 무엇일까요? 바로 독약과 같습니다. 여러분은 늘 흑신통을 사용하지만 자신이 흑신통을 사용한다는 것을 모르고 있습니다. 알고 있나요, 모르고 있나요? (어떤 사람: 모르고 있습니다.) 좋아요! 이제 여러분에게 알려주겠어요. 여러분이 자신이나 다른 사람에 대해서 마음속으로 나쁜 일을 생각할 때마다, 게다가 그 생각이 매우 강렬하고 힘이 있다면 곧바로 상대방에게 영향을 줄 수도 있고, 또 자기 자신에게도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이해하겠어요?

예를 들어, 여러분이 날마다 ‘그 사람은 정말 나쁜 사람이야. 나는 그가 병에 걸렸으면 좋겠어. 나는 그가 어찌어찌 되길 바라.’라고 생각한다면 그 사람은 꼭 병에 걸릴 겁니다. 만일 여러분이 정말로 그렇게 한 사람을 미워한다면 그 사람은 꼭 영향을 받을 것입니다. 무슨 뜻인지 이해하겠어요? 이것을 통해서 우리는 인과가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만일 여러분이 어떤 사람을 죽이거나 다치게 한다면, 그는 나중에 몸을 받아 이 세상에 돌아와서는 여러분을 해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흑신통입니다. 흑신통이 아니라면 무슨 신통이겠습니까?

우리 내면에는 아주 큰 힘이 있습니다. 그 힘은 무량무변(無量無邊)하며 불가사의합니다. 우리가 아주 작은 부분만 사용했을 뿐인데도 그렇게 대단하지요. 좋은 일에 사용하든 나쁜 일에 사용하든 모두 대단합니다. 만일 우리가 이 힘을 좋은 일에 사용한다면 세상이 더더욱 좋아지지 않겠습니까? 그렇지만 우리 대부분은 그것을 좋은 일에 사용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을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아마도 여러분은 이 힘을 좋은 일에 사용할 겁니다. 이를테면 남편을 야단치고, 부인을 때리고, 나에게 따지는 일 등예요. (대중 웃음) 이 힘이 그렇게 크다는 것을 알았다면 반드시 신중해야 합니다. 흑신통을 사용하지 말고 백신통만을 사용하세요.

흑신통은 우리 자신에게도 영향을 줍니다. 그래서 어떤 종교나 종파의 교주라도 사람들에게 이웃을 사랑하기를 자기를 사랑하는 것처럼 해야 한다고 가르칩니다. 왜냐하면 남을 미워한다면 바로 자기를 미워하는 것이 되니까요. 이것이 바로 방금 내가 말했던 ‘인과응보(因果應報)’입니다. 알겠어요? 여러분이 어떤 사람을 미워하고 그 사람에게 좋지 않은 일이 일어나기를 바라거나, 그 사람이 병이 나고 빨리 죽기를 바라는 등의 저주를 한다면 나중에 그 사람도 여러분과 똑같은 저주를 할 겁니다. 여러분이 생사윤회를 하고 이 고통스러운 생로병사의 굴레에서 돌고 도는 것은 바로 이 흑신통 때문입니다.

흑신통은 다른 사람을 해칠 뿐만 아니라 자기도 해칩니다. 최면

술을 가진 사람이 여러분더러 눈을 감으라고 한 다음 무엇을 하도록 시키면 여러분은 곧 그것을 하게 되지요. 자기를 완전히 제어할 수 없게 됩니다. 이름만 다를 뿐 이것 역시 흑신통입니다. 일반인들은 ‘최면술’이라고 부릅니다만 나는 그것을 ‘흑신통’이라고 부릅니다. 최면을 거는 사람이 곧 흑신통의 힘을 쓰고 있으니까요.

그렇지만 이 흑신통도 하얗게 변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힘을 사용해서 다른 사람을 면술을 이용해서 병을 고칠 수 있는데, 여러분은 이런 일을 알고 있나요? (어떤 사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방금 백신통과 흑신통은 모두 우리 자신의 생각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말한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떤 사람이 자기 병을 고치기 위해서 ‘옴마니반메훔’을 원한다는 이야기를 들어 보았지요. 어떤 사람은 ‘옴마니반메훔’을 귀신이나 마귀를 쫓기 위해서, 또는 좋지 않은 힘이나 좋지 않은 운을 쫓아 버리기 위해서 외웁니다. 어찌 되었든 그런 것들은 모두 작은 신통 가운데 하나입니다. 어떤 사람은 ‘옴마니반메훔’을 외워서 다른 사람의 병을 고쳐 주기도 합니다. 그렇다고 여러분에게 이 주문을 외우라는 것은 아니고, 명백히 알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은 이미 오랫동안 주문을 외웠기 때문에 생각을 집중하는 힘을 갖추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생각을 집중할 수만 있다면 많건 적건 간에 힘이 생기게 됩니다.

결코 ‘옴마니반메훔’이라는 이 주문이 유용한 것이 아니라, 그런 라마승들은 이미 오랫동안 주문을 외워 왔기 때문에 힘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전적으로 자기를 늘 훈련시켰기 때문이지 별게 아님

니다. 그러나 조금은 쓸모가 있지요.

그렇지만 겨우 하루 동안 외웠다면 당연히 별 쓸모가 없을 겁니다. 예를 들어 여러분이 막 영어를 배우기 시작했다면 처음에는 당연히 말을 못하겠지만 날마다 조금씩 배우며 반복해서 연습한다면 얼마 안 가서 아주 유창하게 말을 할 수 있을 겁니다. 나도 막 포모사에 왔을 때는 중국어를 못했지만 날마다 연습했기 때문에 지금은 벌써 말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알겠습니까? 수영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막 수영을 배우기 시작했을 때는 헤엄칠 줄 모르겠지만 날마다 연습한다면 자연스럽게 헤엄을 치게 되죠.

흑신통과 백신통은 모두 우리 생각에 의해서 결정됩니다. 우리가 어떤 사람의 즐거움과 평안함을 기원할 때 진정으로 성심성의껏 바란다면 그는 곧바로 즐겁고 평안해질 것입니다. 물론 이것도 그 자신의 인과에 달려 있지만 적어도 그 시간 동안은 즐겁고 평안할 것입니다.

경전에도 써어 있습니다. 사람을 아흔아홉 명이나 죽인 어떤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그렇게 한 이유는 그의 스승이 그를 속여서 “만일 그대가 정오가 되기 전에 백 명을 죽인다면 반드시 성불할 것이다.”라고 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는 스승의 말을 믿고서 정말로 그렇게 했지요. 아흔아홉 명을 죽인 뒤 백 번째 되는 사람을 찾지 못하고 있던 그때, 마침 자기 어머니가 걸어오는 것을 보고 그는 어머니를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의 어머니는 부처를 믿고 있었으며 이미 석가모니불에게 귀의한 상태였기 때문에 석가모니불이 나타나서 그녀를 구해 줬습니다. 그는 석가모니불도 죽이려고

했지만 석가모니불이 신통을 써서 그 역시도 구해 주었습니다.

부처의 신통과 방금 내가 말했던 흑·백신통은 다릅니다. 절대로 헛갈리지 마십시오. 신통이 없는 것이 곧 부처의 신통입니다. 부처 자신이 바로 신통이지요. 이에 대해선 이미 여러 차례나 말한 적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나를 보자마자 바로 병이 나았다거나 어려움이 해결 되었다고 말합니다. 여러분은 내가 신통을 사용하는 것을 보았습니까? 또는 주문을 외거나 대비수大悲水를 사용하는 것은요? 아니면 향을 피우고 무언가를 써서 물에 넣고 사람들에게 마시게 하는 것을 보았나요? (대중: 없습니다.) 그런 것들은 모두 흑·백신통입니다. 내 것은 여러분이 오면 저절로 생기는 자연스러운 신통이지요. 원하는 대로 다 생깁니다. 은행을 털겠다는 것만 아니면요. (대중 웃음) 나는 그런 일은 돕지 않습니다.

석가모니불이 그 사람을 구하고 나자 그는 매우 감동받아 바로 부처를 따라 출가해서는 날마다 부처와 함께하며 도를 배웠습니다. 하루는 그가 탁발을 하러 가다가 금방이라도 아기를 낳을 것 같은 임신부를 만났는데, 그 모습이 정말 고통스러워 보였습니다. 그 임신부는 큰 소리로 간청을 했지요. “스님! 제가 곧 아기를 낳을 것 같습니다. 제발 저를 도와주셔서 저와 제 아기가 평안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십시오!” 그는 출가한 지 얼마 되지 않았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몰라서 바로 부처에게 가서 물었습니다.

부처는 그에게 빨리 돌아가서 이렇게 말하라고 했습니다. “그대는 반드시 평안하게 아기를 낳을 것입니다. 어머니와 아기 모두가

즐겁고 평안하고 건강할 겁니다. 나는 태어나서 지금까지 거짓말을 해본 적이 없으며, 나쁜 일도 한 적이 없습니다. 내가 말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그대로 꼭 실현될 것입니다.” 그러자 그는 부처에게 말했습니다. “스승님, 그건 안 됩니다. 제가 태어나서 지금까지 나쁜 일을 해본 적이 없다는 것은 잘못된 말입니다. 제가 아흔아홉 명을 죽였던 것을 당신도 아십니다. 그런데 어떻게 제가 나쁜 일을 한 적이 없으며, 거짓말을 한 적이 없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부처가 말했지요. “그것은 이미 지난 일이다. 그대는 나를 따라 출가해서 지금까지 거짓말을 하지도 않았고, 살인을 하지도 않았으며, 나쁜 일도 하지 않았다. 그대는 그녀에게 그렇게 말하면 된다.” 그래서 그는 재빨리 달려가서 부처가 말한 대로 그 임신부를 위로하였습니다. 그러자 정말로 아기는 평안하게 태어났고, 크고 발그스레한 것이 아주 건강해 보였지요. 본래는 며칠 전부터 이미 진통이 있었지만 난산이다 보니 아기를 낳을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가 축복의 말을 마치자마자 곧바로 아기가 태어난 것이지요. 엄마와 아기, 두 사람은 모두 평안하고 즐거웠으며 매우 건강했습니다. 그 자신도 무척 기뻐고요.

왜 그럴 수 있었을까요? 왜냐하면 부처의 힘은 과거의 업장을 깨끗이 씻어 버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해하겠습니까? 나는 항상 여러분이 입문하고 난 뒤에는 과거의 업장은 모두 없어지고 현재의 업장과 정업定業만이 남는다고 말합니다. 만일 내가 여러분을 도와 정업마저 씻어 버린다면 여러분은 입문할 때 바로 이 세상을 떠나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 어쩔 수가 없지요. 지금도 아직 인과가 있습니

다. 우리가 이 몸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정업이 있는 것입니다. 정업이 무엇일까요? 바로 고정된 것입니다. 우리가 태어나기 이전에 이미 안배된 것이지요. 거기에 다시 날마다 짓는 새로운 업장이 더해져서 이번 생에 우리는 아주 많은 업장을 짓게 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우리가 숨을 쉴 때마다 보이지 않는 많은 세균이나 미생물이 죽습니다. 우리는 걸으면서도 아주 많은 미생물을 죽이고 풀을 벨 때도 역시 많은 중생을 죽입니다. 이해하겠습니까? 이처럼 길을 걷거나 차를 운전할 때도 중생에게 많은 업장을 빚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네 가지 중요한 은혜를 갚아야 합니다. 이 몸이 존재하는 한 우리에게는 사중은(四重恩)이 있습니다. 한 찰나에 그것을 모두 다 깨닫지 못할 수는 없습니다. 이해하겠어요? 그러니 남아서 갚아야만 합니다.

우리는 무엇을 사용해서 갚아야 할까요? 신구의(身口意)(행동·말·생각)를 사용해서입니다. 일을 하거나 수행이나 명상을 해서 갚아야 하지요. 재가자는 일을 하고 돈을 버는 것을 통해 업장을 갚습니다. 출가자는 수행의 힘을 사용해서 세상의 독한 기운을 풀어 나갑니다. 사회를 좀더 도덕적으로 만들고 세상을 좀더 살기 좋은 곳으로 변화시켜 갈수록 어둡고 캄캄해지지 않도록, 갈수록 지옥처럼 되지 않도록 하는 것입니다. 알겠어요? 이것이 신身に 관련된 것입니다.

구口는 도덕적인 것을 사람들에게 들려주는 것입니다. 사람들에게 평화롭고 고상한 말을 해서 사람들이 갈수록 즐겁고 도심(道心)이 생기도록, 또한 내면에 불성이 있으며 가장 큰 힘이 있다는 것을 인식하도록 일깨워 주는 것입니다. 알겠습니까? 이것이 구口에 관한

것입니다.

의意는 무엇일까요? 바로 백신통을 사용해서 사람들이 즐겁고, 나라가 평화롭고, 세계가 평안하도록 축복하는 것입니다. 알겠어요? 이렇게 신구의를 가지고 중생에게 봉사하고 사중은에 보답한 뒤에야 우리는 떠날 수 있습니다.

나에게 여러분이 가진 정업을 씻어 달라고 해도 됩니다. 안 되는 것은 아닙니다. 여기에 지금 바로 왕생하고 싶은 사람 있나요? 손을 들어 보세요. (어떤 사람이 손을 들) 당신은 사람들에게 아주 많은 빛을 저서 빨리 도망가려는 거지요. 그렇지 않아요? 좋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하는 것은 훌륭하지가 않습니다. 우리가 세세생생 나쁜 일을 많이 해서 현재 중생들이 고통스러운 것이니 마땅히 그들을 위로해야 합니다. 우리 때문에 그들이 고통스러운 것이니 여기에 사는 한 어느 누구에 대해서도 다 책임이 있습니다. 알겠습니까?

세상이 어떻게 변하든 그건 우리 모두의 책임입니다. 전부 다 그들이 나빠서라고 탓해선 안 되지요. 우리도 잘못을 했습니다. 아마도 바로 전생이나 더 이전 생에 그에게 좋지 않게 대했기 때문에 그가 이 세상에 다시 와서 우리를 원망하는 것인지도 모릅니다. 이것 역시 우리의 잘못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되도록 만든 것이지요. 그러므로 우리는 전적으로 다른 사람만을 탓해서는 안 됩니다. 수행을 잘해서 우리 자신을 정화하고, 이 증오의 기운을 풀어야만 합니다.

마땅히 ‘덕으로써 원한을 갚아야’ 하는 것이지 ‘원망’해서는 안 됩니다. 그렇게 해야만 증오의 기운을 풀 수가 있습니다. 이미 생겨 버린 증오의 기운은 원래 곧바로 풀어 버릴 수가 없으며 풀려고 한

다면 상대방을 죽여야만 하지요. 하지만 상대를 죽인다고 해서 원한의 기운이 깨끗이 씻겨지는 것도 아닙니다. 오히려 두 배로 커져서 갈수록 문제가 될 뿐이지요. 그래서 석가모니불이나 다른 큰스승들도 모두 사람들에게 은혜로써 원한을 갚으라고 했던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원수를 사랑하라(Love your enemy).”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원수도 여러분이 만들어 낸 것이니까요. 알겠습니까? 불교에서는 “일체유심조”라고 했고, 노자는 “문밖을 나가지 않아도 세상을 알 수 있다(『도덕경道德經』: 不出戶 知天下).”라고 했습니다. 이 뜻과 ‘일체유심조’는 같습니다. 우리는 마음을 사용해서 세상을 관찰할 수 있습니다. 내면과 외면이 같기 때문에 문밖을 나가지 않아도 세상을 볼 수 있는 거지요. 이 말은 아주 깊은 뜻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결코 영혼이 몸을 빠져나가서 세상을 볼 수 있다는 것이 아닙니다. 물론 영혼이 나갔을 때도 볼 수 있지만 그것은 낮은 등급이지요.

여러분은 사람의 영혼이 몸을 빠져나갈 수 있다는 것을 들어 보았을 겁니다. 어떤 사람은 강연을 들으러 몸소 오지 않고 혼만 빠져 나와 이곳에 와서 몰래 보고 듣습니다. 가끔 내 제자도 영혼만 나와서 이곳에 오지요. 하지만 그렇게 했을 경우에는 볼 수는 있지만 듣지는 못합니다. 다른 사람들은 모두 직접 이곳에 와서 강연을 듣는데, 그는 너무 게으르면서도 자기 스스로를 대단하다고 여겨 직업을 생각을 안 합니다. 일단 오게 되면 나한테 배운다는 것이 사람들에게 알려져서 체면이 깎인다고 생각하니까요.

그 사람은 전에 일관도—貫道에 있었는데, 그때 자격이 이미 ‘전인 前人’ 이었습니다. 그는 나에게 입문한 뒤 다시 오지 않았지요. 그렇

지만 그의 영혼은 몸을 빠져나와 이곳에 옵니다. 나는 그에게 말했지요. “대장부는 무슨 일을 하든지 정정당당해야 합니다. 저녁에 몰래 와서 다른 사람의 집을 엿보지 마세요. 그렇게 해서 무엇을 하겠다는 겁니까? 우리는 다른 사람의 집에 몰래 들어갈 권리가 없습니다. 배우고 싶다면 정정당당하게 와서 강연을 들으세요. 육신으로 오든 아스트랄체를 사용해서 들어오든 몰래 다니는 것은 모두 도둑질하는 행위입니다.”

노자가 말했던 “문밖을 나가지 않아도 세상을 알 수 있다.”의 상황은 그런 사람과는 다릅니다. 영혼이 몸 밖을 나가는 것과 해탈은 다릅니다. 해탈은 삼계三界를 초월하는 것이지요. 바로 우리의 마지막 신체, 가장 정교하고 세밀한 신체가 그 바깥을 둘러싸고 있는 여러 개의 신체를 벗어나서 나가는 것입니다. 이해하겠습니까? 마지막 신체는 영혼이 아닙니다. 보통 사람들이 말하는 영혼은 여러 개의 신체 가운데 하나로서 이 육체보다 좀더 나올 뿐이고, 비교적 미세하여 보통 육안으로는 볼 수 없으나 수행하는 사람은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동수들 가운데 어떤 사람은 선칠禪七이나 선삼禪三에 직접 참가하지 않고 영혼만 빠져나와 이곳에 와서 나를 보는 것을 좋아합니다. 그렇게 해서 무얼 하겠다는 거죠? 물론 영혼이 빠져나와 이곳에 와도 되지만 너무 게으릅니다. 그래서 이곳을 지키는 용신훈법龍神護法에게 두들겨 맞지요. 게다가 용신훈법은 그에게 떠나라고 명령하지만, 그는 “나는 이곳에 계신 칭하이 무상사를 알고 있습니다.”라고 말함으로써 용신훈법에게 겨우 들어오라는 허락을 받습니

다.

그러나 내가 강연을 해도 그는 소리를 듣지 못합니다. 수행해서 좀더 높이 가야지만 소리를 들을 수가 있지요. 알겠습니까? 그는 비록 나를 볼 수 있고 동수들을 볼 수 있으며 무형의 중생도 볼 수 있지만 아직 높은 등급에 이르지 못했기 때문에 어떤 소리도 듣질 못합니다. 다만 내 입이 벌어졌다 다물어졌다 하는 것만 볼 수 있을 뿐이지요. 그는 너무 실망했다고 했어요. 그래서 내가 말했지요. “무얼 실망했다는 거지요? 선칠에 오면 되잖아요!”

나는 사람들에게 이런 일을 하라고 부추기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제자는 전에 무술(巫術)을 수행했던 탓에 지금도 완전히 그런 습관을 끊어 버리지 못해서 그러는 것입니다. 영혼을 사용해서 이 사바세계에서 왔다 갔다 하는 것은 힘만 낭비할 뿐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기왕 영혼이 나오려면 마땅히 삼계를 벗어나 위로 올라가서 ‘도’를 배워야 합니다. 이것이야말로 진정으로 부처를 배우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바세계에서 나는 어떤 불경도 말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이곳에선 다만 세상경(世界經)만을 말할 수 있을 뿐 좋은 것은 아무것도 말할 수가 없지요. 가장 좋은 것을 배우고 싶다면 반드시 위에 가서 배워야만 합니다. 이해하겠습니까?

세상의 것은 여러분에게 인의예지신(仁義禮智信)이나 예의 도덕, 또는 서로서로 잘 대하라는 것만을 가르칠 수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흠치지 말고, 간음하지 말고, 술 마시지 말고, 담배 피우지 말고, 살생하지 말라는 것들을 가르칠 수가 있지요. 이런 것들은 모두 세상의 문제들이고 본래 해서는 안 되는 것이었지만 여러분이 전부 잊어

버렸기 때문에 내가 하는 수 없이 다시 여러분에게 일깨워 주는 것입니다.

사실 그런 일들을 이야기한다는 것은 정말 너무 따분합니다. 왜냐하면 높은 등급의 세계에선 남녀의 구분도 없고 아무 문제도 없어서 이런 따분한 것들을 말할 필요가 없거든요. 내 말을 이해하겠어요? 위에서야 비로소 진정한 진리, 진정한 도를 배울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반드시 법을 전수받아야 합니다. 입문을 하고 스승의 지시에 따라 열심히 수행해서 우리 영체가 밖을 둘러싸고 있는 여러 층의 신체의 속박에서 벗어나야만 비로소 올라갈 수가 있습니다.

가장 바깥에 있는 한 층의 신체만을 벗어나 사바세계에서 왔다 갔다 한다면, 그건 그냥 혼이 빠져나와서 노는 것일 뿐입니다. 포모사에 있는 한 비구니 스님이 몇 주 동안 삼매에 들었다는 이야기를 들어 보았을 겁니다. 그 비구니 스님이 온종일 한곳에 앉아 있으니 그녀의 제자는 그녀가 왕성한 것으로 여겼지요. 하지만 그녀의 몸이 아직 부드럽고 따뜻한 것을 보고는 감히 매장하지는 못했습니다. 두 주가 지나 혼이 돌아오고 난 뒤에 그 비구니 스님은 “내가 곳곳을 돌아다니며 보니 이 세상은 정말 혼란스러웠어!”라고 했습니다.

이것도 역시 혼이 나간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녀는 몸 하나만 빠져나갔을 뿐이니까요. 알겠습니까? 아직 큰 해탈을 한 것이 아닙니다. 큰 해탈은 이 사바세계에서 왔다 갔다 하는 것이 아니라 위에서 가서 부처에게 배우는 것입니다. 이해하겠어요?

본래 흑신통에 대해서 말하려고 했는데 지금 어쩌다 이 이야기를 하게 되었지요? 흑신통을 사용하는 것은 당연히 좋지 않습니다.

영원히 좋지 않지요. 왜냐하면 그것은 조만간 우리 몸에 영향을 미칠 테니까요. 원인이 있으면 결과가 있는 법입니다. 오렌지를 심으면 오렌지가 열리고 사과를 심으면 사과가 열리지요. 사과를 심었는데 오렌지로 변한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만일 우리가 흑신통을 사용한다면 곧 우리 자신을 해치는 것입니다. 지금은 뒤에 올 결과를 볼 수 없겠지만 나중에는 반드시 볼 수 있을 겁니다. 어쩌면 며칠이 지나서, 몇 주, 몇 년, 심지어는 몇 생이 지난 뒤에는 반드시 전에 흑신통을 사용한 결과를 보게 될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나에게 와서 “아무개 친척이 어떤 무당이 사용한 흑신통인지 주문인지에 걸려 정신착란을 일으키더니 심지어는 병에 걸리기까지 했습니다.”라고 합니다. 이럴 때 나는 뭐라고 할 말이 없습니다. 할 수 없이 “그 사람에게 염불을 열심히 하고 도덕적인 일을 하라고 하십시오.”라고 말할 뿐이지요. 왜 그 사람은 그런 일을 초래하게 되었을까요? 그것은 그가 전생에 흑신통을 사용해서 사람을 해쳤기 때문에 이제 그 인과가 나타나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 다른 사람을 절대 책망하지 마세요. 당연히 자기를 탓해야만 합니다. 우리 몸에 어떤 일이 발생하더라도 모두 우리 자신의 업력業力이 만들어 낸 것입니다. 알겠습니까? 바깥사람들이 욕을 하더라도 그들을 탓해서는 안 되듯이 스승이 조금 야단쳤다고 해서 화를 내고 도망가 버리거나 스승을 비방하는 등의 일을 해서는 더욱더 안 됩니다. 스승이 야단치자마자 바로 화를 내는 그런 사람들은 정말 아주 어리석고 어리석은 사람들입니다. 스승이 조금만 야단쳐도

아주 많은 업장을 없앨 수가 있어서 지옥에 떨어진다거나 귀신에게 잡혀가서 불고기가 되는 일은 결코 생기지 않는 데도 말입니다. 내가 저번 주에 말했을 겁니다. 만일 여러분이 지옥에 가서 불고기가 되고 싶다면 다시는 나를 보러 오지 말라고요. 만일 천당에 가서 천도 天桃를 굶고 싶다면 마땅히 내 말을 더 많이 들어야만 합니다.

광친(廣欽) 노스님도 스승이 어떻게 야단치더라도 성내고 미워하는 생각을 일으켜서는 안 된다고 말했습니다. 이것은 여러분의 중국 스님이 했던 말입니다. 나 혼자서만 하는 말이 아니에요. 오로지 나 혼자만 이렇게 말한다면 그것은 독재이지요. 그렇지만 다른 큰스승들도 다 똑같은 말을 했습니다. 나도 나의 스승이 말한 것을 배운 것입니다. 나는 큰스승이 아니에요. 다만 큰스승에게 배워서 그들이 말한 대로 나도 말하는 것뿐입니다.

만일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잘한다면, 그것은 바로 자기에게 잘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이치 때문에 우리는 보시·지계·인욕 등을 하는 것입니다. 인욕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뭐가 어찌 되든 모두 자기 인과이지 다른 사람의 잘못이 아니라는 것을 똑똑하게 아는 것입니다. 만일 누군가 여러분에게 좋지 않게 대한다면 아마도 전생에 여러분이 그에게 좋지 않게 대했기 때문에 현재 갚아야만 하는 것일 겁니다. 여러분은 내가 서른세 분의 선종 조사들에 대해 했던 이야기를 아직 기억합니까? 비록 그들도 대선사들이었지만 인과에서 도망칠 수는 없었지요. 어떤 선사는 목이 잘리고, 어떤 선사는 팔이 잘렸으며, 어떤 선사는 살해당하기도 했습니다. 이것은 모두 그들의 인과여서 반드시 갚아야만 했던 것입니다.

대선사들도 모두 이와 같은데 우리 같은 범부는 어떻겠습니까? 우리는 장애가 조금만 있어도 마음이 곧 퇴보해 버리지요. 스승에게 조금만 야단을 맞아도 바로 슬퍼하고 상심해서는 돌아가려고 합니다. 다시는 스승에게 배우려고도 하지 않고 입으로는 제멋대로 스승을 비평하기도 하지요. 누군가 “당신은 왜 스승을 떠났나요?”라고 물으면 한 가지 이유도 대지 못합니다. 만일 스승에게 야단을 맞았기 때문에 떠난 것이라면 정말로 너무 어리석은 겁니다. 영웅이 될 자격이 부족한 거지요.

만일 어떤 사람이 당장 죽고 싶어한다면 그 또한 용감하지 못한 것입니다. 전생에 사람을 때려 놓고 현재 조금 맞았다고 해서 바로 싫다고 도망갈 생각을 해서는 안 됩니다. 그 원인(씨앗)을 심었다면 반드시 그 결과를 받아야만 하지요. 다 받고 난 뒤에 갈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당장 죽고 싶다면 그럴 수도 있습니다. 나는 찬성합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모두 다 죽어 버린다면 이 세상은 누가 돌보지요? 포모사 국민들은 어떡하지요? 우리 대통령은 어떡합니까? 포모사 사람들이 모두 입문해서 가 버린다면, 그럼 대통령은요? 장관은요? 그들이 너무 외롭지 않겠어요? (대중 웃음)

대통령 혼자서 이리저리 뛰어다니도록 하고 내가 모든 포모사 사람들을 남김없이 다 서방 극락세계로 데리고 가 버린다면 그곳에서 우리는 안심하며 지낼 수 있을까요? 서방 극락세계에서 밑을 내려다 보며 즐거워할 수 있을까요?

만일 여러분이 지금 가 버린다 해도 인과가 아직 남아 있어서 여

러분의 아들딸과 손자가 죽도록 울 겁니다! 그들이 우는 것도 다 인과 때문에 우는 것이지요. 만일 인과가 완전히 끊어졌다면 아무 감정도 느끼지 못할 겁니다. 이해하겠습니까?

그러므로 누군가 출가를 하면 단번에 관계를 단호하게 끊을 수가 있습니다. 본래는 남편·아내·아버지·어머니에게 매우 집착했지만 나를 본 뒤로는 아무것도 원하지 않고, 오로지 나만을 원할 뿐이지요. 그래서 결국에는 아주 많은 골칫거리들을 나에게 가져다줍니다. 나는 전혀 그녀를 원하지 않는데도요. 그녀를 원해서 무엇하겠어요? 그렇지만 그녀의 남편은 내가 그녀를 원하지 않는다는 것을 믿지 않습니다. 자기가 그녀를 무척 좋아하니까 나도 마찬가지로 그녀를 좋아할 거라고 여기는 것이지요.

여러분은 개가 먹이를 먹는 것을 본 적이 있습니까? 개가 먹이를 먹고 있을 때 여러분이 걸어 들어오면 그 개는 곧바로 ‘왕왕’거리며 짖어댈 겁니다. 사실 여러분이 개 먹이를 원할 리는 없지요. 누가 개 먹이를 먹고 싶어하겠어요? 그렇지만 개는 자기가 그것을 좋아하기 때문에 여러분이 원하지 않는다는 것을 믿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들어오면 개가 있는 곳에 가까이 가지도 않았는데 벌써 송곳니 두 개를 드러내 놓고 여러분을 향해 짖습니다. 그의 뜻은 “가까이 오지 마. 이것은 내가 뜯어먹을 뼈야. 너는 가까이 와서 보려고도 하지 마.”라고 하는 것이지요. 누가 그것을 원하겠습니까? 쓰레기인데요.

마찬가지로 여러분의 남편이나 아내가 출가하려 한다고 해서 내가 그들을 좋아한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내가 그들을 좋아해서 무엇

하겠어요? ‘자유’를 마다하고 다른 사람이 와서 날 얹매는 걸 뭐하러 바라겠어요? 그러나 여러분이 날 얹어매려 한다면 나는 그렇게 하도록 돕니다. 여러분과 함께 좀 노는 거죠!

내가 여러분의 남편이나 아내를 그 정도까지 좋아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들이 꼭 출가해야 되고 그들이 없으면 내가 죽어 버린대거나 하는 게 아니죠.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만일 출가하고 싶다면 먼저 남편이나 아내에게 명확하게 말하십시오. 나는 결코 여러분의 쓰레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알겠습니까? 그가 누구를 좋아하던 그의 일이지 나와는 상관 없습니다. 온 세상일에도 일일이 관여하지 않는데 여러분의 남편이나 아내를 상관해서 무엇하겠습니까?

나는 순전히 여러분이 수행하고 싶어하고, 인과가 이미 끊어진 바람에 세속에 대한 집착이 없어 떠나기를 원하기 때문에 출가하도록 허락한 것입니다. 본래 부모는 모두 자식들을 진심으로 아끼고 사랑합니다. 이 세상에서 자식·남편·아내는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사람입니다. 그렇지요? 하지만 인과가 끊어지려고 할 때는 그들과 남이 똑같다고 느껴지게 됩니다. 더러는 동수처럼, 심지어는 보통 친구처럼 조금도 연연해 하거나 그리워하지 않게 되지요. 바로 이와 같기 때문에 내가 출가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지 않았다면 내 남편은 너무 좋은 사람이어서 틀림없이 아쉬워서 헤어지지 못했을 겁니다.

이 점에 관해서 여러분은 책에 쓰인 내 일생에 관한 간단한 소개 글을 보면 알 겁니다. 나는 중국어를 읽을 줄 모릅니다. 그것은 내 제자가 쓴 것이지요. 이따금 그들은 내가 즐겨 듣지 않는다는 것을 알

고선 완전한 문장을 나에게 읽어 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인쇄가 끝나고 난 뒤에야 나는 무엇인가 잘못된 것을 느끼고는 그들에게 “책의 목록이 어디 있지요?”라고 묻습니다. 그들이 나에게 다시 읽어 주면 그때서야 그들이 전에 일부러 잘못 읽었다는 것을 알게 되지요. 그러나 할 수 없습니다. 사정상 본래 그래야만 했으니까요. 여러분도 알다시피 나는 한자를 모르니, 만일 책에 무언가 잘못 쓰인 곳이 있다면 그것은 내 잘못이 아닙니다. 왜 한자 이야기를 하고 있지요? (대중 웃음) 내가 늙었나 봅시다. 어떤 사람은 나더러 고불古佛이라고 하는데, 너무 오래(古)되어서 그런지 가끔씩 방금 했던 말을 잊어버리곤 합니다. (어떤 사람: 스승님께서서는 사람들이 출가하는 것을 좋아하지 않는다고 하셨습니다.) 그래요! 좋아하지 않는 것이 당연하지요. 근본적으로 쓰레기잖아요! 그 개의 이야기와 마찬가지로입니다. 내가 다른 사람의 출가를 허락하는 것은 그 사람 개인의 의지를 존중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내가 말하지 않으면 여러분도 정확하게 모를 겁니다.

나에게 있어서 세상은 마치 개 먹이와 같은데 어떻게 연연할 수 있겠어요? 온 세상에도 전혀 연연하지 않는데 여러분의 아내나 남편에게 연연해서 무엇하겠습니까? 다만 내가 있는 이곳이 수행하는 곳이기 때문에 해탈하기를 바라고 수행하고 싶어하는 여러분이 오는 것을 환영하는 것뿐입니다. 누군가 무엇을 수행하겠다면 수행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세상은 내 것이 아니며, 도리 또한 내 것이 아니니까요. 여러분 모두 이곳에 와서 수행할 권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자기의 개성이나 잘못을 가지고 이곳에서 진정으로 수행하고자 하는

사람을 귀찮게 하지는 마십시오. 내 부탁은 이것뿐입니다.

때로 나는 출가자를 엄격하게 훈련시킵니다. 왜냐하면 단체가 평화로워야만 함께 수행할 수 있기 때문이지요. 알겠습니까? 내가 여러분을 오지 못하게 하거나, 또는 여러분에게 좋지 않게 대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다른 수행자를 보호하기 위해서입니다. 좋아요! 본론으로 들어갑시다.

이제 여러분은 어떻게 흑신통을 사용하는지 알았지요? 내가 이런 이야기를 들려주는 것은 집에 돌아가서 흑신통을 사용하라는 뜻이 아닙니다. 백신통은 사용해도 됩니다. 수행을 많이 할수록 더욱 신중해야만 합니다. 왜냐하면 수행을 많이 할수록 힘도 더 커지고 의식도 더 강해지기 때문입니다. 흑신통은 바로 아주 강한 의식을 사용해서 다른 사람을 저주하거나, 또는 자기를 처벌하며 날마다 '나는 나빠. 나는 나빠. 내가 어쩌다 이렇게 변했을까?'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자기 암시'입니다. 이런 일은 매우 혐오스럽습니다. 흑신통을 사용해서 다른 사람을 해치는 것만 해도 이미 큰 일인데 흑신통을 사용해서 자기를 해치다니, 이것은 더더욱 상상할 수 없는 일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출가하고 싶어서 백신통을 사용하여 자기에게 이렇게 암시합니다. "세세생생 출가하는 것을 좋아했다."라고요. 여러분도 출가하고 싶다면 지금 당장 자기에게 암시할 수 있습니다. '나는 출가하고 싶어. 나는 출가하고 싶어. 나는 꼭 출가한다. 나는 출가할 거야. 나는 출가할 거야.' 하고 날마다 생각하면 언젠가는 꼭 출가하게 될 겁니다. 그렇지만 반드시 마음속으로 믿어야만 하지, 입

으로만 말해서는 안 됩니다. 내가 대다수 사람들의 염불이 별 소용 없다고 말한 것은 바로 이런 뜻입니다. 알겠습니까? 왜냐하면 그런 염불은 호흡을 하듯 하루 종일 습관적으로 중얼중얼 외기만 할 뿐 집중력이 없기 때문이지요. 그러니 아무런 의미도 없고 서방 극락세계에 갈 수도 없는 것입니다.

나에게는 여러분이 '염불'에 몰두할 수 있도록, 꼭 서방 극락세계에 갈 수 있도록 해줄 방법이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관음법문입니다. 나는 태어나서 지금까지 무슨 나쁜 일을 한 적도 없으며 거짓말을 한 적도 없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무엇을 말하든지 다 정말이고, 틀림없이 사실로 변할 겁니다. 살인을 했던 그 아라한처럼요. 이해하겠습니까? 모든 종교의 창시자들이 우리에게 거짓말하지 마라, 살생하지 마라, 도둑질하지 마라 등을 가르친 것은 바로 우리가 가진 이 완전한 힘을 보호하기 위해서였습니다. 만일 살생을 하거나 도둑질을 한다면 우리가 가진 이 힘에 곧바로 빈틈이 생기게 됩니다. 알겠습니까? 빈틈이 있으면 힘이 소실되지요. 그래서 수행하는 사람은 수행할수록 더 신중해야 하는 것입니다.

계율은 자기를 보호하기 위한 것입니다. 단순하지 않고 청정하지 않은 사람도 수행하면 똑같이 힘이 생기고 신통이 생깁니다. 그렇지만 그들은 이미 나쁜 일을 하는 것이 습관이 되어 버렸기 때문에 그 힘은 좋은 곳에 사용되지 못합니다. 비록 큰 힘이 있다고 해도 입을 열기만 하면 거짓말을 하니 그 힘은 환상과 거짓된 것으로 변해 버리며, 또 한 생각만 일으켜도 사람을 해치거나 살인을 하려고 하니 악한 마음을 끊을 수 없습니다. 만일 수행을 해서 힘이 있는 동

시에 악한 마음도 있다면 그야말로 큰일이겠지요. 내 말뜻을 이해하겠어요?

흑신통은 바로 이렇게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우리의 단순하지 않은 마음, 악한 마음, 나쁜 생각에서 비롯되는 것이지요. 본래는 흑도 백도 없었는데 우리 생각이 바뀌지 않아서 흑으로 변한 것입니다. 만일 생각이 바르게 바뀌었다면 바로 백신통으로 변할 겁니다.

예를 들어 우리가 자신을 훈련시켜 친구의를 청정하게 하고 도덕적으로 행동하며, 한번 생각하더라도 사람들이 잘되기만을 바라고 사람들의 평안과 행복을 바라며 영원히 나쁜 일은 생각하지 않는다면, 우리 힘이 즉각적으로 다른 사람을 이롭게 하고 도와주기만 할 뿐 그를 해치지 않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그러므로 성인聖人과 무당의 차이는 아주 작습니다. 생각만 다를 뿐이지요. 나쁜 생각은 사람을 무당이 되게 하고, 좋은 생각은 보살이나 아라한이 되게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특별히 신중해야만 합니다. 우리가 어떠한 방법·법문·종파를 따르더라도 수행자에겐 도덕이 가장 기본적인 조건입니다. 그러나 도덕만 있다고 충분한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도덕이 사람을 이롭게 할 수는 있지만 오직 한 생만을 이롭게 할 뿐 다음 생은 어떻게 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자기의 다음 생도 돌볼 수 없는데 어떻게 다른 사람을 돌볼 수 있겠습니까? 큰 바다에 떠 있는 배처럼 방향 없이 바람 따라 흘러가다 어디로 가야 할지 결정하지 못하고 방향을 잃어버리는 것과 마찬가지로입니다. 이해하겠습니까?

나에게 배우면 도덕적인 사람도 될 수 있고 가야 할 하나의 방향

도 얻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도덕만 있을 뿐이어서 다른 사람을 해탈시키지 못합니다. 도덕적인 일은 본래 마땅히 해야 하는 것입니다. 마땅히 해야 하는 일이니 보시를 많이 한다고 해서 좋은 사람이라는 생각은 하지 마십시오. 꼭 그렇진 않습니다. 어쩌면 전생에 우리가 빛을 너무 많이 저서 지금 돌아와서 갚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우주의 인과 법칙에 의해 우리의 사상과 금전이 시방세계로 흡수되어 버리는 것입니다. 이것은 다 전생에 빛을 진 까닭이지요. 알겠습니까?

작은 비유를 하나 들어 보겠어요. 어제 나는 병문안을 갔다가 돌아와서 씻지도 못했는데, 곧바로 손님이 찾아와서 나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저는 어울락 사람을 무척 좋아합니다. 왜냐하면 제가 대학에 다닐 때 어울락 국적의 동급생이 저를 아주 많이 도와주었거든요. 제가 돈이 없으면 그 어울락 친구는 바로 돈을 주었고, 제게 다른 무엇이 필요하면 곧바로 그것을 주었습니다. 그는 지금 미국에 있습니다.”

어제 나를 보러 왔던 그 손님은 포모사 사람이었어요. 건축사였고 아주 훌륭한 사람이었지요. 게다가 그는 늘 다른 사람들을 돕고 있었는데 왜 그렇게 할까요? 그건 아주 많은 사람들이 일찍이 그를 도왔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그는 자기의 가장 큰 은인은 바로 그 어울락 국적의 대학생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내가 어울락 사람인 것을 보고 첫인상이 아주 좋았다고 했습니다. 보세요. 나까지도 그 어울락 국적의 대학생 덕분에 좋은 영향을 받았어요. 그래서 한 사람이 좋은 일을 하면 온 나라가 영향을 받게 됩니다. 그렇지 않나요?

한 사람이 나쁜 일을 하면 나라 전체에 좋지 않습니다.

그 사람은 일찍이 어울락 사람의 도움을 받았기 때문에 지금은 돈도 있고 권력도 있고 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전에 그를 도왔던 어울락 사람이 곤궁에 빠지자 그는 당장 그 어울락 사람에게 돈을 주었고, 그를 만나기 위해 미국까지 갔던 것입니다. 그가 전에 그 사람에게 입은 은혜를 지금 보답하고 싶었던 것이지요.

마찬가지로 만일 우리가 전생에 사람들의 은혜를 많이 받았다면 이생에 다시 태어나서는 전생의 일을 잊었을지라도 여전히 인과 법칙의 영향을 받아서 돈이 있으면 보시하기를 좋아하는 것입니다. 그 사람(전생의 은인)을 보자마자 아주 좋아하게 되고 마음속으로 ‘왜 그 사람이 그토록 고통스러운 거지? 왜 그 사람이 돈이 없을까?’ 하면서 당장 그에게 쓸 돈을 보내 줍니다. 다른 사람들이 고통 받는 것을 보았을 때 마음이 움직이지도 않으면서 왜 그 사람을 보자마자 마음이 움직이는 걸까요? 그것은 전에 그 사람이 여러분을 도와주었기 때문입니다. 알겠습니까?

일체유심조이므로 어떤 것이든 모두 인과가 합쳐져서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러니 착한 일을 한다고 해서 교만할 것도 없고, 보시를 한다고 해서 대단할 것도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말할길 “오른손이 하는 일을 왼손이 모르게 하라.”고 했습니다. 이것이야말로 진정한 보시인 것입니다. 우리는 태어날 때 아무것도 가지고 오지 않았으며, 세상을 떠날 때도 역시 빈주머니로 갑니다. 이러한 이상 자기가 무엇을 보시한다고 말할 수 있겠어요? 배고픈 사람이 있으면 당연히 그에게 먹을 것을 주어야 합니다. 동물도 그렇게 하지요. 꼭

사람만이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몇몇 대수행자들이 히말라야 산이나 아주 높은 산에 숨어서 수행을 할 때, 먹을 것이 없으면 원숭이가 과일을 가지고 와서 공양을 하고, 작은 새도 과일이나 땅콩을 가지고 와서 공양을 하고, 코끼리도 사탕수수를 가지고 와서 공양을 했다는 이야기를 들어 보았을 겁니다. 동물도 그렇게 훌륭한데 사람인 우리가 어찌 그보다 더 못할 수가 있겠어요? 이해하겠습니까?

보시가 무엇입니까? 그냥 평범한 일일 뿐입니다. 나는 그런 기본적인 것에 대해선 거의 말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말을 할 때도 있지요. 입문할 때 내가 말한 적이 있을 거예요. 그렇지요? 내가 여러분에게 인쇄물 몇 장을 나누어 주며 보시를 하고 계를 지켜야 한다고 알려주었습니다. 이런 것들은 본래 사람이라면 마땅히 해야 하는 일들입니다. 우리가 중생에게 사중은을 입고 있으니 반드시 갚아야만 하는 것이지요. 그러니 전혀 대단할 게 없습니다. 알겠어요?

그러므로 어떤 종교나 종교든 모두 사람들에게 보시를 해야 한다고 격려하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큰승들은 오히려 이 점에 대해서 거듭 강조하지 않습니다. 그냥 한번 말하기만 하면 그만이지요. 나머지는 여러분 자신이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보시를 가장 중요한 일이나 가장 중요한 목적으로 삼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보시를 하려고 해도 끝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세상엔 너무나 많은 고통이 있어서 설사 우리가 억만장자라고 해도 모든 사람을 다 돌볼 수는 없습니다. 최선을 다하기만 하면 되는 것이지요. 우리 가정·부모·국가를 돌보는 것만 해도 훌륭합니다. 우리

가 온 세상을 돌볼 수는 없으니까요.

보시도 일종의 백신통입니다. 사람들을 즐겁게 만드니까요. 우리 힘을 사용해서 사람들이 즐거워지도록 축복하고, 다른 사람을 돕고, 가난한 사람을 부유하게 만들고, 굶어 죽게 된 사람을 풍족하게 만들기 때문에, 이것도 일종의 백신통입니다. 알겠습니까? 우리는 날마다 그런 신통을 펼쳐 보여야만 합니다. 흑신통과 백신통이 무엇인지 여러분이 모른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여러분은 당연히 알고 있습니다. 단지 어떻게 사용해야 하는지 모를 뿐이지요. 오늘 나는 여러분에게 어떻게 백신통을 사용해야 하는지 확실하게 말해 주었습니다.

만일 우리가 백신통을 수행하려고 한다면 여전히 '의의'를 사용해서 수행하게 됩니다. '의의'를 사용한다는 것은 무엇을 가리킬까요? 그것은 바로 일부러 어떤 신통을 부린다는 뜻인데, 이를테면 일부러 사람들을 배부르게 만들고, 일부러 우리 돈을 가져다가 남에게 주며, 일부러 남이 굶어 죽지 않게 하는 것이지요. 또는 일부러 부적에다 주문을 쓰는 것 등을 의미합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백신통은 그야말로 일부러 펼쳐 보이는 신통인 것입니다.

관음법문을 수행하는 것이 가장 높은 등급의 무위신통無爲神通이며, 신구의의를 전혀 사용할 필요 없이 자연스럽게 나오는 신통입니다. 이해하겠습니까? 예를 들어 여러분은 이곳에 오자마자 즐거워지거나 병이 바로 낫기도 하고, 재난이 즉시 사라지거나 스승이 여러분을 구하는 것을 보기도 합니다. 이런 것들은 내가 일부러 하는 것이 아닙니다. 나는 전혀 신구의의를 사용하지 않지요. 나는 변함없

이 이곳에서 늘 하던 대로 강연을 하고, 잠을 자고, 밥을 먹고, 평상시와 완전히 똑같습니다. 그러나 내가 무엇을 하든 여러분에게는 이로움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난 신구의 속에 있지 않으니까요. 나는 그런 '고의적 신통'을 사용하지 않습니다. 꼭 무슨 부적을 써야만 한다면, '의의'를 사용해서 신통을 펼쳐 보일 필요가 없지요. 대체로 생각을 사용하는 것은 여전히 백신통의 범위 안에 있습니다. 나는 백신통을 사용하지 않습니다.

나의 신통은 여러분이 찾을 수도 만질 수도 없습니다. 어떤 사람은 여기에 와서 내가 부적을 써서 태운 물을 자기에게 마시라고 주기를 바랍니다. 그렇지만 나는 아무것도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물을 가져와서 나에게 축복해 달라고 해도 나는 아무것도 축복하지 않습니다. 나는 축복이 무엇인지 모릅니다. 그렇지만 여러분의 병은 저절로 좋아지게 되지요. 그건 여러분 스스로가 자기를 구한 것이지, 내가 뭔가를 축복해 준 것이 아닙니다. 내가 가 버렸는데 무슨 축복을 한다는 겁니까? 축복해 줄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하지만 여러분이 좋아하니 나도 중생의 뜻을 따르는 것입니다.

가피력은 당연히 있습니다. 없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자신도 이 가피력이 아주 유익하고 대단하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나는 결코 아무것도 하지 않습니다. 이것은 완전히 '함이 없이 하는(爲無爲)' 것입니다. 알겠어요?

방금 내가 보시도 일종의 백신통이라고 말했습니다. 그것은 가난한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굶어 죽어가는 사람을 배불리 먹입니

다. 사람들의 병을 치료해 주는 것도 일종의 백신통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것은 일부러 하는 것이지요. 왜냐하면 생각을 집중해야 하거나, 무슨 부적을 써야 하거나, 아니면 어떤 방법을 사용해서 여러분의 신체에 접촉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하기 때문에 여러분의 병이 비로소 좋아지는 것입니다. 백신통을 사용하는 것은 물론 사람들을 이롭게 하지만 나중에 여전히 그 업장을 갚아야만 합니다. 흔적 없이 달아날 방법이 없지요. 이해하겠어요?

왜 업장이 있는 걸까요? 그건 우리가 그 병자의 업장에 개입했기 때문에 반드시 갚아야만 하는 것입니다. 이 업장을 갚기 위해서 어쩔 우리는 얼마 동안 병이 날 수도 있고, 심지어 우리의 생명을 잃을 수도 있습니다. 물론 우리는 다른 사람을 도와 병을 낫게 해주려는 호의에서 한 것이지만 누군가를 다치게 하려고 한 것은 결코 아닙니다. 하지만 병을 고치겠다는 생각은 여전히 '의의' 속에 있고, 아직 삼계를 초월하지 못한 힘입니다. 아직 삼계 안에 있는 한 여러분이 무엇을 사용하든, 그것이 좋든 나쁘든 상관없이, 설령 작은 바늘 하나로 옷을 꿰뚫더라도 반드시 갚아야 하며, 한 푼의 돈을 썼다 할지라도 전부 갚아야만 합니다.

그러나 가장 높은 등급은 아무것도 필요하지 않습니다. 아무것도 필요하지 않지만 오히려 무엇이든 다 있습니다. 이해하겠습니까? 많은 진정한 대수행자들을 한번 보세요. 보기에 그들의 삶이 고달프지요. 예컨대 밀라레빠 존자처럼요. 그가 티베트의 높은 산에서 수행할 때 때로 먹을 것도 없고 입을 옷도 없었지만, 그래도 그는 아주 행복해했습니다. 결코 그가 일부러 자신에게 벌을 준 것이 아니었습

니다. 그가 이미 그 등급을 얻었기 때문에 그에게는 세상의 어떤 것도 필요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만일 아직도 뭔가가 필요하다면, 그것은 이 세상의 인과에 여전히 영향을 받고 있다는 것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만일 우리가 아무것도 필요하지 않다면 우리는 그 어떤 것이든 다 사용할 수가 있고, 인과 또한 존재하지 않게 됩니다. 무엇을 사용하든 내면의 스승이 우리에게 준 것이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반드시 내면으로 물건을 사용하고 내면으로 세상을 봐야지 외면으로 봐선 안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업장 때문에 고통을 받는 것은 바로 생각이 외부로 치달아 능동적으로 살지 못하고 수동적으로 살기 때문입니다. 이해하겠습니까? 진정한 행복과 평안을 얻고 싶다면 능동적인 사람이 되어야지 수동적인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능동적이라는 것은 무엇일까요? 내면의 힘으로 행동하고, 내면의 힘에 의지해서 세계를 보는 것입니다. 이 내면의 힘이 바로 우리 자신의 힘이고, 내가 늘 말하던 '스승의 힘'입니다. 알겠어요? 여러분은 아직 자신의 힘을 완전히 계발하지 못했기 때문에 하는 수 없이 스승의 힘을 빌려서 사용하는 것입니다. 아직 돈을 벌지 못했다면 스승에게 돈을 조금 빌릴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가게를 열어 돈을 많이 벌고 나서는 더 이상 스승의 돈을 쓸 필요가 없겠지만 지금은 잠시 빌려 쓸 수 있습니다. 문제없어요. 막 시작했을 때는 스승의 힘에 기댈 수 있지만 나중에는 여러분 자신의 힘을 사용해야 합니다. 사실 스승의 힘도 여러분 자신의 힘이지만 여러분이 아직 몰라서 스승의 힘을 빌려서 사용하는 것입니다.

내면에 있는 최고의 힘에 의지해서 세상에 대처한다면 우리는

영향을 받지 않을 겁니다. 세상에 의지해서 세상을 대하거나 자신을 대한다면 아주 번거로워지지요. 세상이 무엇입니까? 여러분이 보는 이 세상은 너무나 어지럽습니다. 모든 것이 무질서하며 온통 생로병사의 고통뿐이지요. 날마다 그런 상황을 본다면 우리도 영향을 받을 겁니다. 알겠습니까? 예컨대 전염병에 걸린 사람이 있는데 우리가 날마다 지나치게 그를 가까이하고 돌보다가 만에 하나라도 조심하지 않고 자기를 보호하지 않는다면 우리도 전염되어 환자가 되지 않겠습니까?

이 내면의 힘에 의지해서 생활한다면 능동적인 사람이 됩니다. 우리는 그런 사람을 이미 본래면목을 찾은 사람, 자기 주인을 찾은 사람이라고 합니다. 이른바 ‘자기 주인을 찾았다.’는 것은 바로 이 힘에 의지한다는 뜻입니다. 그렇지만 이 힘을 알지 못하면 어떻게 의지하겠어요? 이해하겠습니까? 그러므로 ‘입문’은 스승이 여러분을 돌보며 여러분에게 이 힘이 어디에 있는지, 날마다 어떻게 그 힘을 사용할 수 있는지를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힘을 많이 사용하면 할수록 더 부유해지죠. 예를 들어 우리가 은행에 많은 돈을 넣어 두고서 찾아 쓰지 않는다면 무엇에 의지해서 생활하겠습니까?

마찬가지로 우리 내면에 비록 큰 힘이 있지만 어디에 있는지도 모르고 날마다 어떻게 사용해야 하는지도 모른다면 우리에게 아무런 소용이 없습니다. ‘입문’은 스승이 여러분에게 어떻게 자기 돈을 꺼내서 사용하는지를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만일 쓰기에 모자란다면 스승에게 조금 빌려 잠시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빌린다고는 하지만 이자를 줄 필요도, 갚을 필요도 없습니다. 내가 다 쓸 수 없으니

여러분이 정말 필요하다면 내게 빌려 갈 수 있습니다. 얼마를 빌려든 전혀 문제될 게 없어요. 억만장자는 가난·손해·파산을 두려워하지 않으니까요.

방금 내가 관음법문을 수행하는 것은 흑신통도 아니고 백신통도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왜냐하면 관음법문은 ‘의의’를 사용하지 않거든요. 삼계 이내의 법문을 수행하는 것이야말로 흑·백신통입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이 지혜나 지식을 이용해서 날마다 이 세상에 대처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자신에게 좋고, 또한 사회에도 좋습니다. 만일 우리가 날마다 나쁜 생각을 하면서 이 사람은 죽어 마땅하고 저 사람은 파산해야 마땅하다고 여긴다면 세상은 당연히 좋지 않겠지요. 그런 것이 바로 흑신통이 되는 것입니다. 알겠습니까?

그러므로 수행을 많이 할수록 더 신중해야 합니다. 좋은 일만을 생각하고, 훌륭한 상황과 계획을 마련하고, 온 세상과 모든 사람들, 그리고 나라를 이롭게 하는 것이야말로 백신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가장 좋은 것은 아무것도 생각하지 않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관음법문을 수행하면 자연히 중생을 이롭게 하고, 자연히 가정과 나라, 그리고 온 세상을 이롭게 하기 때문입니다. 만일 여러분이 관음법문에 입문한 뒤 열심히 수행하고, 내 지시에 따라 매일 적어도 두 시간 반을 명상하기만 한다면, 여러분이 어딜 가든 그곳은 복으로 가득하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스승의 힘이 여러분과 함께 갈 테니까요. 알겠어요? 예컨대 수도관 하나와 아주 큰 강이 있다고 합시다. 그렇다면 그 수도관이 어디로 연결되든 연결되기만 하면 바

로 물이 나오게 되지요. 설령 사막을 관통한다고 해도 문제가 없습니다. 물은 여전히 물이므로 사막에서도 이 수도관을 연결해서 물을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관음법문을 수행하는 것은 바로 이 강과 수도관 같습니다. 스승을 강이라고 한다면, 비록 여러분은 아직 강이 되지는 못했지만 적어도 수도관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수도관을 아무데나 연결시키기만 하면 사람들이 물을 마실 수가 있지요. 꼭 강이 있는 곳에 가야만 물을 마실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수도관으로 연결하면 됩니다. 내 말을 이해하겠어요? 그때는 기도할 필요도 없이 물이 저절로 나오게 되고, 신께 도와 달라고 빌거나 물을 길어 나르거나 ‘인공물’을 만들 필요도 없이 수도관을 연결하기만 하면 곧바로 물을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나요? 수도관은 아주 싸입니다. 수도관은 바로 두 시간 반 명상하는 것입니다. 아주 싸지요.

우리는 하루 스물네 시간 가운데 스무 시간은 세상에 주고, 겨우 10퍼센트밖에 안 되는 시간만을 자기에게 남겨 주는 것입니다. 설마 이것도 못하겠어요? 어리석은 사람이라면 그럴 수도 있겠지요. 신구의를 모두 세상에 주고서 온종일 이 세상을 관찰합니다. 누구는 좋고 누구는 나쁘며, 누구는 괴롭고 누구는 즐거우며, 누구는 가난하고 누구는 병들었다면서 온종일 그들에게 봉사하지요. 집에 돌아가서는 아내가 옷이 있는지 없는지, 아이가 배고픈지 아닌지 살피면서 스물네 시간을 모두 다른 사람들에게 봉사합니다.

설령 여러분이 자신에게 봉사하는 것이라 해도 맞지 않는 말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은 밥을 먹을 때조차도 장사에 관해 고민하느라

방해를 받으니까요. 밥을 먹어도 먹는 게 아니고 잠을 자려 해도 잘 수가 없습니다. 여전히 오늘 일들을 떠올리며 오늘은 사장의 기분이 좋지 않았고, 오늘은 일을 잘하지 못했다는 등의 생각들을 합니다. 그러니 여러분은 결코 진정으로 자신에게 봉사하는 것이 아닙니다. 스물네 시간을 모두 이 세상에 시달리고, 이 세상에 묶이며, 이 세상에 갇혀 있습니다. 여러분은 온종일 세상에 갇혀 있지만 자기 자신은 그것을 모릅니다. 알겠어요?

내가 여러분에게 두 시간 반을 ‘닫고’ 있으라고 가르치면 여러분은 너무 많다고 여깁니다. 두 시간 반을 ‘닫고’ 있는 것은 싫다고 하면서 굳이 스물네 시간을 ‘갇혀’ 있으려고 하다니, 정말 너무 어리석습니다. 알겠어요? 어쩔 듣고서도 반응이 없지요? 여러분은 정말로 유머 감각이 없군요. (대중 웃음) 지금에야 쓴웃음을 짓는 것은 웃는 척해서 나를 기쁘게 하려는 건가요?

여러분은 날마다 스물네 시간을 ‘갇혀서’ 바쁘게 피와 땀과 눈물을 흘리면서도 스물네 시간 내내 괴롭다고 느끼지 않습니다. 내일 여러분이 여전히 세상에 봉사할 수 있도록 내가 여러분에게 두 시간 반 동안 ‘닫고’ 있으면서 자신에게 봉사하고 자기를 회복하고, 자기를 요양하고 자신에게 신구의를 수양할 기회를 주라고 가르치지만 여러분은 싫다고 하지요. 너무 힘들다느니, 명상할 시간이 없다느니 하며 갖가지 변명거리를 늘어놓습니다. 너무 게을러요. 스물네 시간 전부를 오로지 세상을 시중드는 일에만 사용합니다.

사실 시중들 것도 별로 없습니다. 기껏해야 배를 채우고 옷을 입는 것일 뿐 나머지는 전혀 쓸데없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설령 여

러분이 평생 누군가를 시중들며 날마다 가장 좋은 산해진미를 먹고 가장 아름다운 옷을 입힌다 해도, 이것 말고 그 사람에게 해줄 수 있는 것이 뭐가 있겠어요? 백 년 뒤에는 그 사람도 영원한 여관에 가서 잠을 자야 합니다. 그렇지요? 그곳에서 자면서 영원히 돌아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내가 묘지를 영원한 여관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포모사에는 그런 여관이 특히 많습니다. 사람이 많고 땅이 적어서 어디를 가든 영원한 여관을 볼 수가 있지요. 아주 아름답습니다. 때로 나는 출가승들에게 이렇게 말하지요. “만일 우리가 살 곳이 없다고 해도, 포모사에 아름다운 집(묘지)이 이렇게 많은데 무슨 문제가 있겠어요. 여러분은 걱정하지 말아요.” 정말이에요. 살 곳이 없으면 우리는 그곳에 가서 살면 됩니다. 우리가 풀을 베어 주면 주인도 무척 기뻐할 겁니다. 출가자들이 와서 수행하면 복이 있으니 그들도 좋아하겠지요. 문제될 게 없어요. 만일 정말로 살 곳이 없다면 우리는 묘지에 가서 살면 됩니다.

여러분은 내가 살 곳이 없을까 봐 두려워한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나는 그저 아쉬움이 없어서 여러분이 강연을 들으러 올 수 없을까 봐 걱정하는 것입니다. 나 한 사람이야 어디에 살든 두렵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여러분이 모이면 이렇게 많으니 하는 수 없이 마땅한 장소가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내 머리에 벌써 흰 머리카락 한 올이 생겼습니다. (대중 웃음) 여태껏 없었는데 지금 한 올을 찾았습니다. 한 올 반인 것도 같아요. (대중 계속 웃음) 이렇게 많은 여러분 때문에 내 머리에 흰머리가 생긴 겁니다. 그렇지 않다면 우리 출가자의 생활은 정말 단순한 것입니다.

내가 가는 데로 가면 될 뿐 특별히 필요한 게 없습니다. ‘전기’도 필요 없고 ‘등’도 필요 없습니다. 게다가 ‘물’은 어디에나 있으니 걱정 없지요. 포모사 어디에나 있는 수원(水源)에 관을 연결해서 조금 받아다가 집에 가서 쓰면 됩니다. ‘사는 것’은 영원한 여관인 묘지에 살면 되고요. 우리는 그런 일류의 집을 찾아서 살 수 있습니다. 어떤 묘지는 일반 집보다 더 멋지죠. 여러분도 본 적이 있나요? 누구는 백만 대만 달러나 들여 묘지를 짓기도 하는데 난 땅을 살 만한 일만 대만 달러조차 구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출가자들에게는 사는 곳이 별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출가자들은 갖가지 상황에 부딪힐 때마다 어떻게 해야 하는지 모두 배웠지요. 돈이 없으면 어떻게 생활해야 하고, 옷이 없으면 어떻게 만들어야 하며, 밥이 없으면 어떻게 들나물을 찾고, 공양하는 사람이 없으면 어떻게 독립적으로 생활해야 하며, 살 곳이 없으면 어떻게 재료를 구해야 하는지를 모두 배웠습니다. 여러분의 공양에 의지하지 않고도 생활할 수가 있지요.

여러분이 공양하는 것은 자신에게 공양하는 것입니다. 동료 수행자나 나에게 공양한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그래서 공양할 때 그렇게 큰 소리로 과장해서는 안 됩니다. 아직 공양도 하지 않았는데 온 나라가 벌써 다 알지요. ‘내’가 십만 대만 달러를 스승님께 공양하였고, 언젠는 ‘내’가 차를 운전해서 스승님을 맞이하고 보내 드렸다고 말입니다. 그런 것들은 모두 불필요한 것이며, 여러분은 자신에게 공양하는 것입니다.

내가 필요한 것이 뭐가 있겠어요? 나는 하루에 한 끼를 먹거나

많아야 두 끼, 세 끼를 먹지요. 먹는 양도 새끼 고양이의 양과 같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누구에게 공양한다는 겁니까? 나는 여러분의 공양이 전혀 필요하지 않습니다. 보시도 보시랄 게 없고, 공양도 공양이랄 게 없습니다. 모두 자기에겐 공양하는 것이죠. 아쉬람이 없으면 여러분은 나를 보러 올 수도 없고, 강연을 들으러 올 수도 없습니다. 만일 내가 묘지에 산다면 오늘처럼 이렇게 날씨가 좋을 때에는 강연을 들으러 올 수 있으니 괜찮지만 태풍이 몰아치거나 비가 내릴 때에는 나를 보러 올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 여러분이 돈을 공양해서 땅을 사고 아쉬람을 짓는 것은 모두 여러분 자신을 위한 것입니다. 모두 이 점을 알아야 합니다.

나는 아예 이런 말을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은 이제껏 한 번도 “내가 머지않아 땅을 사려고 하니 여러분은 힘닿는 대로 공양해야 합니다.”라고 말하는 것을 들어 본 적이 없을 거예요. 들은 적이 있습니까? 절대 없지요. 나는 수줍음도 잘 타고, 입을 열자마자 돈 이야기 하는 것을 가장 싫어합니다. 게다가 그런 일은 생각조차 할 수 없지요.

어떤 사람은 내가 수행이 아주 높은 사람이라 무엇이든 생각하는 대로 된다는 말을 듣고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스승님, 당신은 왜 돈을 생각하지 않습니까?” 나는 그 말을 듣고 난 뒤에 몇 시간 동안 속이 메스꺼워서 (대중 웃음) 거의 토할 것 같았어요. 정말이에요. 여러분에게 솔직하게 말하겠는데, 나에게 그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을 줄은 상상도 못 했습니다. 더군다나 ‘투띠’(徒弟: 제자)가 그렇게 말했지요. 정말로 ‘투띠’(土地)처럼 (대중 웃음) 지혜가 없었어요. (역주: 중국어

로 제자라는 뜻의 도제와 땅이라는 뜻의 토지의 발음이 비슷함.)

내가 어떻게 돈을 생각할 수 있겠어요? 나는 돈에 대해서 전혀 개념이 없습니다. 여러분은 내가 우체국에 갔을 때 있었던 일을 알고 있습니까? 나는 돈을 잘 셀 줄 몰라서 우체국에 가서 그들에게 돈을 세어 달라고 했습니다. 돈이 너무 많아서 세기가 쉽지 않았거든요. 우체국 직원이 말했지요. “모두 얼마를 가지고 왔습니까? 어떻게 먼저 세어 보지도 않고 그냥 가져왔지요?” 나는 말했습니다. “이곳에 기계가 있으니 나 대신 그 기계로 세는 게 좀더 빠르잖아요.” 그가 말했지요. “이렇게 해선 안 돼요. 사람들이 당신을 속일 겁니다! 대략 구십만 대만 달러라고 했지만, 세어 보니 백만 대만 달러가 넘었어요. 다른 사람이 남은 돈을 가져가 버리면 어떡하러요?” 나는 말했어요. “그럴 리가요! 혹시 가져가더라도 할 수 없지요. 그 돈 역시 포모사 사람의 돈이고, 포모사 사람의 돈을 가져다가 포모사 사람에게 쓰라고 주는 것이니 상관없습니다.”

여러분에게 아쉬람이 없는 것은 여러분 포모사 사람의 공업(共業)이지 나와는 무관합니다. 큰 아쉬람이 생긴다면 그건 여러분의 복이겠지요. 그러면 모두 강연을 들으러 올 수 있겠지만 그 역시 나와는 무관합니다. 나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대중: 없습니다.) 그래서 공양하는 것은 나와는 상관없습니다. 보시를 할 때 ‘내’가 보시한다는 생각을 하지 마세요. 공양하는 것도 과장하지 말고요. 이런 것들은 모두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렇지 않으면 나는 토할 것같이 속이 불쾌해 어찌면 여러분에게 돈을 돌려줘 버릴지도 모릅니다.

공양은 공양한다는 마음이 없어야 할 수 있습니다. 알겠어요?

돈에 집착해서는 안 되죠. 그러면 공양할 필요가 없습니다. 나는 공양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지금 돈이 아주 많아서 다 쓰지를 못하니 다 쓰고 난 뒤에 다시 말합시다. (대중 박수) 사실 나는 본래 이런 일들을 들먹이지 않습니다. 어쩌다 돈이 없을 때가 있지만 여러분은 전혀 모릅니다. 돈이 있을 때라도 내가 말하지 않으면 여러분은 역시 모릅니다. 그렇지요? 나는 이런 일들을 거론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마음을 그런 곳에 두지 않으니까요.

강연을 할 때는 중생을 이롭게 하기 위해서 조금 말하는 것일 뿐입니다. 그렇지 않다면 내가 어떻게 돈을 생각할 수가 있겠어요? 그 제자는 내가 수행이 아주 높아서 뭐든 생각하는 대로 다 가질 수 있다고 여겨 나에게 돈을 생각해야 한다고 건의했던 것입니다. 생각하려면 할 수도 있어요. 생각하자마자 바로 생길 겁니다. 안 생기는 것이 아니지요. 그렇지만 나는 결코 생각할 수 없습니다.

배가 고파야 밥 먹을 생각을 하지 않습니까? 누군가 거의 굶어 죽게 되었다면 그가 온통 무슨 생각을 하겠어요? 음식과 빵을 생각할 게 분명합니다. 먹을 것을 생각하겠지요. 안 그래요? 그런데 그가 배불리 먹고 나서도 여전히 먹을 것을 생각할까요? 배가 부른 뒤에는 산해진미가 있다고 해도 별 관심이 없을 겁니다. 목마를 때 제일 먼저 생각나는 것이 무엇일까요? 마찬가지로 마실 것을 찾아 마시는 겁니다. 만일 벌써 여기까지 (스승님이 목을 가리키심) 가득 차도록 실컷 마셨다면, 누군가 최고급 포도주를 가져다주거나 세상에서 가장 귀한 음료수를 준다고 해도 마시고 싶은 마음이 생기지 않을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래서 돈을 생각하는 사람은 돈을 좋아해야만 생각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 제자는 이런 사실을 잊었던 거지요. 좋아하지 않는 데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배가 부르는데 어떻게 밥 먹을 생각을 하지요? 내가 어떻게 돈을 생각하겠습니까? 나는 그 제자의 말을 듣고서 곧바로 속이 불편해졌습니다. 그 상황 때문이 아니라, 제자가 어떻게 스승을 그런 식으로 생각할 수 있을까 하는 데 대해 구역질이 났던 것입니다. 어떻게 스승에게 돈을 생각하라고 할 수 있을까요? 나는 생각할 수 없습니다. 만일 억지로 생각하라고 한다면 아주 고통스러울 거예요. 벌써 배가 부르도록 실컷 먹었는데 누군가 음식을 더 먹으라고 때리고 툇박하면서 먹지 않으면 죽이겠다고 할 때 정말 고통스러운 것처럼 말입니다.

주제에서 벗어난 말을 너무 많이 하다 보니 지금 무슨 말을 해야 할지 잊어버렸습니다. 너무 늙었지요. 어떤 사람은 나더러 고불古佛이라고 합니다. 너무 오래되다 보니 무슨 말을 해야 할지를 늘 잊어버려요. (대중 웃음) 조금 전 흑신통과 백신통의 상황에 대해서 말했습니다. 그러나 관음법문은 신통을 초월한 법문입니다. 내 생각에 흑·백신통에 대해서는 거의 말을 다 한 것 같으니 이제 나는 좀 쉬어도 될 것 같군요. 여러분, 질문 있어요? 나에게 흑신통을 펼쳐 보여 줄 사람이 있습니까? 아니면 백신통을 보여 주겠어요? 당신은 (지룡의 한 동수를 가리키심) 아직도 신통을 닦고 싶나요? 날마다 무슨 신통을 닦지요? 흑인가요, 아니면 백인가요? (그 동수 대답: 잘 모르겠습니다.) 여러분은 날마다 흑·백신통을 펼치고 있지만 잘 모르고 있을 뿐입니다.

내가 여러분에게 수행 일기장을 나누어 준 것은, 여러분이 흑·백 신통의 힘을 어느 정도까지 발휘하고 있는지 스스로 점검하라는 뜻입니다. 알겠어요? 자기가 날마다 흑신통과 백신통을 얼마만큼 사용하는지를 살펴보세요. 수행 일기를 쓴다는 것은 바로 이런 의미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엉망진창으로 하면서도 스스로 알아채지 못하고, 또 자기를 제어하지도 못합니다. 나쁜 일을 하는 것이 흑신통이고, 좋은 일을 하는 것이 백신통입니다. 알겠습니까? 신통이 무엇인지 모른다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누구라도 다 알지요. 다만 자기를 제어하지 못하고 올바르게 사용할 줄 몰라서 흑신통을 백신통보다 많이 사용하다 보니 오히려 자기를 해치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을 해치고 나면 그 뒤의 결과는 자기에게 오게 됩니다. 우리가 세세생생 생로병사의 고통이 있는 것은 백신통을 모른 채 너무 많은 흑신통을 사용했기 때문입니다. 흑신통을 많이 알수록 우리의 생활은 더욱 힘들어지죠. 만일 어떤 사람의 생활이 너무 힘들고 고통스럽다면 우리는 그의 업장이 너무 무겁다고 말합니다.

업장이 무엇입니까? 바로 나쁜 결과입니다. 그것은 그 자신이 만든 것이고, 지금 그에게 달려와 안부를 묻는 것이지요. 무슨 뜻인지 알겠습니까? 그렇지만 그가 기억을 못 하기 때문에 고통스러워하며 원망을 하는 것입니다. 그 모든 것이 자신이 전에 만들어 놓은 상황임을 안다면 원망하지 않을 거예요. 그렇지만 거의 모든 사람들에게는 숙명통宿命通이 없기 때문에 다 잊어버리는 것입니다.

숙명통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과거의 생활을 볼 수 있는 것입니

다. 제2세계로 갈 수 있다면 과거의 생활을 볼 수가 있지요. 그렇지만 미래의 생활은 제5세계에 간 뒤에나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의 모든 점쟁이들이 여러분이 언제 죽을지, 언제 돈을 벌고, 언제 손해 보며, 언제 결혼할 것인지 따위의 일들만 점칠 수 있는 것이지요. 기껏해야 이번 생의 미래만을 말할 수 있을 뿐입니다. 예컨대 앞으로 몇 년 안이나 한평생의 일만 말할 수 있을 뿐이고 다른 것은 모르지요. 여러분이 죽은 뒤에 어디로 가는지는 점칠 수가 없습니다. 알겠어요?

몇 안 되는 사람들만이 이 세상을 떠날 때의 상황을 점칠 수 있습니다. 설령 점칠 수 있다 해도 그 당시 곧 발생할 일만을 말할 수 있을 뿐이지요. 이를테면 누군가를 본 뒤에 이렇게 말합니다. “현재 그는 지옥에 갔습니다. 현재 그는 천당에 갔습니다.” 기껏해야 이런 정도일 뿐, 그가 나중에 어떻게 될지는 전혀 모릅니다. 천당이나 지옥에서 무엇을 하는지는 아예 모르며, 언제 천당을 떠나고, 언제 지옥에서 벗어나게 되는지는 더더욱 모릅니다. 이런 일들은 몇몇 사람만이 압니다. 오직 제5세계에 간 사람만이 무슨 일이든 다 알지요. 그들은 과거·현재·미래를 마치 책을 보듯 한장 한장 넘겨 봅니다.

제5세계 사람은 비록 우리의 과거·현재·미래의 모든 생을 다 볼 수가 있지만 말하지 않습니다. 말한다면 우리 수행 과정과 수행 능력에 영향을 주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여러분이 날마다 명상하며 수행하는데 내가 “당신은 전생에 모모 폭군이었습니다.”라고 알려준다면 여러분은 분명히 견디기 어려울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만일 내가 여러분에게 “당신은 전생에 양귀비였고, 당신은 서

시西施였습니다.”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그러나 현재는 여러분이 너무 못생겨서 마치 동시東施처럼 보인다면, (대중 웃음) 여러분의 심정은 겨울처럼 시리고 괴로우며 견디기 힘들 것이 분명합니다. 그렇지요? 과거 서시였던 때에 집착하게 될 겁니다.

큰스승들은 모두 이런 일들을 말하지 않습니다. 알고 싶다면 열심히 수행해서 제5세계에 가세요. 그러면 분명하게 알 겁니다. 제3세계와 제4세계를 초월하여 제5세계에 이르게 되면 우리의 과거·현재·미래의 모든 생활을 알게 되며, 자기 자신의 생활을 결정할 수도 있습니다. 예컨대 사바세계에 내려와서 중생을 제도할 수도 있고, 제6, 제7, 제8, 제9, 제10, 11, 12, 13……의 무량무변한 세계에 가서 놀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수동적이 아니라 능동적으로 됩니다. 알겠습니까?

관음법문을 수행하지 않는 사람이나 아무런 수행도 하지 않는 사람은 모두 이 세계에 의해서 ‘움직입니다’. 그래서 ‘수동’이라고 말하는 것이죠. 알겠어요? 이를테면 어떤 무당(巫師)이 사용한 흑신통에 모함을 당했다가, 나중에는 다른 무당이 사용한 흑신통으로 구제되기도 합니다. 또 다른 사람이 사용한 흑신통 때문에 병을 얻었다가, 나중에 다른 곳에 가서 백무당(白巫師)이 사용한 신통으로 병이 낫기도 합니다.

나는 일찍이 내가 귀의했던 어울락 스승에 대해 말하면서 그분의 여동생이 사람들을 위해 병을 고치던 이야기를 여러분에게 들려준 적이 있습니다. 그녀도 출가자로서 아주 많은 병을 고칠 수 있었고, 많은 신통이 있었지만 이제는 더 이상 신통을 사용해서 사람들의 병

을 고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하더라도 얼마 동안 사람의 몸만 구할 수 있을 뿐 영혼을 영원히 구할 수는 없다는 것을 알았으니까요. 백신통을 사용하여 사람을 구한다 하더라도 아주 많은 번거로움이 생깁니다. 반드시 다른 사람의 인과에 개입해야 하고, 다른 사람을 대신해서 업장을 짊어줘야 하지요. 그래서 이제 그녀는 사람 들더러 의사에게 가라고 권합니다.

수동적인 중생은 아주 고통스럽습니다! 때로 우리는 돈이 없으면 아주 괴롭다고 느끼죠. 맛있는 것을 먹지 못하는 것도, 좋은 옷을 입지 못하는 것도 고통스럽다고 느낍니다. 그렇지 않아요? 그렇지만 광친 노스님은 오히려 산에 살 때 가장 행복한 사람이었습니다. 비록 그는 돈도 한 푼 없고 옷도 낡아서 떨어졌으며, 또 먹을 것도 없이 몇 주, 심지어는 몇 개월을 아무도 만나지 못하고 원숭이나 호랑이·뱀, 작은 새 같은 동물들과 함께했지만 가장 행복한 사람이었지요.

그는 돌아와서 중생을 제도하면서부터 고통스러워졌습니다. 알겠습니까? 그는 먹지 않으려고 했지만 제자들이 계속 그에게 음식을 먹도록 강요했습니다. 무척 고통스러웠을 거예요! 그렇지요? 그는 왕생하기 전에 “만일 이 밥을 먹는다면 일주일을 더 머물러야 한다. 나는 먹지 않겠다.”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그는 이 세상을 그렇게 많이 ‘아끼고 사랑’했지만 일주일 더 머무는 것마저도 원하지 않았기에 기어이 먹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범부는 광친 노스님의 육신을 계속해서 억지로 남아 있게 했습니다. 그럴 필요가 없지요. 만일 그에게 훌륭한 제자

가 있어서 그의 가르침을 계승할 수 있다면 그가 이 세상에 남아 있는 것과 다를 바 없습니다.

이제 여러분이 흑신통을 수행하든 백신통을 수행하든 그건 여러분 마음입니다. 나는 할 말을 다 했어요. 여러분은 날마다 수행하고 싶은 대로 수행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나는 여러분에게 흑도 없고 백도 없는 관음법문을 수행하는 것이 제일 낫다고 건의하고 싶군요. 내면의 음류가 자연스레 이 세상을 깨끗이 씻고, 우리 업장도 깨끗이 씻을 겁니다. 음류의 힘이 자연스레 세상을 정리할 거예요.

우리 자신을 정리하는 것이 바로 세상을 정리하는 것입니다. ‘일체유심조’이니까요. 알겠습니까? 노자도 같은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는 “‘하나’를 얻은 뒤에는 모든 것을 얻게 된다. 세상이 모두 좋게 변할 것이다.”라고 말했습니다. 이렇게 말하지 않았나요? 내가 번역을 잘 못하긴 했지만 여러분이 『도덕경』을 보면 알 겁니다. (『도덕경』 제39장: 昔之得一者, 天得一以清, 地得一以寧, 神得一以靈, 谷得一以盈, 萬物得一以生, 侯王得一以爲天下貞.)

‘하나’를 얻었다는 것이 무엇일까요? 바로 불성佛性을 얻었다는 것이고 내면의 천국을 얻었다는 것이며, 자기의 본래면목, 자기 내면의 힘을 얻었다는 것입니다. 이 음류가 바로 우리의 본래면목이고, 우리의 힘입니다. 지금 우리는 그 가운데 아주 조금만을 봤을 뿐 최대의 것은 보지 못했습니다. 아직 더 높은 등급이 있지요. 우리의 본래면목에는 아주 많은 부분이 있습니다. 알겠습니까? 어떤 사람은 작은 한 부분만 배우고는 무당이 됩니다. 만일 좀더 좋은 부분을 배운다면 백무당이 되겠지요. 전부 배웠다면 부처가 되고 예수 그리

스도가 되며, 도를 얻은 노자 등이 될 겁니다. 내 말을 이해하겠어요? 우리는 완벽한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무엇이 완벽한 사람입니까? 재가자라면 가정을 잘 돌보고, 나라를 사랑하며, 열심히 자신의 책임을 다하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그래도 시간을 내서 이 큰 도(大道)를 알아야만 완벽한 사람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완벽한 사람은 아주 쉽게 될 수 있습니다. 석가모니 불만이 아니라 우리도 될 수가 있지요. 나와 함께 수행하기만 하면 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 세상을 소홀히 하는 것도 아니고, 가정을 돌보지 않는 것도 아닙니다. 여전히 남편과 아내를 돌보며 일도 합니다. 다만 좀더 총명해져서, 날마다 10퍼센트의 시간을 아껴 신구의를 바르게 하고 우리의 우주를 바르게 하며 우리의 마음을 바르게 한다면 세상이 자연히 좋게 변하리라는 것을 아는 것뿐입니다. 왜냐하면 ‘일체유심조’이니까요. ‘일체유심조’인데 우리가 자기 마음을 바르게 하지 않는다면 무얼 더 바르게 하겠어요?

그렇지만 거의 모든 사람들이 밖에서 구하려고 합니다. 이 사회를 바꾸고 전쟁 등을 해야만 세상이 평화롭고 행복하게 된다고 여기지요. 사실 전쟁을 하면 할수록 세상은 더 엉망이 되고, 사회를 바꾸려고 하면 할수록 세상은 더 좋지 않게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세세생생 참으로 많은 사람들이 우리 사회를 바꾸려고 생각했지만 여전히 바꾸지 못했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것은 자기 자신을 바꾸지 못해서입니다. 중국인은 모두 공자가 말한 도리를 알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논어』, 『대학』, 『중용』을 읽었지만 실천하지는 못

했습니다. 그래서 세상이 여전히 혼란스럽고, 중국도 평화롭지 못한 것입니다.

우선 자신을 닦고 나서야 가정을 다스리고 나라를 다스리며 천하를 다스리게 됩니다. 자신을 닦지 않으면 집안을 다스릴 수가 없습니다. 한 집안이 어지러우면 두 집안이 어지러워지고, 결국 모든 집안이 어지러워져서 나라마저도 어지러워지는 것입니다. 나라가 어지러우면 세상은 당연히 평화롭지 않겠지요. 그래서 자신을 닦는 것이 가장 중요하고, 가장 기본적인 것입니다. 자신을 닦지 않으면서 나라를 다스린다는 말이나 천하를 평정한다는 말은 할 필요가 없습니다. 다스릴수록 더욱 혼란스러워질 테니까요. 공자가 그렇게 분명하게 말했지만 아무도 해내지 못했습니다.

여러분은 자신을 닦는다고 생각하는데 도대체 무엇을 닦는다는 겁니까? 날마다 이 육체를 보하기 위해 몸보신하듯 아주 많은 보약으로 자신을 닦긴 합니다. 허약한 곳이 생기면 그곳을 보하기도 하고, 병이 나면 수술을 한 뒤 축난 곳을 보하기도 하지요. 어떤 사람은 폐병에 걸렸다고 돼지의 폐를 먹기도 합니다. 그렇게 하면 폐를 보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뇌에 병이 있으면 돼지나 소의 뇌를 먹는데, 사람들은 그것이 뇌를 보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만일 어떤 사람에게 심장병이 있다면 아마도 돼지의 심장을 가져다가 보할 겁니다. 그렇지요? (어떤 사람: 그렇습니다.) 내가 그냥 한 말인데도 그렇다는 건가요? (대중 웃음)

그런 것들은 모두 내가 생각해 낸 것입니다. 아직 조사해 보지는 못했지만 내가 이렇게 생각한 것도 다 이유가 있습니다. 어릴 적에

나의 어머니는 항상 많은 것들을, 이를테면 간·폐·신장·심장 같은 것들을 국수와 함께 섞어서 끓였습니다. 그리고는 나에게 먹으라고 주었지요. 어머니는 그것을 먹으면 전신을 보할 수 있다고 말했어요. (대중 웃음) 그녀가 음식들을 볶기 시작하면 나는 곧바로 십리 밖으로 달아났습니다. 도무지 쳐다보지도 못하겠는데 어떻게 몸을 보할 수가 있겠어요? 그래서 나는 아주 말랐습니다. 보기만 해도 무서웠으니, ‘보補’하는 것이 아니라 ‘포怖’하는 것이었지요. (역주: 보한다는 ‘보’와 두려워한다는 ‘포’의 중국어 발음이 비슷함.) 너무 무서워서 나는 감히 볼 수가 없었어요.

여러분 중 어떤 사람은 심장을 먹으면 심장을 보하고 폐를 먹으면 폐를 보한다고 여깁니다. 보하고자 한다면 좀더 좋은 것으로 보하세요. 이것은 동물의 심장이지 사람의 심장이 아니니까요. 여러분이 사람의 심장을 보하고 싶다면 사람의 심장을 먹어야 맞습니다. (대중 웃음) 보하려면 정확히 보해야 하지요. 여러분은 감히 사람을 죽여서 먹을 수 있겠어요? 사실 살인할 필요도 없습니다. 묘지에 아주 많이 있으니까요. (대중 웃음) 듣기에 메스껍지 않아요? 그런데 돼지도 먹으면서 어떻게 사람은 먹을 수 없다는 겁니까? 죽은 후에는 돼지나 사람이나 모두 똑같은 고깃덩어리입니다. 우리 몸을 보하려면 사람의 몸을 사용해서 보해야지 어떻게 동물 고기를 사용해서 보하는 겁니까? 그렇게 하면 갈수록 동물을 닳아갈 텐데 어떡하죠?

무엇을 사랑하면 그것으로 변하게 됩니다. 알고 있습니까? 오리나 개를 기르는 사람들을 보세요. 자신이 기르는 애완동물과 갈수록 닳아가지 않습니까? 본 적이 있나요? (어떤 사람: 있습니다.) 동물을

먹고 난 뒤에도 갈수록 그들과 닮아갈 겁니다. 정말 골치 아픈 일이죠.

사람의 몸을 보하려면 사람 고기를 먹어야만 합니다. 이렇게 한다면 포모사의 묘지가 붐비는 문제도 해결될 수 있을 거예요. (대중 웃음) 사람을 먹을 수 없다면서 어떻게 돼지는 먹을 수가 있지요? 모두 똑같은 고깃덩어리인데요. 사람을 먹는 것은 적어도 우리와 가깝고 익숙하잖아요! 사람의 신체는 남녀의 차별만이 있을 뿐 화학적인 구조도 서로 비슷합니다. 그렇지만 이 문제도 해결할 수가 있습니다. 남자는 남자를 먹고 여자는 여자를 먹으면 됩니다. (대중 웃음)

나는 여러분이 앞으로 돼지고기를 먹지 않기를 바랍니다. 정말 보하고 싶으면 묘지에 가서 자기와 같은 무리를 먹어야 합니다. 이 건 농담이에요. 정말 그렇게 고기를 먹고 싶고 메스껍지 않다면 드세요. 이미 돼지도 먹을 수 있으니 당연히 사람도 먹을 수 있겠지요. 중생을 먹으나 친척을 먹으나 다 똑같습니다. 다를 게 뭐가 있겠어요? 돼지나 소는 본래 맛이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그렇게 많은 조미료를 첨가하는 것입니다. 그렇지요? (대중: 그렇습니다.) 그것들이 정말로 맛이 있다면 고기를 구울 필요가 전혀 없지요. 자르면서 날로 먹으면 되니까요. 그렇지만 맛이 없고 메스꺼우며 더럽기 때문에 할 수 없이 먼저 깨끗이 씻은 다음 아주 많은 조미료에 어느 정도 담가서 불결한 맛을 제거한 뒤에야 먹는 것입니다. 알겠습니까? 고추·오향·후추 같은 향기만 남아 있고 돼지의 맛이 전혀 남아 있지 않게 되었을 때, 그제야 여러분이 겨우 먹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나에게 “고기가 아주 맛있다.”라고 말하지 마세요. 그것

은 자기를 속이는 것입니다. 만일 생선이 맛있다면 바다에서 생선을 막 잡아 올렸을 때가 가장 신선할 텐데, 왜 그때 먹지 않는 것입니까? 집에 가져와 깨끗이 씻고, 곁에서부터 속까지 가르고, 다시 꼬리며 머리 같은 안 좋은 부분들을 모두 잘라내고, 마치 초콜릿처럼 한 조각 한 조각 토막을 내고 나면 (대중 웃음) 물고기의 모습이라곤 도무지 찾아볼 수 없게 됩니다. 거기에 다시 소금·오신채·파 또는 다른 맛있는 것들을 더해서 끓이고 나면 아예 생선을 먹는 것이 아니라 그 조미료를 먹는 것이나 다를 바가 없지요.

그러니 나에게 “생선이 맛있다.”라고 말하지 마십시오. 조금도 맛있지 않습니다. 만일 여러분에게 살아 있는 물고기를 잡아와서 먹으라고 한다면 여러분은 감히 먹을 수가 없을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닭이나 오리 또는 새도 마찬가지로 모두 더럽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그렇게 깨끗이 씻고, 모습이 변할 때까지 몇 시간을 끓이고 찌고 굽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면 이것이 돼지고기인지 뭘지 전혀 알 수가 없고 비스킷처럼 보이기만 해서 아주 아름답지요! 어떤 사람은 거기다가 더 많은 색을 첨가하기도 합니다. 울긋불긋 아주 보기 좋게 해야 팔려 나가니까요. 그렇지 않습니까? 식당 사람들은 우리를 붉게 물들이고, 돼지도 붉게 물들입니다. 붉으면 붉을수록 사람들이 더 사길 좋아하지요. 이것은 무엇을 뜻할까요? 그런 것들이 본래 전혀 맛이 없다는 것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알겠어요?

쌀밥은 우리가 씻어서 익히기만 하면 먹을 수가 있습니다. 소금을 넣지 않아도 아주 맛있습니니다. 어떤 사람은 맨밥만 먹기도 하는

데 그래도 아주 향기롭지 않습니까? 채소도 마찬가지입니다. 소금을 치지 않더라도 그냥 먹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요즘은 채소를 심는 사람들이 농약을 너무 많이 사용하거나, 또는 분노를 거름으로 주기 때문에 그리 깨끗하지가 않아서 익혀 먹는 것입니다. 그래서 중국 사람들은 습관적으로 꼭 채소를 익혀서 먹습니다. 사실 채소는 본래 생으로 먹을 수 있습니다. 생으로 먹을 수 없는 게 거의 없죠. 왜냐하면 채소는 본래 아주 깨끗하고 맛있으니까요. 향도 좋고 맛도 좋은 데다 여러 가지 비타민도 많이 들어 있습니다.

과일도 마찬가지입니다. 인공 조미료를 넣을 필요 없이 직접 그대로 먹을 수가 있습니다. (스승님이 배를 한 입 베어 드심) 정말 맛있습니니다. (대중 웃음) 만일 내가 새 한 마리를 잡아서 이런 식으로 먹는다면 여러분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내가 공중에 활을 쏘아 새 한 마리를 잡아서 입을 벌리고 베어 문다면 여러분은 속이 메스꺼워지지 않겠습니까? (대중: 그렇습니다.) 왜 그럴까요? 왜냐하면 우리의 잠재의식이 이것은 먹을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지만 지금까지 사람들에게 속아 와서 바꿀 수가 없으며, 사람은 본래 채식을 한다는 것을 잊어버린 것입니다. 그러나 정말로 잊은 것도 아닙니다. 만일 정말로 잊었다면 누군가 살아 있는 동물을 먹는 걸 봤을 때 어떻게 구역질이 나겠어요? 내 말을 이해하겠습니까?

왜 여러분은 새를 먹는 것과 배를 먹는 것이 다르다고 느끼는 걸까요? 왜냐하면 우리 잠재의식이 동물을 먹는 것은 옳지 않고 과일을 먹는 것이 옳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내가 생야채를 먹

는다고 해서 메스껍다고 느끼지는 않을 겁니다. 그렇지요? (대중: 그렇습니다.) 나에게 당근을 주세요. (스승님이 직접 생으로 드시는 것을 대중에게 보여 주심) 무슨 말을 하고 나면 바로 시범을 보여야 여러분이 다르다는 것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만일 내가 지금 펄펄 살아 있는 닭을 집어 들고 바로 먹는다면 여러분은 좋다고 느끼겠습니까? (대중: 좋지 않습니다.) 당연히 좋지 않습니다. 아주 무서울 거예요. 그렇지요? (대중: 그렇습니다.)

하지만 일반 사람들은 닭을 깨끗이 씻어서 털도 다 뽑고 다시 사지를 잘라 두부처럼 한 조각씩 만들어서 소금을 약간 넣고 향신료를 사용해서 재운 다음 (대중 웃음) 두세 시간을 끓인 뒤에는 자기를 속이며 먹을 수 있게 됩니다.

당근은 생야채지만 아주 맛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것이 바로 우리가 먹을 수 있고, 또 먹어야만 하는 우리의 음식 재료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아주 익숙하게 느껴지고 놀랍지도 않으며 무섭지도 않은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동물을 먹을 때는 좋지 않다고 느낍니다. 비록 안 좋다는 것을 알면서도 왜 먹는지를 모릅니다. 왜냐하면 아버지 어머니가 먹었고, 세세생생 모든 사회, 모든 나라에서 먹었기 때문에 너도나도 먹는 것이죠. 만일 먹지 않는다면 모두들 이상하다고 느낄 테니 다른 사람들 때문에 먹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모두 ‘수동적’으로 변해서 ‘능동적’일 수가 없는 것입니다. 알겠습니까?

여러분은 무엇을 먹을 것인지 스스로 판단하지 못합니다. 먹으면 왜 메스껍게 느끼는지도 모르면서 결국 계속 먹습니다. 이렇게

하는 것이 자연스럽다고 느끼면서도 (스승님이 당근을 한 입 베어 무심) 감히 먹지 못합니다. 이것은 모두 압력 때문에 여러분이 자신을 작은 흰 토끼로 만든 것입니다! (대중 웃음) 가정의 압력, 친구의 압력, 국가·사회·세상의 압력을 받아서 자유롭지 못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남자들은 자기가 대장부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조금도 대장부답지 않습니다! 아주 작아요. 소장부입니다! (대중 웃음) 왜냐하면 아내가 채식을 못 하게 하면 채식할 엄두를 못 내니까요. 아버지 어머니가 억지로 고기를 먹게 하면 여러분은 먹습니다. 사회에서 친구들과 사업을 할 때 그들 모두 고기 먹고 술을 마시면 여러분도 먹지 않고선 못 배깁니다.

왜냐하면 사업이 여러분의 생명보다 중요하고, 여러분의 자유로운 생각보다 중요하며, 여러분의 독립적인 힘보다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은 자신을 잃어버리고, 자신의 영혼을 사회에 팔고 사업에 빠집니다. 여러분이 주인이 아니고 사업이 여러분의 주인이 됩니다. 여러분이 사장이 아니고 여러분의 사업과 사업상의 친구가 사장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말하는 대로 여러분이 따르니까요. 그들이 감정도 없는 돈을 여러분에게 가져다주기만 하면 여러분은 만사 오케이입니다. 술 마시는 것도 오케이, 고기를 먹는 것도 오케이, 독약을 먹는 것도 역시 오케이입니다.

술과 고기는 다 독약입니다. 여러분도 옳지 않다고 느끼죠. 그래서 고기를 깨끗이 씻어서 한 조각씩 잘라서 비스킷처럼 만들어 자기를 속입니다. 그런 다음 구워서 울긋불긋하게 색을 바르고 많은 향신료를 넣은 다음에야 먹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근본적으로

이런 음식들을 먹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뜻합니다. 그러나 당근은 그대로 먹을 수 있고 무엇을 첨가할 필요가 없습니다. 밥도 마찬가지로, 토마토·과일, 어떤 채소도 다 마찬가지로입니다.

어울락에 '장산長山'이라는 아주 큰 산이 하나 있습니다. 아주 길고 길어서 남쪽에서 북쪽까지 이어져 있습니다. 계다가 아주 깊고 깊는데, 어떤 사람들은 그 깊은 산속에 숨어서 수행을 합니다. 옷 몇 벌과 씨앗만 가지고 산에 들어가서 그곳을 개간하고 채소를 심지요. 채소만 먹을 뿐 밥도 없습니다.

이런 일은 정말 있습니다. 내 첫 번째 스승이 들려준 이야기에요. 그의 친척이 산에 숨어서 수행을 하는데, 한두 벌의 옷만 있을 뿐 소금도 없고, 밥도 없고, 향신료·조미료·오신채, 작은 고추 같은 것이 하나도 없었다고 합니다. 그들은 날마다 똑같이 채소를 뜯어다가 끓여서 먹었고, 그렇게 한평생을 보냈습니다. 그들은 채소를 먹기 때문에 다른 뭔가를 첨가할 필요가 없었어요. 알겠습니까?

어울락에는 전에도 그런 수행자들이 아주 많이 있었습니다. 그들이 자신을 별주려거나 일부러 고행하려던 것이 아니라, 상황이 자연스럽게 그렇게 된 것이었습니다. 그들은 매우 자유로웠고, 있으면 있는 대로 먹고 전혀 신경을 쓰지 않았지요. 그들이 억지로 고행을 한 것이 아니에요. 만일 억지로 고행한다면 아무것도 얻을 수 없고, '괴로운 부처(苦佛)', '너무 괴로운 부처(太苦佛)'가 될 겁니다. 중생이 된 것으로도 이미 충분히 괴로운데 부처가 되어서도 그렇게 괴롭다면 누가 부처가 되고 싶겠어요? 나는 괴로운 부처가 되고 싶지 않고 행복한 부처가 되고 싶습니다. 만일 그럴 필요가 없는데도 억지

로 고행을 한다면 그것은 거짓으로 꾸미는 것입니다.

겉모양에 의지해서 수행하면 ‘외면의 부처’가 됩니다. ‘내면의 부처’가 될 수 없고, 불성을 얻을 수도 없습니다. 예컨대 여러분의 집이 아주 부유하고, 자신이 돈을 벌어서 독립적인 생활을 할 수 있으며, 가족들도 여러분의 수행을 간섭하지 않는 데도 여러분이 날마다 일부러 아주 적게 먹고, 일부러 자기를 아주 마르게 해서 사람들이 여러분을 보고 모두 “정말 대수행자 같다.”라고 찬탄한다고 합시다. (대중 웃음) 그러면 결국 뭐가 되겠어요? ‘여원 부처’, ‘배고픈 부처’, ‘보기 흉한 부처’가 될 텐데 이러면 안 되겠지요!

그들이 고행하는 것은 아마도 상황이 그렇기 때문일 것입니다. 게다가 그들은 아주 자유로워서 고생스러워도 고생스럽다고 느끼지를 않지요. 광친 노스님과 같습니다. 그는 산에서 수행할 때 고생스럽다고 느끼지 않았으며, 결코 일부러 고행한 것도 아닙니다. 알겠어요? 우리 수행이 그런 정도에 도달했을 때는 이미 고해(苦海)를 넘은 것입니다.

그래서 고행이라고 해도 고행이랄 것이 없습니다. 만일 일부러 자기를 벌주려 한다면 틀림없이 수행도 잘 못하고 사도(邪道)를 걷게 될 겁니다. 예를 들어, 지금 우리가 이 좋은 곳에 살 수 있는데도 내가 굳이 살지 않겠다고 하면서 제자들더러 모두 도랑에 가서 함께 살자고 한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느끼겠어요? ‘저 스님이 미쳤나 봐. 좋은 곳이 있는데도 살지 않고, 굳이 바깥에 있는 도랑에 가서 살다니!’라고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만일 부처가 되기 위해서라면, 그렇게 해선 부처가 될 수 없습니다. 혹여 될 수 있다고 해도 ‘괴로운 부처’

가 되겠지요. 아무도 ‘괴로운 부처’와 수행하고 싶지 않을 거예요. 부처는 행복해야 합니다.

무엇이 있으면 있는 대로 사용하는 사람이 자유로운 사람입니다. 무엇을 얻을 생각으로 일부러 자기의 상황을 바꿔서는 안 됩니다. 그러면 뇌물이 되는 거죠. 알겠습니까? 이러는 것도 일종의 흑신통입니다. 왜냐하면 자기의 ‘의혹’을 사용해서 이 자연적인 힘을 강요하고, 신에게 우리의 말을 듣도록 강요하니까요. “날 성불시켜 주지 않으면 굶어 죽을 거예요.”라고요. 이는 마치 어린아이가 사탕을 주지 않으면 숙제를 하지 않거나 잠자리 가지 않는 것과 같습니다. 부처에게 뇌물을 주어도 성불할 수가 없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경찰에게 돈을 뇌물로 주고, 어떤 수행자들은 ‘에고’의 힘을 사용해서 자신들이 빨리 성불할 수 있게 해 달라고 불보살에게 강요합니다. 이러한 것은 모두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 관음법문을 수행하는 사람들은 아주 자연스럽습니다. 그렇지 않나요? 갈수록 무언가를 먹고 싶은 생각이 들지 않지요. 여러분 재가자들도 느낄 수 있을 거예요. 만일 열심히 수행한다면 고행할 필요 없이 저절로 미련이 없어질 겁니다. 알겠어요? 밥을 먹어도 무슨 맛인지 느끼질 못하죠. 가끔 맛이 괜찮다고 느끼긴 하지만 갈수록 적게 먹고, 잠도 적게 잡니다. 부부관계도 별로 생각이 없어지고요. 수행을 많이 할수록 세상 모든 것이 별게 아니라고 느껴집니다. 있는 대로 입고, 있는 대로 먹으며, 전처럼 그렇게 까다롭게 굴지도 않지요. 설령 내일 세상을 떠난다고 해도 괜찮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왜 우리가 이 세상을 그토록 좋아하는 것일까요? 아마도 우리가 이 세상에서 우리를 행복하게 해줄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것을 알기 때문일 것입니다. 우리는 늘 아내나 남편을 찾게 되면 좀더 행복해질 테고, 돈을 많이 벌면 좀더 행복해질 거라고 여깁니다. 우리가 온갖 방법을 시도해 보는 것은 모두 행복을 찾기 위해서이죠. 탐진치貪瞋痴도 행복을 위해서입니다. 내 말뜻을 이해하겠어요? 사실 이것도 진짜 탐진치가 아니에요. 이른바 “번뇌는 보리이다.”라는 것이 바로 이 뜻입니다.

왜 우리가 여자를 탐하는 걸까요? 그건 우리가 그녀와 이야기를 하면 좀더 행복해질 것 같다고 여기기 때문입니다. 왜 남자를 탐하게 되는 것일까요? 그건 그와 이야기를 하면 아주 편안해질 것 같아서이지요. 다들 마음속으로 ‘그(그녀)와 결혼하면 틀림없이 생활이 바뀌고 더욱 행복해질 거야.’라고 생각하겠지만 이삼 년만 지나면 바로 달라진다는 것을 예상하지 못합니다. 이런 것들은 모두 사람을 속이는 것입니다. 모두 겉모양일 뿐이지요. 알겠습니까?

아직 결혼이나 약혼하기 전에는 남자 친구가 이렇게 말할 겁니다. “오! 당신의 머리카락은 정말 검고 아름다워!” 결혼하고 삼사 년이 지나면 이렇게 말하겠죠. “오늘 만든 음식은 도무지 맛이 없어. 게다가 어떻게 머리카락 한 올이 탕 속에 떨어져 있는 거지? 아주 불결하군!” (대중 웃음) 결혼 전에는 시시때때로 여러분을 칭찬할 겁니다. “당신은 정말 아름다워. 초승달 같은 눈썹에 봉황 같은 눈!” 결혼한 지 몇 년이 지나면 이렇게 변합니다. “날마다 이런 것을 발라 봤자 무슨 소용이 있어? 이리저리 발라 봐야 조금조금 할망구지. (대중

웃음) 당신이 울긋불긋 칠하는 걸 기다리다가 두 시간이 지나도록 문을 나서지 못했어. 당신이 출가한다면 정말 좋겠어!” (대중 웃음)

이쯤 되면 여러분은 나에게 달려와 울며불며 하소연하겠지요. “저는 출가하겠습니다.” 하고요. 하지만 그런 사람은 나도 싫습니다. (대중 웃음) 만일 외출하는데 화장을 두 시간이나 한다면 출가 생활에도 적합하지 않습니다. 나에게 출가하는 사람은 동작이 아주 빨라야 합니다. 나는 성격이 급해서 만일 외출한다면 5분 안에 출발해야 합니다. 따라오지 못하는 사람은 센터에 남겨 놓지 기다리지 않습니다. 이것은 이미 습관이 되었어요.

나는 외출(出門)하는 것은 아주 빠르지만 유명(出名)해지는 것은 아주 두려워합니다. 너무 유명해지면 피곤해져서 몸이 견디질 못할 겁니다. 날마다 당근과 배만 먹는데, 이려고서 어떻게 그렇게 많은 학생을 거둘 수가 있겠어요? 아마도 앞으로는 고기 먹고 술을 마셔야만 힘이 날 것 같습니다. (대중 웃음) 왜냐하면 여러분은 고기를 먹어야만 힘이 나고 당근을 먹으면 힘이 나지 않는다고 말하니까요. 그렇지 않습니까? (대중: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에게 농담한 거예요! 좋습니다! 이제 자유로움에 대해서 이야기하겠어요. 자유로워지려고 하면서 왜 내가 여러분에게 채식을 하라고 할까요? 자유로우면 될 것을 왜 고기를 먹어서는 안 되는 걸까요? 우리는 자유로울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다른 중생을 해쳐서는 안 되죠. 마땅히 그들도 자유로울 수 있도록 해주어야 합니다. 이해하겠습니까? 담배 피우는 사람을 예로 들면, 그가 담배 피우는 것을 좋아한다면 그것은 그의 권리이지만 다른 사람들이 담배 냄새

를 말도록 강요할 수는 없습니다. 알겠어요? 그래서 담배 피우는 사람이 아주 이기적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고기를 먹는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들은 아주 '자유로워서' 고기를 먹고 싶으면 먹습니다. 고기를 먹는 것이 다른 중생의 생명을 해치는 것이란 생각은 못 합니다. 다른 중생도 죽임을 당할 때 고통을 느끼지만 사람처럼 말을 하지 못하기 때문에 아무도 그들의 생명을 구해 주지 않습니다. 하지만 어떤 동물은 눈물도 흘리지요. 동물의 고기를 먹는 것은 아주 이기적인 행위입니다. 우리가 자유로운 것은 맞습니다. 그렇지만 다른 중생도 자유롭게 해줘야만 합니다. 그들이 살고 싶어하면 살게 해줘야지 강제로 목을 베어서 그 살을 먹어서는 안 됩니다. 알겠습니까? 동물들은 원망하고 저항하며 소리 칠 거예요. 그렇지만 우리는 이해하지 못하고, 들으려고도 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들에게 왜 사람처럼 말을 하지 않고 '닭의 언어'나 '소의 언어'를 사용하느냐고 하면서 내가 어떻게 알아듣겠느냐고 탓을 합니다. 그러니 그들을 죽여도 상관없다고 말하지요. 누가 대만어를 하지 말라고 했냐고 하면서요. 설령 동물이 중국어를 할 줄 안다고 해도 이미 살생하는 것에 익숙해져 버린 여러분은 들으려고도 하지 않을 겁니다.

이런 자유와 진정한 자유는 다릅니다. 자유는 이기적인 것이 아닙니다. 자유란 우리 자신이 자유로워 어떤 일에도 묶이거나 방해받지 않고, 어떤 것에도 연연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다른 중생의 자유로움도 허락해서 그들을 강제로 죽이거나 강제로 우리 뱃속에서 살도록 해선 안 되는 것이지요. 어쩌면 우리 뱃속이 아주 아름

다울 수도 있겠지만 동물은 그곳에 사는 것을 좋아하지 않으니 강제로 그들에게 와서 살라고 해서 안 됩니다. 그들은 밖에서 사는 것을 좋아하고 그게 더 자연스럽습니다. 여기저기 날아다니고 뛰어다니면서 자신들의 남편·아내·아이들과 함께 놀 수 있도록 말이지요. 우리가 우리 가족과 함께 나가 노는 것을 좋아하는 것과 같습니다. 그러므로 '자유롭다'고 해서 고기를 먹는 것과 채식을 하는 것이 같다고 말해서는 안 됩니다. 완전히 다릅니다.

좋아요! 오늘 너무 많은 말을 했습니다. 두 시간 넘게 했군요. 질문이 있나요? 반대하는 사람 있습니까? 내가 말한 것이 모두 옳다는 거군요. 그렇습니까? (대중: 그렇습니다.) 여기에서 "예."라고 대답했으니 돌아가서도 그대로 하십시오. 날마다 명상을 더 많이 하고 더 많이 관음하며, 텔레비전은 적게 보고 자기의 본래면목을 더 많이 보도록 하십시오.



2장

뱀벌레

2장

뱀 벌레

1987. 6. 7. 포모사 타이베이 무량광 명상센터

저번 주에는 송충이 이야기를 했었지요. 이번 주에는 뱀 벌레 이야기를 하겠어요. 여러분 모두 뱀을 알지요? 뱀 한 마리가 있는데, 우리가 있는 이곳으로 항상 기어 들어왔어요. 만일 문틈을 막아 놓지 않았더라면 지금도 날마다 들어올 겁니다. 그 뱀은 불을 끄고 명상을 하려고 할 때마다 왔어요. 번번이 그랬지요. 지금은 들어오지 못하게 했습니다.

하루는 나의 사조師祖(사공의 스승, 세속적으로는 증조부와 같은 의미)가 제자와 놀러 갔다가 산에서 곧 숨이 끊어질 것 같은 뱀을 보았답니다. 아직 죽지 않고 살아 있었는데도 그 뱀의 몸속에서 수많은 벌레들이 기어 나와 그 살을 먹으면서 여기저기를 기어 다니고 있었대요. 여러분은 그런 상황을 본 적이 있나요? 본 적이 없다 해도 상상할 수는 있겠지요. 그 뱀은 굉장히 고통스러워했습니다. 죽지도 못하고 살지도 못하는 가운데 수많은 벌레들이 자기 몸속에서 기어 나

왔으니까요.

불교 경전에도 사자벌레가 사자의 살을 먹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 이야기는 불교인이나 불교 출가자들이 자기들 스스로 불교를 망친다는 뜻을 담고 있지요. 석가모니불은 그런 일들을 미리 알고 있었습니다. 그는 말법시대가 되면 그런 종류의 수많은 사자벌레들이 사자의 살 속부터 파먹으면서 나올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비교적 손쉽게 사자를 없앨 수 있지요. 다른 동물들은 감히 사자를 잡아먹지 못하는데 오로지 사자의 몸속에서 자라난 사자벌레만은 손쉽게 사자를 잡아먹을 수 있다는 겁니다. 이 이야기는 조금 있다 하든가 다른 날 다시 하도록 하고, 지금은 조금 전에 했던 뱀 벌레 이야기로 돌아가겠어요.

그런 뱀 벌레들은 어디에서 온 것일까요? 물론 뱀의 몸속에서부터 자라난 것입니다. 뱀의 살이나 눈을 먹으니 그 뱀이 너무 끔찍하고 고통스러워 보였지요. 이런 광경을 차마 볼 수가 없었던 제자가 스승에게 물었어요. “이 상황을 바꿀 수는 없습니까?” 나의 사조가 그에게 말했지요. “바꾸려고 하지 마라. 이것은 그들의 인과이다. 이 뱀은 전에 좋지 않은 스승이었지. 거짓으로 깨달은 스승 말이다. 자기가 깨달은 스승이라고 거짓말을 해서는 수많은 사람들을 해탈할 수 없는 길로 이끌고, 그들이 사도邪道를 닦게 하였지. 그가 짜스승은 죽은 뒤에 뱀이 되었고, 그 벌레들은 지난날 그를 따르던 제자들인데 지금 양값음을 하려고 온 것이다. 스승과 제자 모두 해탈하지 못해 되돌아온 것이지. 그의 제자들은 그 가짜 스승이 자신들을 해탈할 수 없도록 만든 것을 증오했기 때문에 뱀 벌레로 다시 와서

그의 뇌를 먹고 그의 살을 먹는 것이다.” 이처럼 우리가 사람들을 영망으로 가르친다면 그 결과는 정말 무서운 것입니다.

입문식이 있을 때마다 내가 여러분에게 사람들을 가르치러 가서는 안 된다고 신신당부하는 것을 모두 알고 있겠지요. 스승이 되고 나서야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으며, 또는 스승이 여러분에게 사람들을 가르치라고 시켰을 때야 가르칠 수 있습니다. 나는 항상 여러분에게 말합니다. “나는 깨달은 스승(明師)이 아니다.”라고요. 무엇이 ‘밝다(明)’는 거지요? 별로 밝은 게 없잖아요! ‘사(師)’는 곧 ‘잃는다(失)’는 것입니다. (역주: 사(師)와 실(失)의 중국어 발음이 같음.) 머리카락을 잃었잖아요. (삭발출가하였다는 뜻.) 그래서 ‘사(師)’가 되었어요. (대중 웃음)

어울락에서는 삭발출가한 사람이면 ‘사(師)’라고 존칭합니다. ‘사공(師公)’은 나이든 스님을 부르는 말이고요. 그들이 ‘사(師)’라고 부르는 건, 이곳에서 ‘화상(和尚), 또는 ‘비구니’라고 하는 것과 같은 의미예요. 어울락에서도 ‘비구·비구니’라고 부르기도 하지만 아주 드뭅니다. 그들은 모두 ‘사(師)’라고 부르지요. ‘사고(師姑)’는 ‘비구니’를 뜻하는 것이고, ‘사부(師父)’는 ‘비구’를 뜻하는 말입니다. 아니면 간단하게 ‘사(師)’라고 한 글자로만 부르지요.

내가 항상 말했듯이 내가 제자를 받아들인 것은 모두 나의 스승님이 그렇게 하도록 시켰기 때문입니다. 나는 전에도 그럴 생각이 없었고, 지금도 여전히 원하지 않습니다. 만일 여러분 가운데 누구든지 이 일을 원하고 또 이 일을 해낼 수만 있다면 나는 당장 바꾸고 싶습니다.

사실 스승이 되었다고 해서 무슨 좋은 점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사람들이 나에게 머리 숙여 절하는 것을 보고 내가 아주 기뻐할 것이라고 착각하지 마십시오. 아닙니다. 나는 조금도 좋아하지 않아요. 그래도 어떤 사람들은 스승 노릇 하는 것을 무척 좋아하지요. 출가도 하지 않고 또 별로 배운 것도 없으면서 스승 노릇 하는 것은 무척 좋아합니다.

내 제자들 가운데도 그런 사람이 몇 명 있어요. 그들은 예전부터 심하게 마장에 걸려 있었지요. 그런 사람들은 나도 가르칠 생각이 없지만 거절해서도 안 되잖아요. 보살계(菩薩戒)를 받고 보살도(菩薩道)를 행하는데 분별심이 있어서는 안 되니까요. 그래서 여러분은, 내가 근본적으로 가르칠 만한 가치가 없는 사람들인데도 여전히 다른 사람들과 똑같이 가르치는 것을 자주 보게 되는 겁니다. 때로는 여러분도 “왜 그런 마장에 걸린 사람을 가르치십니까? 그 사람은 아직 제대로 배우지도 않았는데요!”라며 나에게 불평을 합니다. 그때 그 제자는 아주 심하게 마장에 걸려 있어서 금방이라도 죽을 것 같았어요. 그래서 곧장 나에게 와서 도움을 구했던 겁니다. 그런데 마장에 걸렸던 상황이 가까스로 좀 좋아지자 다시 돌아가서 사람들을 가르쳤고, 가르치면 가르칠수록 영망이 되었지요.

한 제자가 나에게 와서 말했습니다. “제가 들으니 어떤 동수들은 돌아간 뒤로 그 사람에게 가서 배운다고 합니다. 어떤 주문을 외우는데, 외우면 외울수록 등급이 떨어져서 아주 낮은 등급까지 떨어졌다고 합니다. 그 동수는 본래 등급이 아주 높아서 높은 경지에 가서 보살이나 스승님을 뵈고 그곳에서 놀 수 있었지만, 그 주문을 외우기 시작한 뒤부터 등급이 낮아져서 이수리와 지옥의 경지까지 떨어

졌다고 합니다.”

여러분은 그 사람이 외운 주문이 무엇인지 압니까? 바로 능엄주였어요. 게다가 여러 가지 다른 주문들도 있었어요. 그들은 반드시 능엄주·천도주·왕생주 같은 많은 주문을 외워야만 한다고 말했어요. 주문이 나쁜 것이 아니라 법을 전하는 사람이 잘못된 것입니다. 그 사람이 마장에 걸려 있어서 그의 제자들에게도 전염을 시킨 것이지요. 그래서 외우면 외울수록 영망이 되고 등급 또한 낮아져서 나중엔 함께 지옥에 떨어지는 것입니다.

중생을 천도하는 일은 그리 간단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지장법문을 수행한다고 했습니다. 지장보살은 지옥에 있으니 여러분이 그런 법문을 수행한다면 당연히 지옥으로 내려가겠지요. (대중 웃음) 문제는 우리가 지장보살인지 아닌지, 지장보살이 우리에게 법을 전해 준 것이 맞는지, 지장보살의 힘을 가지고 있는지, 우리의 일이 지옥에 있는 것인지에 달렸습니다. 만일 우리가 수행해서 어떤 과위果位를 성취했다면, 아라한과阿羅漢果를 얻었든 무슨 보살과菩薩果를 얻었든 그에 맞는 힘을 갖추게 됩니다. 천당에 가기를 발원할 수도 있고, 지옥이나 다른 세계에 가서 누군가를 구하는 일도 거뜬히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 아무런 수행의 성취도 없으면서 사람들에게 존경받고 싶어하고, 여기저기 다니면서 함부로 말하고, 많은 사람들을 가르치기까지 하니, 당연히 주문을 외우면 외울수록 등급이 떨어지는 것이지요. 아주 많은 귀신과 마귀들이 몰려 와서 그들을 혼란스럽게 만들고 그들의 복을 원하지만 그들의 복 또한 충분하지 않으므로 갈수록 병이 드는 겁니다.

하루는 그 사람의 제자들이 나를 보러 왔는데, 나는 그들을 보자마자 깜짝 놀랐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전에 항상 나를 보러 왔을 때는 얼굴이 아주 밝게 빛났고 문제도 없었는데, 오랫동안 나를 보러 오지 않고 또 그런 사람에게서 배운 뒤로는 달라져 버렸으니까요. 그래서 그들을 보자마자 나는 정말 깜짝 놀랐습니다.

이제는 그들도 좋아졌어요. 두려움을 알았고 자기들이 잘못했다는 것도 알아서 감히 다시는 그 주문을 외우지 않습니다. 스스로 체험을 했으니까요. 그들이 나에게 이렇게 말했어요. “저는 앞으로 다시는 그 주문을 외우지 않을 겁니다. 이제야 스승님이 가장 높으시다는 것을 알았어요. 저희는 이미 진정으로 스승님의 법문을 이해했습니다. 관음법문이야말로 가장 높은 법문입니다.” 그들은 지금 아주 기뻐합니다. 다시는 그런 사람에게 배울 엄두도 내지 않을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이 도를 얻기 전에는 사람들을 가르치지 마십시오. 그렇게 하는 것은 남을 해치기만 할 뿐입니다. 정말 그래요. 아직 많은 공덕을 얻지 못했거나 등급도 별로 높지 않다면 사람들을 가르치지 마세요. 남도 해치고 자신도 해치니까요. 게다가 우리가 에고를 가지고 사람들을 가르친다면 더욱 망치게 됩니다. 결국에는 그들의 업장을 짊어지게 될 뿐만 아니라 무형 중생의 업장도 짊어지게 됩니다.

설령 그들을 대신해서 업장을 짊어진다고 하더라도 그들을 반드시 구할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그들의 업장이 너무 많기 때문에 조금 짊어지는 것은 별 소용이 없을 뿐만 아니라 우리 스스로를 해치

기도 합니다. 오직 큰 바다만이 어떤 것이든 다 씻어 버릴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 있는 한두 컵의 물만으로는 기껏해야 아주 작은 부분만을 씻을 수 있을 뿐이지요. 한두 컵의 물은 별 소용도 없으며, 오히려 갈수록 더러워져서 어떤 것도 깨끗하게 씻을 수 없게 됩니다. 비록 큰 바닷물이라고 해도 더러운 것을 이제 막 씻기 시작했을 때는 그 주변이 잠시 오염되어 더러워지지요. 하지만 그것은 잠시일 뿐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 곧바로 깨끗하게 회복됩니다.

그래서 큰스승이라 해도 중생의 입장을 짚어지면 역시 문제가 생깁니다. 없는 게 아닙니다. 다만 아주 빨리 지나가 버리지요. 입장을 짚어진다는 것은 다른 사람을 이롭게 하는 것이어서 큰스승에게 무슨 큰 장애가 되지는 않습니다. 영향이 조금 있기는 하지만 심각한 문제가 생기는 것은 아니지요. 하지만 복이나 공덕이 아직 충분하지 않은 사람이라면 자기 자신도 쓰기에 부족한데 다른 사람을 도우러 가니, 둘 다 빛지는 게 당연합니다.

나의 스승이나 사공·사조들을 보면, 너무나 많은 사람들을 구했기 때문에 때로는 병이 나기도 했습니다. 이를테면 아무런 이유도 없이 기침을 한다거나 목이 아프고, 배가 아프기도 하지요. 이것은 모두 중생의 입장을 소화하기 위해서입니다. 소화할 때 몸도 당연히 영향을 받아서 피곤해지거나 병이 나는 것입니다.

나의 사공이 때로 너무 심하게 병이 나서 일어나지도 못할 것 같다가도 강연할 시간이 되면 마치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나와서 강연을 하고, 강연을 마치고 집에 돌아오면 다시 쓰러졌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는 자신을 잠시 자유롭게 할 수 있었기에 잠깐 동안

이 병에서 벗어난 것이지요. 그래야만 했으니까요. 강연을 마치고 다시 돌아와서는 여전히 그 병을 감내해야만 했습니다.

이것은 마치 내가 강연을 할 때는 노란색 법복을 입어야 할 필요가 있지만 내 방에 돌아와서는 다시 바꿔 입는 것과 같습니다. 그렇게 해야 좀더 홀가분하지요. 결코 하루 종일 이 옷을 입고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 참을 수 없겠지요. 나는 본래 차려입는 것을 그다지 좋아하지 않지만 한번 입어 보는 것도 아주 재미있어요. 별일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먼 곳에서 왔으니 나도 예의를 갖추기 위해서 이런 옷을 입는 겁니다. 이렇게 해야 좀더 정중하고, 나의 존경심도 나타낼 수가 있지요. 좋은 옷을 입는 것은 여러분을 존경해서입니다. 그렇지 않다면 잠옷을 입고 왔다 갔다 해도 상관이 없겠지요. 그래서 누군가 올 때마다 나는 장삼을 입고 내려와서 이야기를 나누는데, 이것은 나의 존경심을 표시하기 위해서입니다.

때로는 스승의 병이 가짜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다른 사람이 자기 병을 스승의 몸에 내던졌기 때문이지요. 마치 끈적끈적한 풀이 스승의 몸에 붙는 것과 같아요. 더러 내가 어떤 사람을 보면 바로 불편함을 느낄 때가 있습니다. 반대로 그 사람은 나를 보자마자 편안함을 느끼지요. 서로 교환을 하니깐요. (대중 웃음) 마치 장사를 하는 것과 같아서 그 사람은 업장으로 나의 복을 삼니다. 결국 나는 그의 입장을 받고, 그는 나의 복을 받지요. 나는 전문적으로 복을 파는 사람입니다. 업장만 있다면 바로 와서 살 수 있어요! (스승님 웃으심) 그래서 상대는 즉시 편안함을 느끼고, 반대로 나는 곧바로 불편함을 느낍니다. 그러나 괜찮습니다. 어쨌든 반드시 한 사람은 쓰레기를

치워야 하나까요.

우리 사회에 전문적으로 쓰레기를 치우는 사람이 있듯이 우주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수행하는 데도 마찬가지여서 반드시 누군가 쓰레기를 치우는 일을 책임져야만 합니다. 평소 우리가 밥을 다 짓고 난 뒤에도 그릇과 솔을 닦고 바닥을 쓸어야 하는 것처럼 말이예요. 다만 그런 업장을 소화하려면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야만 합니다. 당장 소화시킬 수 있는 것이 아니지요. 그렇지 않다면 불공평할 겁니다. 인과는 인과여서 어쨌든 피할 수가 없습니다.

어떤 사람은 나에게 “제가 스승님을 뵈자마자 병이 바로 나왔습니다. 이런저런 병이 다 나왔어요.”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나는 그에게 말하지요. “그래요! 이미 알고 있으니 말할 필요 없어요. 계속 그렇게 말하면 난 당신이 너무나 부러울 거예요.” (스승님 웃으심) 이따금 어떤 사람은 나에게 와서 “저는 명상해도 선정禪定에 들 수가 없습니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나는 “좋아요! 지금 다시 가서 명상을 해보세요.”라고 말하지요. 그러면 그 사람은 곧바로 선정에 듭니다. 그 사람은 선정에 들지만 나는 오히려 마음이 가라앉지 않습니다. (대중 웃음) 명상이 끝나면 그 사람은 말하지요. “방금 명상이 아주 잘 되었습니다.” 그러면 나는 “됐어요! 말하지 마세요. 계속 그렇게 말하면 당신이 부러울 거예요. 당신이 명상이 잘 될 때, 나는 오히려 마음이 가라앉지 않았어요. 아주 더웠지요.”라고 말합니다. 사실 이 정도는 괜찮습니다. 이 정도는 본래 아주 일반적인 일이니깐요.

우리가 물로 더러운 그릇을 닦거나 바닥을 닦으면 그 물이 아주 더럽게 변하지 않던가요? 바닥을 닦을 때 물이 갈수록 더러워진다는

것을 여러분은 알 겁니다. 처음에는 물이 아주 깨끗했지만 온 집안의 더러운 것들을 닦은 걸레를 물속에 담그니 당연히 아주 더러워질 밖예요. 그렇지만 물통 안의 더러운 물을 흐르는 물속에 부어 버린다면 얼마 지나지도 않아서 더러운 물은 온데간데없이 사라집니다. 그렇지 않나요? 우리가 막 물을 버렸을 때에는 흐르는 물도 잠시 더러워지지만 조금 지나면 바로 없어지지요. 전처럼 다시 깨끗해집니다. 왜냐하면 물이 아주 많아서 더러운 것들을 모두 흡수 버리기 때문에 빨리 깨끗해지는 것입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사람들이 바닷속에 쓰레기를 버리지만 우리는 바닷물이 더러워진 것을 보지 못합니다. 아마도 막 버렸을 때는 잠시 더러워진 것을 볼 수 있겠지만 그 뒤로는 볼 수 없습니다. 그렇지요? 마찬가지로, 스승이 되는 사람은 아주 많은 물을 가지고 있어야만 합니다. 충분히 깨끗하지 않을 때 자기 스스로를 씻어서 곧바로 깨끗해질 수 있어야 합니다. 내 말뜻을 이해하겠어요? (대중: 이해합니다.)

그러니 스승이 되면 아주 좋고, 많은 이로움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사실 하나도 없습니다. 하지만 좋은 점이 없어도 반드시 해야만 하지요. 만일 우리가 무슨 일을 하는 것이 모두 너무 좋기만 해서 한다면 무슨 말할 가치가 있겠습니까? 예컨대 우리가 누군가를 무척 좋아하는데 그 이유가 그 사람이 아주 잘해 주기 때문이라면 그게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일찍이 예수 그리스도도 말했습니다. “만일 너희가 형제자매나 친척만을 사랑하고 존경하며 너희 원수는 미워하고 증오한다면, 이것이 무슨 가치 있는 일이겠느냐?”

그렇게 하는 것은 수행하지 않는 사람과 다를 게 없습니다. 그렇지 않은가요?

우리가 진정으로 수행하는 사람이라면, 설사 업장이 아주 무거운 사람이라 할지라도 구해야만 합니다. 포모사에 사는 수많은 사람들은 몇 십 년 동안 살생을 하고 물고기 잡는 일을 했으며, 또 그렇게 오랫동안 생선 장사나 고기 장사를 했지만, 결국에는 모두 나를 찾아와서 입문을 했습니다. 어떤 사람은 나에게 말하지요. “그런 사람들은 입문을 시키지 마세요. 그런 사람들은 정말 입문시켜 줄 가치가 없어요. 스승님께서 그들을 입문시켜 주신 뒤엔 언제나 지치셔서 돌아가실 것만 같잖아요.” 그렇지만 그들의 업장이 아무리 무거워도 입문은 시켜 줘야만 합니다. 그들이 지난날을 뉘우치고 직업을 바꾸기만 하면 됩니다. 스승은 분별심이 있어서는 안 되지요.

포모사는 비교적 작아서 일자리를 찾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생활상의 문제를 해결하거나 살아가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원하지도 않는 일을 억지로 하게 되었지요. 결국에는 그들도 후회를 하거나 뉘우치고 수행을 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업장은 여전히 존재하기 때문에 오직 아주 큰 공덕이 있지 않고서는, “나는 후회해. 이제부터 다시는 이런 일을 하지 않을 거야. 그러면 된 거야. 아무 일 없어.”라는 말 몇 마디로 업장을 모두 씻어 버릴 수 있다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그렇게 쉽지가 않아요. 반드시 물을 사용해야만 그런 더러운 곳들을 씻어 버릴 수 있습니다. 그러니 스승이 되려고 한다면 중생의 업장을 소화할 능력이 있어야만 합니다. 그렇지 않다면 그들에게 아미타불을 외우라고 가르치기만 하면 되는 것이지 너무 과장

해서 뭔가를 가르쳐서는 안 됩니다.

조금 전 이야기했던 그 사람도 내 흉내를 내서 사람들에게 자기의 눈을 보라고 시켰습니다. (대중 웃음) 여러분은 그가 누구인지 짐작할 수 있을 테니 말할 필요가 없겠지요. 내가 독일에 갔을 때 그의 상황이 너무 안 좋아서 자칫하면 죽을 뻔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날마다 내 오디오테이프를 몸에 지니고 다니며 걸으면서도 듣고 잠잘 때에도 들었어요. 오디오테이프에 매달려선 떨어질 생각을 못 했지요. 그는 곧 죽을 것만 같았습니다. 그가 예전에 천도하는 일을 했던 탓에 그때 그에게 너무 많은 마귀들이 찾아왔거든요. 입문하고 나서 그에게 다시는 천도하는 일을 하지 말라고 시켰지만 내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마귀에게 잡히고 말았지요. 나중에 그는 무서워서 아무것도 못 했어요. 어디에 있던 항상 내 오디오테이프를 들었고, 앞뒤 좌우 할 것 없이 내 사진을 가득 놓아두었지요. 게다가 독일까지 전화를 해서는 나를 보러 꼭 오겠다고 했어요. 그는 곧 죽을 것만 같아서 돈이 얼마가 들더라도, 그리고 무슨 문제가 있고 또 무슨 번거로움이 있더라도 나를 꼭 보러 오겠다고 했습니다. 정말로 그는 참을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렇지만 나는 이렇게 말했어요. “독일에 오지 마세요. 내가 있는 이곳의 절은 여자 혼자만 있으니, 만일 당신이 여기에 와서 머문다면 아주 불편할 거예요. 며칠 있으면 내가 곧 돌아갈 겁니다.” 그가 남자 동수였기 때문에 오지 말라고 했던 겁니다.

이렇게 해서 마침내 그가 살아났습니다. 전화 통화를 마치자마자 즉시 좀 나아졌지요. 그 다음 내가 포모사로 돌아오기를 기다렸

다가 나에게 한동안을 배우고 나서 더욱 좋아지게 되었어요. 하지만 시험에 들더니 당장 떠나 버렸지요. 우리 수행은 모두 이 예고의 장애 때문에 진보할 수가 없는 겁니다.

지금도 그는 예전처럼 계속 사람들을 영망으로 가르치고 있습니다. 가르치면 가르칠수록 더 나빠져서 모두 어둡고 캄캄한 지옥만 볼 뿐 좋은 것이라고는 조금도 없습니다. 요즘 듣자하니 그가 다시 돌아오고 싶어한다던데, 이제는 내가 원치 않습니다. 너무 피곤하거든요. 그렇게 골치 아픈 사람은 '그의 스승'에게 돌보라고 하는 게 낫습니다.

지장보살은 지옥을 돌보는 보살입니다. 그것이 그의 일이지요. 지장보살은 그곳에 살면서 전문적으로 지옥 중생들을 가르칩니다. 지금 우리는 사바세계에 살고 있어서 아직 지옥에 가 본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것을 수행해서 무엇하겠어요? 지옥의 일은 누군가 하고 있습니다. 굳이 우리가 여기에서 그곳까지 떨어져 내려가서 그들을 가르칠 필요가 없지요. 게다가 복이 아직 충분하지 않으니 그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능엄주도 마찬가지입니다. 재가자는 외우지 않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외우기 시작하면 골치 아픈 일들이 많이 생길 거예요. 심지어 출가자들조차도 외우면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출가자는 이미 이 세상을 내려놓았기 때문에 그들의 친구의가 재가자들보다는 깨끗합니다. 그래서 출가자들에게는 적어도 그런 공덕이라도 있습니다. 더군다나 출가자는 진정으로 도를 구하려고 하기 때문에 천룡팔부天龍八部가 그들을 보호합니다. 그래서 출가자가 외운다면 그럭저럭 문

제가 없지요. '부처'를 대표해서 외우는 것이지 결코 '예고'를 가지고 사람들을 천도하려는 것이 아니니까요. 만일 출가자가 '내가 중생을 천도한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다면 역시 아주 골치 아파지겠지요. 하물며 재가자가 아직 무슨 수행을 한 것도 아니면서 사람을 가르치려 하고 중생을 천도하려 하다니 듣기만 해도 정말 난감해지는군요. 모든 것이 다 이 '예고' 때문입니다.

포모사에는 이런 사람들이 아주 많습니다. 그래서 모두 미치는 겁니다. 그런 사람들이 나에게 올 때는 벌써 정신이 나간 상태라서 구하기가 아주 어렵습니다. 그들은 다른 사람들에게도 영향을 끼쳐서 전체적으로 좋지 않은 분위기를 만듭니다. 심지어는 포모사 전체가 그런 귀신이나 마귀, 또는 음기陰氣의 영향을 받지요. 그러니 이곳에서 사람을 가르치는 것은 실제로 아주 어렵습니다. 정말 골치 아픈 일들이 많지요.

평소에 내가 강연을 하러 가는 곳은 어디든 문제가 있습니다. 어느 곳이든 문제없는 곳이 없어요. 타이베이에도 문제가 있고, 평후나 타이난도 마찬가지입니다. 적은 수의 몇몇 사람이라면 별 상관 없지만 많은 사람들이 강연을 들으러 오기만 하면 즉시 문제가 생기지요.

이것은 마귀가 참을 수가 없게 되었다는 뜻입니다. 그들의 궁전이 흔들리고 무너져 버려서 살 곳이 없어지니까 조급해지고 긴장한 겁니다. 그래서 그들은 복이 부족한 사람이나 마음이 별로 단순하지 않은 사람을 이용해서 스승의 일을 방해하고, 스승의 가르침을 헛갈리게 하며 파괴하려고 합니다. 그렇지만 그렇게 간단하지가 않

지요. 포모사에 수행하려고 하는 사람들과 단순하고 깨끗한 사람들이 아직도 많이 있는 한 그들은 우리를 무너뜨릴 수 없습니다.

한 사람만 수행해도 수백 수천 명을 이롭게 할 수 있습니다. 현재 포모사의 인구가 이천만 명인데, 한 사람이 수행했을 때 천 명이 이익을 얻는다고 가정하고 계산을 해보면 이만 명 정도는 입문을 해야만 되겠군요. 그러나 여러분은 더 노력해야만 합니다. 집에 돌아가 거든 신문에 광고를 내세요. (대중 웃음) 우리는 만 구천 명 정도가 더 필요하다고요. 이만 명이 되면 나는 더 이상 제자를 받지 않겠어요. (대중 웃음)

나의 스승께서는 “만일 한 사람이 6개월마다 두 명을 데리고 와서 입문을 시킨다면, 십 년이나 이십 년이 지난 뒤에는 온 세계가 다 입문을 하게 될 것이다.”라고 하셨어요. 사람이 계속 늘어나니까요! 한 사람이 두 명을 데리고 오면 그 뒤로 다시 저마다 두 명씩을 더 데리고 올 테고, 이런 식으로 두 명, 두 명씩 계속 늘어나게 됩니다. 입문한 사람은 모두 두 명을 데리고 올 테니, 결국에는 모두 입문할 수 있습니다. 6개월에 두 명, 3개월에 한 명이면 되지요. 여러분이 3개월에 몇 명을 데리고 올 수 있는지 돌아가서 시험해 보세요. ‘서서히’, 그리고 ‘빨리빨리’ 끝마치도록 하세요. (대중 웃음) 지금은 말법시대라서 시간이 좀 촉박하니까요.

이 섬은 아주 작습니다. 지도상으로 보면 정말 작지요. 가끔씩 나는 ‘어쩔 이렇게 작은 곳에서 이리도 북적거리면서 그렇게 많은 일들을 할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작은 곳에 뜻밖에도 사람이 살고, 어떤 사람은 강연을 하고, 어떤 사람은 동물을 잡아먹고, 또 어

떤 사람은 아주 큰 절을 지으며, 참으로 많은 일들을 합니다.

세계지도를 보면 포모사는 거의 보이지도 않습니다. 너무 작아 보이지도 않지만 사람들의 ‘에고’는 오히려 이 섬보다 더 크지요. 나는 ‘에고’가 없는 사람을 거의 본 적이 없습니다. 이 ‘나’라는 것이 너무 큰 까닭에 가르치기도 정말 어렵습니다. 게다가 극단적인 교리들이 아주 많이 있습니다. 이를테면 사람들에게 수행할 필요가 없다고 하면서, 일체가 다 공췌이니 모두 내려놓기만 하면 된다고 합니다. 무엇을 내려놓으라는 거지요? 일체가 이미 공췌하다면서 아직도 내려놓을 무엇이 더 있다는 걸까요? 만일 수행하고 난 뒤 모두가 다 공췌이라면 왜 여전히 염불을 하고, 사람들에게 무언가를 가르치며, 그렇게 많은 절들을 짓는 걸까요? 모두 다 공췌이잖아요!

큰 절을 짓는 사람일수록 공췌를 더 많이 강조합니다. ‘모든 것을 내려놓으라고 하는 사람’일수록 더 큰 절을 짓지요. (대중 웃음) 게다가 사람들에게 내려놓으라고 하는 사람일수록 제자를 한 명이라도 더 붙잡으려고 집착합니다. 한 명이라도 더 붙잡아 자기 절에 오도록 하지요. 자기에게 귀의한 제자가 다른 스승에게 가서 배운다고 하면 참지 못하고, 온종일 분해서 발을 구르며 시끄럽게 울어댁니다. 마치 어린아이처럼 “너는 그래서는 안 돼. 너는 이미 나하고 수십 년을 함께했으면서 왜 또 칭하이 무상사의 강연을 들으러 간 거야? 게다가 그녀에게 입문까지 해?”라고 하지요. 그들이 강조하는 ‘공’이란 게 바로 이렇습니다.

내가 그 스님을 만났을 때, 나는 스님에게 몸을 좀더 잘 돌보라고 권했지요. 그녀는 너무 야윈 데다가 병도 앓고 있었거든요. 그러

자 그녀가 대답하길 “출가자는 몸뚱이처럼 이런 무상한 것에는 신경쓰지 않아요. 병이 있으면 있는 거고, 건강하면 건강한 거지요. 마음은 머무는 곳이 없습니다.”라고 했어요. 그러면서 제자가 입문하러 가는 것은 결코 안 되는 일이라며 시끄럽게 소란을 피웠지요. 그때 ‘공췌’이 ‘유有’로 변했고, ‘집착하지 않음’은 ‘구속’으로 변했던 겁니다. (대중 웃음) 온종일 시끄럽게 소리를 지르니 제자도 자기 자신도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니 모두 입으로만 말할 줄 알았지 마음으로는 잘 해내지 못했던 거예요. 남들이 하는 말을 듣고는 이렇게 말합니다. “일체는 모두 공한 것이어서 마음은 머무르지 않는다.” 이것은 『금강경』을 외워서 입으로만 말하는 것뿐입니다. 자기 스스로는 조금도 수행하지 않지요. 그러니 그 사람이 한마디만 해도 그의 등급이 어느 정도인지 금방 알 수 있습니다. “마땅히 머무는 곳이 없어야 한다(應無所住).”라고 말했다면 출가자가 무얼 하든지 그냥 내버려두어야 할 텐데도, 제자가 다른 곳에 가서 배우는 것에 대해서는 왜 온종일 소리를 지르는 겁니까? 왜 그렇게 많은 골칫거리와 문제들을 제자와 다른 사람에게 만들어 주는 걸까요? 그러니 이런 것은 다 입으로만 말하는 것뿐이지 사실 자신은 행하지도 못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남을 가르치지 않는 게 가장 좋습니다. 아직 큰스승의 등급에 이르지 못했으니 그렇게 제자 욕심을 내는 것이지, 큰스승이 되고 난 뒤에는 그렇지 않습니다. 가르쳐야 할 것은 가르치고, 가르쳐서는 안 되는 것은 가르치지 않습니다. 나도 본래 남을 가르치는 것을 좋아하지 않았습니다. 그렇지만 이것은 내가 반드시 해야 하는

것이어서 할 뿐이지 특별히 ‘좋을 것’도 없고 ‘싫을 것’도 없습니다. 나는 이미 여러 차례 마장에 걸린 제자들을 가르쳤지만, 그들은 여전히 내 말을 듣지 않습니다. 그래서 나는 지칠 대로 지쳤습니다. 가르치지 못한다면 그만두어야지요. 자비심에도 한계가 있으니깐요. 때로는 그들 스스로 자기 공부를 하도록 놔둬야 합니다.

불보살은 다른 사람의 인과에 개입하지 않습니다. 사람을 천도하는 주문이나 능엄주를 외우는 것은 곧 남의 인과에 개입하는 일입니다. 왜냐하면 귀신이나 마귀가 와서 여러분에게 묻지도 않았고, 자기를 위해서 무언가를 해 달라고 부탁하지도 않았으니깐요. 여러분 스스로 골칫거리를 찾아서 남의 인과에 개입하는 것이지요.

예컨대 스님이라면, 다른 사람이 경을 읽어 달라고 하면 바로 가서 읽어 주어야겠지요. 만일 경을 외는 것이 스님의 일이라고 여기는 전통 때문이라면 그렇게 해도 그런대로 괜찮습니다. 그렇지만 경을 읽는 목적이 분명하지 않다면 자기에게 문제를 일으킬 수도 있고, 심지어는 지옥에 떨어질 수도 있습니다. 만약 돈 때문에 경을 읽으러 간다면 굉장히 많은 업장이 생길 겁니다. 우리가 하는 행위가 모두 어렵고 힘든 사람을 구하고, 남을 이롭게 하며, 중생을 위로하기 위한 것이라야 복이 있습니다. 그렇지 않고 마음속에 복을 바라는 생각이 있다면 아무 복도 되지 않을 것이며, 복이 있다 하더라도 아주 유한한 복이 될 것입니다.

우리가 무슨 일을 하든 간에 ‘무아無我’의 태도로 한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지요. 우리는 모두 우리가 이미 ‘무아’라고 여깁니다. 하지만 그렇게 ‘여길’ 뿐이지 사실은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언젠가

아주 자연스럽게, 여러분이 손을 쓴 것도 아니고 무슨 일을 한 것도 아닌데 남들이 여러분을 보기만 해도 병이 곧바로 낫거나 곧바로 깨닫게 된다면, 그때가 비로소 진정한 ‘무아’인 것입니다.

다만 지금은 ‘내가 무아라고 생각할’ 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무슨 일을 할 때 생각합니다. ‘이것은 스승님께서 하시는 것이지 내가 하는 게 아니야. ‘나’는 교만해서는 안 돼. 그렇지만 스승님께서 다른 사람이 아닌 나에게 하라고 시키셨으니 ‘나’는 아주 좋은 사람인 거야. ‘나’는 아주 괜찮은 사람이지!’

이렇게 해도 여전히 조금은 미세한 에고가 남아 있습니다. 왜냐하면 아직도 ‘내가 생각하고’ 있으니까요. 생각하는 것과 직접 증명하는 것은 다릅니다. 믿는다는 것도 체험하는 것과는 다르지요. 여러분은 이제 막 수행을 시작했기 때문에 나는 여러분에게 천천히 하라고 가르쳐야 합니다. 먼저 이 ‘나’를 내려놓고, 무슨 일을 하든 ‘내’가 한다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천천히 여러분의 두뇌를 훈련시키세요. 그렇지만 이것도 진정한 ‘무아’는 아닙니다. 왜냐하면 여전히 훈련을 해야 하고, 여전히 ‘내가 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생각해야 하며, 여전히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고 ‘내가 생각하고’ 있으니까요.

진정한 ‘무아’는 보살의 경지입니다. 보살이 되면 특별히 무언가를 하지 않아도 사람들은 자연스럽게 이로움을 얻게 되지요. 여러분은 사람들이 나를 보러 왔을 때 병이 나았다는 이야기를 자주 듣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내가 무슨神通을 부려서가 아닙니다. 만일 여러분이 그렇게 말한다면 그것은 나를 비방하는 것이 됩니다. 나는 아무 일도 하지 않았어요.

이것은 물과 같아서 여러분이 마시고 싶을 때 마시는 겁니다. 물이 일부러 물을 떠서 여러분에게 마시라고 주는 것도 아니고, 일부러 여러분이 마시게끔 하는 것도 아니에요. 그게 바로 물이지요. 불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이 추울 때 곁에 가기만 하면 따뜻함을 느끼게 됩니다. 결코 불이 일부러 여러분을 따뜻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에요. 그것이 바로 불입니다. 여러분이 다가서기만 하면 더워질 겁니다. 불이 고의로 여러분을 덥게 하는 게 아니지요. 불은 그런 고의적인 마음이 없습니다. 태양도 자기가 그렇게 밝게 비추어왔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일부러 여러분을 덥게 만든다거나 뭔가를 하는 게 아니라 그냥 자기 일을 하는 겁니다. 태양은 바로 이렇습니다. 만일 우리가 이런 정도까지 할 수 있다면 그때가 진정한 ‘무아’인 것입니다.

‘무아’에도 많은 등급이 있습니다. 막 시작했을 때는 아직 작디작은 ‘무아’일 뿐이지요. 수행을 한 뒤로 갈수록 좋아지고 갈수록 높아지며 갈수록 광대해져서 나중에는 어떤 중생이든 모두 이로움을 얻을 수 있게 됩니다. 그때 여러분의 등급이 삼계三界를 초월하고 제5세계에 도달했다면 사람들을 가르치러 갈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다면 스스로 문제를 만들고, 다른 사람에게도 골칫거리를 안겨 줄 뿐이지요.

만일 자신이 사람들을 축복해 주고 병든 사람들을 구해 준다고 여기거나, 또 그렇게 하는 것을 좋아한다면 여전히 이 ‘나’라는 것이 존재하는 것입니다. 비록 여러분은 내가 법을 전하는 것을 보지만, 사실은 나도 무슨 법을 전하는 게 아닙니다. 나는 항상 “전해 준다고

할 수 있는 법이란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렇지만 스승이 없다면 곧 법도 없는 것입니다.

이 법이라는 것은 자연히 흘러나오는 것입니다. 만일 여러분이 어떤 이로움을 느낀다면 그것 또한 자연스럽게 된 것이지 내가 일부러 무엇을 한 게 아닙니다. 만일 여러분이 나에게 와서 “저는 지금 아주 힘들어요!”라고 말한다면, 나는 절대로 여러분이 갈수록 더 힘들어지라고 축복하진 않을 것입니다. 그런 일은 불가능하지요.

나는 물론 여러분이 좀더 행복해지기만을 바랍니다. 나에게도 그런 축복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이 참 가련해 보이니까요. 여러분이 좀더 행복해질 수 있다면 나도 아주 기쁠 것입니다. 비록 내게 그런 마음이 있더라도 무슨 신통을 써서 여러분이 더 나아지도록 하는 일은 결코 없습니다. 그저 자비심일 뿐이지 신통이 아닙니다. 다른 사람이 고통스러워하는 것을 보면 나도 똑같이 고통을 느낍니다. 이렇게 ‘똑같이 고통’을 느끼기 때문에 상대방의 괴로움을 받게 되고 그에게는 복을 좀 나눠 주게 되지요. 이것은 ‘자연스런 자비심’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이러한 자비심과 인류의 감정은 다릅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을 이롭게 할 수 있는 거지요.

그렇지만 힘이 있어야 이로움이 있는 것입니다. 힘이 없다면 자비심이 있어도 소용이 없지요. 만일 누군가 와서 “배가 고파서 죽을 것 같아요!”라고 말한다면 해도 여러분에게 돈도 없고 밥도 없다면, 설사 그 사람을 아주 동정한다고 해도 무언가를 베풀 방법이 없습니다. 돈이 있다면 바로 줄 수 있겠지만요. 그렇지만 관음법문을 수행하는 사람이라면 특별히 무엇을 생각하지 않아도 도움이 필요한 사

람에게 저절로 이로움을 주게 됩니다. 상대가 아무리 싫다고 하더라도 말이지요.

이것은 돈과는 다릅니다. 돈은 금고에 넣고 잠가 두거나 은행에 넣어서 아무도 손댈 수 없게 할 수 있지만 수행의 복이란 것은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들어가기만 하면 당장 가져갈 수 있고, 좋은 영향을 받을 수가 있지요. 뭐라고 말할 필요도 없고, 거부해서도 안 됩니다. 물론 여러분은 틀림없이 좋다고 할 거예요. 그가 여러분을 이롭게 하려는데 어떻게 싫다고 할 수 있겠어요? 그렇지만 ‘원하고 원치 않고’를 생각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로움이 저절로 올 테니까요. 업장이 너무나 크고 무거운 사람은 제외하고요. 그런 사람은 스스로를 달아 버려서 복이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 당연히 이로움을 얻을 수가 없지요. 그렇지만 앎이면 누구든지 와서 원하는 것을 가져갈 수가 있습니다.

이제 집에 돌아가거든 『금강경』을 한번 읽어 보세요. 틀림없이 더 이해가 잘 될 겁니다. “중생을 제도하되 제도된 중생이 없고, 보시를 하되 보시를 하지 않은 것이야말로 진정한 보시이다. 병을 치료하되 병을 치료하지 않은 것이야말로 진정한 병을 치료한 것이다.” 병을 치료한다는 것은 이 몸의 병만을 치료한다는 뜻이 아닙니다. ‘무명(無明)의 병’을 치료하는 것이야말로 가장 좋은 치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석가모니불을 대의왕(大醫王)이라고 찬탄하는 것입니다. 그는 어떤 병도 다 고쳤으니까요. 그렇지만 그는 결코 무슨 신통을 써서 고친 것이 아닙니다. 그가 바로 신통이었고, 그가 바로 신통으로 변했던 것이어서 누구든 자신들이 바라는 대로 그것을 얻을

수가 있었지요. 이것은 석가모니불의 공덕이 무량무변하다는 것을 뜻합니다. 그는 어떤 공덕이든 다 가지고 있었고, 무량무변해서 다 쓸 수가 없었습니다. 이런 것이 바로 천인도사天人導師입니다.

경전에서도 말하길, 우리는 선지식을 선택해야 하고, 좋은 동수와 함께해야 하며, 살생하는 사람이나 백정과는 친구가 되어서는 안 된다고 했습니다. 그렇지요? 그렇지만 불보살은 도리어 그런 사람들에게 가서 친구가 됩니다. 그러니 나에게 “왜 그런 사람들을 도와 입문시키는 겁니까?”라고 묻지 마십시오.

선종禪宗 십우도十牛圖의 마지막 그림에서도 “백정이나 도둑질하는 사람이 곧 나의 친구다.”라고 말합니다. 불보살은 이것저것 분별하지 않고 전혀 상관하지 않으며 그의 공덕은 끝이 없어 다 쓸 수가 없기 때문에 누구든 원하기만 하면 다 되는 겁니다. 그는 여러분이 오백 원을 원하면 오백 원을, 오천 원을 원하면 오천 원을, 오만 원을 원하면 오만 원을 줄 것입니다. 여러분이 원하는 만큼 주지요. 그에 게는 다 쓰지도 못할 만큼 넘쳐나게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왜 그렇게 많이 원하는지 상관하지도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는 일찍이 창녀 한 사람을 제자로 받아들였습니다. 그러자 다른 제자들과 신도들이 모두 화를 내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원망하며 말하길 “당신은 어떻게 그런 사람을 제자로 받아들여 우리 동수가 되게 하십니까?”라고 했습니다. 그들은 자기들이 아주 대단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자기들을 제자로 받아들였다고 생각하고 있었거든요. 그들은 좀 교만해서 스스로를 대단하다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예수 그리스도가 창녀를 제자로 받아

들이자 사실 너무나 실망했지요. 앞으로는 더 이상 밖에 나가서 교만하게 “나는 가장 훌륭해. 나의 스승도 가장 훌륭하지. 나의 단체에는 모두 성인聖人들만 있어.”라고 말할 수 없게 되었으니까요. 창녀 한 명이 같은 단체에서 수행하게 되자 그들 모두 예수 그리스도를 원망했던 것입니다. (석가모니불도 ‘마등가녀摩登伽女’라고 하는 창녀를 제자로 받아들였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말했지요. “나는 그대의 업장이 오백 킬로그램이라 해도 그대를 용서할 수 있다. 다른 사람의 업장이 오천 킬로그램이라고 해도 역시 그를 용서할 수 있다. 이것이 그대와 무슨 상관이란 말인가?” 예컨대 내가 이 사람에게는 오백 원을 주고 저 사람에게는 오천 원을 주어도 모두 만족해한다면 되는 것입니다. 또 다른 예로, 어떤 사람이 나에게 오백 원을 빚졌는데 나중에 내가 갚지 말라고 하고, 또 나에게 오천 원을 빚진 사람에게도 내가 기꺼이 갚지 말라고 한다면 이것이 오백원을 빚진 사람과 무슨 상관이 있겠어요? 그것은 모두 내 돈이니 내가 주고 싶은 만큼 줄 수 있는 겁니다.

다시 예를 들어, 여러분이 부자인데 이 사람이 여러분에게 이백 원을 빚졌고 저 사람이 이천 원을, 또 다른 사람이 이백만 원을 빚졌는데, 하루는 여러분이 이 돈을 한 푼도 받지 않겠다고 결정했다고 합시다. 여러분이 보기에 그들이 갚을 능력이 없는 것 같아서 그들에게 말한 거지요. “좋아요! 모두 잊어버리세요! 차용 증서를 모두 찢어 버리세요!” 그래도 여러분에겐 돈이 넘쳐나게 많을 테고, 또 그렇게 했다고 해서 이백 원을 빚졌던 사람이 이백만 원을 빚졌던 사

람을 질투할 필요는 없겠지요. 왜냐하면 그 돈은 부자인 여러분의 돈이지 그들의 돈이 아니니까요.

석가모니불이 살아 있을 때에도 업장이 아주 무거운 사람을 제도했던 일이 있습니다. 그 사람은 이미 사람을 아흔아홉 명이나 죽이고 마지막으로 석가모니불을 죽여서 백 명을 채우려고 했지요. 왜냐하면 그의 스승이 그에게 정오가 되기 전에 사람 백 명을 죽여야만 성불할 수 있다고 가르쳤기 때문입니다. 살인을 해야만 성불할 수 있다고 가르치는 스승이 뜻밖에도 있습니다. 그 사람은 자기 스승의 말을 듣고는 아주 조급해졌지요. 거의 정오가 되었는데도 아직 백 번째 사람을 찾지 못했거든요. 그래서 그가 부처를 보았을 때 곧바로 부처를 죽이려고 했지만 부처는 이 기회를 이용해서 도리어 그를 제도했습니다.

본래 살생하는 사람에게 우리는 감히 접근하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연루될까 봐 두렵고 업장을 짊어질까 봐 두려우니까요. 그렇지만 불보살은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두려워한다면 불보살이 아니지요. 나는 아직 불보살이 아닙니다. 여러분은 내가 불보살이라고 믿어선 안 돼요. 그렇지만 나도 불보살을 본받아 죽는 것에 개의치 않으며, 연루되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중생은 곧 나와 같기 때문에 그들에게 장애가 있으면 곧 내게도 장애가 있는 것과 같은데 두려워할 것이 뭐가 있겠어요? 그렇지만 이것은 ‘무아’의 등급이 되어야만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만일 아직도 분별심이 남아 있다면 할 수 없지요. 왜냐하면 그런 사람은 여전히 업장에 둘러싸여 있을 테니까요.

조금 전 내가 이야기했던, 아직 어떤 등급도 얻지 못했다는 사람은 자신도 마장에 걸렸으면서 사람들에게 자기의 눈을 보라고까지 시켰습니다. 만일 여러분이 그 사람을 알고 있다면 그의 눈이 어떻다는 것을 알 거예요. (대중 웃음) 그에게 가르침을 받았던 몇 사람이 나에게 말했어요. “스승님, 저는 그의 눈을 볼 때 아주 무서웠어요. 그렇지만 스승님의 눈을 볼 때는 아주 편안합니다.”

평소에 나는 이런 이야기를 잘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다수가 늘 새로운 사람들이라 대부분 철학적 이론에 관한 얘기만 하지요. 만일 모두가 이미 내게 입문한 제자들이라면 물론 수행에 관한 것을 좀 가르칠 겁니다. 그렇지만 매번 새로운 사람들이 오기 때문에 대부분은 다 이론적인 것들, 이를테면 ‘무상정등정각無上正等正覺’이라든지 ‘선禪이란 무엇인가?’, ‘왜 관음법문을 수행해야 하는가?’ 같은 이야기를 합니다. 스승과 제자의 수행 관계에 대해서는 전혀 이야기할 기회가 없지요.

평소에 여러분이 이곳에 올 때는 친지나 친구를 데려오기 때문에 이런 이야기를 할 수가 없습니다. 이따금 나는 특별히 입문한 동수들에게만 시간을 따로 내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동수들은 여전히 잊어버리고는 언제나 한두 명의 새로운 사람을 데리고 와서 강연을 듣지요. 새로운 사람이 자리하고 있으면 이런 수행상의 ‘비밀’을 이야기할 수 없어서 말하기가 수월하지가 않아요. 지금은 3개월의 하안거夏安居를 이용해서 수행에 대해 더 많이 이야기하는 것이니 이 ‘에고’를 좀더 억누르도록 하세요. 그렇지 않으면 수행이 안 됩니다. 사람을 가르치는 것은 정말 간단하지가 않습니다.

하루는 어떤 사람이 나의 사공에게 와서 입문시켜 달라고 간청해서 사공이 할 수 없이 그 사람을 입문시킨 일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은 전에 은행을 털었거나 살인 같은 큰 죄를 저지른 사람이었어요. 그 사람은 제자의 소개를 통해 온 것이었지요. 소개를 한 동수는 아주 좋은 제자였습니다.

당시 나의 사공은 그 제자에게 말했습니다. “그대는 백 명의 다른 사람들은 내게 소개해도 된다. 그렇지만 이 사람만은 소개하지 마라.” 그러나 그 제자는 철없이 계속 그 사람을 입문시켜 달라고 졸랐습니다. 그 사람도 사공의 다리를 붙잡고는 꼼짝도 안 했어요. 그는 “입문하지 못하면 저도 가지 않겠습니다.”라고 말했지요. 마침내 나의 사공은 그를 입문시켜 주었습니다. 입문식이 끝난 후 나의 사공은 강에 빠져 곧 익사할 뻔했습니다. 거의 익사했다고 볼 수도 있었어요. 하지만 나중에 다시 살아났습니다. 그 사람의 업장이 너무 커서 나의 사공이 비록 죽지는 않았지만 몇 시간 동안은 (강물 속에서) 죽었어야만 했던 거지요.

그러니 큰스승이 되었다고 해서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문제가 아주 많아요. 제자가 많아질수록 문제도 많아집니다. 그렇지만 그것이 스승의 일이라, 그들은 문제에 부딪히면 곧바로 그것을 깨끗하게 씻어 버리고는 크게 개의치도 않습니다. 그러나 아직 견지도 못하는 어린아이에게 빨리 뛰라고 하지 마십시오. 어찌 그리 성급할 수 있습니까?

예를 들어 좀 게으르지만 수행은 아주 하고 싶어하는 어떤 사람이 있는데, 안타깝게도 스승에게 이 법문을 배우지 못하는 것을 보

고서는 우리가 자비심을 내서 그들에게 채식을 권하고 스승님 책을 읽으라고 했다고 합시다. 그런데도 그 사람이 채식을 하지도 않고, 또 스승님 책을 읽어도 이해하지 못하거나 읽는 걸 좋아하지 않는 경우라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럴 땐 그에게 아미타불을 외우도록 가르치세요. 그가 원래 믿고 있던 종교를 계속 성심껏 믿으라고 하십시오. 사람을 가르치려고 해도 그 사람이 좋아해야만 되는 것입니다. 당사자가 흥미가 있어야 가르칠 수 있고 말해 줄 수 있는 것이지 억지로 믿도록 해서 안 됩니다. 다른 사람들에게 강요를 해선 안 되지요.

역대 선사禪師들은 모두 제자들에게 스스로 노력해야 된다고 가르쳤습니다. 스스로 기회를 찾아 힘을 다해 수행을 해서 이 도를 찾으라고 했지요. “내가 그대를 대신해 수행해 주겠다.”라고 말하는 것은 불가능했어요. 만일 그에게 이런저런 질문을 한다면 그는 즉시 “아니다.”라고만 대답을 하거나 심지어 여러분 스스로 답안을 찾으라고 아무런 대답을 하지 않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힘을 다해 노력하고 열심히 해야만 자기 스스로 결과를 얻을 수 있기 때문이에요. 어느 누구도 여러분 대신 해줄 수 없습니다. 그러니 다른 사람을 억지로 수행하게 할 수는 없는 겁니다. 강요해서 수행하도록 하는 것도 좋지 않아요. 자기 스스로가 도심道心을 갖추고 있어야 하고, 마음을 내어 도를 구하려고 해야 합니다. 삶과 죽음의 문제를 이해하려는 마음을 내야 하며, 밥 먹을 때나 잠을 잘 때에도 언제나 이 문제를 생각하고, 장소나 시간에 관계없이 언제나 도를 구하려고 할 때 비로소 이해할 수 있게 되는 것이지, 다른

사람이 억지로 우리를 수행하게 할 수는 없습니다.

가끔 이곳의 제자들이 게으름을 피울 때가 있습니다. 나도 아주 괴롭지만 그렇다고 여러분에게 수행하라고 강요할 수는 없습니다. 내가 야단을 치고 강요할 수도 있겠지만 소용없는 일이에요. 여러분은 여전히 스스로를 의지해서 수행해야만 합니다. ‘어떻게 해야만 내가 생사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 왜 아직도 나는 내 불성을 완전히 이해하지 못하는 것일까? 어째서 나에게는 여전히 그렇게나 많은 번뇌가 있는 것일까? 어째서 나에겐 아직도 그렇게 많은 무명이 있는 것일까?’ 라는 갈망이 여러분에게 있어야 합니다. 이렇게 자기 스스로 간절히 바랄 때 답안을 찾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스승이 날마다 여러분더러 수행하라고 강요하는 것에 의지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이 여기에 와서 살면서도 오히려 게으름을 피우고 수행하지 않는다면 나도 여러분을 쫓아낼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내가 날마다 여러분에게 수행하라고 강요할 수는 없습니다. 또한 규칙을 이용해서 수행을 강요할 수도 없고요. 이를테면 사람들에게 몇 시에 명상해야 하고, 몇 시에 자고, 몇 시에 밥 먹고, 몇 시에 해탈을 생각해야 하고, 몇 시에 쉬어야 한다는 따위의 규칙을 정해 놓을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만일 정말로 수행을 생각하는 사람이라면 24시간 내내 수행을 합니다. 화장실에 가서도 수행을 하지요. 마음을 ‘도’ 안에 두는 것이 바로 수행이며, 생사의 문제에 의문을 가지는 것이 바로 수행입니다. 앉아 있는 것만이 수행은 아니지요. 앉아 있을 때는 마음이 좀더 안정되고, 몸도 더 좋아집니다. 그렇게 되면 이해가 더 잘 되고 불보

살의 힘과 더 쉽게 소통되며, 빛도 커지고 갈수록 더 깨끗해지지요. 일정 기간 훈련을 마치고 난 뒤에는 걷는 것도 수행이며, 자는 것 또한 수행이 됩니다.

그렇지만 앉아 있다고 해서 성불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저 앉아 있기만 하는 것은 ‘잘못된 부처’이지 ‘옳은 부처’가 아닙니다. ‘잘못하는 것(錯)’이지 ‘앉아 있는 것(坐)’이 아니에요. (역주: 착錯과 좌坐의 중국어 발음이 비슷함.) 그래서 성불하기는 아주 간단하면서도 그리 간단하지만은 않습니다. 이것은 우리의 수행 태도에 달려 있습니다.

아직 성불하기 전이라면 다른 사람의 일에 개입하지도 말고, 서둘러 중생을 제도하러 가지도 마십시오. 자기 자신도 제도하지 못하면서 무슨 중생을 제도한다는 겁니까? 만일 중생을 제도하고자 한다면 먼저 그들에게 내 책을 보여 주고, 내 교리와 관음법문을 소개해 주세요. 사람들을 가르치려고 꼭 선생님이 되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자신도 아직 다 배우지 못했는데 어떻게 선생님이 될 수 있겠어요? 영어로 말할 줄도 모르면서 사람들에게 영어를 가르친다면 정말 우스운 일 아닌가요? 많은 사람들이 이른바 큰스승이 되고 싶어하는데 나는 참 이상하다고 느낍니다. 스승이 되면 그토록 고생스러운데 왜 그렇게 스승이 되고 싶어하는 건가요? 나는 상황에 떠밀려서 어쩔 수 없이 사람들을 가르칠 수밖에 없었습니다. 나도 여러 번 다른 나라로 달아났지만 결국에는 아직도 벗어나지 못했습니다.

만일 여러분의 그런 마음이 정말 자비심에서 나온 것이라면 사람들에게 아미타불을 외라고 가르칠 수는 있습니다. 꼭 선생님이 되어

서 사람들에게 억지로 주문을 외도록 하고, 날마다 이집 저집 다니며 강연을 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왜 능엄주를 외지 않느냐? 왜 대비주나 왕생주를 외지 않느냐? 왜 열심히 하지 않느냐?”면서 이집 저집 다니며 사람들에게 따지고, 날마다 남의 집 초인종을 눌러서는 어떤 주문을 외면 무슨 효과가 있다는 말이나 하는 이런 행위들은 다른 사람의 일에 개입하는 것입니다. 그들이 여러분에게 물어본 것도 아니고, 귀신이 여러분에게 와서 자기를 구해 달라고 부탁한 것도 아닙니다.

석가모니불이 우란분절盂蘭盆節(음력 7월 보름에 불교에서 행하는 천도제)을 이야기한 것도 목건련이 와서 간청했기 때문입니다. 목건련이 그의 제자였기 때문에 도와주어야만 했지요. 부처가 능엄주를 말한 것도 그의 제자인 아난이 어려움에 처해 그에게 도와 달라고 기도를 했기 때문에 그를 도와주기 위해 말했던 것이었습니다. 그렇지만 여러분은 물론 이 능엄주가 내면의 스승(화신 스승)이 말한 것이라는 것을 알 것입니다.

이곳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제자가 부모님이나 남편이 죽었을 때 나에게 전화를 해서 도와 달라고 간청을 했는데, 나중에 정말로 내면의 스승이 나타나서 그들을 높은 경지로 인도해 가는 것을 보았다고 합니다. 이것은 아주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나는 여러분 집에 가서 문을 두드리며 “당신 남편이 죽었는데 왜 나에게 알리지 않았지요? 그는 입문도 하지 않았는데 당신은 왜 그를 데리고 와서 입문시키지 않았어요? 그가 죽을 때 당신은 나에게 알리지도 않았는데 내가 어떻게 그를 구할 수 있겠어요?”라고 따져 묻지 않습니

다. 모든 것이 다 자연스럽게 이루어지지요. 여러분이 무엇을 바라건 간에 스승의 힘이 최선을 다해 도와줍니다. 스승의 힘은 이 육신이나 사람이 아니고 또 다른 하나의 등급, 바로 불보살의 등급입니다. 이 육신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만일 내가 보통 사람이었다면 나도 그렇게 많은 것에 관여하지 않을 겁니다. 내가 날마다 스스로 골칫거리를 찾아다니면서 중생이나 망혼을 천도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세상에 떠도는 수없이 많은 망혼을 어느 세월에도 다 천도할 수 있겠어요? 그들이 귀신이나 마귀가 되고 싶어한다면 그렇게 되도록 내버려두어야지 어찌겠어요. 그런 중생들은 살아 있을 때에도 전혀 말을 듣지 않았어요. 그들에게 도덕적인 일을 하라고 가르쳤지만 역시 하지 않았지요. 초보적인 염불 또는 절을 하거나 종교를 믿으라고 가르쳤지만 믿지 않고 여전히 더욱 많은 악업을 짓고 나쁜 일을 했으니 당연히 그런 나쁜 과보를 짊어져야만 하는 겁니다.

그렇지만 내 제자나 제자의 친지는 상황이 좀 다릅니다. 그들이 스승에게 도와 달라고 간청하면 불보살이 감동을 받기 때문에 당연히 도와줍니다. 내 제자들 가운데 이와 비슷한 일을 경험한 사람이 아주 많습니다. 흔한 일이지요.

내가 광고를 한 것도 아니고, 또 사방을 돌아다니면서 사람들에게 “나는 망혼을 천도할 줄 안다.”라고 말한 것도 아닙니다. 모두 다 여러분이 전화를 해서 나에게 도와 달라고 했기 때문입니다. 때로는 나도 듣고 싶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어떤 사람은 무슨 일이건 상관없이 전부 다 나에게 와서 도와 달라고 하니까요. 그래도 그들은 내

제자이기 때문에 당연히 돌려주어야만 합니다.

나는 다만 이렇게 생각하기만 할 뿐인데도 그들은 바로 복을 받습니다. 내가 무슨 신비한 주문을 써서 그곳으로 보낸 것이 아니에요. 아무런 이유도 없이 어떻게 사람들에게 억지로 무슨 주문을 외라고 강요할 수 있겠어요? 아무도 간청하지 않는데 어떻게 구해 줄 수 있겠습니까? 만일 누군가 진정으로 해탈을 원한다면 그때서야 그를 구해 줄 수 있습니다. 그 사람이 전혀 원하지 않는데도 계속해서 강요한다면, 그가 여러분을 때리며 이렇게 말할지도 모릅니다. “누가 너더러 여기 와서 나를 귀찮게 하라고 했어? 나는 귀신이 되는 게 좋아. 마귀의 생활은 아주 재미있단 말이야.” (스승님 웃으심)

또 다른 이야기를 하나 해주겠어요. 여러분이 더 잘 이해할 수 있을 겁니다. 그리스에 수행을 아주 잘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는 귀신이나 마귀를 쫓아 버릴 수 있었고, 또한 영혼을 피서지 같은 멋진 곳에 데리고 갈 수도 있었어요. 보통 사람들은 생전에 복을 많이 쌓지 않으면 죽은 뒤에 그곳에 가서 일정한 시간을 머무르다가 나중에 다시 이곳으로 돌아와 사람이나 동물이 되었지요.

그 그리스 수행자는 망혼을 그런 곳으로 데리고 갈 수 있었습니다. 어느 날 그 수행자는 막 세상을 떠난 자신의 친구를 보았지요. 그 친구는 세상에 있을 때 도박하는 것을 아주 좋아했는데 죽은 뒤에도 여전히 친구들과 함께 도박을 하고 있었어요. 그 수행자는 자신의 친구가 아주 어둡고 캄캄하며 더러운 곳에서 귀신 친구들과 도박하고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도박꾼들에게는 장소에 상관없이 그저 도박만 할 수 있다면 좋은 거였지요. 게다가 본래 도박꾼들은 숨

어서 도박을 즐기기 때문에 도박하는 장소가 아주 더럽습니다.

도박을 좋아하는 사람은 낮이건 밤이건 가리지 않고 온종일 도박을 합니다. 담배를 피우면서 도박을 하니 그곳은 아주 지저분하고, 또 청소하는 사람도 없습니다. 밥도 먹지 않고 그저 되는대로 샌드위치나 먹지요. 여러분은 샌드위치의 유래를 압니까? 바로 여기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예전에 도박을 아주 좋아하는 왕이 있었습니다. 그는 밥 먹으러 가는 것도 귀찮아했어요. 그래서 그의 신하가 방법을 하나 생각해 냈는데, 그것이 바로 샌드위치를 만들어서 왕이 먹도록 하는 거였지요. 그렇게 하면 자리를 떠날 필요 없이 먹으면서 도박을 할 수 있을 테니까요! (대중 웃음)

그 그리스 수행자는 과거에 친구였던 그가 그런 어둡고 더러운 곳에서 도박하고 있는 것을 보자 몹시 가엾게 느껴졌습니다. 그래서 그 친구에게 “지내기가 어떤가?” 하고 물었어요. 그러자 그 친구는 “아주 좋네!”라고 대답했지요. 그 수행자는 말했어요. “이것 보게! 이곳은 어둡고 캄캄한 데다가 더럽기까지 한데 뭐가 좋다는 건가?” 그러고는 신통을 써서 도박을 좋아하는 친구에게 아주 아름다운 음악을 들려주고 보기 좋은 풍경들을 펼쳐 보이면서 그 친구의 눈앞에 피서지를 끌어다가 보여 주었습니다. 또 그 어둡고 캄캄한 곳을 날려 버리고, 친구를 데리고 여기저기 다니면서 놀았지요.

그들 두 사람은 피서지에서 놀면서 좋은 음악을 감상하고, 예쁜 꽃들을 보며, 달고 맛있는 과일들을 먹었습니다. 그곳에는 아름다운 경지가 많았지요. 강이 흐르고 멋진 집들도 많았습니다. 그는 또 도덕적인 일에 대해 친구에게 들려주었어요. 몇 시간이 지난 뒤 그 친

구가 말했습니다. “자네 언제쯤에나 그런 이야기들을 그만둘 텐가? 나는 더 이상 듣고 싶지 않다네.” 수행자는 깜짝 놀라 말했지요. “듣고 싶지 않다니! 자네는 이렇게 아름다운 풍경을 좋아하지 않는단 말인가?” 그 친구가 말했어요. “아! 너무 심심하고 재미가 없다네. 난 돌아가서 도박을 하고 싶단 말일세!” (대중 웃음) 내 말을 이해하겠습니까? 그래서 귀신이나 마귀에게 강요하는 것은 소용이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수행하기만 하면 신통도 생깁니다. 우리가 신통을 배운다면, 이를테면 주문이나 그 외 다른 방법을 배운다면 당연히 귀신을 쫓아 버릴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나중에 우리의 등급이 다시 올라가면 이 업장을 깨끗이 갚아야만 합니다. 왜냐하면 그들에게는 그들끼리의 관계가 존재하기 때문이지요. 그래서 정말 간단하지가 않습니다.

가끔 스승이 제자를 돕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마장을 조금이라도 없앨 수 있는지 가르칠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스승 또한 그런 업장을 깨끗이 갚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본래 다른 사람의 인과에 개입해서는 안 되니까요. 그러나 제자가 간절하게 바라고 그 스승이 원하기만 한다면 스승은 제자를 위해서 업장을 조금 짊어질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항상 이렇게 하는 것은 아니에요. 본래 그런 마장이나 귀신의 장애를 처리하는 것이 스승에게는 조금도 문제가 되지 않지만 제자들이 함께 업장을 씻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나중에 반드시 이 세계로 다시 돌아와야만 합니다. 이생에서 상대방이 괴롭히는 것을 내버려두지 않는다면 나중에 업장을 갚기

위해 다시 와야 하지만, 이생에서 상대방이 괴롭히는 것을 몇 십 년 동안 당하고 나면 그 뒤에는 업장이 깨끗이 씻겨 훌가분하게 갈 수가 있습니다.

대수행자는 권력을 사용해서 다른 사람들을 간섭해선 안 되며, 어떤 중생도 해쳐서는 안 됩니다. 귀신도 중생이므로 그를 해쳐서는 안 되지요. 여러분은 석가모니불이 신통을 써서 귀신을 쫓아 버렸다가 사람들의 병을 고쳐 주었다는 이야기를 들어 본 적이 있습니까? 경전에 그런 이야기가 있나요? 나는 그런 이야기가 기록된 것을 본 적이 없습니다. 그는 어떤 병도 고치지 않았습니니다.

아들이 방금 죽어 버린 한 여인이 있었습니다. 그녀는 울면서 석가모니불에게 자기 아들을 살려 달라고 간청했어요. 그렇지만 석가모니불은 개입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녀에게 5대 조상 중에서 어느 한 사람이라도 죽지 않고 살아 있는 집이 있는지 찾아보라고 시켰습니다. 그런 집을 찾아서 그 집의 물건을 조금 가져오면 신통을 써서 그녀의 아들을 살려 줄 수 있다고 했습니다. 당연히 그런 일은 없었지요. 그는 방편법을 써서 그녀가 깨어나도록 가르쳤던 것입니다.

석가모니불은 물론 그 여인의 아들을 살려낼 수 있는 능력이 있었지만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매사에 신통을 써서 사람을 구하거나 병을 고쳐 주는 사람은 모두 과장이 심한 사람이며, 또 좋은 사람도 아닙니다. 그런 사람은 등급이 그다지 높지 않거나 ‘에고’가 존재할 가능성이 아주 많습니다. 대수행자는 신통을 쓰지 않고 병을 고칩니다.

여러분이 입문할 때 내가 나누어 준 인쇄물에 아주 정확하게 써 놓았습니다. “만일 여러분이 전에 신통을 써서 사람을 구하는 일을 했다면 지금 그만두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등급이 올라갈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런 신통은 삼계 이내의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신통을 사용한다면 해탈할 수 없습니다.

예를 들어 우리가 비행기를 타고 미국에 가야 한다고 합시다. 그런데 자동차나 자전거에 집착해서 날마다 그것만 타고 있다면 언제 비행기를 탈 수 있겠습니까? 자전거나 자동차는 땅에서 탈 수 있는 것인데 거기에만 집착한다면 우리는 비행기를 탈 수 없습니다. 이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자동차로 비행장까지 갔으면 차에서 내려야만 비행기를 탈 수 있지요. 비행기를 타면서 동시에 차를 운전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지 않나요?

신통을 사용하는 것이라면 궁극적인 것이 아닙니다. 결코 아니에요. 목견련을 보세요. 그렇게 많은 신통이 있었지만 소용이 없습니다. 자기 어머니조차도 구할 수 없었는데 중생은 더욱 말할 필요도 없겠지요. 그런데 목견련에게는 신통이 있었는데 왜 자기 어머니도 구할 수 없었을까요? 그것은 그가 아라한의 등급을 수행해서 신통만을 닦았을 뿐 지혜를 열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신통을 닦는 것은 소용이 없습니다. 내가 늘 여러분에게 말하지요. “신통을 쓰지 마세요. 신통이 있다고 해도 써서는 안 됩니다.”라고요. 나 자신도 신통을 쓰지 않습니다. 여러분도 밖에 나가서 “나의 스승이 병을 고치신다. 여기 오기만 하면 병이 바로 낫는다.”라고 함부로 말하지 마세요. 그건 여러분이 꿈꾸는 거예요. 난

일부러 뭔가를 하지 않습니다. 아마도 내게 약간의 사랑과 동정심이 있어서 어떤 사람을 보았을 때 가엾게 느껴지면 마음속으로 잠깐 생각만 했을 뿐인데도 나도 모르게 사랑의 기운이 흘러나와, 그 사람이 바로 감응을 얻고 즉시 복을 받는 것이겠지요. 결코 내가 일부러 그렇게 한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저절로 일어난 일이에요.

예컨대 여러분이 아주 귀여운 아이를 보면 당연히 귀여워하며 안아 주고 싶을 겁니다. 이것은 자연스런 것이지 일부러 생각하거나 일부러 안아 주려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지요? 불보살도 마찬가지로 여서 저절로 중생을 아끼고 사랑하는 것입니다. 겸손한 사람이나 고통스러워하는 사람을 보면 그들과 똑같은 감정을 느끼곤 마음속에서부터 중생을 이롭게 할 수 있는 사랑이 저절로 우러나오는 것입니다. 이렇게 불보살 자신이 그런 신통을 갖추고 있기 때문에 무엇이든 그들이 생각하는 대로 변하게 됩니다. 그들의 자장(磁場)이 아주 평화롭고 사람을 이롭게 해서 누구든 그 안으로 들어오기만 하면 이로움을 얻게 됩니다.

그렇지만 이로움의 많고 적음은 여러분이 업장에 얼마나 가려져 있는지에 달려 있습니다. 만일 이로움이 많다면 여러분에게 창문이 있어 조금 내다볼 수 있다는 뜻이고, 이로움이 적다면 여러분이 너무 많은 장벽에 가려져 있어서 내다볼 수 없다는 것을 뜻합니다.

누구 지금 스승이 되고 싶은 사람 있나요? 아무도 없군요! 집으로 돌아간 뒤에 몰래 스승이 되려고 하지 마세요. 내가 보지 못할 거라고 생각하겠지만 사실 나는 모든 것을 다 봅니다.

질문(이하 Q): 석가모니불은 신통을 사용했던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아난존자가 마등가녀에게 미혹되었을 때 석가모니불이 신통으로 그를 구했으니까요. 스승님께서 설명해 주실 수 있겠는지요?

칭하이 스승(이하 A): 석가모니불은 신통을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자연스러운 일이었지요. 왜 그럴까요? 아난은 곤경에 빠져 계를 범할 뻔했을 때 부처에게 도와 달라고 기도하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스승님, 어서 빨리 오셔서 저를 구해 주십시오. 저는 곤경에 빠졌습니다.”

제자에게 이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자신이 어려움에 처했을 때 즉시 스승을 생각하게 되지요. 그가 스승을 생각할 때 그의 스승이 자연스럽게 빛을 발하며 와서 그를 구했습니다. 아마 석가모니불도 자연스럽게 한 것이라 자신이 아난을 구했다는 것을 모를 수 있습니다. 그때 그의 육계(肉髻)(부처의 정수리에 솟아 있는 상투 모양의 혹)에서 한 줄기 빛이 나왔고 빛 가운데에서 천엽연화(千葉蓮花)가 나타났는데, 이 천엽연화 위에 화신불(化身佛)이 한 분 앉아 있었습니다. 바로 그 화신불이 능엄주를 말한 것이었지요. 석가모니불의 육신이 능엄주를 말한 것이 아니라 내면의 스승, 곧 화신 스승이 말한 것입니다.

“천엽보련이 솟아오르고 보련화 중에 화신여래가 앉아 계시어 정상으로 십도의 백보광명을 놓으시고 날날 광명에서…… 방광하시는 여래께서 신비한 주를 말씀하시다. 나무살달타…… 사바하(千葉寶蓮 有化如來 坐寶花中 頂放十道 百寶光明 一一光明…… 放光如來 宣說神呪 南無薩滄他…… 莎婆訶).” (『능엄경』의 한 부분) 이것은 분명 화신불이 말한 것입니다. 물론 화신불은 어떤 일이든 다 할 수 있습니다. 그의 신통은

끝이 없어서 오고 가는 것이 자유자재하며 하고자 하는 것은 무엇이든 다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완전히 내면의 일이라서 이 세계와는 무관하고, 마왕과도 무관합니다. 그래서 마왕도 막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지만 만일 밖에서 신통을 드러내게 된다면 마왕이 바로 와서 원망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세계에서는 신통을 사용해서 사람을 끌어들이어서는 안 되기 때문입니다. 내면에서는 무엇을 해도 문제가 없습니다. 오직 스승과 제자만이 알 뿐이지요.

그때 아난은 눈을 감고 마음속으로 부처에게 도와 달라고 간청을 했습니다. 아난은 화신불이 문수사리보살(이 세상 너머의 보살)에게 자신을 구하라고 하는 것을 보았지요. 이것은 그의 내면의 체험인데 그가 돌아가서 사람들에게 들려준 것을 사람들이 다시 쓴 것입니다. 여러분은 천엽보련이 곧 제1세계임을 알고 있습니다. 그가 기도할 때 제1세계의 등급에서 그의 스승, 이 화신불을 만난 것이지요. 보통의 육신이 신주(神呪)를 말해 준 것이 아닙니다.

Q: 목건련은 이미 아라한과를 얻었기 때문에 이치로 본다면 그의 어머니는 마땅히 그의 이로움을 받아야 할 텐데, 어째서 아귀도(餓鬼道)에 떨어졌는지요?

A: 왜냐하면 아라한은 중생을 제도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의 어머니는 업장이 너무 무거워서 구할 수가 없었지요. 경전을 보면 보살에게는 어떤 신통과 힘이 있는지, 그리고 어떤 복과 공덕·자비심이 있는지에 대해서 아주 분명하게 기록해 놓았습니다. 그러나 아

라한은 아주 조금만 가지고 있을 뿐이어서 그들의 힘은 한계가 있습니다. 또한 아주 높고 깊은 지혜나 한량없는 자비심이 있는 것도 아닙니다. (『화엄경』을 보면 압니다.)

Q: 우리는 아직 아라한과를 얻지 못했는데, 어째서 우리가 입문을 한 뒤에 5대 조상이 천도되는 것인가요?

A: 아주 간단합니다. 여러분은 보살도菩薩道를 닦는 것이지 아라한도阿羅漢道를 닦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내가 여러분에게 가르쳐 준 것은 바로 보살도이지 아라한도가 아닙니다. 그러니 여러분은 살생해서는 안 되며, 부부관계도 줄여야만 합니다. 이것들은 모두 보살계입니다. 나는 계율을 간단하게 요점만을 잡아 정리해서 여러분에게 가르쳐 준 것입니다. 여러분이 들으면 바로 보살계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고기를 먹어서는 안 된다는 것은 바로 보살계입니다. 오직 보살계에만 “중생의 고기를 먹어서는 안 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아라한은 대부분 한 명 또는 두 명이 산속에서 수행을 합니다. 그들은 중생을 제도하겠다는 생각은 하지 않습니다. 비록 중생이 아주 고통스러워해도 그들의 마음은 여전히 움직이지 않지요.

보살은 다릅니다. 그들은 마음이 움직여서 사람을 구하겠다고 발원을 합니다. 그래서 관음보살·보현보살·문수사리보살이 모두 아주 유명한 것입니다. 그들은 지혜가 있고,神通이 있으며, 자비심도 있습니다. 그들은 세세생생 그 씨앗을 심었고 인연을 심었기에 보살과를 얻은 것입니다.

아라한은 그런 인연을 심지 않았으니 당연히 그런 과보를 얻지

못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아라한에게는 보살의神通도 없고, 보살의 자비심도 없으며, 보살의 힘도 없는 것입니다. 『화엄경』에도 나와 있습니다. 화엄법회를 거행할 때 아주 많은 보살들이 와서 석가모니불에게神通을 펼쳐 보이고, 아름다운 경지들을 만들어 보였습니다. 그러나 법회에 함께 있던 아라한은 마치 눈멀고 귀먹은 사람처럼 조금도 보지 못하고, 조금도 듣지 못했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보살과를 얻지 못한 아라한의 등급이었을 뿐이기 때문입니다.

불보살은 불보살의 것을 누립니다. 그들의 세계는 아라한의 입장에서 본다면 아주 낮은 곳입니다. 마치 둘로 나뉜 세계와 같아서 아라한은 불보살의 경지를 전혀 체험할 수가 없습니다. 물론 그도 생사해탈을 할 수는 있습니다. 여기에는 털끝만큼도 문제가 없지요. 다만 목건련처럼 힘이 충분하지 않아서 사람을 구할 수는 없고 작디작은神通만 있을 뿐입니다. 비록 목건련의神通이 크다고는 해도 자기 어머니를 구하지는 못했습니다.

여러분이 입문하면 바로 5대가 천도될 수 있습니다. 그렇지요? 여러분이 보살이 되려고 하고, 5대를 구하려고 하고, 보살도를 행하려는 마음만 있다면 그렇게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전생에 일찍이 그런 종류의 인과를 심었고, 불보살 앞에서 아주 많은 공덕을 지었으며, 아주 많은 지혜의 인과를 심었고, 아주 많은 자비심의 인과를 만들었기 때문에, 지금 이런 보살도를 만날 수 있는 것입니다. 그 외 사람들은 우리가 말을 해도 듣지 않고, 흥미를 느끼지도 않으며, 들어도 이해하질 못합니다. 그것은 그들이 그런 씨앗을 심어 놓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경전에서는 목건련이 자기에게 어머니를 구할 능력이 없다는 것을 알고는 한탄하며 돌아가서 울었다고 합니다. 이 점에 관해서는 나도 한 가지 의문이 있어요. 나는 그가 정말로 돌아가서 운 것이 아니라, 그가 울 때 바로 화신불과 화신보살의 출현을 친견하고는 그들의 지도를 받은 뒤에 다시 가서 자기 어머니를 구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는 비록 내면의 불보살이 우리에게 가르쳐 준 것이지만, 외면으로도 우리는 그가 가르쳐 준 방법대로 할 수 있습니다.

이를테면 어떤 사람이 자기가 병에 걸리거나 자기 어머니가 병에 걸렸을 때 지극한 마음으로 기도를 하면 관음보살이 나타나서 내면으로 가르침을 줍니다. “그대는 돌아가서 모모 풀잎이나 풀뿌리를 함께 넣어 몇 시간 동안 끓여서 그 약을 어머니에게 마시게 하이라. 그러면 곧 나을 것이다.” 그런데 관음보살이 나타날 때는 보통 사람이 와서 이야기하는 것과는 다릅니다. 반드시 성심성의를 다해서 마음을 집중할 때라야 관음보살이 나타날 것입니다. 그것은 또 다른 하나의 등급입니다.



3 장

깨달음에는 불상이 필요치 않다

3장

깨달음에는 불상이 필요치 않다

1986. 11. 5. 포모사 타이베이

여러분은 내가 부유한 집에서 자랐다는 이야기를 듣고는 그래서 출가할 수 있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서 “저희 집은 너무 가난해서 출가할 수 없습니다.”라고 말하지요. 하지만 그렇게 말하기는 좀 부끄러울 거예요! (대중 크게 웃음) 가난하든 부유하든 모두 출가할 수 있습니다. 출가하고 나서는 어차피 모두 돈이 없는 가난한 사람이 될 테니까요. 그러나 수행이 꼭 고생스러워야만 하는 것은 아니에요.

내가 전에 선삼禪三을 할 때 인도 이야기를 하나 해준 적이 있지요. 오로빈도(Sri Aurobindo)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는 감옥에 갇혀 있을 때도 날마다 열심히 수행했어요. 감옥에서 나온 뒤에는 자유로운 사람이 되었을 뿐만 아니라 동시에 영혼도 자유로워져서 인도의 큰스승이 되었지요. 현재 그는 인도에서 아주 유명합니다. 그의 명상센터도 국제적으로 아주 유명하고요. 물론 그는 이미 왕생

했지만 아직도 많은 사람들이 그가 생전에 수행했던 아쉬람에 와서 남겨진 복을 조금이라도 받고 싶어합니다.

수행에는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하나는 간단한 것이고 나머지 하나는 어려운 것입니다. 간단하게 수행해도 성불할 수 있고 어렵게 수행해도 역시 성불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 개인의 업장에 달려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꼭 가정을 떠나 히말라야 산에 가서 내가 했던 것처럼 산나물이나 생채를 먹어야 한다는 것은 아니에요. 내가 그렇게 했던 것은 상황이 그랬기 때문입니다. 그곳에 먹을 만한 게 없어서였지 당장 성불할 수 있어서 그렇게 한 게 아니었어요.

집에서는 좀더 편안하게 생활하면서 수행을 병행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집에 있으면 너무 바빠서 수행할 수 없다고 늘 말하지요. 하지만 내가 조금 전에 얘기했던 오로빈도는 감옥에서 지내면서 생활이 자유롭지도 편안하지도 않았지만 스스로를 격려하며 수행해서 깨달음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재가자는 생활이 비교적 편안하지만 너무 편안해도 수행을 게을리합니다. 그러니 무슨 일든 균형이 맞아야 합니다.

어제 제자 한 사람이 나에게 물었습니다. “제가 출가하는 게 좋을까요? 출가하면 공덕이 있습니까? 어디에 가서 출가하는 것이 더 좋은가요?” 내가 말했어요. “어디라도 다 괜찮습니다. 수행할 시간만 있다면 출가하는 것이 좋지요.” 하지만 출가해서 제대로 수행할 수 없다면 재가자보다 더 나빠질 겁니다. 이곳의 반이 넘는 절에서는 다들 경을 읽고 예불을 하느라 너무 바쁩니다. 나는 결코 이런 방

법이나 이런 생활을 험담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다만 이런 생활은 너무 바빠서 명상할 시간이 없다는 겁니다. 어떤 때는 경을 읽어 주러 가서는 밤 11시, 12시가 되도록 돌아오지 못하기도 합니다. 아침에도 명상할 시간이 없지요. 하루 종일 시끌벅적합니다. 그런데 그 제자는 나를 만나기 전에 이미 다른 절에 가서 나중에 그곳으로 출가하겠다는 약속을 했다고 하더군요. 나는 말했지요. “괜찮아요! 수행을 할 수만 있다면 그곳에 가서 출가하세요. 출가 생활은 유용하니까요.”

왜 출가하려고 할까요? 그것은 우리가 세상의 것들을 내려놓고 더욱 많은 시간을 내서 빨리빨리 수행하고 싶어하기 때문입니다. 수행하면서 중생을 제도할 수도 있고요. 수행이 무엇일까요? 명상하는 것만이 수행은 아닙니다. 마땅히 좋은 스승을 따라서 진리를 배우고 참선하며, 경전의 이로움과 수행의 등급 등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눌 때라야 출가도 유용한 것입니다. 그렇지 않고 출가하고 난 뒤 하루 종일 여러분의 머리를 경전 속에 파묻고 경전을 한 장 넘기고 또 한 장 넘기는 것이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경을 큰 소리로 너무 많이 읽어서 돌아가서는 목이 쉬고 기운이 없어지고, 수행은 아직 얼마 하지도 않았는데 원기를 모두 남김없이 소모시켜 버리는 그런 일은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인도에서 출가자는 집이 없습니다. 진정으로 가정을 떠나는 것이지요. 그들은 돈이 많지 않아서 탁발을 해야 하기 때문에 날마다 걷습니다. 이천 년 전과 똑같지요. 사람들이 더러 그들에게 돈을 조금 공양하면 그들도 얼마 동안은 버스를 탈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다

면 모두 걸어서 다니지요. 탁발하면서 걷고, 발길 닿는 곳까지 걷습니다. 어딘가에 도착해서 훌륭한 큰스승이 있다는 얘기를 들으면 바로 그곳으로 가서 진리를 배웁니다. 얼마 동안 그들과 같이 명상하고 수행하다가, 만일 뜻에 맞지 않거나 더 배울 것이 없게 되면 다시 다른 스승을 찾아가 배웁니다. 아니면 동수와 함께 명상을 하거나 산속의 동굴을 찾아가 혼자서 수행하기도 하지요. 혼자서 얼마 동안 명상을 하고 나면 그 동굴을 떠나서 다시 다른 곳으로 갑니다.

그들은 한곳에 집착하게 될까 봐 여기저기 옮겨다니는 것입니다. 그들이 출가하는 것은 정말로 수행을 더욱더 잘하기 위해서입니다. 우리가 이곳에서 출가하는 것과는 상황이 다릅니다. 이곳에서는 마치 출가의 목적을 잊어버린 것만 같습니다.

출가하는 것은 아주 좋습니다. 출가자가 없다면 불교가 없는 것이나 다름없으니까요. 불교가 없으면 어떤 사람들은 어떻게 수행해야 될지 모를 테고, 수행에 대한 약간의 개념을 얻을 기회조차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출가자가 있어야 합니다. 출가자의 모습을 보고서 사람들은 조금이나마 수행에 대한 개념을 일깨우게 되고, 나중에 서서히 다른 사람에게 가서 물을 수도 있습니다. “왜 이 사람은 머리를 깎은 거지요? 왜 나하고 같지 않나요?” 그러면 “불교의 스님입니다.”라고 말해 주겠지요. 또는 어떤 사람이 하얀 옷을 입고 있는 것을 보고서 “저 사람은 왜 저런 옷을 입었나요?”라고 묻는다면 “그녀는 천주교의 수녀입니다.”라고 알려줄 겁니다.

그 다음엔 천주교는 무엇이고 불교는 무엇인지 의문이 생길 테고, 그러면 누군가 설명해 주겠지요. 천주교의 교주는 예수 그리스

도인데, 이천 년 전에 그는 인도에 가서 십여 년을 수행하고 그 뒤로 또 사막에서 40일을 수행하고 나서는 완전히 깨달아서 큰스승이 되었다고요. 또 불교의 교주는 석가모니인데, 그도 몇 년을 수행한 뒤 큰스승이 되었다고 설명해 주겠지요. 이런 이야기들을 듣고 나면 아마 여러분도 마음을 내어 수행하고 싶어질 겁니다.

그렇지만 오늘날 우리는 지난날 큰스승들의 수행이 경을 읽어 주러 가는 것이 아니었다는 것을 다 잊고 있습니다. 석가모니불은 한번도 경을 읽어 주러 간 적이 없습니다. 오늘 나는 동수(스승님의 제자) 한 사람을 보러 가서는 그녀에게 요즘 명상을 하느냐고 물어보았습니다. 그녀는 “죄송합니다. 스승님, 제가 시간이 없어서요.”라고 하더군요. 그래서 내가 물었지요. “그러면 당신은 아침에 일어나서 무엇을 합니까?” 그러자 그녀는 “일어나서 예불하고 경을 읽습니다.”라고 했어요. 내가 “당신은 시간이 없다면서 어떻게 경을 읽을 수 있지요?”라고 했더니, 그녀는 “경을 읽고 나면 시간이 없어요.”라고 하더군요. (대중 크게 웃음) 그래서 내가 또 물었지요. “당신은 경의 뜻을 이해합니까?” 그녀는 “전혀 이해하지 못합니다.”라고 말했어요. 내가 “이해하지도 못하면서 경을 읽어서 무엇합니까? 마땅히 수행을 잘해야지요. 업장이 그렇게나 깊고 무거우면서 이해하지도 못하는 경이나 외우려고 하다니요?”라고 말했더니, 그녀는 “잘 알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앞으로는 스승님의 말씀을 들겠습니다.”라고 대답했습니다.

정말 어쩔 수가 없어요. 내가 한동안 그들을 돌보지 않았더니 수행은 하지 않고 경을 읽습니다. 정말 이상해요. 스스로 자기 자신을

제어하지 못하고, 모두 내가 뒤에서 밀어야 합니다. 절반이 넘는 사람들이 경을 읽지만 그 뜻을 이해하지 못합니다. 왜 경을 외워야 하는 걸까요? 경을 읽어서 무엇을 하지요? 전에는 거의 모든 사람들이 글자를 몰라서 경을 읽을 수 없었습니다. 게다가 인쇄기나 복사기가 발명되지 않아서 경을 한꺼번에 많이 인쇄할 수도 없었지요. 그래서 경전이 특별히 귀중하게 보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옛사람들은 모두 경전을 아주 존중했습니다. 너무 귀중했으니까요. 사람들이 저마다 경전을 소유해서 개인 서재에 두고 날마다 본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었기 때문에 한 사람이 많은 사람들에게 읽어 주어야 했습니다. 그들은 아마도 한 사람에게 먼저 읽도록 하고, 그 다음에 모두가 함께 따라 읽으며 다 외우게 될 때까지 읽었을 겁니다. 그리고 나서 다시 입에서 입으로 전해졌던 것이지요. 전에는 많은 사람들이 글자를 몰라서 경전을 이해할 수 없었기 때문에 이처럼 입에서 입으로 전해야만 했습니다.

이 전통이 전해져 내려오면서 오늘날에는 우리가 아침과 저녁 예불 때마다 『아미타경』·팔십팔불八十八佛·능엄주·대비주 등을 아주 고생스럽게 외워야 하는 것으로 바뀌어 버린 것입니다. 이제는 경전도 많고 거의 모든 사람들이 글자를 알아서 함께 읽을 수 있는데도 여전히 날마다 경을 외웁니다. 왜 경을 외우려고 하는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전에는 인쇄기가 없어서 그렇게 많은 경전을 인쇄하지 못했기 때문에 외울 수밖에 없었습니다. 또 스승의 경전 강의를 들으러 가는 것도 쉽지 않았고, 스승의 경전 강의 테이프를 구한다는 것 역시

더더욱 불가능한 일이었기 때문에 한 사람이 경을 듣고 돌아와서는 다시 많은 사람들에게 들려주어야 했던 것이지요. 사실 이런 식으로 경을 읽고 외워야 유용하며 복이 있는 것입니다. 그때는 경을 이야기한 스승이 아직 살아 있어서 제자들에게 경을 말해 줌과 동시에 힘도 함께 전해 주었기 때문에 복이 있었던 것입니다.

만일 그 스승이 아직 세상에 있으면 그 스승에게 배우지 못한 사람도 조금의 복과 힘을 얻을 수 있습니다. 경을 여러 번 들어 본 뒤에 뜻에 맞고 좋아서 그 스승에게 직접 가서 입문을 하게 된다면, 그런 상황에서야말로 경을 외우는 것이 복이 되는 것입니다. 날마다 나무 아미타불을 외우거나 나모라 다나다라야야 나막알약 바로기제…… 같은 것을 외우면서 이렇게 하면 복이 있다고 여기지만 무슨 복이 있겠습니까? 이 테이프도 경을 외울 수 있지만 테이프에게 복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경의 뜻을 이해하지 못하는데 무슨 복이 있었어요?

경을 읽는 것은 이치를 명백히 알고자 함이고, 여러분이 강연을 들으러 오는 것도 이치를 이해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렇지 않나요? 왜 우리가 수행해야 하는지, 왜 생사해탈을 해야 하는지, 왜 이 세계는 고통스러운지 등을 이해하기 위해서지요. 우리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는 곳을 찾기 위해 강연을 들으러 옵니다.

여기에 와서 강연을 들으면서 알아듣지 못해도 복이 있다고 말하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만일 그렇다면 내가 영어로 강연을 해도 될 텐데 구태여 중국어로 할 필요가 있겠습니까? 나는 영어로 말하는 것이 더 편하고, 또 그렇게 피곤하지도 않습니다. 하지만 여러분이 알아듣도록 하기 위해서 중국어로 강연을 합니다. 이해하겠어요?

경의 뜻을 이해하지 못한다면 경을 외워서 무엇을 하겠습니까? 경전을 이해하지 못한다면 아무런 소용이 없습니다. 어느 것이든 마찬가지로 이해하지 못한다면 소용이 없지요. 왜냐하면 이해하기 때문에 우리가 배울 수 있으니까요. 이해하지 못하는데 어떻게 배울 수 있겠습니까? 머리가 하얗게 될 때까지 외운다고 해도 깨닫지 못할 겁니다. 이해하지 못하는데 어떻게 깨닫겠어요? 깨닫는다는 것은 명백하다는 것을 뜻합니다. 그러나 이해하지 못하는데 어떻게 명백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지 않나요?

그래서 나는 입문을 시킬 때 어느 나라 말을 하든 상관없이 세세한 상황에서부터 여러분이 신비하다고 여기는 어떠한 일이든 모두 명확하게 해석해서 여러분에게 들려주고 보여 줍니다. 이렇게 해야 그것이 무엇을 뜻하는지 이해할 수 있습니다. 설사 아주 조금일지라도 명확하게 설명해야 합니다.

모든 경전을 다 꺼내 놓고 녹음기처럼 외우는 것이 아닙니다. 이러는 것이 어떻게 복이 있을 수 있겠어요? 어떤 사람은 경을 외워도 뜻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경에 절을 합니다. 마치 경에 절을 하고 나면 경전의 지혜가 바로 자기에게 들어올 것처럼요. 그런 일이 어떻게 가능하겠어요?

고대의 수행자라고 하는 사람들은 모두 좀 신비로웠던 것 같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학문이 실제로 어느 정도인지 다른 사람들이 모르게 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좀더 쉽게 사람들을 제어했지요. 알겠어요? 그들이 무슨 말을 하든 사람들은 아주 쉽게 복종합니다. 만일 그들이 “이것은 그대가 이해할 수 없어서 말을 해도 모르는 것이

다.”라고 하면 다른 사람 눈에는 그들이 한층 뛰어난 것처럼 보일 겁니다. 다른 사람은 모두 어리석은 것 같고 수행자라는 사람과 경을 읽을 수 있는 사람만 대단하게 보이는 것이지요. 이것은 아주 좋지 않은 전통입니다. 그렇지만 현대인은 총명해서 달에도 갈 수 있으며 그렇게 어리석지도 않습니다. 이렇게 총명한 두뇌를 가졌으니 경전을 왜 읽는지 알아야 합니다.

경전에 절을 하는 것이 아무런 소용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운동을 해도 도움이 되는데 경전에 절을 하는 것이 왜 소용이 없겠어요? 소용이 있습니다. 하지만 경전이 우리에게 무슨 도움이 된다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성심성의로 예배하며 생각을 집중하기 때문에 감응이 있다는 뜻입니다. 이해하겠어요? 경전을 읽고 경전에 절을 하는 것이 쓸모 있다는 게 아니에요. 호흡을 수행하는, 즉 1에서 10까지 세는 수식관數息觀을 하는 사람에게도 다 감응이 있고 체험이 있습니다. 호흡하는 것도 감응이 있는데 어떻게 경전에 절을 하는 것이 체험이 없겠어요? 다만 경전 때문에 사람들에게 어떤 체험이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자신이 생각을 집중해서 간절히 바랐기 때문에 체험이 있고 감응이 있다는 것입니다.

경전에 절하는 사람이 나쁘다는 것이 아닙니다. 전에는 경전을 가르쳐 주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기 때문에 보통 사람들이 잘 몰랐던 것이지요. 고대에 조금이라도 수행을 하던 사람들은 그들을 제외한 보통 사람들이 경전을 아는 것을 원하지 않았습니다. 예전에 인도에는 바라문이라는 가장 높은 계급이 있었는데, 그들은 학문도 가장 높았습니다. 4베다Veda는 오로지 바라문만이 배울 수 있었고 보통 사

람들은 배울 수가 없었지요. 그래서 바라문을 제외한 다른 사람들은 마치 바보 같아 보였습니다. 보통 사람들은 4베다가 무슨 이치인지 알 수 없었으니 갈수록 신비하게 변해 버린 것입니다.

본래 수행이란 신비한 것이 아닙니다. 다만 이 힘을 우리가 보지 못하고 잡지 못하기 때문에 아주 신비하다고 생각하는 것이지요. 사실 신비로울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 힘은 전기와 같아서 잡지 못하고 인식하지 못하지만, 사용하는 방법을 안다면 우리도 쓸 수 있습니다.

수행의 힘이란 것은 틀림없이 있습니다. 없는 것이 아닙니다. 신통도 마찬가지예요. 사람은 자기 두뇌의 힘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 내면에 있고 자신의 힘에 속하기 때문에 신통이 있는 것이지요. 우리는 수행을 해서 자기 내면에 있는 신성한 힘을 깨달을 수 있습니다. 수행이 높아질수록 이 힘을 더 표현해 낼 수 있어서 다른 사람에게도 영향을 줄 수 있지요. 수행해서 큰 힘을 갖추게 된 뒤에는 다른 사람에게 법을 전해 줄 수도 있습니다. 이제 여러분은 법을 전한다는 것이 사실 무슨 신비로운 것이 아니라는 것을 이해했을 겁니다.

이러테면 공중에는 전기가 분명 있는데 여러분이 ‘전기’가 무엇인지 모른다고 합시다. 여러분이 전기 법문을 배우지 않았다면 어떻게 전기를 사용하는지 모를 거예요. 그렇지만 어떤 사람이 아주 오랫동안 그 법문을 배워서 이미 전기학의 전문가가 되어 전기와 소통할 수 있고, 또 어떻게 하면 전등을 밝힐 수 있는지 잘 안다면, 사람들을 위해 전기를 통하게 해주고 전등을 밝게 켜 주는 것이 그에게

아무런 문제도 안 될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아무것도 모른다면 그 사람에게 무슨 신통이 있다고 생각할 거예요. 사실은 신비로운 것이 하나도 없지요. 우리가 모르기 때문에 신비하다고 생각하는 것이지 알고 난 뒤에는 신비로운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석가모니불은 성불하고 난 뒤 4베다의 신비한 교리를 전부 공개적으로 사람들에게 가르쳐서 훗날 모든 사람들이 그 교리를 알게 되었습니다. 4베다의 교리와 부처의 깨달음, 이 두 가지가 더해져서 불교가 된 것입니다. 그렇지 않았다면 우리에게 불교는 없고 오로지 힌두교만 있었을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전에는 이 관음법문을 공개적으로 가르친 사람이 아무도 없었고, 사람들을 가르치는 것도 그렇게 간단하지 않았습니다. 법을 구하고자 하는 사람은 산을 넘고 물을 건너 직접 찾으러 가야만 했습니다. 이제 나는 공개적으로 많은 사람들을 가르칩니다. 나중에는 이 법문의 교리와 내가 얻은 작은 깨달음이 함께 더해져서 칭하이 교로 변할 가능성이 아주 많습니다. (대중 웃음) 사실은 새롭게 만들어 낸 무슨 교리가 있는 것이 아니라 모두 고대의 것이지요. 다만 기름 칠을 하고 윤이 나게 닦아서 사람들에게 보여 준 것뿐입니다. 골동품과 같이 본래부터 있던 것을 파내서 새롭게 수리하고 윤이 나게 닦아 진열장에 놓기만 하면 바로 팔 수 있는 것처럼 말입니다.

그러니 무슨 신비로운 것이 아닙니다. 예로부터 지금까지 지위가 높은 사람들은 그들 특권층의 지식과 계급을 오로지 자신들만 보유하려고 했습니다. 그것을 알리더라도 그들이 잘 아는 제자 몇 명에게만 알려주었을 뿐 일반 대중들에게는 알려주지 않았습니다. 그렇

게 하면 그들이 무슨 말을 하든 대중은 알아듣지 못하기 때문에 자기들이 일반 대중보다 훨씬 더 높다는 것을 보여 줄 수 있었으며, 또한 비교적 쉽게 대중을 통제할 수도 있었지요. 만일 모든 사람들이 다 안다면 그들의 지위가 특수하다는 것을 더 이상 보여 줄 수 없을 겁니다. 그렇지요?

내가 아무리 많은 말을 한다고 해도 다 같은 뜻입니다. 그런데도 사람들은 여전히 알아듣지 못하고 수행의 겉모양에 집착해서는 놓아버릴 수 없습니다. 겉모양에 너무 익숙해져 있어서, 만일 다른 사람에게 무엇이 있는데 나에게 없으면 온몸이 근질근질하면서 이상해지는 느낌마저 듭니다. 예컨대 다른 사람은 TV가 있는데 나는 없다면 곧 이상하다고 느끼지요. 다른 사람은 차가 있는데 나는 없으면 자신에게 무언가 부족한 게 있는 것 같아서 안심하고 일하거나 밥을 먹지 못합니다. 만일 모두 불상에 절을 하면 나도 반드시 그럴 처럼 해야지 그렇지 않으면 무언가 잘못된 것같이 느껴집니다.

어떤 사람은 내가 지금 불상에 절하는 것은 소용이 없다고 한 말을 듣고는 바로 두려워하며 어찌할 바를 모릅니다. 본래 절하지 않았던 사람은 관계없습니다. 지금 절하지 않는다고 해도 당연히 아무렇지도 않지요. 그렇지만 절하고 싶다면 해도 됩니다. 여러분에게 절하지 말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선삼을 할 때 나는 좀더 깊은 도리를 이야기합니다. 평소에도 나는 여러분에게 절하고 싶으면 하라고 말했습니다. 단 외형에 절하면서 내면에도 절하십시오. 이래야만 비교적 균형이 맞습니다. 알겠어요?

힌두교는 인도에서 이미 사오천 년을 이어져 내려왔으며, 지금

까지도 아직 다른 나라의 영향을 받지 않았습니다. 힌두교의 교리나 전통 역시 그다지 파괴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불교는 어떤 시기엔 아주 눈부시게 발전했지만, 일단 고의적으로 불교를 파괴하려는 왕에게 법난(法難)을 당하면 더 이상 생존하지 못하고 다른 나라로 옮겨 가서 발전해야 했습니다. 나중에 또 그 나라 왕에게 핍박을 받게 되면 또다시 다른 곳으로 옮겨가서 발전해야 했지요.

그러나 힌두교는 이런 일이 없었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들에게엔 하나로 된 조직적인 단체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모두 가정식(家庭式) 수행을 했습니다. 예컨대 우리가 있는 이곳에 삼보불(三寶佛)이 있다면, 그들에게도 자신들이 신앙으로 믿는 보살이 있습니다. 그들이 집에 모셔 두는 보살은 작디작아서, 심지어는 우리가 길에다 모셔 두는 토지신보다도 더 작습니다. 인도인은 자신들이 믿는 보살들을 그런 식으로 작게 만들어 하나나 둘, 셋을 함께 모셔 놓고는 울긋불긋하게 색을 칠하고 반짝반짝 빛나게 닦아 작은 꽃과 물, 그리고 과일을 조금씩 공양합니다. 가끔 향을 피우지 않는다고 해서 무슨 큰일이 나는 건 아닙니다. 알겠습니까? 우리가 만일 힌두교인의 집에 가서 그런 작디작은 아쉬람을 보게 된다면, 그것들을 파괴하거나 없애 버리고 싶은 생각이 전혀 들지 않을 겁니다. 왜냐하면 아주 볼품이 없어서 다른 사람의 주의를 끌지 못하니까요.

예컨대 여러분이 다른 사람의 집에 가서 토지신을 모셔 놓은 작은 불단을 본다면 그 작은 토지신이나 불단이 별로 특별하게 느껴지지 않아서 그냥 소홀히 지나쳐 버리게 될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다른 나라의 종교가 침입해 오더라도 이런 가정식의 작

은 신앙인 힌두교에 대해서는 다른 종교 역시 그걸 파괴하고 싶은 정도로 질투심을 일으키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정부도 민간의 그런 작은 신앙에 관여하지 않으며, 이런 개인적인 작은 신앙 때문에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이라고는 생각지 않습니다. 이해하겠어요?

인도인들은 모두 가정에서 수행하기 때문에 어려서부터 이미 채식하고 4배다를 읽기 시작하며, 그런 작은 석상에 예배하고 매주 석상을 목욕시키는 일만을 할 뿐 다른 일은 없습니다. 공양하는 꽃이나 향도 아주 조금이라서, 다른 사람 눈에는 그들이 믿는 보살이 마치 어린아이의 플라스틱 장난감처럼 보일 뿐 불교의 높고 큰 불상처럼 그렇게 장엄하게 보이질 않지요. 그래서 아무도 질투심이나 악의를 가지고 그것들을 파괴하고 없애 버릴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인도의 가정집에 간다고 해도 자세하게 주의를 기울여 보지 않는다면 그 작은 아쉬람을 볼 수 없을지도 모릅니다. 그것은 마치 주머니 속의 미니(mini) 아쉬람 같으니까요. 우리가 주머니 속에 넣고 다닐 수 있는 작은 책이 있듯이, 인도인들도 주머니 속에 넣을 수 있는 작은 아쉬람이 있습니다. 게다가 귀여운 작은 신상과 귀여운 작은 꽃은 주의해서 보지 않는다면 볼 수 없지요. 그래서 아무도 그런 가정에 무슨 굳건한 종교 신앙이 있을 거라고는 생각하지 않는 겁니다.

세세생생 인도는 수행의 성지였습니다. 그들은 어려서부터 수행을 시작했기 때문에 큰 아쉬람이나 그렇게 큰 불상을 갖추지 않아도 똑같이 그들의 신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가정의 작은 아쉬람이면 되지 큰 조직 단체가 필요한 건 아니어서 그들에게는 마치 진정

한 사원이 없는 것처럼 보이지요. 혹시 있다고 하더라도 무슨 진짜 큰 아쉬움이 아니고, 다만 출가자들이 오가면서 수행하는 곳일 뿐입니다.

내가 조금 전에 말했듯이 그들에겐 진정으로 부유한 단체가 있는 것도 아니고, 부유한 조직이 세운 큰 사원이 있는 것도 아닙니다. 그래서 정부나 다른 나라에서 온 어떤 종교든 모두 위협받는다든 생각이 들지 않고 힌두교 신앙이 주는 압력을 느끼지 못하기 때문에 모두 그것을 파괴하거나 없애 버릴 생각을 하지 않는 것입니다.

하루는 내가 인도의 가정집을 방문했는데, 마침 그날이 금요일이었습니다. 금요일은 언제나 보살을 목욕시키는 날이지요. 그들은 우유와 싱싱한 꽃, 그리고 향료를 함께 섞어서 신상을 목욕시켰는데, 별로 특별히 공경하는 의식 같아 보이지는 않았어요. 그들은 먼저 한두 개의 야자에 구멍을 내고 준비해 두었던 특별한 목욕물을 그 안에 부어 넣은 뒤 작은 신상인 작은 보살, 즉 그들의 가장 높은 신을 야자 안에 넣고 씻었습니다. 작은 석상들은 정말 귀여워 보였어요.

불교의 상황은 다릅니다. 지금 강연하는 이곳을 예로 들자면, 저기에 있는 저렇게 큰 불상을 봤을 때 우리는 자연히 존경과 겸손한 태도가 생기고, 더군다나 감히 불상 앞에서 제멋대로 방자하게 굴지 못합니다. 불상이 너무나 장엄하고 높고 큰 데다가 가장 높은 곳에 놓여 있기 때문에 사람들은 자연히 형상에서 가해지는 무언의 압박을 느끼곤선 겸손해질 수밖에 없게 됩니다.

그렇지만 인도인이 그들의 신상을 목욕시키는 것을 보면 그저 재미있게 느껴질 뿐이지요. 컵 크기 정도 되는 용기에 신선한 우유를

조금 채운 다음 싱싱한 꽃 몇 송이를 더 띄웁니다. 거기에다 어찌면 카레를 조금 더 넣을 수도 있어요. 잘은 모르겠지만, 가끔 색깔이 노란 것을 보아하니 카레를 조금 넣지 않았을까 싶거든요. 그 다음에 세 개의 작은 보살상을 먼저 땅에 내려놓고 축복을 한번 하고 나서 신상을 천천히 우유 속에 넣고 깨끗이 씻습니다. 다 씻으면 다시 제 자리에 올려놓고 작은 향 같은 것을 피우지요. 마지막에 새로운 꽃을 한쪽에 꽂으면 이것으로 목욕시키는 의식이 모두 끝납니다. 뭐 특별히 공경하고 예배하는 복잡한 의식을 하는 것으로 보이지는 않지요.

그러나 우리가 사는 이곳의 의식은 그렇게 간단하지가 않습니다. 너무도 공손하게 머리를 숙였다 들었다 하면서 절을 하지요. 그래서 외국인이나 불교를 믿지 않는 사람들이 보기에는 우리가 그렇게 예배하는 것이 이상하게 느껴질 겁니다. ‘어떻게 저런 불상에 머리를 숙여 절을 할 수가 있을까?’ 하고 생각하겠지요. 이렇게 그들은 좋지 않은 생각과 불경스러운 태도를 가지게 되고, 나중에 우리가 절을 너무 많이 하는 것을 보면 우리를 저지할 수도 있으며, 그래도 우리가 복종하지 않는다면 폭력을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날 많은 종교 박해가 있었던 것입니다. 불교는 과거에도 아주 눈부시게 발전했고 대단히 유명했습니다. 그러나 이따금 외래의 박해를 받게 되면 아무것도 남지 않고 모두 허허벌판으로 변해 버렸습니다. 명성이 높을수록 쉽게 다른 사람의 질투와 공격을 불러일으키기 때문에 너무 큰 것은 작게 변하고 너무 높은 것은 쉽게 떨어지기 마련이지요.

그러나 힌두교의 발전은 높고 낮은 기복이 없이 언제나 평탄하고 순조로웠으며, 세세생생 그랬습니다. 그들은 내면으로 수행을 정말 잘했으며 모두 수행에 대해서 잘 이해했지요. 그들의 이런 모습에 나는 많이 놀랐습니다. 힌두교인은 어려서부터 힌두교 교리를 배우기 시작해서 성장한 뒤에는 이미 기본적인 수행 지식을 갖추고 개념도 아주 안정되기 때문에 다른 교리의 영향을 받아 다시 육식으로 돌아가지도 않습니다. (대중 웃음) 고기 먹으러 갈 생각 같은 것은 하지 않지요. 그들은 이미 어려서부터 이치를 훤히 알고 있어서 어디를 가든지 수행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 성장한 후에도 자연스럽게 힌두교를 믿고 받들며, 나중에 출가를 하더라도 여전히 힌두교를 믿는 것을 당연시하고는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것입니다.

인도에 있을 때, 어느 날 나는 힌두교의 출가자 한 사람을 우연히 만나게 되었습니다. 적지 않은 나이였는데, 거의 60에 가까운 듯했어요. 입고 있는 옷은 아주 낡고 오래되었으며, 몹시 곤궁해 보였지만 그는 정말 행복해 보였습니다. 내가 그에게 “당신은 왜 출가했습니까? 당신의 이상은 무엇이지요?”라고 묻자 그가 말했습니다. “왜 그런 질문을 하지요? 출가는 마땅히 해야 할 도리입니다. 내 책임이지요. 누구나 어른이 되어서 하던 일을 다 마치고, 가정을 다 돌보고, 자식도 다 자라면, 그 다음 이어받을 책임은 바로 법을 보호해야 하는 것입니다. 마땅히 후손에게 법을 전해 주어야 하고, 여러 곳을 다니며 모든 집 앞에 종교를 가져다 놓아 쇠퇴하지 않도록 하는 것, 그것이 나의 책임입니다. 당신은 어떻게 이런 질문을 할 수 있지요?”

그는 영어를 아주 잘했어요. 내가 그에게 물었지요. “당신은 어

쩜 그렇게 영어를 잘하지요? 전에 학식이 풍부했던 사람 아닌가요? 사회적 지위가 높지 않았나요?” 그가 말했어요. “그랬지요. 어떻게 학식이 없을 수가 있겠어요? 나는 정부에서 일을 했어요. 비록 큰 관직은 아니었지만 그래도 아주 좋은 지위였지요. 내 가정 역시 괜찮았어요.” 그는 계속해서 “우리 힌두교인은 학식이 없으면 출가할 수 없습니다.”라고 말했어요. 그가 그렇게 말했어도 그 당시 난 그의 말을 별로 믿지 않았습니다. 그렇지만 많은 곳을 가 보고 인도 출가자들을 많이 만나게 되자 그들이 정말 노인이든 젊은이든 하나같이 모두 영어를 할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게다가 출가한 뒤에는 이전의 나와는 달리 자기의 미루불을 지니고 다니지도 않았지요. 이 이야기는 그날 이미 여러분에게 했습니다.

인도의 출가자들은 어떤 물건도 지니질 않습니다. 진정으로 일체를 놓아 버리고, 모든 생활을 놓아 버리며, 자기 집에 있는 두세분의 보살도 함께 놓아 버립니다. 출가하기 전에는 그들이 집에 있는 보살을 받들고 공양했더라도 출가한 뒤에는 정말 모두 놓아 버립니다. 또한 신상을 함께 지니고 다니지도 않습니다. 그들은 진정으로 출가의 뜻을 이해하며, 그렇게 큰 불상이 없어도 똑같이 수행할 수 있습니다.

그들은 출가한 뒤에 어떤 것도 지니질 않습니다. 옷 세 벌과 추위를 막을 수 있는 담요 한 장, 지팡이 하나, 그리고 철로 만든 표주박 모양의 물통뿐, 이것 말고는 아무것도 지니지 않고 날마다 걷기만 하기 때문에 그들은 수행을 정말 잘합니다. 만일 그들이 자신들의 보살을 목욕시켜야겠다고 생각하면 곧바로 씻깁니다. 그렇지 않

다면 자신들의 보살을 즉시 내려놓고 가 버릴 수도 있지요. 그들은 한곳에 머무르며 함께 경전을 외울 사원이 필요하지 않으며, 자신의 내면에 경전을 지니고 다닙니다. 왜냐하면 이해한 뒤에는 몸에 지니고 다닐 필요가 없으며 읽을 필요도 없기 때문입니다. 그렇지 않나요?

읽는 것은 배우기 위해서, 이 경전 속에 무엇을 이야기해 놓았는지 알기 위해서입니다. 읽고 나서 스스로 이해했다면 다시 읽을 필요가 없지요. 이해하지 못해도 읽고 이해하고 나서도 또 읽어야 하는 게 아니에요. 그렇게 한다면 백발이 될 때까지 읽는다 해도 아무런 득이 없을 겁니다.

어떤 제자는 나에게 ‘불상에 절하는 것은 복이 없다.’는 말을 하지 말라고 합니다. 그렇게 하면 아무도 강연을 들으러 오지 않는다는 거지요. 하지만 오히려 갈수록 사람이 많아졌습니다. 이것은 여러분이 이해했기 때문이에요. 만일 여러분이 이해하지 못했다면 그 역시 여러분의 잘못입니다. 나에게 여러분과 똑같이 바보가 되라고 하지는 마십시오. (대중 웃음)

내가 여기에 온 것은 여러분에게 좀더 높은 이치를 알려주기 위해서이지 별끝처럼 달콤한 이야기나 들려주려고 온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은 아주 좋은 사람들이니 불상에 절만 잘 해도 충분하다는 식의 그런 이야기나 들려주길 원한다면 나는 말할 필요가 없습니다. 저쪽에 있는 석가모니불을 보십시오. (스승님이 부처가 명상하는 모습의 탱화를 가리킴) 그가 그곳에서 경전을 읽고 있습니까? 목탁을 사용하고 있나요? 불상에 예배하고 있습니까? 전혀 아닙니다. 여러분이

그를 이해하지 못한 것이지, 내가 여러분의 잘못된 생각에 맞춰야 한다거나 여러분의 미신적인 생각을 칭찬해야 하는 것이 아닙니다. 만일 그렇다면 내가 필요하지 않을 테니 나는 즉시 떠나겠습니다. 해야 할 다른 일들도 아직 있으니까요.

여러분은 나에게 진리를 가르쳐 달라고 해야지 어떻게 나에게 중생의 잘못된 생각에 맞춰 달라고 할 수 있습니까? 나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이곳으로 끌어들이 강연을 듣게 할 수 있을까?’ 하는 따위의 일은 상관하지 않습니다. 만일 아무도 듣는 사람이 없다면 나 자신에게 들려주면 됩니다. 나 자신에게 그렇게 바보가 되지 말라고, 중생에게 속지 말라고 깨우쳐 주어야 하거든요. 만일 내가 세상에서 말하는 이치와 같은 것을 이야기한다면 나도 그들과 똑같이 변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나는 그러고 싶지 않습니다.

고대 중국에 법사 한 분(도생법사道生法師)이 계셨습니다. 그가 세상에 살아 있을 때는 설법을 해도 듣는 사람들이 얼마 없었어요. 그의 설법을 듣기 위해 열네 명이 왔을 때가 사람이 가장 많았던 모임이었습니다. 들으려고 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기 때문에 그는 산으로 가서 돌들에게 들려주었지요. 돌들은 듣고 나서 머리를 끄덕여 그의 말이 옳다고 표시했습니다. 비록 그 당시엔 그가 경전을 이야기하고 설법하는 것을 아무도 듣지 않았지만 지금은 잘 알려져 있습니다. 여러분 모두 이 이야기를 들어 보았을 거예요. 나도 몇 명이 강연을 들으러 오든 상관하지 않습니다. 와서 강연을 듣거나 말거나 상관하지 않지요. 듣지 않는다고 해도 별일 아닙니다. 나의 원기를 아낄 수 있거든요. 말을 많이 할수록 목이 점점 나빠지는데, 이게 나

에게 무슨 도움이 되겠어요?

불상은 일종의 단순한 이상을 대표하니 수행을 하면서 불상을 받드는 것도 괜찮습니다. 불교를 접한 지 얼마 되지 않은 사람들은 아직 이해를 잘 못해서 불상을 보면 이런저런 질문을 할 것이고, 우리는 그 기회를 이용해서 그들에게 이야기를 들려주며 수행을 하라고 일깨워 줄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날마다 불상에 예배를 하거나 무슨 일을 기원해야만 부처를 존경하는 것은 아닙니다. ‘홍법弘法’하는 것이 부처를 존경하는 것이고, 부처를 따라 ‘같은 법문’을 수행하는 것이 부처를 존경하는 것이며, ‘성불成佛’하는 것이 부처를 존경하는 것입니다. 매번 나에게 여러분과 똑같이 되어 달라고 강요해선 안 됩니다. 그렇다면 나는 가르칠 필요가 없으며 뭐라고 말할 필요도 없습니다. 불상에 절해도 좋고, 경전을 읽어도 좋습니다. 이런 것들은 모두 이미 알고 있는데 내가 뭐라고 더 말하겠어요?

외면의 것을 수행해도 조금은 쓸모가 있지만 아주 위험하며, 다른 사람의 질투심이나 악의를 쉽게 불러일으킵니다. 그들은 믿지 않기 때문에 우리 신앙을 배척할 테고, 우리 믿음이 깊은 것을 보고는 좋아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들은 믿지 않기 때문에 왜 우리가 날마다 이런 나무로 만든 부처에게 예배를 하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 신앙을 한번 파괴해 보고 싶어합니다. 만일 우리 신앙이 마음속에 진정으로 존재하면서도 외면으로는 그다지 드러나지 않는다면 그들은 그런 악의적인 생각이나 다른 사람의 신앙을 파괴하겠다는 생각을 하지 않을 것입니다.

외면의 것을 수행하는 것도 괜찮습니다. 하지만 당장 내일 불상

이 없어진다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갑자기 지진이 발생해서 포모사에 있는 불상이 모두 파괴되어 버린다면 그럼 어떻게 하지요? 그렇게 되면 수행할 방법이 없는 건가요? 불상도 없고, 아미타불도 없고, 연꽃도 없고, 붉은 큰 등도 없으며, 향도 없다면 우리는 수행할 수 없습니다. 그런가요? 외면의 것에 의지하고 외면의 형상에 집착하였으니 한번 잃어버리게 되면 어떻게 해야 할지를 모릅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외면의 것을 수행하는 것이 그렇게 믿음직한 일이 아니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외면의 것을 수행한다면 언젠가 어떤 이유로 불교가 핍박을 받아 믿고 의지할 종교가 없어지고 큰 불상도 만들지 못할 때는 수행을 못 하게 되겠지요. 게다가 끝까지 수행을 지켜 나간다면 어쩔 수 없이 반대편 사람들과 싸워야 하니 많은 문제들을 불러오게 될 것입니다. 그렇지 않나요?

이 옷(스승님이 승복을 가리키심)을 입어야 수행할 수 있다고 한다면, 이 옷이 없다면 곧 마음이 흔들리지 않을까요? 그러므로 내면에 의지해야 합니다. 이해하겠습니까? 내면에 의지하면 불상이 없더라도 우리는 수행할 수 있습니다. 우리 내면에 부처가 있고 경전이 있습니다. 수행한 뒤에 우리는 모두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다면 어느 날 제2의 진시황이 나타나서 외면의 경전을 모두 태워 버린다면 우리는 수행할 방법이 없어질 겁니다. 왜냐하면 경전이 모두 불더미 속에 있고 마음속엔 없기 때문이지요. ‘참된 경전(眞經)’은 마음속에 있는 것입니다. 만일 우리가 다른 사람이 내면으로 수행하는 것을 반대한다면 그것은 자기 스스로 문젯거리를 만드는 것입니다.

석가모니불은 수행할 때 결코 어떤 것에도 의지하지 않았습니
다. 그 혼자서 보리수 아래 앉아 아주 외롭게 수행했지요. 사원도
없었고, 송경講經도 없었으며, 두드리거나 치는 것도 없었고, 불상
도, 아쉬람도, 향도,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렇지만 그는 수행할
수 있었잖아요! 항상 ‘계戒’로써 몸을 밝게 닦아야만 합니다. ‘계
율’이 우리의 향이고, ‘지혜’가 우리의 경전이며, 이 ‘몸’이 우리의 사
원이고, 우리의 불성이며, 우리의 불상입니다. 이렇게 다 갖추고 있
고 이것도 너무 많은데 아직도 외면의 것을 찾아서 무엇하겠습니
까?

나는 이 몸이 아니지만 이 몸이 없으면 법을 전할 수가 없습니다.
이해하겠어요? 여러분이 내 사진을 어딘가에 놓아두면 다른 사람이
와서 물어볼 겁니다. “이 사람은 누구입니까? 당신은 왜 이렇게 큰
사진을 걸어 두는 거지요? 왜 이 사람 사진을 여기에 두는 겁니까?
그녀가 당신 가족인가요?” 여러분은 “아닙니다. 나의 스승님입니
다.”라고 대답하겠지요. 그러면 그 사람은 “당신의 스승에게는 무슨
특별한 것이 있나요? 왜 그렇게 좋아하는 겁니까?”라고 물을 거예
요. 이때 여러분은 스승이 어떤 가르침을 주는지 그 사람에게 알려
줄 수 있습니다.

도대체 외면의 것에 의지해서 수행해야 할 필요가 있는지 없는
지 하는 문제는 여러분 스스로가 판단할 수 있을 겁니다. 나는 결코
불상에 절하는 일을 비방하지 않았어요. 절하는 것도 때로는 필요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절하는 이치에 대해서 아직 이해하지 못했다면
불상에 의지할 수 있으니까요. 하지만 이해하고 난 뒤에는 자신을

좀더 높은 등급으로 끌어올려야 합니다. 그렇지 않고 여전히 이곳에
서 불상과 한데 묶여 벗어나지 못해서는 안 됩니다.



4 장

관음법문 수행에는
치유력이 있다

4장

관음법문 수행에는 치유력이 있다

1986. 8. 26. 포모사 타이베이

모든 병고(痛苦)는 우리 마음이 지은 대로 일어나는 것입니다. 본래 나라는 것이 근본적으로 없었는데 어디에서 온 ‘내’가 병이 났다는 것일까요? 병이 나자마자 단호한 태도로 그것을 거절하고 내가 ‘병이 났다.’는 생각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며 동시에 스승에게 도와달라고 한다면 그 병은 바로 사라질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은 너무 연약해서 언제나 여기도 아픈 것 같고 저기도 불편한 것 같다고 느낍니다. 계속해서 이런 생각을 하는 것은 마치 문이 열린 것과 같습니다. 처음에는 아주 작은 문틈만 있었는데 여러분이 끊임없이 병이 났다는 생각을 일으키니, 이 문틈이 자연히 여러분의 좋지 않은 생각의 힘으로 활짝 열려서 병이 재빠르게 여러분의 몸에 침입할 수 있는 것입니다. 만일 여러분이 매 순간마다 내면의 의식이 맑게 깨어 있도록 할 수 있어서 어떤 좋지 않은 것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한다면 아무것도 침입할 수 없을 겁니다.

오래전에 아직 제대로 수행을 시작하지 않았을 때에도 나는 날마다 관세음보살을 외우고 경전을 읽으며 절을 했습니다. 하루는 남편과 함께 차를 운전해서 산으로 스키를 타러 갔지요. 우리는 먼저 산 아래 여관에서 간단하게 밥을 먹고 나왔는데, 갑자기 날씨가 추워지면서 도로가 얼어 버리는 바람에 너무 미끄러워서 운전하기가 무척 힘들었습니다. 독일에서는 도로가 얼어서 미끄러워지면 모래나 소금을 뿌려서 차가 미끄러지는 것을 막습니다.

하지만 그때 그 길엔 아무도 소금이나 모래를 뿌려 놓지 않았어요. 게다가 그 길의 한쪽 끝은 아주 깊은 절벽이었습니다. 우리가 운전을 하며 평탄한 공터 위로 왔을 때, 갑자기 우리 차가 제자리에서 아주 빠른 속도로 돌기 시작했습니다. 정말 위급한 상황이었지요. 당시 나는 ‘이러다가 절벽 아래로 떨어져 죽을 수도 있겠구나.’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이상한 것은 도리어 마음이 아주 담담해지면서 조금도 허둥대지 않았다는 겁니다. 오히려 남편의 어깨를 다독이면서 그를 위로했어요. “괜찮아요. 관세음보살님이 우리를 도와주러 오실 거예요.”

나는 남편이 너무 지나치게 두려워할까 봐 걱정이 되었거든요. 그는 도무지 차를 제어할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뜻밖에도 차가 서서히 안정되어 갔습니다. 차가 위험하게 됐을 때도 나는 여전히 남편에게 농담을 했어요. “정말 때가 되어 가야 하면 가는 거예요. 괜찮아요.” 나는 그가 염불하지 않을까 봐 걱정이 되어 그를 위로하면서 말했어요. “괜찮아요. 관세음보살님이 우리를 맞이하러 오실 거예요.” 그때 마음속으로 죽을 거라고 생각했지만 조금도 두렵지가

않았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언제든지 침착하게 마음먹는다면 빛이 어둠을 없앨 수 있듯 자연히 그런 재난의 기운을 녹여 버릴 수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의 '정업(定業)'을 바꿀 수 있지요. 만일 뜻밖의 상황이 발생했을 때 침착함을 유지하지 못하고 도리어 흥분한다면 어쩔 정할 큰 교통사고를 불러올지도 모릅니다.

그러므로 수행은 아주 유용한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아직 자기 스승을 찾지 못했을 수도 있지만, 여러분은 이미 나를 따라서 수행을 시작했으니 저마다 내면에 스승의 화신이 존재합니다. 어떠한 위험과 재난을 만나든 오로지 내면의 스승에게 도와 달라고 바라기만 하면 스승이 즉시 나타날 것입니다.

인도에 있을 때 나는 일이 없이 한가했어요. 그래서 달라이 라마를 알현하러 가는 수행자들과 함께 티베트 지역에 가까운 인도 북쪽으로 그를 만나러 갔습니다. 그는 마침 밀종의 흔치않은 법문들을 전하고 있었지요. 인도와 티베트 사이의 국경 지대는 도로 사정이 너무 나빠서 언제나 위험한 일이 일어나곤 했어요. 우리 일행 삼십명은 낡고 허름한 고물 트럭을 함께 타고 갔는데, 가는 동안 곳곳에서 산이 무너져 내려서 낙석의 위험이 있었습니다.

하루는 우리 일행이 그 고물 트럭을 타고 국경 어딘가를 지나가고 있었는데 공교롭게도 낙석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크고 작은 돌들이 산 위에서부터 떨어져 내려오자 모두들 당황하여 어찌할 줄을 모르고 야단법석이었지요. 사람들의 첫 번째 반응은 차 문을 열고 밖으로 도망가는 거였어요. 그래서 나는 큰 소리로 그들에게 말했습니다.

“가지 마세요. 어딜 가려고 합니까? 밖은 더 위험합니다. 왜 앉아서 주문을 외우지 않는 거지요? 여러분의 주문은 다 어디에 있나요? 왜 외우지 않는 거예요?” 나는 즉시 그들에게 모두 앉아서 염불을 하고 주문을 외우라고 소리쳤습니다. 내가 이렇게 일깨워 주자 모두 침착해져서는 자기가 수행하는 법문을 외우기 시작했지요. 위험이 지나가고 난 뒤 그들은 모두 나에게 달려와 고마워했습니다.

그러므로 위험한 상황에 부딪히게 될 때는 제일 먼저 침착함을 유지해야 합니다. 그러면 생각을 집중할 수 있어서 이성적인 상태에서 여러 가지 정확한 결정을 내릴 수가 있습니다. 만일 당황하여 이성을 잃어버린다면, 그것은 마치 비가 올 때 비옷이 있어도 잊어버리고 입지 않는 것과 똑같습니다.

병이 났을 때도 마찬가지예요. 병에 걸린 것은 마치 외면에 구멍이 뚫려 있는 것과 같지요. 본래 우리 몸은 마치 편지지가 봉투 속에 들어 있는 것처럼 한 층의 '기(氣)'로 덮여 있어서 외부에 있는 좋지 않은 힘이 우리를 침입하지 못하도록 보호해 줍니다. 병이 났다는 것은 우리 몸의 바깥층에 있는 보호막에 구멍이 뚫린 것과 같아서 병이 직접 이 구멍을 통해서 우리의 몸으로 들어오기 때문에 병이 나는 것입니다. 만일 우리 몸 밖의 '기체(氣體)'가 완전무결하다면 병이 아예 침입할 길이 없습니다. 수행하는 사람은 아주 건강해서 병이 없습니다. 수행하지 않는 사람은 외부에 의해 아주 쉽게 흥분하기 때문에 결국 자기가 먼저 문을 열고 병에게 들어오라고 청하는 것과 같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점술사의 예언을 잘 믿습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모년 모월 모일에 무슨 병이 날 것이라든지, 또는 무슨 뜻밖의 사고나 재난을 당할 것이라는 말을 듣기만 해도 벌써 마음속에 여러 가지 두려운 생각이 일어나게 됩니다. 마음속에 두렵고 무서운 생각이 들기만 해도 그것은 곧바로 몸 밖에 작은 문을 하나 만들어 여는 것과 같아서 자연히 여러 가지 좋지 않은 것들이 들어오게 되지요. 그러므로 오직 스승의 말만 믿는다면 하나도 무서울 것이 없습니다.

인도는 비교적 현대화되지 않은 곳이지만 나는 그렇게 오랫동안 그곳에서 지냈어도 어떤 병에도 걸리지 않고 돌아왔습니다. 포모사에도 많은 사람들이 간 질환을 앓고 있지만 나는 별로 걱정하지 않습니다. 평소에 우리가 피곤함을 느끼는 것은 말을 지나치게 많이 했거나 원기를 밖으로 흘려보낸 까닭입니다. 사람의 정신은 무한하지만 육체는 제한을 받습니다. 마치 차를 운전하는 사람처럼, 사람의 정신은 말짱한데 차가 고물이 되었다면 사용할 수 없는 것과 같지요.

가끔 나도 강연을 너무 많이 해서 몹시 피곤할 때가 있지만 그렇다고 병이 난 것은 아닙니다. 수행하는 사람은 정신이 순수하고 바르며 마음이 집중되어 있어서 바깥층의 금강석과 같은 기의 보호막을 병원체가 뚫지 못합니다. 다른 한 가지 상황은 내가 여러분의 입장을 너무 많이 짚어져서 가끔 하루 이틀 병세가 나타날 때가 있지만 결코 진짜 병이 난 것은 아닙니다. 그것은 중생의 업장병이지요. 이런 병은 약을 먹어도 소용이 없습니다. 오로지 제자의 병이 나아야만 스승의 병도 낫는 것입니다.

이렇게 보면 정말 병이 났다고 해도 상관없습니다. 병이 우리를 괴

롭히게 내버려두지 않으면 됩니다. 병이 있는 줄 알면 더욱더 수행에 힘써 우리 힘으로 병을 쫓아 버려야만 합니다. 이 몸은 우리 집이고 우리는 주인입니다. 만일 여러분이 “주인인 내가 널 초대하지도 않았는데 네가 어떻게 느닷없이 뛰어 들어올 수 있어?”라고 하면서 단호하게 병을 쫓아 버린다면 병은 남아 있지 않을 것입니다. 민감한 사람은 사소한 감기가 침입해도 즉시 알아챱니다. 그렇지만 민감하지 않고 수행하지 않는 사람은 모릅니다.

병원체가 침입한 것을 알아차리고 싶다면 의식이 절대적으로 깨어 있어야만 합니다. 몸을 고도의 경각 상태에 놓아두고서 병이 침입한 것을 느끼자마자 바로 앉아서 오불을 외우고 명상을 해서 병을 쫓아 버려야 합니다. 수행을 오래 해서 염력이 강한 사람일수록 단 몇 초 안에 병원체의 뿌리까지 뽑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수행하지 않는 사람은 이런 염력이 없기 때문에 자기에게 병을 치료하는 능력이 있다는 것을 믿지 않습니다.

사실 우리 몸 자체에는 자연적인 저항력이 있어서 스스로 자기 병을 치료할 수 있습니다. 많은 의사들이 병자들에게 “이 약을 당신에게 주지만 중요한 것은 자신에게 의지해서 스스로를 구해야 하는 것입니다.”라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위대한 중생이어서 우리가 할 수 없는 일이란 아무것도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것 또한 자신이 믿는 만큼만 할 수 있습니다. 바꾸어 말하자면, 이런 잠재된 무한한 힘은 개인이 사용하는 정도가 같지 않기 때문에 차이가 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복이 많은데 어떤 사람들은 아무런 복도

없는 것처럼 보이는 것입니다. 사실은 모두가 다 똑같이 복이 있지만 그것을 잘 쓰지 못하기 때문에 복이 없는 것처럼 보이는 것입니다. 석가모니불이 말했습니다. “모든 중생들이 부처와 같은데 왜 그들 자신은 모르는 것일까?” 여러분과 나도 같습니다. 무엇이 다르겠어요? 여러분이 어쩌면 나보다 더 크고 건강하며 더 총명할 텐데 왜 병을 쫓아 버릴 힘이 없는 걸까요?

관음법문을 수행하는 사람은 다른 사람들보다 더 많은 힘을 가지고 있어서, 이 힘을 이용해서 병을 쫓아 버리는 것입니다. 만일 여러분이 병이 들었다면 그것은 여러분 스스로가 병이 나기를 원했기 때문입니다. 어쩌면 정신은 원하지 않았을지도 모르지만 몸이 원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우리의 친구의 몸을 교육시켜야 합니다. 더러 몸의 어느 부분은 병이 나는 것을 아주 좋아하기 때문에 어린아이를 가르치듯이 천천히 반복해서 몸에게 정확한 관념을 심어 주어야 합니다. 그래도 몸이 여전히 알아듣지 못한다면 몸에게 약을 조금 먹이고 나서 “됐다. 이제 안전해졌다.”라고 알려주어 몸이 진정으로 병을 놓아 버리게 한다면 곧 나올 것입니다.

그렇지만 중생은 정반대로 자기 몸은 다방면으로 돌보면서도 정신적 수행을 하는 것은 소홀히 합니다. 그래서 내가 여러분에게 반드시 친구의 세 가지를 모두 청정하게 닦아야 한다고 가르치는 것입니다. 의의만 깨끗하고 신身在 깨끗하지 않다면, 정신은 비록 완벽할 지라도 몸에는 여전히 틈이 있어서 그 틈으로 곧바로 병이 들어오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생각으로 육신을 가르쳐야 합니다. 사실상 병에 걸릴 ‘나’라는 것이 없다는 것을 육신에게 알려줌으로써 육신이

진정으로 일체를 놓고 ‘병이 났다.’는 생각을 하지 않도록 말이지요. 이렇게 하면 병이 나지 않을 것입니다.

병이 나는 것은 사실 무슨 업장이 있어서가 아닙니다. 진정한 업장이란 우리의 ‘무명(無明)’한 곳을 가리킵니다. 무명 때문에 어둡고 깨끗하지 않은 영혼이 있는 것이니까요. 만일 영혼이 깨끗하게 씻겨 졌다면 그때는 부처도 없고 마(魔)도 달아나 버릴 것이며, 병은 있지도 않을 겁니다. 본래 우리는 병이 없습니다. 그래서 『반야심경』에서 “시제법공상, 불생불멸, 불구부정, 부증불감, 시고공중무색, 무수상행식, 무안이비설신의, 무색성향미촉법……(是諸法空相, 不生不滅, 不垢不淨, 不增不減, 是故空中無色, 無受想行識, 無眼耳鼻舌身意, 無色聲香味觸法……)”이라고 말한 것입니다. 만일 아무것도 없다면 어떻게 병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이 몸에 집착하기 때문에 많은 골칫거리가 생기는 것입니다. ‘관음(觀音)’을 더 많이 하고 명상을 더 많이 하십시오. 그러면 아무 일도 생기지 않을 것입니다. 만일 누군가 무슨 질병에 막 감염되었다면 즉시 앉아서 오불을 외워야 합니다. 그리고 단호하게 자기에게 말하십시오. “나는 병을 원하지 않는다. 게다가 병은 진리도 아니다. 어떠한 강제적인 것도 나는 원하지 않는다. 오로지 진리만을 원한다.” 이렇게 하면 병은 달아나 버릴 것입니다.

귀신도 마찬가지로 여러분이 단호하게 원하지 않는다고 말하면 그는 오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들은 나를 찾아와서 마장에 걸린 사람을 구해 달라고 애원합니다. 나는 잠시 마(魔)를 쫓아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마장에 걸린 지 너무 오래되었을 때는 아

직 안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우선 얼마 동안은 나와 함께 살아야 하지요. 그런데 사람들은 정상으로 회복되고 나선 며칠도 안 되어 그만 가 버립니다. 왜냐하면 마魔를 좋아하고, 마魔가 그 사람에게 들려주는 “이 사람은 무슨 생각을 하고 있고 저 사람은 무슨 생각을 하고 있으며, 오늘 그는 어떨 것이고 내일은 또 어떨 것이다.”라는 이야기들을 좋아하기 때문입니다. 그 사람 자신이 이런 저급하고 작은 신통을 좋아하고 거기에 집착하기 때문에 마魔를 부르고 귀신을 불러오는 것입니다. 이러면 나도 방법이 없습니다.

이것은 정신질환처럼 의사가 환자에게 한두 달을 입원해야 한다고 했는데도 환자가 겨우 이삼 일을 입원해 있다가 병이 다 낫지도 않았는데 가 버리는 것과 같습니다. 이렇게 해서는 영원히 치료하지 못합니다. 마장 걸린 그 사람은 친구와 함께 사는데, 가끔 그 친구도 내면의 마魔가 말하는 소리를 듣는다고 합니다. “칭하이 무상사가 살아 있는 한 불교는 꼭 흥성할 것이다. 그러나 세상을 떠난 뒤에는 달라질 것이다. 지금 바깥에는 사도邪道가 많아서 칭하이 무상사가 없으면 안 된다.”

그런데 어떤 때는 또 반대되는 의견이 들린다고 합니다. “나는 칭하이 무상사에게 탄복하지 않는다. 하지만 그녀에게는 금강법문이 있기 때문에 나는 그녀를 가장 무서워한다. 그래서 나는 그녀가 있을 때는 무엇이든 ‘좋아요, 좋아요, 되고말고요.’라고 말하지만 그녀가 없을 때는 그녀를 무서워하지 않는다.” 이 마魔는 아주 지독합니다. 왜냐하면 그가 속에서 무엇을 말하면 바깥에 있는 사람도 들을 수 있으니까요. 이런 종류의 마魔는 정말 쫓아내기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이 몸의 주인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누구를 부르고 싶다면 그럴 수 있습니다. 나도 너무 많은 것들을 간섭할 수는 없어요. 그러다가 여러분이 만약 그를 쫓아내고 싶다면, ‘쫓아낸다.’는 말을 쓰는 것은 적절하지가 않군요. 그를 가르친다고 해야 할 것 같네요. 그를 가르치고 나서 그가 스스로 떠나도록 해야만 마魔도 더 이상 우리 몸에 머무르지 않을 겁니다.

그렇지만 내가 조금 전에 말했던 그 사람은 완전히 마魔를 가르치지도 못했는데 겨우 사나흘도 안 돼서 가 버렸습니다. 그 사람은 나와 함께 지내던 사나흘 동안 날마다 아주 달게 잤어요. 그녀는 몇 년 동안을 그렇게 잘 자 본 적이 없다고 하면서 이다음에 꼭 나에게 열심히 배우겠노라고 했습니다. 그렇지만 집으로 한번 돌아간 뒤에는 다시는 오지 않았습니다. 마장이 너무 깊게 들렸기 때문에 내 말을 믿지 않은 겁니다.

마장이란 무엇일까요? 바로 다른 사람의 일에 관여하기를 좋아하는 것입니다. 이 사람은 마음속으로 무슨 생각을 하고 저 사람은 무엇을 하려고 하는지 알고 싶어서 신통을 얻으려고 하기 때문에 몸이 귀신에게 이용당하는 것입니다. 신통을 탐하지 않는다면 마魔도 들어오지 않습니다. 우리가 이 몸의 하나뿐인 주인이니, 불보살이 온다고 해도 우리 몸을 그에게 빌려주어서는 안 됩니다. 본래 불보살은 우리 몸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스승이 온다고 해도 빌려주어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모두 마귀가 불보살이나 스승의 모습으로 변해서 우리 몸에 침입하려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누구나 다 자기 몸이 있는데 우리 몸을 빌려서 무엇하겠습니까? 그러나 마귀

의 작은 신통을 좋아하고 여러분을 보호하는 스승의 힘을 원하지 않는다면 어쩔 수가 없습니다.

스승은 언제나 자유롭기 때문에 중생이 필요하다는 게 있으면 주고, 원하지 않는다면 절대로 강요하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다면 석가모니불이 그의 큰 힘과 대지혜·대신통을 사용해서 중생을 모두 강제로 불교인이 되게 하고 부처로 만들면 될 것을 구태여 고심하면서 천천히 중생을 제도할 필요가 있었겠어요? 그가 그렇게 한 것은 첫째로 '인연'이 없으면 제도할 수 없고, 둘째로 중생이 필요로 하지 않으면 제도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완전히 자유인 것입니다.

인간은 위대한 존재라서 하고 싶어하는 것은 하도록 해주어야 합니다. 어떠한 법력을 빌려 와서 그에게 강요해서는 안 됩니다. 그가 성불을 하고 싶다거나 마가 되고 싶다거나 하는 것은 다 가능한 일입니다. 우리는 다만 말로써 그에게 권할 수는 있지만 힘이나 신통을 사용해서 그의 '정업'에 개입할 수는 없습니다. 정업을 바꿀 수 없다는 건 바로 이런 뜻입니다. 여러분이 변하고 싶어하지 않기 때문에 바꿀 수가 없는 것이지, 여러분이 달라질 결심을 한다면 바꿀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의사라도 환자에게 약 먹고 주사 맞기를 강요할 수 없는 것과 같습니다. 그는 약이나 주사의 좋은 점을 말해 줄 수는 있지만 억지로 약을 먹이거나 주사를 맞게 하고 입원을 시킬 수는 없습니다. 환자가 떠나고 싶어하면 언제든지 갈 수 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이 스승의 도움을 원한다면 도와주겠지만 그렇지 않다면 언제라도 떠날 수 있는 것입니다.

힘은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하나는 빛이고, 다른 하나는 어둠입니다. 만일 빛의 힘이 세다면 이 빛의 힘을 사용해서 어둠의 힘을 몰아낼 수 있습니다. 내가 홍콩에 머물면서 명상할 때, 가끔 세상의 종말이 오면 갖가지 무서운 재난이 발생하여 인류가 온갖 고통스러운 징벌을 받게 될 것이라는 성경 구절이 기억났습니다. 그때 나는 몹시 화가 났어요. 사실은 정말 화가 난 것이 아니라 그런 예언이 싫었습니다. 그래서 나는 명상할 때 신께 말했어요. "당신이 그들을 가르치거나 처벌하고 싶다면 왜 당장 하지 않는 거지요? 아직도 그렇게 오랜 시간을 기다려 그들에게 그런 두려운 고통을 감수하도록 해야 합니까? 나는 그런 긴 시간의 징벌을 반대합니다. 그들은 그런 응보(應報)를 받아서는 안 됩니다. 어찌 되었든 그들은 모두 당신의 자녀입니다. 어떻게 이런 식으로 그들을 대하시는 겁니까?" 우리가 아이들을 가르칠 때도 그때그때 조금씩 훈계하거나 벌을 주어야지, 지나친 처벌이나 여러 가지 형구를 사용한 처벌로 갖가지 고통을 겪게 해서는 안 됩니다. 성경에 쓰여 있는 많은 부분들은 결코 예수 그리스도나 신의 생각이 아닙니다.

Q: 성경에서 말하길, 세상의 종말에는 최후의 심판과 갖가지 재난이 있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종말에 재난이 있고 없고는 중생의 업력이 모여서 형성되는 것이지 신 혼자서 내릴 수 있는 결정이 아닙니다. 그는 결코 중생의 정업을 결정할 그런 권리가 없습니다.

A: 맞습니다. 우리는 모두 스스로 결정할 권리가 있습니다. 조금 전 얘기했던 세상의 종말에 대한 성경 내용은 낮은 체험과 낮은 경

지에 대한 내용입니다. 아마도 책을 쓴 사람의 수행 경지가 그다지 높지 않았을 겁니다. 아주 낮은 경지를 보았는데도 그것을 적어 둔 것이지요. 왜냐하면 명상할 때 사람마다 모두 체험이 있기 때문입니다. 예컨대 어떤 출가자가 명상할 때 내면의 신의식(神意識)이 지옥에 가서 보았던 많은 환상적인 경지들을 삼매에서 나온 뒤 전부 써 놓았다고 합니다. 그가 출가자이다 보니, 다른 사람들은 어쩔 수가 없는 말을 모두 믿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가 진정한 체험을 했거나 진정한 경지를 보았다는 뜻은 아닙니다.

여러분은 그런 일에는 상관하지 마십시오. 천당과 지옥은 모두 우리가 결정하는 것이기에 설령 지옥에 떨어지기 일보 직전이라 할 지라도 우리가 제때에 깨어나서 자신의 힘으로 스스로를 끌어올릴 수 있다면 지옥에 떨어지지 않을 겁니다. 이것은 조금 전에 말한, 독 일에서 교통사고를 당할 뻔했던 상황과 비슷합니다. 만일 여러분이 침착하게 정신을 차리지 못하고 오히려 흥분하고 당황한다면 무엇이든 좋지 않은 일이 일어날 수 있지요.

그래서 “마음이 가라앉으면 정토가 나타난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모든 것은 마음이 만들어 낸 것입니다. 우리에게 절대적인 힘이 있어서 우리의 환경과 정업을 바꿀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반드시 수행을 많이 해야 합니다. 수행이 높아질수록 선정의 힘이 커지고, 선정의 힘이 커질수록 더욱더 많은 환경을 바꿀 수 있습니다. 개인의 환경뿐만 아니라 가정과 친구, 세계와 우주의 환경도 바꿀 수 있습니다. 마치 부자가 수없이 많은 사람들에게 돈을 나누어 준다고 해도 자신은 별 영향을 받지 않을뿐더러 여전히 다 쓰지도 못할 만큼

의 돈이 남아 있는 것과 같습니다.

수행하는 사람의 힘은 엄청나게 커서 얼마를 쓰더라도 문제없습니다. 수행하는 사람에게는 호광(毫光(넓게 퍼지는 빛살))이 있다고 말합니다. 호광이란 무엇일까요? 그 사람의 좋은 분위기, 좋은 힘을 가리킵니다. 이런 빛은 나라 전체를 다 감싸 안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법안(法眼(제3의 눈, 또는 지혜안이라고 부름))이 열렸다면 그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예컨대 이런 대수행자가 포모사 어딘가에 앉아 있다면 그의 빛은 포모사 전체의 크고 작은 섬들까지도 다 감싸 안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일본이나 인도까지는 감쌀 수 없습니다. 만일 누군가가 다른 나라에서 포모사로 온다면 이런 광대한 호광을 접하고 즉시 느낄 수 있을 겁니다. 이것은 마치 물속에 들어가면 즉시 물의 존재를 느낄 수 있는 것과 같습니다. 그것은 바로 기운이 같지 않기 때문입니다.

수행의 호광은 바로 수행의 기운을 가리킵니다. 수행의 호광은 선량한 기운을 낼 수 있어서 온 나라가 이런 선량한 기운에 에워싸이며, 국민도 좀더 선량하고 도덕 수준도 다른 곳보다 높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 큰 복이 있는 스승을 가까이할 수만 있다면 아주 편안함을 느낄 것입니다. 그에게 그런 빛의 기운이 있으니 가까이하면 할수록 더욱더 즐거워지지요. 따라서 아미타불이나 석가모니불이 호광을 펼쳐서 사람을 구할 수 있었다는 것은 바로 이런 뜻입니다.

우리에게도 이런 호광이 있습니다. 이것은 원래 우리 내면에 있던 힘이 내는 빛입니다. 비록 내면에는 이런 빛이 아주 많지만 수행하지 않기 때문에 빛을 적게 발하는 것입니다. 수행을 더 많이 하는

사람들만이 호광도 더욱 커집니다. 이를테면 화로에서 숯이 타면서 나오는 연기는 비록 불은 아니지만 그래도 약간의 따뜻함이 있습니다. 그러나 불꽃은 연기보다 더 뜨거우며 타고 있는 숯은 불꽃보다 더욱 뜨겁습니다. 그래서 숯은 불을 내고 불은 연기를 내어 놓습니다. 우리 내면의 힘도 이와 같습니다. 비록 내면의 힘은 아주 크지만 다만 발하는 빛이 조금일 뿐이지요. 이 적은 빛은 아직 궁극적인 것이 아닙니다. 힘이 커질수록 호광도 더 커져서 온 나라에 복이 있을 뿐만 아니라 전세계, 온 우주까지도 다 복이 있을 수 있습니다. 성불이란 바로 이런 뜻입니다.



5 장

부처는
어떻게 범부가 되는가

5장

부처는 어떻게 범부가 되는가

1988. 3. 11. 포모사 타이베이 원다 초등학교

여기에 모이신 청중 여러분, 본래 이틀 동안은 강연을 하려고 했던 날이 아닙니다. 그러니 이번 강연은 보너스이지요. 5일과 6일에 강연을 끝나치고 8일에는 입문식을 하고 9일엔 쉬었는데, 연달아서 또 강연을 하게 되었습니다. 게다가 같은 장소에서 하게 됐으니 좀 지나친 감이 없지 않군요. 이걸 우리의 원래 계획이 아니었어요.

나는 남부에서 강연을 하고 거의 두 달이 다 되어서야 돌아왔습니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돌아올지 말지를 아직 결정하지 않고 있었지요. 그때 우리는 핑둥의 강가에 텐트를 치고 살고 있었습니다. 나중에 타이베이의 동수들이 내가 돌아오지 않을까 봐 긴장을 했어요. 그래서 재빨리 장소를 마련해서 나에게 강연을 청했던 겁니다. 이렇게 하면 내가 돌아오지 않을까 봐 염려할 필요가 없었지요. 미리 다 안배를 해 놓았으니까요!

그런데 그들이 강연할 장소를 마련하느라 여기저기를 다닐 때 마

땅한 곳을 찾을 수 없어서 무척 힘들었다고 합니다. 상대방이 칭하이 무상사라는 이름만 들으면 장소를 빌려주지 않았다고 하더군요. (대중 웃음) 도대체 칭하이 무상사가 무슨 잘못을 했는지 잘 모르겠어요. 여러분은 알고 있나요? 나도 듣기만 했지, 남부에 있었기 때문에 이런 사정은 잘 모릅니다.

어떤 장소는 빌려주겠다는 의사가 그다지 확실하지 않았다고 하더군요. 빌릴 수 있을지 없을지 잘 몰랐다가 마지막 순간에 가서야 결정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장소를 두 곳이나 빌려 놓아야 했지요. 그래야 좀더 안전했으니까요. 오늘 이곳에서의 강연은 그들이 두 곳에 모두 계약금을 주었기 때문에 가능했으니 보너스인 셈입니다. 이것은 타이베이 사람들과 내가 인연이 있다는 표시이기도 하지요. 왜냐하면 타이베이 사람들이 비교적 많이 입문했으니까요. 괜찮아요. 이왕 이렇게 되었으니 이야기를 조금 더 해보도록 합시다!

어제 나는 불보살이 우리를 도와주려고 하지만 돕는 것이 쉽지 않다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또 나 자신에 관한 이야기도 했지요. 예를 들면, 나의 부모님이 아직도 어울락에 계시지만 부모님과 내 생활이 전혀 다르기 때문에 그들을 모셔 올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만일 그들이 출가자이고, 또 관음법문을 수행하며, 게다가 아주 성심 성의껏 수행하고, 해탈하고자 갈망한다면 두 분을 모셔 오는 일은 아주 간단합니다.

그러나 앞서 말했듯이 내 가족은 육식을 좋아합니다. 그래서 그들이 여기 온다면 내가 그들에게 고기를 사다 주어야 할지도 모를

니다. 내 제자에게 사 오라고 할 수는 없으니까요! 그들은 나의 부모이니 할 수 없이 내가 시장에 사러 가야만 하지요. 그 다음은 여러분도 상상할 수 있을 거예요. 틀림없이 신문에 “칭하이 무상사가 시장에 가서 쇠고기를 사다!”라고 날 겁니다. (대중 웃음) 그렇게 되면 내 제자들이 어디로 달려갈지는 여러분도 알 수 있겠지요. 이것은 아주 뻔한 얘기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불보살의 은혜를 받으려면 반드시 그들과 같은 등급, 같은 습관, 같은 풍격을 갖추고, 같은 생활을 해야 합니다. 그래야 불보살이 우리를 도와주기가 쉽습니다. 예컨대 우리에게 도박하는 습관이 있다면, 우리가 서방정토에 갔을 때 불보살은 우리에게 도박하지 말라고 하기가 난처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너무 좋아하니까요. 여러분도 알다시피 도박을 좋아하는 사람에게 도박을 끊으라고 하는 것은 그리 쉬운 일이 아닙니다. 도박은 마약과 같아서 멈추려고 해도 쉽지가 않습니다. 담배 피우는 것과 같은 그런 작은 습관도 고치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이렇게 우리 습관이 불보살과 다르다면 우리가 서방정토에 갔을 때 그곳에는 도박 같은 것들이 없기 때문에 불보살도 우리를 도와줄 방법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불보살의 국토에는 불보살의 법률이 있기 때문입니다. 가령 불보살이 직접 그곳의 법률을 만들었다고 해도 그곳의 구성원들을 위해서는 불보살도 당연히 그 법률을 존중해야만 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불보살은 우리가 술을 마시든 담배를 피우든, 무엇을 수행하든 간에 전혀 상관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불보살이 상관하지 않더라도 그곳의 사람들은 상관을 하지요.

『아미타경』에는 “서방정토에 있는 모든 중생이 다 부처인 것은 아니다. 그들은 다만 수행자일 뿐이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들은 어찌면 이제 막 그곳에 도착한 불퇴보살들로서 부처와는 다를 겁니다. 예컨대 내 부모가 여기에 왔는데 내가 육식하고 채식하는 문제에 대해서 전혀 개의치 않는다고 가정해 봅시다. 그래서 부모님께 효도하려고 내가 고기 요리를 해주었다면 나 자신은 개의치 않는다고 해도 내 제자들은 문제삼을 겁니다. 왜냐하면 육식을 하지 말라는 규칙을 나 자신이 말해 놓고서 도리어 내가 고기를 사 버린 셈이니까요. 설사 나에게 그럴 수 있는 권리가 있다고 할지라도 법을 위반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이해하겠어요?

내가 선생님이라서 학생을 가르칠 수 있다고 하더라도 학생이 법을 존중하면 나도 마땅히 그 법을 존중해야만 합니다. 그렇지 않나요? 아무리 부모님이 내게 가장 가깝고 내가 가장 사랑하는 사람이라고 해도 나 역시 두 분만을 위해서 법을 어길 수는 없습니다. 아주 많고 많은 사람들이 내가 무슨 일을 하든 모두 지켜보고 있으니까요.

불보살도 마찬가지입니다. 불보살은 자비롭지만 우리가 법을 어기면 그들도 우리를 구해 줄 수가 없습니다. 우주에는 우주 자체의 법이 있기 때문이지요. 한 분의 대수행자가 이곳에 오는 것은 결코 우리를 위협하려거나 무엇을 강요하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그는 다만 우리가 이제껏 한 번도 들어 본 적이 없는 규칙과 여태까지 몰랐던 법을 우리에게 들려주려고 하는 것뿐입니다. 우리가 몰라서 잘못을 저지르는 것이니까요. 지금 우리가 불보살과 함께 있고자 한다면

그는 우리에게 할 수 없는 것과 해서는 안 되는 것들을 알려줄 것이며, 이런 그의 가르침을 잘 따른다면 우리도 부처와 같이 되어서 올라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보통 사람들은 쉽게 들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불보살이 아무리 우리를 도와주고 싶어해도 듣고 듣지 않고는 우리 권리가기 때문에 우리가 들으려고 하지 않으면 불보살도 강요할 수가 없습니다.

예컨대 내가 부모님께 가서 “저는 포모사에서 두 분을 모시면서 함께 살고 싶습니다. 그런데 규칙이 있으니 분명히 아셔야만 합니다. 바로 저와 함께 비건 채식을 하고 산에 살면서 아주 청빈한 생활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실 수 있겠습니까?”라고 말한다고 합니다. 물론 나에게는 이런 수행 생활이 정말 즐겁습니다. 하지만 부모님에게는 꼭 그렇게 즐겁지만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이곳에 모셔 오는 것이 쉽지가 않은 겁니다.

마찬가지로 아미타불이 서방 극락세계에서 그의 제자들을 가르치고 있는데 한두 사람의 기도, 또는 몇 백 명 되는 포모사 사람들의 기도 때문에 서방 극락세계의 중대한 책임을 놓아 버리고 우리를 제도하려 내려올 수는 없는 것입니다. 물론 내려올 수도 있지만 우리가 그곳의 규칙을 존중하지 않는다면 그 역시 우리를 데리고 올라갈 방법이 없습니다. 서방정토에 가고 싶다면 당연히 먼저 서방정토의 규칙과 생활을 연습해야 합니다.

아미타불은 너무 바쁘기 때문에 어쩌면 그의 부하를 사바세계로 보내서 사람들을 가르치게 할 겁니다. 그가 부하를 보냈을 때 우리는 그 사람의 말을 들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올라갈 수 없을 겁

니다. 그렇지 않나요? 현재 나는 부모님을 모시고 올 수가 없습니다. 일도 너무 바쁘고 제자도 가르쳐야 하는데 두 사람을 위해서 많은 제자들을 희생시킬 수는 없지요. 많은 사람들을 위해서 하는 수 없이 두 사람을 희생해야만 합니다. 내 뜻을 이해하겠습니까?

그래서 나는 어울락에 돌아가서 부모님을 모시고 올 수가 없습니다. 만일 내가 모시고 올 수 있다면, 나를 대신해서 한 사람을 어울락에 보내서 부모님을 여기로 모셔 오도록 할 겁니다. 그러나 그 사람은 반드시 나와 잘 알고, 나의 뜻을 이해하며, 나와 같은 이상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게다가 어울락어와 중국어에 능통해야 하겠지요. 그래야 두 나라를 왔다 갔다 하는 데 좀더 편리할 겁니다. 그리고 그는 두 나라의 법에 대해서도 잘 알아야 하고, 공산 국가의 법도 함부로 비평해서는 안 되고 존중해야 합니다.

내가 사람을 어울락에 보냈다고 가정해 봅시다. 그 사람은 어울락의 법에 맞게 행정 사무를 처리해 줄 것을 현 정부에 부탁해야 합니다. 날마다 어울락 정부에 협력하여 그들이 하는 말을 따르며 차근차근 일을 처리해야 하지요. “나는 포모사 사람이다.”라고 하면서 그들의 법을 함부로 대해선 안 됩니다.

비록 내가 이미 자유자재하다고 할지라도 어울락에서 돌아올 때 부모님을 비행기에 태우지 않고 다른 방법으로 날아서 모시고 올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곳의 법이 다르니까요. 이를테면 불보살이 이곳에 와서 우리를 데리고 가려 한다 해도 그들 역시 이곳의 법을 존중해야 합니다. “이제 그대는 나의 것이다. 우리 곧바로 서방정토로 날아가자!”라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이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마찬가지로 입문하려는 사람은 반드시 신청서를 쓰고 행정적인 일을 모두 처리해야지만 천천히 불보살이 그들을 서방정도로 데리고 갈 수 있습니다. 행정 사무도 다 처리되었고 도장도 찍었으니 시간이 되기만 하면 바로 갈 수가 있지요. 어떤 사람은 “입문하고 난 뒤 바로 왕생할 수는 없나요?”라고 묻습니다. (대중 웃음) 그러면 나는 “가능하지만 아직은 안 됩니다.”라고 답하지요. 왜냐하면 너무 복잡하거든요. 우리는 이 세상에 사는 아주 많은 사람들과 연관되어 있기 때문에 한 사람만 데리고 가면 그만인 것이 아닙니다.

우리에게는 아직도 친척과 친구들이 있으며,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빚진 것도 있고 다른 사람이 우리에게 빚진 것도 있습니다. 집도 아직 팔지 않았고 부금 같은 것도 아직 처리하지 못했지요. (대중 웃음) 어쩌다 우리는 보증을 섰다가 떼이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미 은행에서 돈은 빌렸는데 피보증인이 도망가 버리면 그것은 그의 사정일 뿐, 은행은 상관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오로지 우리가 은행 돈을 아직 빚지고 있다는 것만을 알지요. 그래서 우리는 남아서 깨끗이 갚아야 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포모사 사람들은 마음이 아주 좋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다른 사람을 대신해서 보증을 섰다가 연루되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피보증인이 도망가 버리면 여러분은 어쩔 수 없이 여기에 남아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나는 여러분이 서방정도에 갈 수 있도록 보증해 줄 수는 있지만 여러분이 망한다면 나 역시 문제가 생기겠지요. (대중 웃음) 그래서 입문할 때 항상 내가 여러분에게 수행을 잘하라고 부탁하는 겁니다. 나는 여러분에게 날마다 두 시간 반을 탁발할 뿐입니다.

나는 여러분이 정례하는 것도, 공양하는 것도, 절 짓는 것도 원하지 않습니다. 나는 어디를 가든 형편 되는 대로 살며, 때로는 텐트를 치고 살기도 하지요. 나는 중생을 번거롭게 하고 싶지 않고, 동수를 성가시게 할 생각이 없습니다. 그들이 돈을 많이 공양해서 절을 크게 짓기를 바라지도 않습니다.

우리가 이 세계에 사는 것은 본래 무상한 것입니다. 내가 여기에 온 것은 사람들에게 어떻게 수행하는지 가르쳐 주고 수행의 본보기가 되어서 모두 함께 수행하도록 격려하기 위해서입니다. 여러분은 날마다 내가 멋진 옷(스승님의 가사袈裟를 가리킴)을 입고 있는 것을 보지만 사실은 한 벌에 불과합니다. 좋은 것은 많을 필요가 없어요. 한 벌이면 충분합니다. 빨면 곧바로 마르니까 내일 또 입을 수 있고, 입으면 또 보기에 좋습니다. 여기에 있는 사람들 가운데 나보다 보기 좋은 옷을 입은 사람은 한 명도 없군요. (대중 웃으면서 박수) 여러분은 내가 옷을 아주 장엄하게 입었다고 말하지만 여러분의 옷은 내가 입은 것보다 몇 배나 더 비쌉니다.

어떤 사람들의 옷은 한 벌에 수만 대만 달러 아니면 수천 대만 달러나 나가지만 내 옷은 얼마 안 됩니다. 몇 백 대만 달러일 뿐이지요. 그렇지 않나요? 가장 비싼 것이 천 대만 달러입니다. 이 옷감은 제일 싼 것이어서 한 마에 십칠 대만 달러이지요. 만일 자기가 손수 옷을 만든다면 겨우 오륙십 대만 달러 정도만 들이면 아주 보기 좋은 옷을 만들 수 있을 겁니다. 얼마 들이지 않고도 날마다 보기 좋은 옷을 입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나는 내 돈을 다 쓰질 못하는 겁니다. 별로 쓸 데가 없으니까요.

우리 출가자는 하루에 한 끼만 정식으로 먹습니다. 아침은 사람에 따라 먹지 않기도 하고, 되는대로 아무거나 찾아 먹기도 합니다. 있는 대로 먹지요. 대개의 경우 얼마 안 되는 비스킷에 물을 좀 마십니다. 그리고 저녁에는 남은 음식을 먹고요. 강연을 할 때는 보통 때보다 늦게 돌아오게 되는데, 그럴 때 가끔 재가 제자가 우리를 자기 집으로 불러 국수를 한 솥 끓여 주기도 합니다. 때로는 아무것도 안 먹고 점심 한 끼만 먹기도 하는데, 점심에도 난 별로 먹는 게 없어요. 그러니 우리에게 돈이 남습니다. 돈을 쓸 일이 없으니까요. 누군가 돈이 부족하다면 그건 돈을 너무 많이 쓰기 때문입니다.

나에게 입문해도 나는 여러분의 공양을 받지 않으며 큰 절을 짓지도 않습니다. 나는 아무것도 짓지 않습니다. 그래서 입문할 때 나는 여러분에게 우리가 사는 산속으로 오라고 초대하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사는 곳은 제대로 갖춘 것이 없고 네다섯 개의 대나무 장대 위에 천막을 덮었을 뿐이거든요. 이런 곳에 여러분 같은 고관대작들을 함부로 초대할 수는 없지요. 여러분은 다들 멋지고 비싼 옷을 입은 데다가 나에게는 모두가 부처로 보이는데, 어떻게 감히 그렇게 누추한 집으로 초대하겠어요?

나와 함께 살고 싶다면 나에게 맞춰야 합니다. 우리가 사는 곳은 허름하지만 나와 산다는 것은 쉽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청빈한 생활에 익숙하지 않을 테니까요. 산에 사는 것은 그리 만만하지가 않아요. 전에 우리는 뜨거운 물이 없어서 날마다 찬물로 씻었습니다. 여러분, 참을 수 있겠어요? 겨울에는 정말 참기 힘들 겁니다. 그래서 때로 우리에게는 즐거운 일이 여러분에게는 즐겁지 않을 수도 있는

거지요.

부처도 마찬가지로입니다. 그들은 위에서 아주 행복하게 살지요. 하지만 우리가 아미타불에게 “그 위에 노래방이 있나요?”(대중 웃음)라고 물었을 때 그가 “없다.”라고 대답하면 우리는 가고 싶지 않을 겁니다. 도박을 좋아하는 사람은 “위에 도박장이 있나요?”라고 물을 텐데, 만약 아미타불이 “없다.”라고 대답하면 그 사람도 가고 싶어하지 않을 겁니다. 이처럼 우리가 말하는 행복과 불보살이 말하는 행복은 다릅니다. 하지만 석가모니불은 “중생은 모두 부처이다.”라고 말했고, 나도 “중생은 모두 부처이다.”라고 말합니다. 이미 모두 부처라고 했는데 왜 도박하는 부처, 담배 피우는 부처, 술 마시는 부처, 춤추는 부처, 노래방 부처가 있는 것일까요? 잠시 후에 우리가 본래는 부처였는데 왜 범부로 변하게 되었는지 설명해 주겠습니다. 먼저 이야기를 하나 해주지요.

아주 오래전, 아승지겁(阿僧祇劫) 이전, 상상할 수도 기억할 수도 셀 수도 없는 무량무변한 오랜 세월 이전에 한 부처가 있었는데, 그는 이름이 없었습니다. 막 태어났기 때문에 이름이 없었지요. 이름이란 사바세계에만 있는 것이지 위에서는 없답니다. 잠시 그를 ‘무명불(無名佛)’이라고 부릅시다. ‘무명’은 바로 이름이 없다는 뜻이지요. 사실 꼭 ‘부처’라고 불러야 하는 것도 아닙니다. 그를 대성인(大聖人)이나 서왕모(西王母(전설 속의 선녀), 또는 예수 그리스도 같은 아주 많은 이름으로 부를 수 있습니다.

그는 아주 오래전의 고불(古佛)이었지요. 그는 정말 즐겁고 아름답게 빛나는, 등급이 높은 세계에서 아래를 굽어보다가 이 사바세계를

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사바세계에 사는 사람들과 동물들, 그리고 모든 것들이 몹시 고통스러워하는 것을 보고 마음이 움직여 내려가서 그들을 구해야겠다고 생각했지요. 그는 이렇게 생각만 했을 뿐인데도 곧바로 아래로 떨어졌습니다. 부처의 소원은 아주 빨리 실현되기 때문에 생각만 해도 바로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알겠습니까?

마침내 사바세계에 내려온 그는 아주 열심히, 또한 자비롭게 중생들에게 알려주었습니다. “이곳은 좋은 곳이 아닙니다. 중생들이 서로 잔인하게 죽이지요. 여러분은 왜 한두 그릇의 밥을 위해서 서로 잔인하게 죽이는 겁니까? 여러분은 위로 올라갈 수가 있어요. 나에게 집이 아주 많으니 무료로 살도록 여러분에게 나눠 주겠어요. 밥도 무료이고 옷도 여러분이 입고 싶은 것은 무엇이든 입을 수가 있습니다. 올라가지 않겠습니까?” 하지만 중생들은 알아듣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부처의 언어로 말하고 사람들은 사람의 언어로 말했으니까요. 게다가 그의 모습은 사람들과 닮지 않았어요. 그는 밝게 빛나고 아름다웠으며 장엄했습니다. 우리 범부와는 달랐지요. 그래서 사람들 모두 그를 믿지 않았습니다.

하루 이틀, 한 달 두 달이 지나고 그는 계속 시도해 보았지만 아무 소용이 없었습니다. 부처가 너무 바보 같아 이제껏 사람이 무엇인지 전혀 몰랐기 때문이지요. 그래서야 부처는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는 ‘사람을 가르치려면 먼저 사람의 언어를 배워야 되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사람의 언어를 배워서 사람들에게 물어보았습니다. “여러분은 왜 내 말을 듣지 않는 겁니까? 위에는 가장 아름다

운 것이 있다고 말했는데 왜 듣지 않는 거지요?” 사람들이 대답했어요. “우리는 이제까지 그런 것을 들어 본 적이 없습니다. 우리는 이런 생활에 익숙합니다. 당신이 여기에 내려와서 한 모든 일이 우리와는 달랐어요. 우리가 당신을 무서워해도 부족할 판인데 당신 말을 들으라고요? 당신은 입은 옷도 다르고 얼굴도 다르며 밥 먹는 것도 다르잖아요. 당신은 먹지 않아도 되지만 우리는 먹지 않을 수가 없어요. 당신은 우리와 전혀 달라서 낯선 사람이나 다름없는데 우리가 어떻게 당신을 믿을 수 있단 말입니까?”

그때 그는 두 번째로 깨달았습니다. 그는 생각했지요. ‘사람을 가르치려면 반드시 사람의 방식을 배워야만 하겠다. 그들의 마음을 서서히 이해하고, 그들한테 필요한 게 무엇인지, 무엇을 좋아하는지, 왜 이것저것을 원하는지 이해해야만 하겠다.’ 그래서 부처는 다시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인류에게는 아주 많은 직업이 있었습니다. 그는 사람들이 먹는 것을 가장 좋아하는 것을 보고 즉시 농사짓는 일을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어떻게 채소를 심고 밥을 짓는지를 배우고 난 뒤 그는 사람들을 불러 배불리 먹였습니다. 사람들이 배가 부르고 기분이 좋아지자 비교적 가르치기가 쉬웠지요. 먹기 좋아하는 사람들은 그를 무척 좋아했습니다. 날마다 그가 있는 곳에 와서 음식을 먹고 나서 그가 하는 이야기를 들었지요. 이렇게 하자 문제가 없었어요.

그렇지만 장사하는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오로지 돈만 좋아하고 좀더 빨리 돈을 벌 수 있는 방법에만 관심이 있었기 때문에 부처는 그들을 제도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들의 생각이나 생활을 이해하지

못했기 때문이었지요. 부처가 있던 곳에서는 돈을 버는 일 같은 건 없었으니까요. 그러나 그는 또다시 노력하며 배웠습니다. 그들과 함께 섞여서 그들의 일꾼이 되고 부하가 되어 서서히 그들의 계략과 모책을 배우고, 어떻게 장사를 하는지 배우고 익혔지요. 그는 모두 배운 다음 그들과 함께하면서 그들이 돈을 아주 많이 벌 수 있도록 도왔습니다. 그러자 그들은 부처를 아주 좋아했지요. 모두 그에게 고문이 되어 달라고 했고,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물었습니다. 그는 부처라서 그들보다 총명했기 때문에 배우는 것도 빨랐고 돈 버는 것도 그들보다 빨랐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아주 좋아하며 모두 와서 그에게 물었지요. 서서히 그는 장사하는 사람들도 제도했습니다.

그 밖에 다른 일을 하는 사람들이 아직 많았습니다. 포모사만 해도 많은 직업이 있지요. 어쨌든 그는 모두 다 배워야만 했어요. 한두 종류가 아니었습니다. 의사·과학자·문학자·철학자·언어학자·부자·빈자(貧者) 등 셀 수 없이 많았지요. 그는 차근차근 전부 다 배웠습니다. 배우면서 그들을 제도했어요.

그러나 그는 이것저것을 배우면서 재가자들과 함께 섞인 지가 너무 오래되다 보니 결국 모든 것을 잊어버렸습니다. 자기를 잃어버리게 된 것이지요. 배우면 배울수록 끝이 없었습니다. 그는 잘 배우지 못할까 봐 긴장하고, 또 너무 많이 배워서 잊어버릴까 봐 염려하다가, 심지어 자기가 부처라는 것도 잊어버리게 되었습니다. 아침부터 저녁까지 아는 것이라곤 오로지 바쁘게 배우는 것뿐이었습니다. 돈을 벌어서 주기에 바쁘고, 채소를 심기에 바쁘고, 채소를 씻어서 음식을 만들어 먹이느라 바쁘고, 옷을 만들어 그들에게 입히느라 바쁘

고, 손님을 청하기에 바쁘고, 이렇게 그들이 기뻐할 수 있는 이런저런 일을 하느라 정말로 바빴습니다.

그는 우리 인류와 똑같이 변해 버렸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자신을 알 수 있습니까? 이것이 바로 우리입니다. 우리는 자신이 부처라는 것을 잊어버렸습니다. 하루 종일 그런 일을 하느라 바빠서 범부가 되어 버린 것이지요. 그 부처도 이 때문에 범부가 되어 버린 것입니다.

그러나 그가 영원히 범부가 된다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왜냐하면 부처는 영원히 부처이니까요. 그래서 어느 날 그는 깨어나게 되었습니다. 마음속으로 생각했지요. ‘내가 왜 하루 종일 이런 일들을 하고 있는 거지? 맨 처음 이런 일을 하게 된 이유가 무엇일까? 나는 도대체 여기에 무엇을 하려고 온 것일까? 이런 일이나 저런 일을 꼭 해야 하는 것은 아닐 거야!’

그래서 자신에게 묻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지쳤어요. 이제까지 아무런 결과도 없고 누구도 제도할 수 없고 자신마저 길을 잃어버리고 말았으니까요. 지칠 대로 지친 데다가 배워도 배워도 끝이 나지 않자 그때서야 그는 깨어나게 되었습니다. 그는 생각했지요. ‘이런 뜻은 아니었던 것 같은데!’ 그는 주위 사람들에게 그와 같은 느낌을 가지고 있는지 물었습니다. 그때 아마도 누군가가 이렇게 대답했을 거예요. “나도 같은 느낌을 가지고 있지만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소.”

아주 많은 부처들이 내려왔기 때문에 이곳에도 부처가 있고 저 곳에도 부처가 있었습니다. 그들은 자신에게 물어봤을 겁니다. ‘왜

다시 올라갈 수 없는 것일까?’ 바로 그때 아직 이 세상에 내려오지 않은 부처가 사바세계로 내려간 많은 부처들이 함께 기도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들이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고 혼란스러워하는 것을 보고 그는 마음이 움직여서 곧바로 내려오게 되었습니다. 그는 이제 막 떨어져 내려왔기 때문에 아직 모든 것을 잊지 않고 있어서 빨리 깨어날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길을 잃은 부처들에게 어떻게 하면 돌아갈 수 있는지를 가르쳐 주며 여러 가지 일들을 이야기해 줄 수 있었지요. 그리고 그 길을 잃었던 부처들은 돌아가기 전에 많은 사람들을 도와줄 수 있게 되었어요. 이해하겠습니까?

왜냐하면 그들은 이제 전부 다 이해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누가 마음속으로 무엇을 원하고 무엇을 바라는지 훤히 알고 있었지요. 장사하는 사람은 무엇을 얻고 싶어하고 의약계에서 일하는 사람은 무엇을 구하며 농부는 무엇을 원하는지, 그래서 어떻게 해줘야 하는지 그들은 모든 것을 다 알고 있었습니다. 불보살은 아주 총명합니다. 그는 무엇을 배우든 아주 빠르고 다른 사람들보다 더 잘하지요. 우리는 석가모니불이 문무를 두루 겸비한 사람이었다고 들었습니다. 그는 어려서부터 많은 것을 배우기 시작했으며, 신동으로 불릴 만큼 너무나 총명했기 때문에 그의 선생님까지도 고개를 흔들 정도였습니다. 그는 세세생생 이미 모든 걸 다 배웠던 것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많은 것을 배워야만 했던 것은 바로 중생을 도와주기 위해서였습니다. 여러분, 이해하겠어요? 만일 우리가 부처인데 한 번도 중생을 이해한 적이 없다면 어떻게 그들을 제도할 수 있겠어요? 그러니 여러분은 이제 왜 석가모니불이 “중생은 모두 부처

이다.”라고 말했는지를 알았을 겁니다. 우리는 본래 지혜와 총명함을 갖추고 있었던 것입니다.

지금 막 내려온 그 부처는 보통의 중생은 제도할 줄 모릅니다. 그는 다만 아까 말했던 것 깨어난 부처들만을 제도할 수 있을 뿐이며, 그들이 어서 빨리 집으로 돌아가기를 바랄 뿐입니다. 그는 보통 사람은 제도할 수 없습니다. 보통의 중생들에 대해선 아직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들을 제도하려면 이미 오랫동안 고통을 겪으며 중생들과 함께 섞여 있던 부처들에게 의지해야만 합니다. 그런 부처들이 깨어나서 깨달음을 얻으면 보통의 중생을 제도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중생의 온갖 심리를 모두 이해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중생과 세세생생 함께 섞여서 아주 많이 배웠기 때문입니다.) “부처는 인연이 없는 중생은 제도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그런 뜻입니다.

우리는 이 세계에 와서 고통과 비애를 맞습니다. 사람들과 함께 섞여 살면서 배반당하기도 하고, 나쁜 일이나 좋은 일을 하기도 하는데 그것은 모두 학습하기 위해서지요. 만일 우리가 나쁜 사람을 제도하려면 나쁜 일을 어떻게 하는지 알아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그와 이야기를 나눌 수 있겠습니까? 단지 할 줄 아는 것이라고는 그를 계속 비방하는 것뿐이겠지요. 왜냐하면 우리는 지금까지 나쁜 일을 해본 적이 없어서 스스로를 아주 고상하고 우아하다고 생각하니깐요. (대중 박수) 그래서 나쁜 일을 하는 것 역시 일종의 학습 방법입니다. 이른바 팔만 사천 범문이라는 것은 바로 이런 뜻입니다. 우리가 평생에 걸쳐 배워야 할 팔만 사천 가지의 범문이란 것이

있는 게 아닙니다. 게다가 한 가지 법문에서 다른 한 가지 법문으로 뛰어넘어야만 성불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어떤 법문이든 배우기만 하면 바로 성불할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거의 모든 사람들이 오해를 합니다.

주문을 외우는 것도 일종의 법문이고 불상에 절하는 것도 일종의 법문입니다. 이것이 틀렸다는 것이 아니에요. 다만 그런 것들은 모두 성불하는 법문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해하겠습니까? 성불하는 법문은 맨 마지막 오직 하나의 길입니다. 반드시 관음법문을 수행해야만 합니다. 내가 보기에 어떤 경전이든 모두 이렇게 말합니다. 오직 불교 경전에만 있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그래서 여러분 가운데 몇몇 사람들은 내가 왜 번번이 불교는 말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마호멧·노자·공자 등을 말하는 것인지 궁금해합니다. 왜냐하면 그들도 모두 같은 것을 가르쳤기 때문입니다. 안타깝게도 우리가 깨닫지 못해서 보지 못하는 것이지요. 관음법문을 수행해서 깨닫고 난 뒤에야 볼 수 있고, 보고 나서야 알고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설령 지금 여러분이 『전등록傳燈錄』을 본다고 해도 그들이 무엇을 말해 놓았는지 이해하지 못합니다. 비록 자기가 불교인이라고 해도 『육조단경』에서 육조가 무슨 말을 했는지, 그가 무슨 법문을 가르쳤는지, 그의 뜻이 무엇인지를 이해하지 못합니다.

육조가 이야기한 것은 아주 평범한 것이지만 우리가 그냥 한번 슬쩍 보고 지나쳤을 뿐 한 번도 제대로 배우질 않았으니 어떻게 알 수 있겠습니까? 가령 우리가 여태까지 과학을 배워 본 적이 없다면

과학책을 봤을 때 틀림없이 책 내용을 잘 이해하지 못할 겁니다. 과학 용어가 낯설어서 전혀 이해하지 못하겠지요. 사진을 예로 들면 공학사전·의학사전, 전문 기술사전같이 많은 종류가 있지만 의학을 배우는 사람이 공정 기술의 용어를 읽는다면 이해가 안 될 겁니다. 그들이 사용하는 단어가 모두 다르니까요.

불교사전도 아주 복잡합니다. 예컨대 열반·삼사라Samsara·부다 Buddha 등은 천주교인들이 보면 이해를 못 합니다. 만일 여러분이 계속 열반, 열반 하면서 이야기를 한다면 그는 “열반이 무엇이야?”라고 물을 겁니다. 그래서 천국이라고 말해 주면 “그건 이해한다.”라고 말하겠지요. 알겠어요? 이를테면 도교를 믿는 사람들에게 사바 세계라는 말을 해준다면 그들은 “사바가 무슨 뜻이야?”라고 할 겁니다. 사바란 지구를 뜻한다고 말해 주면 그들은 바로 알 겁니다.

왜 그렇게 복잡한 단어를 써야 하지요? 나는 비교적 쉬운 말을 좋아합니다. 모두가 다 알 수 있고 어떤 종교를 믿는 사람이든 다 이해할 수 있는 말을 좋아합니다. 무슨 종교든지 모두가 융합해야만 함께 살 수 있습니다. 무슨 종교를 믿든 우리는 이미 함께 있으니 모두가 이 세상의 공민公民인 것입니다. 우리는 서로 형제자매이기 때문에 이 정업을 바꿀 수는 없습니다. 기왕 우리가 서로 얽혀 있으니 함께 모여서 우리 일을 처리하고 힘을 합쳐 여러 가지 상황이나 입장을 극복해서 다 같이 행복하게 살아야 합니다.

이를테면 불교의 옷을 입은 사람이 천당으로 가는 길을 알고 있다면 우리는 마땅히 그에게 배워야만 합니다. 옷만 다를 뿐 사람은 다 똑같으니까요. 우리는 모두 같은 이상을 가지고 있습니다. 누구

나 천당에 가고 싶어하고 천국에 가고 싶어하며 열반에 이르고자 합니다. 그렇지 않나요? 우리는 모두 완전무결한 사람이 되고 싶어하며, 그런 최고의 사람을 만나고 싶어합니다.

이렇게 서로 이상이 같은데 천주교인이 “나는 길을 안다. 나는 가본 적이 있다. 나는 그대를 데리고 갈 수 있다.”라고 말한다면, 우리 불교인은 마땅히 그에게 배워야만 합니다. 왜냐하면 저마다 여러 길을 걸어 보아야 진정한 길을 찾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지요? 때로 우리는 한 번도 올라가 보지 않았던 산을 오를 때가 있습니다. 산 위 어딘가에 보물이 묻혀 있다면 보물을 찾으려고 서로 흩어져서 가겠지요? 이를테면 이 사람은 남쪽으로 가고, 나는 북쪽, 저 사람은 가운데 길로, 나머지 한 사람은 뒷산으로 가는 식으로요. 이렇게 흩어져서 찾으면 편리합니다. 그러다 누군가가 보물을 찾았을 때 신호를 보내서 알리면 그때 우리가 그곳으로 달려가거나, 아니면 가장 먼저 찾았던 그 사람이 돌아와서 우리를 데리고 가면 됩니다.

세상에는 수많은 종파가 있지만 길을 찾은 사람은 반드시 돌아와서 “이제 찾았으니 모두 함께 올라갑시다.”라고 알려주어야만 합니다. 그렇지 않나요? 그런데 왜 그 사람이 돌아왔을 때 아무도 환영을 해주지 않는 겁니까? (대중 열렬하게 박수) 이것은 정말 아주 큰 하나의 공안公案입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도 어쩔 수가 없지요. 환영하지 않으면 환영하지 않는 거니까요. 아마도 그가 너무 오랫동안 찾으러 다닌 바람에 그가 돌아왔을 때 아무도 그를 알아보지 못해서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가 다르게 보이겠지요. 산을 오르면서 땀과 눈물을 흘리고, 또 오르다가 쓰러지기를 몇 번 하다 보니 겉모습이 알아보

지 못하게 변했을 수도 있습니다.

막 오르기 시작했을 때 아직 얼굴이 아름답고 우아하며 옷도 아주 깨끗했을 겁니다. 그러나 산을 다 오른 뒤엔 여기는 움푹 들어가고 저기는 볼록 튀어나올 정도로 몹시 지친 데다, (대중 박수) 어찌면 안경도 떨어뜨리고 옷도 더러워졌기 때문에 우리가 그를 몰라보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당신은 외국인이고 우리 단체의 사람이 아니다. 당신은 우리를 속이고 있다.”라고 말할 겁니다. 한 분의 큰승이 오실 때도 그런 종류의 ‘환영’을 받습니다.

우리가 세세생생 우리의 친구, 우리의 선지식, 우리의 동료 수행자를 만난다 해도 우리는 그들을 알아보지 못합니다. 그들이 변했기 때문이지요. 예컨대 석가모니불이 우리를 제도하러 돌아온다고 합시다. 우리가 날마다 그를 숭배하고 좋아한다고 해도 그가 반드시 인도 옷을 입고 돌아오는 것은 아닐 겁니다. 그에게는 그런 분별심이 없기 때문에 오로지 인도식 옷차림만을 좋아하진 않을 거예요. 그는 아무 옷이든 마음대로 입고 와서 중생을 제도할 수 있습니다. 어찌면 그는 어울락이나 중국 옷을 입을 수도 있지요. 게다가 남장을 할 수도 있고, 아니면 여장을 할 수도 있습니다.

누구든지 어제는 검은색 옷을 입었다가 오늘은 흰색으로 바꿔 입을 수도 있습니다. 어제는 머리카락이 아주 길었는데 오늘은 짧게 자를 수도 있고, 다음날에는 아예 없을 수도 있지요. (대중 웃음) 그러나 그는 여전히 같은 사람입니다. 이해하겠습니까? 그러니 우리는 겉모양만을 봐서는 안 됩니다.

이를테면 나는 본래 정말 여성스러워 보였습니다. 여러분은 내

가 출가하기 전에 찍은 사진을 보고서 모두들 아주 아름답다고 했지요. 이것은 내가 여성스러웠다는 뜻 아닌가요? 여성스러운 것이 아름다운 것이니까요! 지금은 모두 내가 아주 잘생겼다고 합니다. 그 말은 내가 남자답게 생겼다는 뜻 아닌가요?

많은 사람들이 내 제자들에게 묻습니다. “당신의 스승은 남자입니까, 아니면 여자입니까?” 그들이 뭐라고 대답하는지 아세요? 그들은 “우리 스승님은 물론 여자입니다. 하지만 아주 남자다운시죠.” 라고 말합니다. 머리카락만 잘라도 이렇게 달라 보이는데, 하물며 다시 태어나 돌아온다면 어떻게 알아볼 수 있겠습니까? 이를테면 여러분이 나를 믿어서 계속 나에게 다시 돌아와 주기를 간청하거나 사바세계를 떠나지 말라고 간청한다고 해도 나는 영원토록 똑같은 육신의 옷을 입고 있을 수가 없습니다. 이도 다 빠지고 늙어 버린 다음에는 강연하기가 아주 불편할 거예요. (대중 웃으면서 박수) 옷이 낡으면 바꿔야 하지요. 옷을 바꾸려면 다시 태어나야 합니다. 그렇지만 다시 태어날 때 꼭 같은 옷을 찾을 수 있는 것은 아니에요. 옷이 낡아서 너털너털해지면 갈아입어야 하는데 시대가 달라졌으니 같은 옷을 입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고대 당나라 때에는 내가 지금 입고 있는 옷과 거의 비슷한 옷을 입었습니다. 그렇지만 현대인은 유행 때문에 서양의 청바지를 입습니다. 지금은 몇 안 되는 사람들만 고전적인 옷을 입지요. 그렇지 않나요? 여러분이 산디면에서 고산족을 보았을 때 어떤 사람은 전통 의상을 입고 있지 않았습니까. 이따금씩 연회가 있을 때만 그들은 전통 복장을 하지요. 이렇게 전통 의상을 아주 드물게

어쩌다 한 번 입기 때문에 우리가 그들을 봤을 때는 그 모습이 너무 이상하게 느껴져서 계속 보고 또 보게 되었습니다. 예전에 그들에게는 얼굴에 검은 선 두 줄을 문신하는 풍속이 있었는데, 그때는 크면 클수록 보기가 좋았답니다. 하지만 지금 그런 문신을 한 얼굴과 우연히 마주친다면 아마 깜짝 놀랄 거예요. 그렇지요? 전통이 모두 변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불보살도 마땅히 변해야 합니다. 이해하겠습니까?

인도에서 석가모니불은 해청(海靑(중국의 승복))을 입지 않았습니까. 인도에서는 이런 옷을 입지 않아요. 어울락의 비구니도 이런 옷을 입지 않습니다. 하지만 나는 중국에 왔으니 마땅히 중국 옷을 입어야 합니다. 왜 안 입겠어요? 입어서 여러분이 좋아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는 외면만을 보아서 안 됩니다.

내가 3일 전 강연을 할 때 말한 적이 있습니다. 만일 내가 남자로 태어났다면 아마도 어울락에서 벌써 전사했을 거라고요. 거의 모든 남자들이 군인의 의무를 다해야 했으니까요. 내가 태어났을 때만 해도 부모님은 “어떻게 딸이 태어난 거지?” 하면서 불평을 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나중에는 오히려 기뻐하면서 말했지요. “네가 아들이었다면 큰일날 뻔했구나. 남자는 반드시 군대에 가야 하는데, 그랬다면 돌아오지 못했을 거야.”

만일 내가 포모사 사람이었다 해도 역시 큰일났을 겁니다. 포모사에 깨달은 스승이 없다면 내가 어떻게 찾을 수 있었어요? 아마 어려서부터 출가해서 하루 종일 사람들이 말하는 대로 듣고 따라만 했지요. 일반 절에서는 모두 그렇게 하니까요. 마음대로 어디를 가

거나 강연을 들으러 갈 수도 없고, 마음대로 다른 사람을 찾아가서 배울 수도 없습니다. 여러분은 모두 알고 있지요. 어느 절에든 출가하면 그곳에 ‘박혀’ 버려서 한 발자국도 나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내가 강연을 할 때 다른 출가자들이 아주 적게 오는 것입니다. 오늘은 두 명의 이상한 출가자만이 와서 강연을 듣는군요. (대중 웃음) 나에게 출가한 사람들은 더욱 이상합니다.

만일 내가 포모사에서 출가했다면 아무런 소용도 없었을 겁니다. 영원히 관음법문을 배우지 못했겠지요. 그래서 어울락에서 여자로 태어나게 된 것이 내게는 아주 안전했고 이로움도 많았습니다.

시대가 다르니 내가 남자로 태어났더라면 어디에 태어나든 상관 없이 무척 위험했을 겁니다. 예전대 미국에 태어났더라면 나오는 무관하다고 해도 아주 멀고 먼 어울락에 끌려가서 전쟁을 했을 거예요. 전쟁을 할 때는 참으로 많은 사람들이 죽습니다.

내가 일본에 태어났더라면 하루 종일 공안을 참구했을 겁니다. 그 다음에는 갈수록 교만해져서 입을 열거나 다물거나 “나는 선사禪師다.”라고 하면서 아무것도 배우지 않고 어느 누구의 말도 들으려고 하지 않았을 거예요. 왜냐하면 그들에게는 ‘내’가 가장 높으며 일체가 다 ‘공공’한 것이니까요. 만일 그렇다면 끝장입니다. 자기도 제도하지 못하는데 누굴 제도할 수 있으며 무슨 법을 배우겠어요?

포모사의 남자들이 이렇습니다. 온종일 학력 때문에 바쁘지요. 포모사에서는 학력이 없으면 장가도 못 가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 학력을 쌓지 않으면 안 되지요. 부모님도 학력을 쌓으라고 계속 강요합니다. 그 다음엔 또 결혼하라고 강요하지요. 대를 이어야 하기

때문에 거부할 수도 없습니다. 이것은 동방의 전통으로 부모는 아들을 중요시하며, 그들의 책임은 막중합니다. 나라에 충성하고 애국하며 부모님께 효순해야 하는 등 사회와 가정에 대한 책임이 아주 막중하지요. 벗어나려고 해도 벗어날 수 없는 것이 마치 두세 개의 쇠사슬로 묶어 놓은 것처럼 그렇게 무겁습니다. (대중 박수)

그래서 포모사에서는 남자가 출가하는 일도 적고 집에서 수행하는 일도 아주 드뭅니다. 오늘 나는 타이둥에서 온 편지 한 통을 받았 습니다. 교사인 한 남자가 보낸 것이었는데, 그는 나를 따라 수행하는 것을 무척 좋아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의 아내는 그가 불법佛法을 배우는 것을 좋아하지 않아서 수행에 관한 책을 볼 때는 아내 몰래 본다고 합니다. 게다가 그는 낮에는 학생을 가르치고, 저녁에는 집에 돌아와서 아내가 장사하는 것을 돕고 아이들을 돌보느라 수행할 시간이 없다고 했습니다.

이 편지를 읽고 나서 나도 그 사람에게 묻고 싶었어요. “당신은 언제 시간을 내서 수행할 수 있겠어요?”라고요. 나는 그가 너무나도 바쁘게 사는 것 같아 그에게 해줄 말이 없었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 난 몹시 괴로워요. 그의 상황이 정말 이해가 되거든요. 그는 정말 확실하게 매인 겁니다. 수행에 관한 책은 볼 수도 없는 데다 학생들까지 가르쳐야 하고, 집에 돌아와서는 가정과 아이들을 돌보고 아내를 도와 장사를 해야 하지요. 그는 지금 사오십 세쯤 되었을 텐데, 앞으로 몇 십 년만 더 지나면 인생은 끝이 납니다. 전생에도 그랬듯이 아무것도 이루지 못한 채 다시 윤회해야 하니 정말 괴롭지요. 거의 모든 남자들이 이렇습니다.

듣자하니 여자의 업장이 더 무겁다고 하지만 상황을 보니 정반대인 것 같습니다. 내 제자는 남자보다 여자가 더 많습니다. 그녀들은 비교적 흥분하지요. 왜냐하면 사람들은 여자들이 별 소용이 없으니 시끄럽게만 굴지 않는다면 가서 수행이나 하면서 시간을 때워도 좋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남자 ‘대장부’에게는 국가 대사를 논하게 하지요. 그래서 요즘은 여자가 되는 게 유행이고, 또 이로움도 많습니다. 어쩌면 이래서 내가 여자가 되었는데도 모르겠어요. 만일 여자는 수행할 수 없다고 생각한다면 그것은 틀렸습니다. 준제 불모(準提佛母)가 누구입니까? 관세음보살은 누구지요? 티베트의 가장 높은 부처도 여성입니다. 밀종을 수행하는 사람들이 가장 숭배하는 부처도 여성이지요. 여러분 알고 있습니까? 밀종을 수행하는 사람이 있나요? (어떤 사람: 맞습니다.) 그래서 나는 여자가 된 것이 아주 기쁩니다.

티베트에서는 여자가 비교적 중해서 많은 남자와 결혼을 할 수가 있습니다. 전혀 문제가 없지요. (대중 웃음) 여러분은 이런 이야기를 좋아하지요. 그렇지 않나요? (대중 박수) 사실 이런 것은 모두 풍속과 관습일 뿐이니 우리 수행자는 함부로 비평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도덕적인 부분은 언제 어디서나 항상 꼭 들어맞는 것이 아니니까요. 티베트에서는 사람들이 태어나자마자 그런 풍속을 접하기 때문에 사람들은 그것이 죄악이라는 것을 모릅니다. 그래서 여자 한 명이 여러 명의 남자와 결혼할 수 있는 거예요. 게다가 결혼도 한 가정의 여러 형제들과 하게 되지요. 나라마다 풍속과 관습이 다 다르기 때문에, 중국의 입장에서 보면 이것이 범죄이고 범법이며 부도덕

한 일이지만 그들이 사는 곳에서는 오히려 흔히 있는 일입니다. 반대로 그런 결혼을 하지 않으면 부도덕한 것입니다.

예를 들어 동생이 형의 아내를 자신의 아내로 맞이하는 것을 거절한다면 그의 집에서는 동생에게 돈을 주지 않습니다. 이를테면 다섯이나 세 명의 형제가 한 여자와 결혼을 했는데 막내동생이 그녀를 거절했다고 합시다. 가장 젊은 막내동생이 다른 젊은 아내를 원해서 그 나이 든 아내를 맞이하기 싫어한다면 가족들은 바로 그에게 압력을 행사합니다. 만일 그가 정말로 싫어한다면 집을 떠나 다른 곳에서 일자리를 구해 살아야 하지요.

티베트에서는 일자리를 얻기가 정말 어려우며, 혼자 나가서 장사를 하는 것도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집안의 재산에 의지해야 하지요. 만일 순종하지 않으면 한 푼의 돈도 주지 않습니다. 티베트에서는 ‘범죄’(전통 풍속을 따르는 것)를 원하지 않으면 오히려 도덕적이지 못한 사람이 됩니다. 그러나 포모사에서 우리가 그런 결혼을 거절한다면 무슨 죄에 해당될지 잘 모르겠군요. 그러므로 우리는 수행을 할수록 마음이 더 밝아지게 되고, 또 세상엔 좋고 나쁜 그 어떤 일도 없음을 보게 된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이 외에도 더 많은 이야기들이 있지만, 말하기도 거북하고 시간도 허락하지 않아서 비교적 유용한 일들에 대해서만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러분을 보게 되어 나는 아주 기쁩니다. 수백 년을 보지 못했으니까요. 무슨 특별한 것을 듣고 싶습니까? (질문: 무엇이 관음법문입니까?) 언제나 똑같은 질문을 하는군요. 당신은 내 책을 읽지 않았나요? (그 사람 대답: 읽지 않았습니다.) 책을 읽지 않았으니 이런 질문을

하는 겁니다. 돌아가서 자세히 보십시오. 우리에게 건본책자가 있으니 돌아가서 읽어 보면 관음법문에 대해서 조금은 이해할 수 있을 겁니다. 만일 큰 책이 필요하다면 우리에게 연락을 하면 됩니다. 그래도 간단하게나마 이야기를 조금 해주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나에게 “관음법문이 무엇이냐?”라고 묻습니다. 나는 “일종의 자연의 진동력이며 자기의 권력이다.”라고 대답합니다. 우리는 우리가 좋아하는 어떠한 상황이든 만들어 낼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권력이 있고 힘이 있어서, 우리 마음에 맞는 경지나 세계를 만들어 우리 자신과 친척·친구들이 살도록 할 수 있습니다. 만일 우리가 그 힘을 사용할 수만 있다면 꼭 이 세계에 살지 않아도 됩니다. 우리는 다른 세계를 만들어서 살 수가 있습니다. 마치 돈이 많이 있어서 낡은 집을 새집으로 바꾸거나 또는 문명이 더 발달한 아름다운 나라에 가서 비교적 편안한 생활을 할 수 있는 것과도 같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내면에는 가늠할 수도 없고 헤아릴 수도 없는 힘이 있는데, 관음법문은 바로 우리가 이 힘을 사용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이 힘을 우리는 ‘본성’·‘본래면목’·‘신’·‘도’라고 부릅니다. 관음법문은 바로 우리가 진동력, 그 힘과 소통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그래서 우리는 곧바로 느낄 수 있고 이해할 수 있으며, 즉시 본성의 모습을 조금 볼 수가 있습니다. 본성의 모습을 알게 되고 그 진동력을 듣게 되는 것이지요. 이 진동력은 우리 자신의 권력을 대표합니다. 우리가 그를 사용하면 할수록 더 성장하게 되고 힘이 있게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나에게 묻습니다. “관음법문을 수행해서 내면의 소리를 들으면 왜 업장이 소멸된다고 하는 겁니까?” 관음은 바로 내면의 소리를 관하는 것입니다. 이해하겠습니까? 이 소리는 보통의 소리가 아닙니다. 인연에 따르다 보니 ‘소리’라고 부르는 것이지요. 그것은 평범한 소리가 아니지만 적당한 언어가 없기 때문에 그냥 ‘소리’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왜 그 소리를 관하면 업장이 소멸될까요? 먼저 우리 업장이 무엇인지를 이해해야 합니다. 업장도 일종의 진동력이고, 일종의 힘이며, 두뇌 속에 녹음되어 있는 일종의 자료입니다. 오늘날 과학자들은 우리 두뇌 속에 녹음되어 있는 것이 일종의 진동력이라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여러분도 들어 본 적이 있습니까? 한 개의 뇌세포가 자료를 받으면 라디오 주파수와 같은 진동이 생깁니다. 그런 주파수 때문에 우리가 두뇌 속에 녹음되었던 소리를 듣게 되는 것이지요.

우리 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소리를 듣거나 자료를 받을 때는 그게 어떤 경험인지에 상관없이, 좋든 나쁘든, 익숙하든 익숙하지 않든, 좋아하든 싫어하든 모두 일종의 진동력이 생깁니다. 그것이 뇌 속에서 상호 전달되면서 여기에서 저기까지, 저기에서 여기까지 전해지는데, 뇌의 가장 안쪽까지 전해지고 나면 거기에 기록이 되지요. 그 다음에 총사령관을 맡은 주인이 ‘나는 이것을 좋아하고 저것은 싫어해. 이렇게 하는 것을 좋아하고 저렇게 하는 것은 싫어해.’라는 명령을 내리면 우리가 반응하게 되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마치 라디오를 들을 때 우리가 좋아하는 프로그램은 계속 듣지

만 싫어하는 프로그램은 다른 일을 하면서 별로 주의를 기울이지 않고 듣는 것과 같습니다. 심지어는 화를 내면서 꺼 버리기도 하지요. 그렇지 않나요? 우리는 아무개가 아무개에게 나쁜 짓을 했다는 말을 들으면 마음이 상하고, 또 우리가 정말로 사랑하는 친지가 돌아가셨다는 소리를 들으면 온 가족이 슬픔을 참지 못합니다. 이것은 모두 그 주파수가 우리 두뇌로 들어왔기 때문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는 날마다 아주 많은 자료를 수집합니다. 그것은 우리 뇌 속에 있는 진동력이 우리에게 많은 일들을 보고하기 때문이지요. 보고를 마치고 난 뒤에 소용이 없는 것은 전부 창고 속에 넣어 두는데 어쩔 나중엔 다시 쓸지도 모릅니다.

예를 들어 오늘 어떤 사람이 우리를 욕했다고 합시다. 그러면 우리는 그에게 화가 나겠지요. 하지만 지금은 그 사람의 지위가 너무 높아서 어떻게 해볼 수가 없다면 일단 “좋아! 두고 보자.” 하며 참을 겁니다. 하지만 우리 창고 속에는 벌써 그에 관한 자료가 쌓였기 때문에 그의 상황이 좋지 않을 때 우리는 그 자료를 바로 꺼내서 그 사람을 공격하는 데 사용할 겁니다.

우리가 나쁜 일을 할 때도 우리 두뇌는 역시 녹음을 합니다. 우리는 스스로 나쁜 일을 한다는 것을 알지요. 왜냐하면 어려서부터 부모님이 우리에게 좋은 일을 하라고 가르쳤으며, 부모님이 가르치지 않았다고 해도 선생님이 우리에게 좋은 일을 하고 좋은 사람이 되라고 가르쳤기 때문입니다. 이를테면 살생하지 말고, 도둑질하지 말며, 간음하지 말고, 거짓말하지 말며, 술 마시지 말라는 것 등이 있지요. 어떤 선생님도 우리에게 술 마시고 담배 피우라고 가르치지

않았습니다. 설령 그 자신은 피우더라도 우리에게 피우라고 가르치지 않았지요. 그렇지 않나요? (대중 웃음)

그래서 어른이 되어서 그런 규칙들을 어기게 될 때는 우리 스스로가 이것은 하면 안 된다는 것을 아주 분명히 알면서도 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고 난 뒤 우리 두뇌는 녹음을 하지요. 우리 느낌과 행동을 모두 녹음합니다. 우리가 나쁜 행동을 할 때는 정말 나쁘다고 녹음을 할 것이며, 우리가 자신이 좋지 않다고 느낄 때는 좋지 않다고 녹음할 것입니다. 시간이 되면 우리가 녹음했던 것들을 다시 처리하는데, 이것이 바로 업장입니다. 다른 말로 조상으로부터 전해 내려온 죄, 또는 전생의 인과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업장은 바로 우리가 녹음해 놓은 좋지 않은 자료입니다.

가끔씩 우리는 스스로 한 것은 아니지만 사회에서 좋지 않은 자료들을 많이 배울 때가 있습니다. 비록 좋지 않다는 것을 알고는 있지만 너무 많은 사람들이 하고 있고, 게다가 우리 힘이 부족하기 때문에 거절하지 못하기도 합니다. 그럴 때에는 그들을 융화시키지 못할 뿐만 아니라 도리어 그들에게 융화가 되어 버립니다. 왜냐하면 그들 힘은 강하고 우리 힘은 약하기 때문에 그들에게 흔들리게 되고, 결국 그들과 똑같은 일을 하게 되는 것이지요. 그것도 역시 업장인 셈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자신을 제어할 수 없었으니까요. 우리 두뇌는 말할 거예요. “너는 잘못했어!”라고요. 여러분이 누구의 영향을 받았든 나쁜 짓을 하게 되면 잘못된 것입니다. 자기를 제어할 방법이 없었다고 해도 이 역시 업장인 셈이지요.

업장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우리가 해서는 안 되는 일을 한 것으

로, 반드시 그 결과를 감당해야 합니다. 지금 즉시 받지 않으면 얼마간 시간이 지난 뒤에 다시 받게 됩니다. 내년이나 다음 생애 다시 와서 받지요. 받을 때 꼭 사람이 되어서 받는 것은 아닙니다. 예컨대 어떤 사람이 다른 사람에게 돈을 빚졌는데 죽을 때 갚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 사람이 죽은 뒤에 반드시 다시 사람으로 태어나 열심히 일을 해서 그 사람에게 진 빚을 갚는 것은 아닙니다. 어쩌면 그의 개나 말이 되거나 소가 되어서 그를 위해 일을 해서 빚을 갚을 수도 있지요. 이것은 아주 슬픈 일입니다.

우리 두뇌 속에서도 자료가 증가하여 하나가 셋이나 넷, 다섯으로 변합니다. 우리 주의력을 강화하기 위해서 두뇌는 중량을 늘릴 겁니다. 알겠습니까? 두뇌가 일부러 우리를 괴롭히거나 우리 업장을 늘리는 것이 아니에요. 그것은 두뇌의 일입니다. 예를 들어 어떤 사람이 봉급을 올려 달라고 날마다 사장에게 같은 말을 한다고 합니다. 두세 번 이야기를 했을 뿐인데도 사장은 듣기 지겨워서 ‘이 사람은 어쩌서 날마다 같은 말만 하는 거지? 날마다 똑같은 얘기만 하잖아.’라고 생각하겠지요. 이는 마치 우리에게 라디오가 한 대뿐이지만 방송국이 여러 군데 있어서 다른 많은 나라에서도 수신할 수 있는 것과 같습니다.

우리 두뇌 역시 마찬가지로 많은 것을 만들어 내는 습관이 있습니다. 우리가 약간의 업장만 지었다 할지라도 인과는 오히려 아주 많아지지요. 왜냐하면 두뇌는 무엇이 우리에게 나쁜 것인지 정확히 몰라서 컴퓨터처럼 자기 습관에 근거해서 일을 하고 한 가지를 배우면 계속 그것만 하기 때문입니다. 사무실용 컴퓨터가 사용 용도에

따라 하는 일이 정해져 있듯이 말입니다.

컴퓨터는 우리 뇌를 보고 영감을 얻어 발명해 낸 것입니다. 과학자들은 사람의 뇌가 굉장히 정밀하다는 것을 알고 차근차근 연구해서 사람의 뇌를 모방하고자 했습니다. 그러나 오늘날까지 아직 완전히 알아내지 못해서 일부분만을 사용할 뿐입니다. 우리 두뇌는 가장 오묘한 컴퓨터입니다.

우리 두뇌 속에는 세포와 신경이 있습니다. 그 가운데 한두 개나 네다섯 개 정도가 손상된다고 해도 우리 두뇌는 문제없이 일을 할 수가 있습니다. 어쩌면 그럴 때 두뇌에 조금은 혼선이 생길 수도 있지만 시간이 지나면 괜찮아집니다. 그렇지만 컴퓨터는 작은 전선 한 가닥만 고장이 나도 컴퓨터 전체가 망가져 버립니다.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오늘날까지 과학은 아직 만족할 만큼 완벽한 컴퓨터를 만들어 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과학자들은 우리 두뇌로부터 아주 많은 것들을 배워서 갈수록 진보하고 있지요. 차츰 오늘날의 컴퓨터가 많이 나아지고는 있지만 아직 우리 두뇌보다 월등할 방법은 없습니다.

이쯤에서 여러분은 궁금해하며 “그것과 관음법문이 무슨 관계가 있나요?”라고 질문을 할 겁니다. 그건 조금 있다가 다시 설명해 주겠어요. 때로는 나에게 아주 많은 영감들이 떠오르곤 하는데, 이는 듣는 사람에 따라서 다릅니다. 나는 강연할 때 내가 필요해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에게 무엇이 필요한지를 보고 말합니다. 이를테면 여러분이 두뇌와 관음법문의 관계에 대해서 듣고 싶어하면

나는 그 일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만일 여러분이 강연 내용을 아주 재미있게 들었다면 그건 여러분이 재미있는 것을 좋아하기 때문이에요. 만일 여러분이 따분한 내용을 좋아한다면 나도 따분한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수가 있지요. 그러니 내가 하는 강연이 듣기 좋거나 싫다고 해서 나를 탓하지 마세요. 이것은 모두 여러분과 관련이 있습니다.

이제 컴퓨터와 관음법문을 수행하는 것이 무슨 관계가 있는지 설명하겠습니다. 컴퓨터 안의 자료는 지워 버릴 수가 있어서 어느 부분을 누르기만 하면 모든 자료가 남김없이 다 사라져 버립니다. 어찌다 단추 하나를 잘못 누르거나 전선 하나만 고장이 나도 자료가 전부 없어지지요. 그렇지만 우리 두뇌는 그렇게 간단하지가 않습니다. 우리가 죽는다고 해도 업장은 여전히 존재합니다. 업장은 너무 정밀하고 미세하며 불가사의하기 때문에 반드시 불가사의한 진동력을 사용해야만 씻어 버릴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두 나라가 서로 싸우는데 어느 한 나라에서 날마다 “상대방 나라는 나쁘다. 그들은 벌써 우리 국민을 몇 명이나 죽였다.”라는 뉴스를 발표한다고 합시다. 그러면 다른 나라에서도 똑같이 상대방이 나쁘다고 하며 그들이 자신들의 부대를 얼마나 부셨는지를 방송할 겁니다. 양쪽에서 서로 상대방이 잔학하다고 헐뜯겠지요. 또 그들에게는 전문적으로 상대방의 전파를 방해하는 시스템이 있어서, 이를테면 이 나라에선 자기 나라의 국민이 저 나라의 소식을 듣지 못하도록 ‘지지직’ 하는 음파를 보내서 방해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저 나라에서도 이 나라의 라디오에 똑같은 시스템을 적용해

서 “몇 명의 적이 죽었다. 우리는 성공했다.”라는 소식을 보도할 때 ‘지지직’ 하는 음파를 내서 방해하려 들겠지요.

마찬가지로 많은 사람들이 나에게 “관음법문을 수행하면 반드시 공췌으로 변해야만 합니까?”라고 묻습니다. 그러면 나는 “공한 것을 바라지 마세요.”라고 말하지요. 그들은 또 “우리 생각을 제어해서 망상을 하지 않도록 해야 합니까?”라고 묻습니다.

우리 두뇌가 망상에 빠질 때는 그것을 제어하지 않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그럴 때는 ‘지지직’ 하고 방해하는 시스템을 사용하기만 하면 되지요. 이해하겠습니까? (대중 웃음) 왜냐하면 그때 여러분이 두뇌가 하는 말을 듣지 못한다면 두뇌가 무슨 말을 하건 그것에 관여하지 않을 테니까요. 라디오의 방해 시스템처럼, 어느 정도 강한 진동력을 사용해야만 원래의 진동력을 방해할 수 있습니다. 알겠습니까?

왜냐하면 우리가 직접 송신소에 가서 그들의 시스템을 파괴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곳은 들어가기도 어렵겠지만 파괴하는 것도 쉽지 않을 겁니다. 오늘 파괴했다고 해도 내일이면 또다시 세울 거예요. 마치 오늘은 여러분의 생각을 제어했다고 해도 내일이면 또 새로운 생각이 떠오르는 것과 같습니다. 세세생생 아주 많은 것을 녹음해 놓은 테다가 날마다 여전히 수많은 새로운 자료들을 수집하는데 어느 세월에도 다 깨끗이 씻을 수 있겠어요? 그러니 그것은 씻을 필요가 없습니다. 날마다 지지직거리는 소리로 방해만 하면 됩니다. 관음법문은 바로 높은 진동력이기 때문에 우리 두뇌 속에 녹음된 업장의 진동력을 방해할 수가 있습니다.

내가 과학적인 방법으로 설명했으니 여러분은 비교적 쉽게 이해했을 겁니다. 만일 신비한 방법으로 설명했다면 모두들 무척 두려워했을 거예요. 그렇지 않나요? (대중 박수) 이제 여러분은 왜 관음법문을 수행해야 하며, 왜 이 소리를 사용하면 업장을 씻어 버릴 수 있는지 이해했을 겁니다. 우리 업장은 잡을 수 있는 것이 아니며, 또한 글로 쓸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는 그것이 어디에 있으며 언제 나올지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는 파괴하는 시스템을 써서 업장을 없애야만 합니다. 업장이 나오려고 할 때마다 그것을 파괴한다면 우리에게 곧 아무런 업장도 없게 될 것입니다. (대중 박수)

관음법문은 또한 일종의 파괴법문이라고도 말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전문적으로 업장을 파괴하고 생사 윤회하는 인과를 파괴하여 업장이나 인과가 존재하지 못하도록 하며, 우리가 다시 무엇을 녹음하지 못하도록 합니다. 예컨대 전생에 우리가 나쁜 일을 했다면 우리에게 녹음됐던 그 소리를 이생에서 다시 듣게 되어 우리의 마음은 괴로워지고 자신을 처벌하기 시작합니다. 우리는 그것을 신이 우리를 처벌하는 것이라고 말하지만 사실은 우리 자신이 괴로워하면서 자기 자신을 용서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이럴 때 우리가 이 소리를 방해하는 시스템을 사용한다면 뇌 속에 녹음된 소리를 듣지 못하게 되어 전생에 무슨 일을 했는지 모르게 됩니다.

신이나 불보살은 본래 우리가 무엇을 해도 상관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우리를 아끼고 사랑하기에도 부족하지요. 모두들 이 점을 이해해야 합니다. 우리 두뇌가 자신을 용서하지 못하는 것뿐입니다. 두뇌는 녹음을 해서 우리가 듣도록 합니다. 우리가 좋은 일을 했을

땐 “어제 이런 좋은 일을 했다.”라고 우리를 일깨워 주고 나쁜 일을 했을 때에도 어김없이 그대로 들려줍니다. 두뇌는 충성스러운 비서처럼 빠짐없이 다 써 놓았다가 내일이 되면 다시 우리에게 읽어 줍니다. 이해하겠습니까? 설령 우리가 아무리 바빠도 비서는 꼭 읽어 주려고 하지요. 사장인 사람들은 모두 알 거예요. 어떤 비서는 밑살스럽게도 “어제 사장님께서 저에게 오늘 읽어 달라고 하셨기 때문에 지금 꼭 읽어야만 합니다.”라고 말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두뇌도 자기를 제어할 수가 없습니다. 그것은 그냥 하나의 기계일 뿐이지요. 만일 우리가 두뇌를 제대로 사용할 수 있다면 그것은 아주 좋은 도구가 될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을 잘 사용하지 못하거나 좋지 않게 사용한다면 원자탄처럼 위험합니다. 원자력은 이 세상을 문명화하고, 많은 사람들을 도우며, 많은 병을 치료하는 등 아주 많은 좋은 일에 사용될 수 있습니다. 정말 많은 것들이 모두 원자력이 발견된 뒤에야 만들어졌습니다.

그러나 원자력은 아주 위험합니다. 여러분은 많은 나라들이 원자탄을 이용해서 전쟁을 하는 것을 알 겁니다. 듣자하니 요즘은 더 큰일이라고 하더군요. 전에는 방공호나 지하실에 숨기만 하면 원자탄을 피할 수 있었는데 이제는 그럴 수도 없다고 들었어요. 어디에 숨든 모두 안전하지 않답니다. 여러분은 신문을 봐서 알 거예요. 독일에서 어떤 원자탄을 발명했는데, 그것은 지하를 뚫고 들어가 여러분이 숨어 있는 곳을 찾아내서는 여러분의 콧등에 부딪혀야만 폭발한다고 합니다. (대중 웃으며 박수)

그러니 우리는 점점 더 안전하지 않습니다. 어디로 가서 숨어야

할지 모르겠어요. 달에 가는 것은 더욱 안 됩니다. 원자탄도 달까지 올라갈 수 있으니 둘이 함께 올라가서 그곳에서 폭발한다면 아마 달에 사는 사람들은 무서워서 이사를 가 버릴 겁니다. 그러니 그때가 되어 살 곳이 없다면 우린 어떻게 하지요?

내 생각으로는 오로지 한 가지 길, 관음법문만이 있을 뿐입니다. 이것은 최후의 오직 한 가지 길이지요. 우리 관음법문을 배우는 사람은 어떠한 것도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를 보호하는 불가사의한 힘이 있으니까요. 이 힘은 우리 자신에게 있는 것인데, 우리가 꺼내서 사용하지 않는다면 너무 애석한 일입니다. 왜 돈이 있는데도 꺼내서 사용하지 않고 날마다 얻으러 다닙니까? 왜 그렇게 하지요? 왜 보호의 힘을 꺼내서 쓸 생각은 안 하고 날마다 두려워하며 사방으로 다니면서 신령에게 절하고, 귀신에게 절하며, 토지신에게 절하려고만 합니까? 그렇게 할 필요가 있을까요?

우리 자신이 왕입니다. 왜 고상하고 우아한 왕이 되지 못하고 날마다 신하에게 도와 달라고 부탁하러 다니는 겁니까? 이건 정말로 너무 안타까운 일입니다. 자신을 너무 업신여겨서 자신의 등급을 낮은 곳으로 끌어내리고 자기를 더럽히는 행위이지요. 우리가 자신의 고귀한 지위를 깨닫지 못했기 때문에 이렇게 변해 버린 것입니다.

내가 가르치는 이 법문은 과학에도 꼭 들어맞을 뿐만 아니라 도가道家의 혈도穴道 이론에도 들어맞습니다. 여러분은 사람 몸에 아주 많은 혈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나요? 어떤 혈은 사람을 건강하게 할 수도 있고, 어떤 혈은 사람을 죽일 수도 있으며, 어떤 혈은 우리를 깨닫게 할 수도 있습니다. 이것은 도가에서 말한 겁니다.

과학적으로 설명한다면, 우리가 진동력을 사용해서 다른 진동력을 파괴하고 혼란시켜서 발전할 수 없도록 한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종교적으로 설명하자면, 우리가 불가사의한 높은 등급의 힘을 사용해서 우리의 더러운 업장을 씻어 버리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마치 약으로 병을 치료하는 것처럼, 신체에 병이 있을 때는 물질적인 약으로 치료를 하고, 정신에 병이 있을 때는 정신적인 약으로 치료를 하며, 영체에 병이 있을 때는 반드시 성령의 약을 사용해야만 하는 것과 같습니다. 이해하겠습니까? 조금도 신비한 일이 아닙니다.

과학이 진보한 오늘날 새삼스럽게 신비스러운 것들을 말해서는 안 됩니다. 무슨 일이든 과학을 사용해서 설명해야 똑똑하게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불교나 천주교 모두 과학적입니다. 다만 전에 대수행자들이 사용한 언어와 지금의 언어가 조금 다를 뿐입니다. 그때에는 과학이 없었기 때문에 예를 들어 설명할 수가 없었으며, 말을 해도 사람들이 이해하질 못했습니다. 그러나 오늘날에는 과학이 있으니 우리가 과학을 빌려서 설명할 수가 있는 겁니다. 이것은 시대의 요구에 맞추기 위해서입니다. 전에는 과학이 없었으니 마땅히 예를 들 수가 없었지요.

나는 여러분의 질문은 무엇이든 다 중요하다고 느낍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에게는 그것이 가장 중요한 것이니까요. 때로는 수행에 관한 질문이 아니더라도 그 질문에 내가 대답을 해주어야만 여러분은 비로소 마음을 내어 수행을 합니다. 그때 그 질문이 여러분에게는 가장 중요했기 때문이지요.

(어떤 사람이 스승님께 질문하다: 법을 전하는 일에 대해서 말씀해 주실 수 있는지요?) 여기에서는 설명할 수가 없습니다. 법을 전하는 것은 언어를 사용해서 말할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또한 귀를 사용해서 들을 수 있는 것도 아니지요. 그래서 설명할 방법이 없습니다. 고대의 사람들은 법을 전할 때 모두 언어를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나는 지금 법을 전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소개만 할 뿐이에요. 법을 전할 때는 말을 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일종의 무형의 열쇠라서, 법을 전할 때에 여러분은 얻을 수는 있지만 잡을 수는 없습니다. 이해하겠습니까?

시끌벅적한 이곳에서 어떻게 전할 수 있겠습니까? 비록 전했다고 해도 여러분은 모릅니다. 당연히 조용히 해야 하고, 또 내가 분명하게 말하고 난 뒤에야 여러분은 압니다. “아! 원래 당신은 법을 전하고 있었군요!” 그때서야 얻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시끌벅적한데 설령 법을 전했다고 해도 여러분은 내가 여기에서 무엇을 전했는지 모릅니다. 여러분은 모두 이해하지 못하지요. 사실 전했습니다. 전하지 않은 것이 아닙니다. 내가 말한 부분은 단지 삼십 퍼센트만을 차지할 뿐이고 그 나머지 칠십 퍼센트는 여러분이 얻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지금 너무 시끌벅적하기 때문에 자기가 얻었다는 것을 모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반드시 정식으로 법을 전해야만 여러분은 이렇게 말할 겁니다. “스승님께서 나에게 법을 전해 주셨다. 이제 나는 불광佛光을 보고, 불음佛音을 들으며, 자성自성과 본래면목을 듣는다.”

지금 강연을 듣고 있는 청중들 가운데 어떤 사람은 볼 수 있고 얻

을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법을 전하지 않은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등급이 높지 않아서 얻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내 잘못이 아니에요. 누구라도 와서 강연을 들으면 나는 다 똑같이 전해 줘야 하지만, 어떤 사람은 얻은 줄을 알고 어떤 사람은 얻지 못했다고 여기는 것이지요. 어떤 사람은 떠들썩한 곳에서도 얻을 수 있지만 거의 모든 사람들이 반드시 고요해진 다음에야 자신이 얻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런 떠들썩한 곳에서 강연을 들으면서 얻을 수 있는 사람은 아주 드뭅니다. 이해하겠어요?

여기에 그런 사람 있습니까? 손을 들어 보세요. 무엇을 얻었습니까? (어떤 사람이 손을 들) 뒤쪽에 한 명이 있군요. 그 사람은 감응이 있어서 무언가를 보았습니다. 이를테면 나의 몸에서 빛이 나는 것을 보았거나 무슨 다른 감응이 있었습니다. 이런 사람도 있지만 거의 모든 사람들이 반드시 고요한 가운데 내가 가르치는 것을 정확히 듣고 난 다음에야 얻을 수가 있지요. 그것이 바로 우리가 말하는 정식으로 심인心印을 전하는 것입니다. 사실 나는 여기에 와서 강연을 듣는 누구에게든지 심인을 전해 줍니다. 그렇지만 등급이 다르기 때문에 얻는 것도 다른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스승님이 나에게 아무것도 전해 주지 않았다.”라고 말합니다. 이런 상황은 마치 잠든 아이를 데리고 연회에 다녀온 것과 같습니다. 아이는 연회를 하는 동안 계속 잠만 자고 있다가 집에 데리고 왔는데도 여전히 잠만 잡니다. 아이가 잠이 깬 뒤에 “우리가 어디에 갔었는지 아니? 엄마 아빠가 춤추는 거 봤어? 아니면 무슨 음악 소리라도 들었니?”라고 물으면, “아니요! 엄마 아빠는 나를

아무데도 데리고 가지 않았잖아요!”라고 말하겠지요. 아이는 저녁 내내 잠만 자고 있었으니까요.

여러분은 『삼국지』를 본 적이 있습니까? 전쟁 중에 공신 한 명이 유비의 아들인 아두를 등에 업고 싸우면서 그를 보호했지요. 겨우 길을 헤치고 아두를 데리고 집에 돌아왔을 때 그 공신은 아주 심한 상처를 입고 있었지만 아두에게는 아무런 문제도 없습니다. 그는 아두를 껴안으면서 “아미타불!”이라고 했어요. 아닙니다. 그는 그때 아미타불을 부르지 않았습시다. (대중 웃음) 어쩌면 “하느님, 감사합니다.”라고 했을 거예요. 그 당시 아두 왕자가 조금도 상처를 입지 않았기 때문에 그 공신은 불보살이나 신께 아주 감사했을 겁니다. 그런데 그가 아두를 유비에게 데려다주자 유비가 곧바로 아두를 땅바닥에 내치는 바람에 모두들 깜짝 놀랐지요. 유비는 아두를 야단치면서 말했습니다. “너 때문에 나는 개국공신 한 사람을 잃을 뻔했다.”

유비는 아주 총명했습니다. 그가 그렇게 한 다음부터 사람들은 유비를 보호하기 위해서 기꺼이 자신들의 목숨까지도 바쳤습시다. 그는 아들보다 공신이 더 중요하다고 여겼던 거지요. 아두는 그때 전쟁이 났다는 것도 전혀 모르고 있었습시다. 그는 위험한 때에도 잠만 자고 있었으며, 황궁에 도착한 뒤에도 계속해서 잠만 잤지요. 역사책을 보면 알 수 있어요. 그는 평생을 잠만 자고, 어떠한 좋은 일도 하지 않았습시다.

마찬가지로 여기에서도 어떤 사람은 등급이 아주 높고 민감해서 나의 축복을 얻을 수 있고 깨달을 수 있지만 어떤 사람은 그렇지 못합니다. 그런 사람들이 “스승님! 저에게 법을 전해 주세요, 예?”라고

하면 나는 다시 전해 줍니다. 아마도 어떤 사람은 그렇게 해도 여전히 아무것도 얻질 못하고 불평하기 시작할 거예요. 나도 모든 사람들을 다 기쁘게 해줄 수는 없습시다.

이 법문은 말로 전하는 것이 아닙니다. 나 역시 말로 하면 좋겠지만 이것은 ‘있지 않은 법’이며 무형의 것이어서 말할 것이 아무것도 없지요. 내가 법을 전할 때는 묵묵히 전합니다. 말로 전할 수가 없습시다. 이것은 내면의 것이기 때문에 ‘심인을 전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 뜻을 이해하겠어요? 큰스승들은 모두 법을 전할 때 언어를 사용하지 않습시다. 그들이 그저 여러분을 한번 보기만 해도 여러분은 바로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은 선종의 십우도十牛圖를 본 적이 있습니까? 거기서 이미 해탈한 사람이 “나는 일부러 신통을 써서 사람들의 목숨을 연장하지는 않는다. 그러나 내가 길가의 말라죽은 나무를 한번 보기만 하면 그 나무는 즉시 살아나게 된다. 나는 백정이나 도둑과도 친구가 될 수 있다. 어느 누구라도 내가 한번 보기만 하면 그들은 즉시 깨닫게 된다.”라고 말하는데, 이것이 바로 그런 뜻입니다. 만일 여러분이 아직도 나에게 언어를 사용해서 법을 전하라고 한다면 너무 유치하겠지요. (대중 박수)

Q: 무엇을 염불삼매念佛三昧라고 합니까?

A: 우리가 삼매에 들 때까지 진정으로 염념하면 바로 염불삼매입니다. 삼매는 사마디Samadhi라고 부르는데, 선정에 든다는 뜻입니다.

Q: 입문하는 사람은 무슨 조건이 필요합니까?

A: 책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아무런 조건이 없습니다. 다만 흠치지 않고, 술 마시지 않으며, 거짓말하지 않고, 간음하지 않으며, 살생하지 않으면 됩니다. 살생에는 두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자기가 죽이거나, 또는 죽이는 것을 보고 같이 기뻐하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이 죽인 것을 가지고 와서 먹는 것도 죽이는 것을 보고 같이 기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너무 기뻐하기 때문에 동물들이 고통스러워하는 모습을 생각하지 못하는 것이지요. 이것도 오로지 여러분의 잘못이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내가 일부러 여러분을 비평하려는 것이 아니에요. 나는 사회의 속박에서 벗어나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 압니다. 때로는 지위가 높기 때문에 오히려 더욱더 속박당하기도 하지요. 사람들이 우릴 초대할 때마다 “나는 비건 채식을 합니다.”라고 말해도 그들은 대수롭지 않게 웃어 넘길 겁니다. 거기다가 고기 한 조각을 예쁘게 썰어 놓고 갖가지 향신료를 넣어 맛있게 만든 다음 우리를 속일 거예요. 만일 그들이 썩은 고기 조각이나 아직도 피가 흐르는 고기를 우리에게 먹으라고 준다면 우리가 먹을 수 있겠습니까? 당연히 먹지 못하겠지요. 세상 사람들은 모두 우리가 잘못을 저지르도록 속이고 있습니다.

쇠고기를 좋아하는 사람은 어떻게 쇠고기를 요리해야 맛있는지 알고 있습니까? (대중: 모릅니다.) 좋아요. 내가 여러분에게 말해 주겠어요. 먼저 며칠이나 몇 주일 동안 썩혀야 합니다. 그것이 시퍼렇게 되거나 녹색·검은색으로 변했을 때가 가장 맛있고 가장 비싼 때이지요. (대중 웃음) 고기를 파는 사람들은 모두 압니다. 믿지 못하겠다면

그들에게 가서 물어보세요. “가장 비싼 쇠고기는 이미 썩고 색깔도 변한 그런 것인가요?” 하고요. 왜냐하면 그때 고기가 가장 연하고 맛있기 때문입니다.

만일 아직 썰지도 않은 썩은 고기를 여러분에게 준다면 여러분은 절대로 먹지 못할 것입니다. 그렇지만 이런 쇠고기나 돼지고기를 보기 좋게 요리해 놓는다면 여러분은 겁내지 않겠지요. 마치 상인들이 닭이나 오리 위에 향료를 바르고 다 구워지면 다시 볶고 빛나는 것을 발라 밖에 걸어 놓고 파는 것처럼 말입니다. 그러면 닭이나 오리가 고통스러워 보이기는커녕 행복에 겨워 아주 크게 웃고 있는 것 같아 보기에도 그다지 역겹지가 않습니다. (대중 웃음) 돼지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둥이를 억지로 벌려서 마치 아주 기뻐서 웃고 있는 것처럼 만들어 놓고는 거기다가 예쁜 꽃들을 사용해서 아름답게 장식을 합니다. 제사를 지내거나 신에게 제물을 바칠 때가 돼지는 가장 아름답습니다. 아주 기뻐하는 돼지처럼 보이지요.



6 장

우란분절의 유래

6장

우란분절의 유래

1987. 9. 6. 포모사 타이베이 신디엔

여러분은 자신을 불교인이라고 말하면서 어떻게 우란분절에 관한 이야기를 모를 수가 있지요? 어떤 사람은 나를 외도外道라고 말하던데, 결과적으로 불교에 대해서 여러분 불교인보다 내가 더 많이 알고 있네요. 정말 이상한 외도입니다. 만일 여러분 가운데 누군가 우란분절의 이야기를 듣고 싶지 않은 사람이 있다면 다른 이야기를 해주겠어요. 예를 들어 히말라야 산에 대한 이야기 같은 거요. 여러분은 어떤 이야기를 듣고 싶은가요? (대중: 히말라야 산입니다.) 불교인이면서 우란분절에 대해서 듣고 싶어하지 않고 도리어 히말라야 산에 대해서 듣고 싶어하다니, 여러분은 나보다도 더 외도입니다! (대중 웃음) 어떤 종교라도 나에게는 모두 같습니다. 깨닫고 난 뒤에는 어떤 종교든 본래 모두 같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렇지만 여러분은 불교이니 불교의 사정에 대해서 좀더 많이 알고 있어야 사람들이 질문을 했을 때 설명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한 가지 종교만 제

대로 이해해도 충분히 사람들을 제도할 수 있습니다. 꼭 그렇게 많이 알고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지요. 한 권이나 두 권 정도의 경전만 이해하고 있어도 됩니다. 도덕만 갖추고 있다면 그것으로도 충분하지요. 그러나 무엇보다도 관음법문을 수행할 수만 있다면 그게 가장 좋은 일입니다.

석가모니불이 살아 있을 때 목건련이라고 하는 큰 제자가 있었습니다. 그는 신통이 뛰어나 육신통六神通을 부릴 수 있었지요. 육신통이 무엇일까요? 첫 번째는 천안통天眼通인데, 아주 먼 곳까지 볼 수 있으며 천당이나 지옥도 볼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천이통天耳通으로, 여러분이 무슨 말을 하든 모두 이해하고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게다가 천당·지옥의 상황에 대해서도 들을 수 있기 때문에 천이통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리고 숙명통宿命通이 있는데, 그것은 과거의 삶이나 과거의 생활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것 말고도 그에게는 신족통神足通·타심통他心通·누진통漏盡通 등이 있었습니다.

하루는 목건련이 천안통으로 지옥을 보다가 돌아가신 자기 어머니가 아귀餓鬼로 변한 것을 보았습니다. 아귀는 무엇인가요? 산스크리트어로 프레타pretta라고 하는데, 경전에 보면 아귀의 배는 아주 큰데 목은 바늘같이 가늘어서 무엇을 먹으려고 해도 만족스럽게 먹을 수가 없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아귀는 날마다 배가 몹시 고프고 고통스럽습니다. 어쩌다 누군가 공양을 한다고 해도 먹을 수가 없지요. 왜냐하면 아귀가 물을 보면 바로 피로 변해 버리고 밥을 보면 곧 불로 변해 버리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먹을 수가 없으니 몹시 배고프고 고통스러운 것입니다.

왜 사람이 아귀로 변하는 것일까요? 그것은 생전에 그들이 보지도 하지 않고 아주 인색하고 탐욕스럽게 지내며 사람들을 좋지 않게 대하고, 부모에게는 불효하며 봉양하지 않고, 자녀에게는 완고하여 먹을 것도 충분히 주지 않고 교육을 받지 못하게 하거나 필요한 것을 주지 않는 따위의 일을 했기 때문입니다. 너무나 인색해서 거지나 도움이 필요한 사람이 왔을 때도 도와주기는커녕 쫓아내면서 때리거나 욕을 하는 그런 사람이 바로 아귀로 변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내가 듣고 하는 말이지 여러분을 겁주려고 지어낸 말이 아닙니다. 그러나 여러분은 보시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보시는 개인적인 문제이고 개인의 권리라서 아무도 여러분에게 강요하지 않습니다. 보시를 하고 싶으면 하는 것이고, 하기 싫으면 안 하면 됩니다. 돈은 여러분 자신의 것이니까요.

목건련은 어머니가 아귀 가운데 하나가 된 것을 보고 마음이 아팠습니다. 그는 어떻게 해야 자기 어머니를 위로할 수 있는지 몰랐지요. 그는 신통을 써서 지옥으로 날아가 자기 어머니에게 고통진미를 차려 드렸습니다. 그의 어머니는 아들이 차려 준 음식을 먹으려고 했지만 먹을 수가 없었습니다. 밥이 곧바로 불로 변해 버려서 삼키자마자 너무나 고통스러웠으니까요. 본래 먹지 않았을 때도 고통스러웠는데 먹을 때마저도 이처럼 고통스러우니 어떻게 하겠습니까? 목건련은 너무 슬퍼서 부처에게 돌아가서 말했지만 부처도 방법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부처에게 아주 큰 힘이 있다고 알고 있지요. 그렇지 않나요? 많은 사람들을 구할 수 있으며 해탈시킬 수도 있다고 했는데 지금은 어째서 방법이 없는 것일까요? 여러분은

왜 그런지 알고 있습니까? 그에게는 물론 방법이 있습니다. 하지만 석가모니 한 사람에게만 의지해서 구할 수는 없습니다. 조금 있다가 다시 여러분에게 알려주겠습니다.

목건련은 부처의 큰 제자이며 신통도 대단하여 천당으로 날아가고 싶으면 날아가고 지옥으로 내려가고 싶으면 내려갈 수 있는 등 그 힘이 아주 컸습니다. 그의 스승인 부처도 아주 큰 힘이 있었지만 목건련의 어머니를 구할 방법은 없었습니다. 왜 그럴까요? 왜냐하면 목건련의 어머니가 생전에 지은 업장이 너무 무거웠으며, 또한 그녀가 삼보를 비방하고 목건련의 스승을 비방했기 때문입니다.

삼보를 비방한다는 것은 바로 스승과 스승의 가르침, 그리고 그의 승단을 믿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 밖에도 그녀는 아주 인색해서 공양도 하지 않으면서 비방을 하고 또한 사람들을 좋지 않게 대했습니다. 그녀는 지옥에 떨어진 뒤에도 여전히 마음을 고치지 않아서 그런 탐욕스런 마음이 또 튀어나왔지요. 목건련이 신통을 써서 지옥으로 밥을 가져다주었을 때 그녀는 다른 아귀들이 와서 먹을까 봐 손으로 밥을 가렸습니다.

그녀가 지옥에서도 여전히 회개하지 않고 삼보를 존경하지 않으며 탐욕스런 마음을 끊지 못했기 때문에 목건련이 힘을 써서 그녀를 도우려고 해도 소용이 없었던 겁니다. 무슨 뜻인지 알겠지요? 단 한 사람의 힘으로는 충분하지가 않습니다. 게다가 외부의 상황을 바꿀 것이 아니라 내면을 바꿔야 합니다.

목건련이 밥을 가져와 그녀에게 주었지만 먹지 못했을 때 그녀는 비로소 후회하기 시작했습니다. 어쩌면 목건련이 그녀에게 말

했을지도 모르지요. “여기에서 기다리세요. 제가 돌아가서 부처님께 도와 달라고 간청하겠습니다. 오직 부처님께 도와 달라고 해야만 어머니를 구할 수 있습니다.” 아마도 그때서야 그녀도 마음을 돌이켜 부처를 존경하기 시작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녀는 정말로 너무나 고통스러웠으니까요. 아들이 밥을 가져다주었는데도 먹지 못하자 한순간 부처를 존경하고, 한순간 내면의 부처에게 도와 달라고 마음을 냈던 것이지요. 그때서야 부처도 개입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목건련이 돌아가서 부처에게 도와 달라고 간청했을 때 부처는 “기다려라. 내가 방법을 생각해 보겠다.”라고 말했던 것입니다. 만일 그의 어머니가 참회하지 않고 부처에게 간청하지 않았다면 부처도 도와줄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항상 여러분에게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신이 스스로를 돕는 것입니다. 나는 아무것도 도와준 것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이 청하지 않으면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거든요. 여러분이 법을 존중하지 않으면 나도 법을 전할 수 없습니다. 만일 여러분이 나를 믿지 않는다면 나는 여러분을 도와줄 방법이 없습니다. 무슨 뜻인지 이해하겠습니까?

마찬가지로 수행도 스스로 닦고 스스로 제도하는 것입니다. 비록 스스로 닦고 스스로 제도한다고 말하지만 반드시 깨달은 스승이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수행을 하려고 해도 무엇을 닦아야 하는지 모르기 때문에 반드시 깨달은 스승이 우리에게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가르쳐 주어야 하지요. 그리고 또 우리 스스로도 원해야 합니다. 우리가 어떤 경지에 있든지 간에 스스로 구원되기를 원하지 않는다면

우리를 구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래서 내가 항상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힘든 일이 있거나 무슨 문제가 있을 때 스승에게 도와 달라고 해야 도와줄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스승은 개입할 수가 없습니다. 스승은 다만 그 자리에 서서 지켜볼 수밖에 없습니다.”

예컨대 여러분이 교통사고를 당했을 때 스승에게 도움을 청하지 않는다면 나는 도와줄 수가 없습니다. 내 마음대로 다른 사람의 일에 개입할 수 없으니까요. 할 수 없는 것이 아니에요. 다만 이 우주에는 그 나름의 법이 존재하는 것입니다. 무슨 뜻인지 이해하겠어요? 이 밖에도 불보살은 자유자재하여 중생이 스스로 원해서 자발적으로 하도록 합니다. 그가 주동하는 것도 아니고 중생에게 강요하는 것도 아닙니다. 더군다나 어떤 암시를 주는 것도 아닙니다. 사람들에게 수행을 하라고 강요하지도 않으며, 도덕적인 일을 하라고 강요하지도 않습니다. 중생은 마땅히 자신의 공부를 해야 하기 때문에 불보살은 그의 시간이 될 때까지 기다려야 하며, 그때서야 그들을 도울 수 있는 것입니다.

어떤 중생이든 모두 불보살입니다. 그래서 내가 늘 여러분에게 “그들이 입문을 했든 안 했든 상관하지 말고, 돌아가면 부모님께 잘하고 남편과 아내에게 잘하세요.”라고 가르치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들 모두 미래의 불보살들이니까요. 우리도 입문하기 전에는 그들과 같았습니다. 뭐 다른 게 있었나요? 그렇다고 입문을 하기 전에 우리가 나쁜 사람이었다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다만 아직 시간이 되지 않았던 것뿐이지요.

그래서 여러분 가운데 누군가 돌아가서 남편에게 잘하지 못하면 나는 너무 싫습니다. 나는 그런 사람을 야단칠 거예요. 왜냐하면 그렇게 하는 것은 무명無明이지 깨달은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깨달은 뒤에는 집에 돌아가서 남편이나 아내에게 더욱 잘해야 하고, 부모님께도 더 잘해야 합니다. 모두 나의 가르침을 오해해서 그런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만일 나의 가르침을 제대로 알아들었다면 집에 돌아가서 남편이나 아내에게 더 잘할 겁니다. 그들은 미래의 불보살인데 우리와 다를 것이 뭐가 있겠습니까? 입문하기만 하면 같아지는 것ですよ. 이해하겠습니까? 그 사람에게는 그의 보물 창고가 있습니다. 다만 아직 열지 않았을 뿐이지요. 그의 돈은 은행에 있는데 아직 꺼내서 쓰지 않았을 뿐, 사실 그와 우리는 같습니다. 우리 역시 아직 깨닫지 못했을 때나 깨달은 스승을 만나기 전에는 그들과 같았으며, 그때 결코 나쁜 사람이었던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어째서 우리는 다른 사람이 채식을 하지 않겠다고 하는데도 굳이 그들에게 채식을 강요하는 겁니까?

채식한다고 해서 성불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소·코끼리·말은 평생 채식을 하지만 여전히 성불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 사람들에게 강요하지 마십시오. 그가 육식을 하겠다고 하거나 술을 마시겠다고 하면 그렇게 하도록 두세요. 그렇지만 반드시 그에게 말은 해야 합니다. “나는 이것이 좋지 않다는 것을 알고 있어요. 내가 이렇게 말하는 것은 당신의 신체와 영혼에 관심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독약입니다. 그렇지만 당신이 원한다면 나는 당신 의견을 존중하겠어요. 당신이 하고 싶은 대로 하십시오. 수행하고 싶다면 수행

하고, 수행하지 않겠다고 해도 괜찮습니다.” 우리는 자기 의견을 다른 사람이 받아들일도록 강요해서는 안 됩니다. 알겠습니까? 다른 사람이 우리에게 억지로 고기를 먹이려고 한다면 우리도 싫겠지요? 그런데 왜 우리는 다른 사람에게 채식하라고 강요하는 겁니까? 이것도 똑같은 강요입니다. 좋고 나쁜 것을 막론하고 다른 사람에게 강요하는 것은 좋지 않습니다.

다른 사람에게 강요하면 갈등이 생겨나고 가정의 화목이 깨져서 우리 수행 또한 순탄하지 않습니다. 나중에는 가족들 사이가 갈수록 멀어져서 결국 그들은 “당신은 수행하면 할수록 나쁘게 변하는군요. 나는 당신을 믿을 수 없어요.”라고 말할 겁니다. 본래 여러분은 가족을 제도하려고 했지만 오히려 그들을 해치게 되어 버린 거지요. 이것은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강요만 할 뿐, 아직은 열려 있는 마음이 없으며 자유자재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만일 우리가 자유자재하다면 사람들이 무엇을 원하든 모두 우리와는 무관하겠지요. 우리는 당연히 부드러운 방법으로 사람들과 얘기를 나눠야 합니다. 그들이 우리 의견을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그것은 그들의 권리입니다. 누구든 자기 스스로 수행을 할지 안 할지를 선택할 권리가 있습니다. 불교를 믿든 천주교를 믿든 그것은 그들의 권리입니다. 우리는 그들의 권리를 침해해서는 안 됩니다. 이해하겠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사람들의 자유로운 권리에 개입하게 되는 것이며 그래서 안 되지요. 우리는 그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불보살도 마찬가지입니다. 만일 우리가 그들에게 기도하지 않는다면 그들도 우리를 도와줄 수가 없습니다. 스승에게 기도하지 않는

다면 스승도 도와줄 수가 없습니다. 알겠어요? 나에게 입문시켜 달라고 요구하지 않으면 나는 강요할 수도 없고, 또 뭐라고 말할 수도 없습니다. 여러분이 원해야만 할 수 있는 것이며 나와는 상관이 없습니다. 세상에는 수많은 사람이 있는데 내가 어떻게 그렇게 많은 사람을 모두 단속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 식으로 해서 언제 사람들을 다 제도할 수 있겠어요? 만일 중생을 다 제도할 수 있었다면 부처가 진작 다 했을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가 벌써 다 제도했겠지요. 이 말법 시대까지 기다려서 중생을 제도하려 올 필요가 없었을 것입니다.

말법시대의 중생은 제도하기가 아주 어렵습니다. 석가모니불이 있을 때는 황금시대였습니다. 정법시대에도 사람들을 모두 다 제도할 수 없었는데 말법시대에 우리가 어떻게 제도하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약 이천 년 전에 왔을 때도 중생을 모두 제도할 수 없었는데 우리가 어떻게 제도하겠습니까?

그러니 내버려두십시오. 만일 누군가 우리와 함께 수행하겠다고 하면 우리는 그를 환영할 것입니다. 반대로 우리와 수행하지 않겠다고 해도 여전히 친하게 지내며 그를 자유롭게 할 겁니다. 개구리는 개구리이고 지렁이는 지렁이입니다. 지렁이를 개구리로 바꾸려고 해서 안 됩니다. 그러면 아플 거예요. 지렁이를 아주 길게 잡아당겨서 뱀으로 바꾸려고 해도 지렁이는 곧 죽어 버릴 겁니다. 무슨 뜻인지 이해합니까? 이 우주 속 만물에게는 모두 그 나름의 권리가 있으니 마땅히 그를 자유롭게 해야지 우리가 강요할 수는 없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목건련이 수행을 그렇게 잘했는데도 왜 그의 어머니가 여전히 지옥에 떨어지게 되었을까요? 그것은 두 사람의 두뇌

가 다르고 등급이 달랐기 때문입니다. 한 사람은 부처를 향해 해탈하기를 원했고, 한 사람은 해탈하기를 원하지 않았지요. 세상의 물질에 집착해서 떠나지 못했던 겁니다. 목건련의 어머니가 그 길을 선택했다면 불보살은 그녀가 그 길을 가도록 놔두어야 합니다. 목건련은 해탈의 길을 선택했기 때문에 불보살이 그를 데리고 올라간 것입니다.

이제 다시 목건련의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그가 돌아와서 부처에게 알렸을 때 부처가 말했습니다. “그대 어머니는 제도하기가 아주 어렵다. 왜냐하면 그대 어머니는 업장이 너무 무거운 데다 잠재 의식마저도 아직 돌이키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그녀는 본래 부처를 믿지 않았고 부처를 비방했기 때문에 지금은 그녀를 제도할 방법이 없다.” 예컨대 빛이 여기에 있는데 빛을 등지고 있다면 당연히 빛을 보지 못할 겁니다. 만일 돌아서기만 한다면 곧바로 빛을 볼 수 있겠지요.

여러분은 석가모니불의 제자 가운데 사람을 아흔아홉 명이나 죽인 제자가 있었다는 것을 알고 있을 겁니다. 비록 그 제자가 아흔아홉 명을 살인하긴 했지만 그래도 석가모니불은 그를 제도해서 아라한이 되게 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왜 목건련의 어머니의 업장이 살인을 한 그 제자보다도 더 무거운 것일까요? 여러분, 알겠습니까, 모르겠습니까? (대중: 모르겠습니다.) 내가 조금 전에 말했습니다. 이것은 의식과 관련이 있고 우리 마음과 관련이 있어서 ‘마음’을 돌이킬 때라야 모든 업장이 사라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내가 “입문을 하면 5대 조상이 천도됩니다. 그들은 모두

우리와 관계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해탈하면 그들도 자연스럽게 천도됩니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 밖에 세세생생 쌓인 여러분의 업장 또한 없어집니다. 왜일까요? 그것은 여러분의 의식을 한 찰나에 바꿀 수만 있다면 어떤 것이든 다 씻어 버릴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마치 녹음테이프처럼 며칠 동안 아무리 많은 것을 녹음했다고 해도 우리가 원하지 않을 때 단추만 누르면 바로 지워지는 것과 같습니다.

석가모니불은 왜 목건련의 어머니를 구할 수 없었을까요? 그것은 그녀의 업장이 너무 무거웠고, 그녀 스스로 마음을 바꾸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렇지만 지옥에서 아주 고통스러웠을 때 그녀는 마음이 조금 돌아섰지요. 어찌면 그 순간에 그녀는 부처에게 도움을 청했을 테고, 그때서야 부처는 “좋다! 내가 다시 너를 도울 기회를 찾아보겠다.”라고 말했던 것입니다.

석가모니불은 목건련에게 어떻게 하라고 가르쳤을까요?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대 한 사람의 힘으로는 부족하다. 반드시 시방의 승중(僧衆)이 함께 모여서 하안거(夏安居)를 마치는 것을 기다렸다가 칠월 보름날 그들에게 공양을 하며 도움을 구해야만 한다.”

승중이 무엇인가요? 바로 수행자를 가리킵니다. 경전에서 석가모니불은 “승중은 바로 불보살·아라한·비구·비구니 등이다.”라고 말했습니다. 불보살은 비구·비구니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라 재가자에게도 있습니다. 여러분은 나와 함께 수행하니 바로 보살입니다. 여러분에게는 보살과 같은 체험이 있기 때문이지요. 그렇지 않나요? 또 여러분은 아라한의 체험도 있으니 보살이기도 하며 아라한이기도 합니다.

지금 나는 여러분에게 불보살이 무엇인지 말하고자 합니다. 불보살은 바로 그들의 내면이 바뀐 것이지 외면을 가리키는 것이 아닙니다. 알겠습니까? 그러나 우리는 그들이 석가모니불이나 관세음보살과 같은 옷을 입고 있으면 곧바로 그가 보살이라는 것을 알아챈다. 왜냐하면 우리는 그런 모습에 너무 익숙해 있기 때문이지요. 그렇지만 그들이 청바지나 체육복을 입고 있다면 대보살 같아 보이지는 않을 겁니다. 그렇지요? 사실 무엇을 입든 그들은 보살입니다. 보살의 겉모습은 보통 사람과 같아 보이지요. 다른 것은 내면이 바뀌고, 잠재의식이 바뀌고, 영혼이 바뀌고, 등급이 바뀌고, 지혜가 이미 열렸다는 것입니다.

당시 부처는 목건련에게 일러주었습니다. “그대는 반드시 그런 불보살과 승중에게 공양을 해야 한다. 그들은 보통의 범부가 아니라 비교적 특별해서 그들이 하안거 결제를 마치고 난 뒤에는 아주 큰 공덕이 있다.”

그럼 하안거 결제를 한다는 것은 또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여름에 3개월 동안 모두 함께 모여서 명상을 하는 것입니다. 그들의 스승이나 큰 지도자에게 깊고 오묘한 가르침을 좀더 많이 배우고 서로 경험을 나누는 겁니다. ‘배운다’는 것은 경전을 보는 것만을 가리키는 것이 아닙니다. 배운다는 것은 내면에서 배운다는 것을 말하며, 명상을 할 때 체험이 있고 경지가 있다는 것을 말합니다. 이해하겠습니까? 그들은 그렇게 배워서 마음에 얻은 것들을 서로서로 나누며, 그들의 스승에게 “이 뜻이 무엇입니까? 제가 이렇게 수행한 것이 진보한 것인가요, 아니면 퇴보한 것인가요? 저는 이런 경지를

봤는데 무슨 등급을 대표하는 겁니까?”라는 질문들을 합니다. 이것이 바로 ‘배운다’는 것입니다.

이 밖에도 참회하는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3개월 동안 지극한 마음으로 참회를 하고 수행 정진해서 신구의를 청정하게 해야 합니다. 정말 급한 일을 빼고는 가능한 한 밖에 나가지 않도록 해서 지나치게 혼란한 것을 피해야 하지요. 어찌다 나가더라도 빨리 돌아와야 하고요. 밖에 나가서 커피나 우유를 마시거나 노래방에 가는 일 따위를 해선 안 됩니다. 선칠禪七과 같지요. 선칠이나 불칠佛七을 할 때는 모두 함께 모여서 수행에 전념하고, 온 마음을 기울여서 불법승佛法僧 삼보를 생각하며, 다른 혼란스러운 세속의 일을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것이 바로 안거입니다.

하안거 결제를 한다는 것은 여름에 한곳에 머물며 안정을 하고 함부로 나다니지 않으며, 강연을 하러 가지도 않고, 탁발을 하러 가지도 않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인도는 여름에 비가 아주 많이 내리기 때문입니다. 포모사도 마찬가지로 여름에는 비가 많이 내리고 태풍도 자주 불니다. 그래서 석가모니불은 제자들이 여름에 탁발하러 다니는 것이 너무 고생스러워 보여서 대중이 함께 모여 다른 사람의 공양을 받는 것이 낫다고 생각했지요. 게다가 여름에는 벌레들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오랫동안 걷다 보면 그들을 해칠 수도 있으니 제자들에게 하안거 결제를 하도록 규정한 것입니다.

터군다나 대중이 함께 모여서 3개월 동안 수행을 하고 나면 내면의 힘이 많이 쌓여서 그것을 아껴 뒀다 일년 내내 중생을 제도하러 다니는 데 쓸 수가 있습니다. 마치 여러분이 평소에 일을 많이 해 두

었다면 휴가 때 돈을 쓰러 갈 수 있는 것과 같습니다. 그렇지요? 그때는 일을 하지 않아도 돈이 있어서 쓸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3개월을 결제하여 안거하는 것은 바로 힘을 아끼고 공덕을 아껴서 나중에 쓰기 위한 것입니다. 우리도 하안거를 하고 어느 정도의 시간이 지나 오늘은 아껴 두었던 수행 공덕을 다소나마 쓸 수 있기에 여러분을 이곳에 오라고 한 것입니다.

어떤 선물은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있습니다. 예컨대 내가 여러분에게 책 한 권을 주었다면 여러분은 확실히 볼 수 있을 거예요. 여러분에게 한 송이 꽃을 주었다고 해도 여러분은 만질 수 있고 향기도 맡을 수 있겠지요. 그렇지만 여러분에게 공덕을 준다면 여러분은 보지 못할 겁니다. 그렇지 않나요? 어찌다 느낄 수는 있을 거예요. 이를테면 누구는 와서 나를 보고 난 뒤 돌아가서 병이 낫기도 합니다. 이것은 오로지 여러분에게만 말하는 것이니 밖에 나가서 너무 많이 광고하지 마십시오. 내가 말하고자 하는 것은, 우리가 비록 공덕을 볼 수는 없지만 그것이 우리의 신체와 정신에 영향을 준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불보살을 보자마자 바로 깨닫습니다. 어떤 사람은 큰스승을 한번 보기만 해도 바로 깨닫지요. 그것은 바로 큰스승들에게 보이지 않는 공덕이 있고 무형의 힘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해하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완전히 물질적인 것에만 의지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 눈에 보이는 것만이 존재하는 것이고 보이지 않는 것은 존재하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과학자들은 우주에 무형의 세계가 있다는 것을 증명했으며 이제는 우리도 모두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미

신이 아닙니다. 굳이 무형의 마귀를 말하지 않더라도 세균을 예로 들 수가 있습니다. 우리 눈에는 그것이 보이지 않지만 현미경을 사용하면 보입니다. 무슨 뜻인지 이해하겠어요? 따라서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그것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은 아닙니다.

솔직하게 말하자면 볼 수 있는 것이 오히려 가장 거칠고 가장 쓸모가 없는 것입니다. 미세한 것일수록 더욱더 보이지 않고 더욱더 큰 힘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돌이 무겁고 단단한 것을 알 겁니다. 그렇지만 물이 날마다 조금씩 서서히 깎아내기만 하면 언젠가 돌은 없어집니다. 그렇지 않나요?

‘바람’도 눈으로는 볼 수 없지만, 그것은 나무와 돌같이 크고 단단한 것들을 남김없이 날려 버릴 수가 있습니다. 포포사에는 태풍이 자주 오기 때문에 모두들 이 바람의 힘을 잘 알고 있을 겁니다. 바람이 형상이 있습니까? 만질 수가 있나요? 주머니에 바람을 넣을 수가 있습니까? 은행에 넣어 두었다가 내년에 다시 꺼내 쓸 수가 있나요? 그럴 수 없지요! 그렇지만 바람은 아주 많은 일을 할 줄 압니다. 만일 우리가 조심하지 않는다면 이런 별장도 바람에 날아가 버릴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무형의 것은 유형의 것보다 더 대단하고 힘도 더 셉니다.

마찬가지로 수행의 공덕도 불가사의해서 예로부터 지금까지 우리는 모두 수행자를 아주 존경해 왔습니다. 우리가 그들의 수행 공덕과 내면의 힘이 어떤지를 알고 있었기 때문이지요. 옛날에 한 왕이 있었는데, 그는 본래 몹시 흉악했지만 불교를 만난 뒤로는 정말 좋은 사람으로 변했습니다. 그는 불교를 아주 존중했는데, 이는 유

익함이 있었기 때문이었지요. 이렇게 불교는 다만 경전만을 보는 것이 아닙니다. 물론 그도 누군가가 법을 전해 주어 명상도 하게 되었고, 자기 등급도 알게 되었으며, 높은 정지에 가서 불보살도 만나게 되었을 겁니다. 그리고는 너무나 감격해서 밖에 나가 스님을 만날 때마다 마차에서 내려 절을 했습니다.

그와 가장 가까운 공신은 왕의 그런 행동을 보고 견디기 힘들어 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왕에게 말했습니다. “성왕이시여, 당신은 나라에서 가장 높은 지위에 계십니다. 그들은 하나같이 당신의 백성이며 탁발하러 다니는 거지에 지나지 않습니다. (대중 웃음) 그런데 어째서 항상 그들에게 절을 하시는 겁니까? 저로서는 보기가 너무 민망합니다!” 그러자 왕은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궁으로 돌아왔습니다. 궁으로 돌아온 왕은 대신들에게 말했습니다. “그대들은 나를 도와 동물의 머리와 사람의 머리를 팔아 오도록 하시오.” 그들은 대답했습니다. “예, 문제없습니다.” 왕은 대신들에게 한 사람도 빠짐없이 그 일을 하도록 시켰습니다. 한 사람은 돼지머리를, 한 사람은 소머리를, 한 사람은 닭 머리를, 다른 한 사람은 토끼 머리 따위를 팔도록 시켰습니다. 그리고 스님에게 절하는 것을 못마땅하게 여겼던 그 대신에게는 죄인의 머리를 팔아 오게 했습니다.

그런데 동물의 머리카나 물고기 머리 따위는 남김없이 다 팔렸지만 사람의 머리는 팔 수가 없어서 다시 가지고 돌아와 왕에게 올렸습니다. 그러자 왕은 그에게 물었습니다. “그대는 어째서 사람의 머리를 팔지 못했는가?” 그는 대답했습니다. “사람의 머리는 조금도 쓸모가 없어서 아무도 원하지 않습니다. 소머리나 돼지머리는 그래

도 먹을 수 있고 심지어 보기 좋게 장식도 할 수 있습니다. 돼지털로는 빗도 만들 수 있고, 돼지머리는 사람이 먹을 수도 있으며, 닭 머리도 탕을 끓일 수 있지요. (대중 웃음) 그래서 그런 동물들의 머리는 다 팔렸지만 사람의 머리는 쓸모가 없습니다. 조금도 쓸모가 없습니다.” 왕이 그에게 물었습니다. “어느 누구의 머리라도 다 쓸모가 없다는 건가? 아니면 이 머리만이 쓸모가 없다는 건가?” 그는 대답했습니다. “어느 누구의 머리라도 다 쓸모없고 가치가 없습니다.” 그러자 왕이 말했지요. “그렇다면 내 머리도 역시 그러한가?” 그 대신은 감히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대중 웃음) 왕이 계속해서 묻자 그는 할 수 없이 그렇다고 대답했습니다. “예, 폐하의 머리도 역시 가치가 없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러자 왕이 말했습니다. “그대는 이제 알았을 것이요. 내가 이 가치도 없는 물건으로 공덕이 있는 사람에게 절을 하는 것이 어째서 좋지 않다는 거요? 이 머리는 본래 가치가 없는 것인데 그대는 여전히 그것을 보호해서 무엇을 하겠다는 거요? 그대는 그 출가자들의 걸모습만을 보았을 뿐이요. 그들이 가난하고 돈이 없어서 신발도 신지 못하고, 또 몸도 그다지 좋지 않으며, 탁발하러 다니는 것 등 그들의 외면만을 보았을 뿐이요. 그대는 그들이 무량한 공덕이 있다는 것을 모르며 그들의 위력, 그들의 힘을 모르고 있소. 그래서 나를 곤혹스럽게 해서 그들에게 절하지 못하게 한 것이요. 이제부터는 그렇게 하지 마시오.” 그때서야 대신은 약간의 도리를 배우게 되었습니다.

수행의 힘은 물질적인 것으로 헤아릴 수 있는 것이 아니며 외면을 보고 알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여러분은 광친 노스님이 아주 유

명하다는 것을 알고 있을 겁니다. 그런데 그는 작고 말랐으며 걸음도 아주 빨라서 이른바 위엄이 있어 보이지는 않았습니다. 그렇지 않았나요? 사람들은 부처는 마땅히 키가 크고 몸집도 크며 살집도 좋아 걷는 것도 왕처럼 걸어야 한다고 여깁니다. 하지만 그는 그렇지 않았어요. 내가 광친 노스님을 보았는데 걸음걸이가 아주 귀여워서 어린아이 같았지요. 수행자는 어린아이처럼 변해야 합니다. 아주 사랑스럽고 조금의 교만도 없으며, 무엇을 하든 다 자연스럽게 천진무구하며, 일부러 꾸미는 것이 없어야 하지요. 그래서 우리는 사람의 걸모양을 보아서 안 되고 그 사람의 수행을 보아야 합니다. 알겠습니까?

석가모니불은 목건련에게 내면으로 수행하는 사람에게 가서 도움을 청하도록 시켰습니다. 오곡백과五穀百果 같은 먹을 것이나 옷·일상용품, 또는 작은 그물 침대를 사서 공양하라고 했지요. 전에 인도 사람은 밖에 나갈 때 모두 그런 작은 그물 침대를 가지고 다녔어요. 저녁이 되면 그것을 나무에 걸어 놓고 잠을 잤지요. 스님들은 다 그렇게 했습니다. 게다가 아직 그렇게 하기도 하고요. 그들에게 그런 것들을 공양해서 넉넉하게 사용하도록 한 다음 그들이 힘을 모아 도와주길 간청해야만 목건련의 어머니를 구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목건련의 어머니 오직 한 사람을 구하기 위해서 왜 그렇게나 많은 사람들의 힘을 사용해야만 했던 걸까요? 왜 5대 조상이 모두 천도되지 않았을까요? 사실은 5대 조상 모두 천도되었습시다만 오직 그의 어머니 한 사람만 천도되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녀의 업장이 너무 무겁고, 그녀 스스로가 의식을 바꾸지 않았기 때문이지요. 이

해하겠습니까?

5대 조상이 천도된다는 것은 한 사람도 남김없이 모두 천도된다는 것이 아닙니다. 5대 조상 가운데 백분의 팔십은 천도되지만 한두 사람은 목건련의 어머니와 같은 상황이 될 수도 있습니다. 만일 석가모니불이 나처럼 “5대 조상이 천도된다.”라고 말하지 않았다면, 목건련은 왜 자기의 아버지나 삼촌, 사촌형제·할머니·할아버지는 지옥에서 찾을 수가 없었을까요? 왜 그들은 찾지 못하고 그의 어머니만 찾았을까요? 이것은 무엇을 나타내지요? 오로지 그의 어머니만 남아 있었다는 것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녀는 업장이 너무 무거웠으며, 또한 너무 완고해서 의식을 바꾸려고 하지 않았기 때문에 지옥에 남아 있었던 겁니다. 그 밖의 5대 조상은 모두 천도되었지요.

여러분은 석가모니불이 5대 조상이 천도된다는 말을 하지 않았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그는 5대만을 말한 것이 아니라 9대까지도 말했습니다. “한 사람이 도를 얻으면 구족九族이 승천한다.” 그래서 나와 석가모니불의 가르침이 같다는 것을 여러분은 알 수 있습니다. 만일 5대가 천도되지 않았다면 목건련은 당연히 그의 할아버지·할머니·삼촌·고모 등을 찾았어야만 했습니다. 이해하겠어요? 왜 그들은 찾지 못하고 오로지 어머니만을 찾았을까요? 그것은 그녀의 업장이 그만큼 무거웠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반드시 전체 승중이 함께 모여서 하안거의 힘을 남김없이 모두 그녀에게 주어야만 그녀 한 사람을 구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게다가 그녀의 마음도 돌아섰기 때문에 그녀를 구할 수가 있었지요. 만일 그녀의 마음이 아직 돌아서지 않았다면 구할 방법이 없었을 것입니다. 설령 부처라고 해도 그

녀를 구할 방법이 없습니다. 전체 승중이 모두 그녀에게 힘을 준다고 해도 소용이 없지요. 사람의 마음의 힘은 아주 강하니까요. 그래서 “일체유심조一切唯心造”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만일 우리가 자기의 마음을 돌이킨다면 온 세상이 다 바뀔 겁니다. 하지만 마음을 바꾸지 않는다면 무슨 일을 하든, 이를테면 바깥의 사회 상황을 바꾼다거나 보시를 한다고 해도 소용이 없습니다. 그래서 마음이 아주 중요합니다. 마음의 힘은 아주 강해서 천당도 만들 수 있고 지옥도 무너뜨릴 수 있습니다. 모든 게 다 이 마음 때문인 것입니다.

이 마음이란 것은 결코 심장을 가리키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사상, 우리의 잠재의식, 우리의 생각, 우리의 신심, 우리 내면의 바람, 우리 내면의 사상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생각하면 그대로 다 이루어집니다. 하지만 모든 사람들의 생각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이 힘을 사용하지 않기 때문에 생각하는 바를 이루어 낼 수 없는 것입니다. 만일 우리가 수행을 많이 해서 이러한 내면의 힘을 열게 된다면 무엇이든 바로 생각하는 대로 이루어질 것입니다.

수행이 높은 사람은 물질적인 것을 생각하는 걸 아주 두려워하며, 반드시 조심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가 무엇을 생각하든 다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 돌을 생각하면 곧바로 돌이 튀어나오지요. 나는 많은 예를 들어 증명할 수 있지만 내면의 체험을 누설하고 싶지 않으니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에게 말하건대, 나는 무엇을 생각하면 바로 그것

이 생기게 되고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여러분은 돈을 버느라고 아주 힘들겠지만, 만일 내가 돈을 생각하게 된다면 곧바로 돈이 생깁니다. 그렇지만 나는 함부로 그런 생각을 하지 않아요. 어떤 것이든 반드시 값어야만 하니까요. 이 세계에서는 공짜인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탐내는 마음을 가져서도 안 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수행해서 아직 어느 정도의 수준에 이르지도 못했는데 돈을 탐합니다. 돈을 훔칠 사람은 여기에서 훔치면 됩니다. (스승님이 이마를 가리키심) 은쟁까지 훔치러 갈 필요가 없어요. 도둑질하는 사람은 남의 돈을 빼앗으려고 살인을 하기도 하는데 참으로 가엾습니다. 사실 도둑질은 일을 아주 복잡하게 만들지요. 어디를 가든 경찰을 피해 다녀야 하고, 사람을 해치거나 살인을 하기도 하고, 그러다 감옥에 갇힐 수도 있습니다.

사실 무엇이든 훔치고자 한다면 그것은 아주 간단합니다. 하지만 반드시 수행을 해야 하지요. 수행자는 여기(이마)에서 훔칠 수 있습니다. 스위스에 가서 로렉스 손목시계를 훔칠 수도 있고, 미국에 가서 달러를, 프랑스에 가서 보석과 향수를 훔칠 수도 있습니다. 폭력을 사용할 필요도 없고, 어디로 달려갈 필요도 없지요. 그래서 수행자는 중생이 아주 고생스럽게 돈을 버는 것을 보고 웃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그들은 아예 돈을 벌 필요가 없지요. 이를테면 여러분이 수행해서 이미 아주 높은 경지에 올랐다면, 명상을 할 때 여러분의 영체靈體 또는 진체眞體는 아주 높은 경지에 가게 됩니다. 그때 여러분이 '내일 나는 다른 사람에게 값을 이백만 원이 꼭 필요하다.'라고 생각한다면 돌아왔을 때 여러분 침대 위에는 이백만 원이 놓

여 있게 됩니다. 이것은 거짓이 아니에요. 그렇지만 수행해서 반드시 아주 높은 경지에 올라야만 그렇게 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생각지도 않게 일어나는 일이지 일부러 만드는 것이 아닙니다. 수행이 높은 사람은 일부러 그런 생각을 하지 않아요. 이해합니까? 그들은 감히 생각하지도, 생각하려 들지도 않습니다. 돈에 전혀 관심을 두지 않지요.

그날 내가 우체국에 가서 돈을 맡길 때 있었던 일을 생각하면 정말 웃깁니다. 나는 우체국 직원에게 구십만 대만 달러를 저축하겠다고 했는데 나중에 세어 보니 더 많았지요. 그들은 대단히 흥분해서 말했어요. “어떻게 잘 세어 보지도 않고 가져오실 수 있습니까? 도대체 돈을 얼마나 가지고 계신 겁니까?” 나는 말했지요. “괜찮아요. 남은 것은 저에게 돌려주면 되잖아요!” 그래도 그들은 계속 물었어요. 그들은 틀림없이 마음속으로 이렇게 생각했을 겁니다. ‘어쩐 이렇게 바보 같은 사람이 있지? 돈을 모두 다른 사람에게 주면서 정확히 세어 보지도 않다니.’ 우체국에 있던 모든 직원들이 놀랍다는 눈으로 우리 두 사람을 보았어요. 나는 말했지요. “괜찮아요. 당신이 똑바로 세어 보면 되잖아요. 나머지는 저에게 돌려주세요. 저는 세어 보질 않았어요. 여기에 있는 기계로 세면 더 빠를 겁니다.” 그들은 여전히 들뜬 상태로 대여섯 명이 모여 나를 쳐다보면서 다음에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가르쳐 주었어요.

그들은 “다음에는 이러지 마세요. 반드시 정확히 세어 본 다음 가져오세요. 그렇지 않으면 다른 사람이 당신 돈을 가져갈 수도 있어요.”라고 말했습니다. 나는 “그래도 나는 무섭지 않아요. 이 돈도

내 돈은 아닙니다. 괜찮아요.”라고 대답했지요. 그들은 내가 그렇게 많은 돈을 얼마인지 세어 보지도 않고 가지고 왔다는 것에 모두 놀라워했습니다.

그 돈은 모두 여러분이 준 것입니다. 땅을 사거나 책을 인쇄하려고 준 것이지요. 나는 돈을 모두 자루 속에 넣어 두었어요. 누가 시간이 남아서 그런 종이를 쟀단 말입니까? 한 번 세는 것도 귀찮은데 나중에 돈을 더 넣으면 또다시 세어 봐야 하니 너무 성가십니다. 그래서 모두 자루 속에 넣어 두었지요. 우체국에 그런 편리한 기계가 있으니까요. 그래서 내가 말했어요. “금액에 맞게 세고 난 나머지는 저에게 돌려주세요. 봉투 속에 넣어서 저에게 주시면 됩니다. 상관없어요!” 그들은 여전히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었지요. 그들은 아마도 마음속으로 이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어쩐 이렇게 바보 같은 스님이 있지? 정말 말할 수 없이 어리석군.’ (대중 웃음)

돈은 그저 종이의 한 가지일 뿐입니다. 별 소용이 없어요. 게다가 냄새도 나고 더럽기까지 합니다. 모두 여러분을 위해서 내가 땅을 사고 아쉬람을 사는 것이지, 여러분이 없다면 내가 그것들을 사서 뭐하겠습니까? 아쉬람이 생기면 마당도 쓸어야 하고 풀도 베어야 하지요. 게다가 풀을 잘못 베기라도 하면 사람들을 야단쳐야 하니 많은 시간과 힘까지 낭비하게 됩니다. 여러분은 모두 나의 업장이에요. 여러분이 없다면 나는 포모사에서 살 필요도 없고 그다지 성가신 일도 없을 겁니다. 게다가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나를 비방하지도 않을 것이고,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기분 나빠하지도 않을 것이며, 나를 공격하거나 해하는 일도 없을 겁니다. 사실 나는 아무 일도

하지 않았습니다. 모두가 여러분 보살들 때문에 이렇게 된 거지요.

우체국에 가서 야단을 맞은 것도 여러분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이 나를 대신해서 돈을 세지 않았으니까요. 모두들 자루 속에 돈을 넣고는 얼마라고 써 두지도 않고 나더러 세라고 합니다. 돈을 셀 시간이 없어서 그냥 우체국에 들고 갔다가 사람들의 웃음거리가 되었던 겁니다. 여러분이 없다면 돈도 필요 없고 셀 필요도 없겠지요. 우체국에 돈을 저축할 필요도 없고 무슨 일을 할 필요도 없을 테니 사람들도 칭하이가 누구인지 모를 겁니다. 그러면 아주 흥가분하겠지요.

이삼 년 전만 해도 나는 제자가 없었습니다. 그때는 아주 가뭄해서 얼굴도 통통하게 살이 찼지요. 비록 하루에 한 끼만 먹었지만 오히려 아주 통통하고 혈색도 좋았습니다. 믿지 못하겠다면 전에 내가 살던 곳에 가서 물어보면 알 수 있습니다. 옛날에 찍은 내 사진을 보면 아주 통통합니다. 지금은 전혀 그렇지 않지요.

본래 목건련에 대한 이야기를 하려고 했는데 우체국으로 달려가고 말았군요. (대중 웃음) 원래 여러분은 히말라야 산에 대해서 듣고 싶어했는데 내가 여러분을 데리고 우체국에 가서 돈을 세다니 미안합니다. 좋아요. 이제 멈추겠습니다.

이제는 돈이 넉넉해서 땅을 살 수 있을 것 같으니 앞으로는 공양하지 마십시오. 내놓은 땅들이 많아서 어디를 사야 할지 모르겠더군요. 전에는 아무도 우리에게 땅을 팔려고 하지 않더니, 이제 우리에게 돈이 생기자 모두들 팔려고 합니다. 그런데 어디를 사야 할지 모르겠어요. 땅은 많지만 땅값이 모두 비싸더군요. 우리는 가장 싼 땅

을 찾아서 사려고 합니다. 꼭 돈이 많아야 땅을 살 수 있는 것은 아니에요. 많은 돈을 들이지 않고도 살 수 있습니다. 아주 적은 돈으로도 좋은 땅을 살 수가 있지요. 비싼 물건이라고 다 좋은 것이 아닌데 사람들은 그것을 잘 모릅니다. 이것은 유명하다고 해서 꼭 깨달은 스승이 아닌 것과도 같습니다. 그렇지 않나요? 나도 이제 유명해졌으니 깨달은 스승이 아니겠군요. (대중 웃음)

목건련에 관한 이야기는 다 했습니다. 그가 승중에 공양한 뒤에 석가모니불이 그들에게 함께 모여 주문을 외워서 목건련의 어머니에게 회향하도록 했으며, 그의 어머니는 그날 바로 천당에 갔습니다. 목건련의 어머니만 천당에 간 것이 아니라 그날 지옥도 텅 비었습니다. 그렇지만 조금 지나자 지옥은 다시 손님으로 꽉 찼지요. 왜냐하면 중생은 눈 깜짝할 사이에 업장을 지으니깐요. 그러니 날마다 세상에 나가 돈을 버는 사람만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처럼 보이지 않는 돈을 버는 사람도 중요하지요. 여러분이 버는 돈은 종이이고, 우리 수행자가 버는 것은 아주 큰 공덕입니다.

그런 보이지 않는 돈과 보이지 않는 공덕을 사용하여 무형의 비행기 표를 사서 히말라야 산에 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수행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히말라야 산에 갈 수 없는 것입니다. 물론 여러분이 세상의 비행기에 탑승한다면 갈 수도 있겠지만 거기에 가서 무얼 하겠습니까? 그저 눈이나 산을 보고, 태양을 보고, 소나무·잣나무만을 볼 수 있을 뿐, 그 밖에 다른 것은 볼 수가 없습니다.

히말라야 산의 구석구석엔 대수행자들이 숨어 살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벌써 이승지겹의 나이가 되도록 살고 있지요. 우리는 그

의 나이를 헤아릴 수도 없습니다. 이삼천 년뿐만이 아니라 그들은 우리 지구가 생성되면서부터 지금까지 계속 살아왔어요. 그들은 그곳에서 아직도 많은 신비한 가르침을 간직하고 있습니다. 관음법문을 예로 들 수가 있는데, 그들의 임무는 바로 이 법맥이 끊어지지 않도록 하는 데 있습니다.

바깥세상 사람들이 수행을 하지 않거나 마땅한 제자가 없어서 그 법맥이 끊어져 버리면 앞으로 다시는 관음법문을 전할 사람이 없기 때문에 대수행자들이 그곳에 머무는 것입니다. 그렇게 남아 있다가 제자가 없을 때는 몸소 찾아 나서기도 합니다. 알겠어요? 뛰어난 제자가 모두 죽어 버리고 법맥이 다 끊어져 버리거나, 수행자가 법난法難을 당하고 해를 입으며, 천재지변이 수행자를 죽인다거나 나라 전체가 파멸되는 등의 갖가지 상황이 발생할 때도, 여전히 그런 대수행자들은 세세생생 남아서 수행하여 해탈하는 이 법맥을 보호하고, 그것을 전해 받을 가치가 있는 사람에게 전해 줍니다.

우리가 히말라야 산에 가고자 한다면 마땅히 공덕을 써서 가지 돈을 써서 갈 수는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수행을 좀더 많이 하고 난 뒤에 어쩌면 큰스승이 여러분을 히말라야 산으로 오라고 부를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은 그런 신비한 수행 단체에 가서 그들과 함께 배울 수도 있을 거예요. 이것은 정말로 드문 일이지요. 그들은 범부를 좋아하지 않아서 범부는 그곳에 가도 소용이 없습니다. 범부들을 가르칠 방법이 없으니까요. 범부는 머리가 너무 굳어 있고 분위기도 좋지 않아서 그들에게 번거로움만을 가져다줄 뿐이지요. 그들의 임무는 인류 전체를 돌보는 것이지 한두 사람만을 신경쓰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가고 싶다고 해서 갈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설령 우리가 그곳에 간다고 해도 그들을 볼 수는 없습니다. 그들은 우리가 보자마자 바로 알아볼 수 있도록 잘생기고 아름다운 사람으로 변신해서 나타나지는 않습니다. 알겠어요? 그들은 형체를 숨길 수 있어서 그들이 모습을 보이고 싶어하지 않으면 우리는 볼 수가 없습니다. 설사 그가 우리에게 보여 주려 한다 해도 우리는 그곳에 갈 수가 없어요. 그런 곳은 대략 해발 25,000피트 이상 되는 아주 신비하고 깊고 높은 곳이니깐요. 그곳은 공기가 희박해서 산소도 아주 부족하고, 눈도 많이 오고 너무 추워서 영체를 사용하는 게 아니라면 범부는 올라갈 방법이 없습니다. 만일 이 육신을 사용해서 올라간다면 죽고 말 테고, 아무런 소용도 없습니다.

그들은 그곳에 살면서 무엇을 먹을까요? 창조의 힘을 먹습니다. 그들은 음식을 먹을 필요가 없으며 옷을 입을 필요도 없습니다. 그들은 스스로 옷을 변화시켜 입을 수 있어요. 그들은 관음법문을 수행하고 관음의 힘, 내면의 소리의 힘, 우주의 힘을 운용해서 자기 신체를 성장시킵니다.

그래서 그들은 비록 수천만 년을 살아왔지만 보기에는 여전히 어린 살이나 스물다섯 살처럼 아주 젊어 보입니다. 나는 여러분도 언젠가는 그들을 보러 그곳에 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것이야말로 히말라야 산에서 가장 볼 만한 가치가 있는 것이니깐요. 그것 말고 다른 것들은 별로 재미가 없습니다. 물론 그곳은 아주 예쁘고 아름답지요. 어쩌면 나중에 보러 갈 수도 있을 거예요. 그렇지만 육신을

사용한다면 오직 외면의 것들만 볼 수 있을 뿐입니다.

카슈미르는 정말 아름다워요. 인도에서 가장 아름다운 곳이지요. 왜 그럴까요? 그곳은 잘 가꾼 데다가 호수도 있어서 사람들이 모두 배에서 살기 때문입니다. 내가 그곳에 갔을 때도 여관에서 자지 않고 배에서 잤습니다. 거의 모든 여관이 배입니다. 이를테면 한 가정에서 서너 척의 큰 배를 가지고 있는데, 아주 아름다우며 높고 커서 집과 같습니다. 배마다 방이 네다섯 칸 정도 있는데, 그 방을 한두 칸 빌려서 여관에서 머무는 것처럼 지낼 수 있지요. 그렇게 지내는 것이 여관에서 머무는 것보다 더 재미있습니다. 호수 중앙에서 지내는데, 위에는 구름이 있고 아래에는 물이 있으며, 한쪽에는 눈이 있고 한쪽에는 나무와 산이 있어서 정말 아름답습니다.

그곳에는 고대의 왕이 남긴 아주 유명한 화원도 있습니다. 그들은 꽃을 아주 좋아해서 단장을 참 잘해 놓았어요. 화원은 무척 큼니다. 나는 여태껏 그토록 아름다운 화원을 보지 못했어요. 기이한 꽃이나 풀도 있고, 호수와 산도 있으며, 수천 년 동안 자라 온 큰 나무도 있습니다. 이제까지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화초도 있고요. 분위기도 편안하고 공기도 정말 좋지요. 하늘은 날마다 푸르고요. 새파란 하늘과 새하얀 구름, 질푸른 소나무와 새하얀 눈, 정말 너무나 아름다워서 말로 다 설명할 수가 없습니다.

안타깝게도 그때 나는 성지를 순례하는 아주 가난한 수행자였기 때문에 사진기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사진기가 없는 것이 더 낫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사진기는 어디 한구석만을 포착할 수 있을 뿐이니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정말 그때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림을 그리려고 해도 그려 낼 수가 없었고, 사진기가 있다고 해도 아무 소용이 없었지요. 왜냐하면 주위 풍경이 때마다 다르게 변했으니까요. 날마다 다르고 장소마다 다른데 한 구석만 찍어서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다만 죽어 버린 풍경이 되어 버릴 뿐인데요. 나는 사진기를 사용하지 말고 자기가 직접 가서 보고 모든 것을 머릿속에 기록하는 것이 가장 좋다고 생각합니다.

히말라야 산은 아주 아름답습니다. 그곳은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곳이며 가장 영감이 넘치는 곳이지요. 세세생생 언제나 누군가 그곳에서 수행을 했고, 지금도 여전히 수천 살, 수백 살이 된 사람들이 그곳에 살고 있습니다. 그들은 보통 사람이 아닙니다. 그들은 천인天人이며 불보살이지요. 그들은 특별한 일 때문에 남아 있는 것입니다. 그들은 할 일이 있기 때문에 반드시 육신을 보존해야 합니다. 그렇지만 우리 보통 사람은 남아 있을 필요가 없습니다. 시간이 다 되면 빨리빨리 가는 것이 좋지요. 오래 남아 있을수록 고통스럽기만 합니다. 그렇지 않나요? 만일 누군가 남아 있고 싶다면 그렇게 할 수 있어요. 내가 방법을 찾아서 여러분이 남아 있도록 하겠습니다. 치아가 다 빠져 버릴 때까지요. 그러기를 원합니까?

지난주에 내가 히말라야 산에 불로장생할 수 있는 물이 있다고 말한 적이 있습니다. 마시고 나면 늙고 늙어 치아가 없어질 때까지 살 수 있어서 치과 의사를 찾아가도 소용이 없다고 했지요. (대중 웃음) 사실 우리는 그런 불로장생의 물을 찾으려고 해도 찾을 수가 없습니다. 듣기로는 옛날에 한 왕이 인도에 쳐들어와서 불로장생의 물이 있는 곳에 갔다고 합니다. 그 왕은 불로장생하는 물의 원천을 찾

아서 부하에게 그 물을 떠오게 했지요. 그런데 그가 불로장생의 물을 막 마시려고 하는 순간 어디선가 갑자기 너무나 높고 높아서 치아는 하나도 남아 있지 않고 추하게 생긴 데다가 몸은 바싹 말라붙은 어떤 노인이 다가와 부들부들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답니다. “폐하, 잠시 멈추십시오! 마시지 마십시오. 당신은 저를 보면 알 수 있을 겁니다. 저는 사백 년 전에 이 물을 마시고 난 뒤 이런 모습으로 변해 버렸습니다. 지금은 병이 나도 죽을 수 없고, 가고 싶어도 갈 수가 없습니다. 이런 것이 뭐가 좋겠습니까? 마시지 마십시오. 마시지 마세요!” 그러자 왕은 감히 마시지 못했습니다.

사실 그 늙은이는 물을 보호하기 위해서 수호신이 모습을 바꾼 겁니다. 그 물이 너무 많이 알려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요. 그렇지 않으면 누군가 그곳에 여관을 세우고 물을 팔 것이며, 나중에는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와서 풀밭을 함부로 밟고 다니며 그곳 분위기를 모두 망쳐 버릴 것입니다. 결국엔 물을 모조리 가져다가 미국·프랑스·영국 같은 나라에 수출도 하겠지요. 그러면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난 뒤에는 물이 모두 말라 버릴 것이니 반드시 수호신이 지켜야만 했지요. 그 노인이 바로 수호신이어서 왕이 물을 마시지 못하도록 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왕이 마신 다음에는 틀림없이 물을 떠다가 그의 군사들에게 마시게 할 테니까요. 그렇게 되면 그를 막을 방법이 없어서 마지막에는 온 세상이 모두 그의 것으로 변해 버릴 겁니다. 그래서 마시지 못하도록 한 것이지요. 혹시 다른 보통 사람이 왔더라도 역시 성사되지 않았을 겁니다. 그래서 수호신이 노인으로 변해서 왕을 막았던 것입니다.

만일 여러분이 그 불로장생의 물을 찾게 된다면 즉시 마셔야 합니다.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요. 함께 찾으러 가지 않겠어요? 언젠가 우리 함께 찾으러 갑시다. 좋습니까? 누가 불로장생하기를 원하는지 손을 들어 보세요. (누군가 손을 들) 당신이 원하나요? 정말 바보 같은 사람이네요. (대중 웃음) 세상이 고통스럽기가 이루 말할 수 없는 데 당신은 아직도 불로장생하기를 원하는군요? 당신은 고통스럽지 않나요? 당신은 이 세상에서 사는 것이 아주 행복하군요. 그렇지요? 우리가 이 세상에서 천 년을 살려면 반드시 천 년을 일해야 합니다. 퇴직할 수가 없어요. 퇴직한 뒤에는 누가 당신에게 돈을 주겠어요? 그뻘 가고 싶어도 갈 수가 없습니다. 날마다 일하러 가서 돈을 벌어야지 퇴직할 수가 없어요. 기왕 불로장생하길 바라다면 일도 불로장생하도록 해야 합니다. 날마다 일해서 돈을 벌어야 하며 밥을 먹어야 신체를 돌봐야 하니 참으로 지겹습니다. 어느 날 이 세상을 떠나고 싶어도 갈 수가 없어요. 알겠습니까?

불로장생하고 싶다면 반드시 수행을 하십시오. 오랫동안 수행을 하고 나면 불로장생하는 큰스승이 될 수 있습니다. 히말라야 산에 사는 큰스승들처럼 아무것도 필요하지 않게 되지요. 이해하겠습니까? 그들이 그곳에 머무르는 것은 오로지 이 세계를 보호하고 중생을 구하기 위해서일 뿐입니다. 이런 장생이라야 좋은 것이며, 그래야 고통스럽지 않습니다.

왜 그들은 자신들의 시간을 낭비하면서까지 이 세계에서 우리를 보호하려는 것일까요? 왜 그들은 높은 경지에 살지 않고 오히려 이 무상한 세계에 내려와서 사는 것일까요? 이곳에 머무르며 우리를 구

해서 무엇하려고요? 누가 알고 있습니까? (어떤 사람: 불보살은 아주 자비로워서, 영원히 이 세계에 머물며 중생이 해탈할 수 있도록 돕겠다고 발원하였기 때문입니다.) 그것뿐인가요? 내가 말해 주겠어요. 그들이 그렇게 자비로워서가 아니라 그것이 바로 그들이 해야 하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만일 그들이 법을 전하지 않아 사람들에게 도덕이 없어서 버리고 이 세상의 영기(靈氣)를 정화하여 좀더 높이 고양시키지 않는다면 그들 역시 죽게 되며 존재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 기운이 그들을 압박할 거예요. 왜냐하면 진동이 다르니까요. 그들은 성인(聖人)이고 진동력이 아주 미세해서, 미세한 진동이 있어야 수행할 수 있고 존재할 수 있습니다. 왜 그들이 히말라야 산에 숨어 있으려고 하겠어요? 그것은 바로 그곳의 진동이 비교적 좋은 데다 오염된 기운이 덜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히말라야 산에 숨어 사는 것입니다.

만일 이 세상에 수행하는 사람이 없어서 도덕이 무너져 버린다면 그들도 히말라야 산에 숨어 있을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영향이 너무 클 때는 그 기운이 히말라야 산에까지도 전해질 테니까요. 아직은 그곳까지 그런 영향이 가지는 않았습니니다. 그래서 그들이 우리를 보호하는 것은 그들 자신의 존재를 보호하기 위해서이기도 합니다. 그렇지 않다면 그들은 높은 경지나 다른 세계로 가야 하며, 여기에 머물면서 우주를 돌볼 수 없게 됩니다. 그들에게는 그들의 일이 있지요. 그들은 이 우주를 보호하려고 합니다. 이를테면 이 세계의 사람들이 제5세계나 삼계 너머로 갈 수 있도록 보호하는 것이지요.

물론 그들도 높은 경지에 가서 일할 수 있습니다. 왔다 갔다 할 수가 있어서 어디든 괜찮지요. 그렇지만 그들로서는 여기에서 일하는 것이 비교적 좋습니다. 왜냐하면 여기는 가장 낮은 곳이라서 어떠한 진동이나 가피력도 모두 이곳으로 오게 되니까요. 그들은 이 가피력을 중생에게 나누어 줍니다. 그렇게 하는 것이 가장 좋지요. 마치 바다와 같습니다. 모든 강물이 바다로 흘러오고 또 바다는 몇 척의 배라도 아무 문제 없이 받아들이지만 작은 강은 단 한 척의 배만 있어도 좁다고 느껴지지요. 이처럼 불보살에게는 이 세상에서 일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보살은 사바세계에서 일하는 것을 가장 좋아한다고 경전에도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은 이 사바세계가 그렇게 나쁘다고 여기지 마세요. 이곳은 가장 아름답고 오묘한 곳입니다. 보세요. 사람마다 모두 다르잖아요. 수천 수백만의 사람들이 모두 다르지요. 똑같은 사람을 찾을 수 있다면 너무나 신기한 일이에요. 설령 찾았다고 해도 완전히 같지는 않습니다. 그들의 개성이 다르고 몸에 난 표시도 조금씩 달라서, 좀더 자세히 보기만 하면 바로 누가 동생이고 누가 언니인지 알 수 있습니다. (현장에 마침 쌍둥이인 어린 동수 둘이 있었음)

이 세상에는 수많은 동물·나무·꽃·열매·산·물·감정, 인류의 관계, 인류의 사랑, 인류의 총명함 같은 것들이 있습니다. 이 많고 많은 것들을 우리가 모두 보호해야 합니다. 날마다 자신의 신체만을 보호할 것이 아니라 이 세상 모든 것을 보호해야 합니다. 이 세상을 보호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우리가 사는 세상이 너무 어두워지지 않도록 열심히 노력해야 합니다. 이해하겠어요?

도덕이 너무 어지러운 것이 가장 큰 문제입니다. 만일 우리나라가 아무리 자원이 풍부하고 부유하다고 할지라도 도덕이 무너져서 날마다 누군가 우리 자원을 훔쳐갈까 봐 두려워한다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우리 가정이 아무리 부유하다고 할지라도 우리 자녀가 무지한 범부라서 날마다 우리에게 불효한다면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만일 우리가 가장 유명한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다른 모든 사람들이 수행의 기본 도덕을 갖추고 있지 않아서 날마다 우리를 질투할까 봐 두려워하고 암살하거나 독약을 먹일까 봐 두려워한다면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그래서 수행은 아주 중요합니다. 수행은 우리의 선량한 분위기로 외면의 독한 기운을 녹여 없애고, 외면의 상황을 바꿀 수가 있습니다. 예컨대 어떤 사람이 본래는 정말 화가 나 있었는데 우리를 보자마자 아주 선량하게 변해서 감히 화를 내지 못하게 되기도 하지요. 본래는 화를 내려고 왔지만 우리를 본 순간 화를 내는 것이 부끄러워져서 함께 식사를 하고 난 뒤에는 서로의 관계가 오히려 좋아지게 됩니다. 이해하겠어요? 폭력을 사용하지 않는 이런 것이야말로 이 세상을 보호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을 보호하는 것이 바로 우리 자신을 보호하는 것이지요. 우리가 아무리 부유하다고 해도 이 세상이 어지럽다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결국 어느 날엔가 다른 사람이 그 모든 것을 가져가 버릴 텐데요. 전쟁이 나면 우리 재산을 강제로 빼앗아갈 테고 우리 친지들을 죽일 겁니다. 그래서 도덕은 아주 중요하며 수행도 아주 중요합니다.

도덕은 외면의 도덕과 내면의 도덕, 이렇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외면의 도덕은 다른 사람에게 억지로 지키도록 할 수가 있습니다. 법을 이용하거나 위협을 해서 사람들에게 강제로 지키도록 할 수 있지요. 그렇지만 내면의 도덕은 가장 기본이고, 가장 중요하며, 가장 안정되고, 가장 필요한 것입니다. 내면의 도덕이 있으면 반드시 외면의 도덕이 있게 됩니다. 그렇지만 외면의 도덕만 있고 내면의 도덕이 없을 때는 언젠가는 기필코 폭발하게 되고 빠져나갈 곳을 찾게 됩니다. 우리가 수행을 하는 것은 내면의 도덕을 찾기 위해서입니다.

수행하는 사람, 명상하고 선량한 사람, 또는 관음법문을 수행하는 사람은 살인을 한다는 것이 불가능합니다. 영원히 불가능하지요. 그렇지 않나요? 그들에게 흠친다거나 다른 사람을 살해한다는 것은 영원히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도덕이 어찌고저찌고 하는 이야기는 할 필요도 없습니다. 관음법문을 수행하기만 하면 무엇이든 다 갖추게 됩니다. 도道가 있으면 덕德이 있는 것입니다. 도가 없다면 덕도 없겠지요. 그래서 『도덕경』에서 노자는 도만 있다면 무엇이든 다 있으며 도가 없기 때문에 인의예지신으로 변하게 되었다고 말했습니다. (『도덕경』 제18장: 大道廢, 有仁義, 『도덕경』 제38장: 故失道而後德, 失德而後仁, 失仁而後義, 失義而後禮.) 이런 것들은 모두 외면의 도덕입니다. 도를 잃어버렸기 때문에 사람들을 통제해야 했고, 사람들에게 어떻게 해야 한다고 가르칠 필요가 생겼으며, 인의예지신이 있어야 했고, 사람들을 교육해서 도덕적인 일을 하도록 강요해야 했습니다. 만일 누군가에게 도가 있다면 그는 스스로 모든 것을 할 것입니다. 무엇을 배울 필요가 없지요. 알겠습니까? 만일 모든 사람이 다 선량하다

면 법은 필요 없을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많은 사람들이 수행을 한다면 세상은 변할 것입니다. 그렇지 않다면 이 세상은 곧 파멸하게 되겠지요. 그래서 우리가 수행하는 것은 바로 우리 자신의 생명을 구하는 것입니다. 세상을 구하는 것이 바로 우리 자신을 구하는 것이니까요. 이 세상이 없다면 우리가 어떻게 존재하겠어요? 지구는 정말 아름답습니다. 나는 지구가 그렇게 빨리 파멸되는 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세상에는 아직도 좋은 사람들이 많이 있고 아름다운 곳도 많으며, 게다가 앞날에 대한 기대도 너무나 많습니다. 설령 세상의 분위기가 좋지 않다고 해도 우리는 고칠 수가 있습니다. 고치고 싶다면 나와 함께 수행하면 됩니다. 우리가 수행하는 것이 바로 이 세상이 파멸되지 않도록 고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너무나 안타까운 일이지요. 이런 지구 하나를 만드는 데 수천만점의 시간이 걸렸습니다. 그렇게 쉽게 풍부하고 비옥한 지구로 변한 것이 아닙니다.

미국이 얼마나 많은 돈을 들여서 우주선을 만들어 달에 갈 수 있었는지 여러분은 아십니까? 정말로 많고 많은 돈이 필요했습니다. 그런데 이 지구는 오히려 아무도 돌보지를 않습니다. 이 지구의 가치는 돈으로 따질 수가 없는데요. 불가사의한 힘을 사용해서 아승지겁의 세월이 지나야만 이토록 아름다운 지구 하나를 만들 수가 있습니다. 지구가 막 생겼을 땐 그냥 하나의 행성일 뿐이었지요. 그 행성은 너무 뜨거워서 아무 쓸모가 없었으며 아무도 살 수가 없었습니다. 바깥에는 열기가 있고 그 속에는 더 뜨거운 불이 있어서 동물도 없고 나무도 없으며 아무것도 없었지요. 마치 죽어 버린 별과 같아

서 조금도 쓸모가 없었습니다. 아승지겁이 지난 뒤에야 식기 시작해서 점점 물도 생겨나고, 산도 생겨났습니다. 나무와 풀도 자라나자 동물·물고기·사람도 생겨났지요. 이 지구는 아주 귀하고 보배롭습니다! 수많은 생명이 지구에 의지해서야 생활하고 존재할 수 있는데도 지구를 돌보지 않고 있으니, 참으로 안타까운 일입니다.

인류는 많은 돈을 들여서 달을 보러 가지만 오히려 이 지구를 돌보는 데는 별로 돈을 쓰지 않습니다. 그래서 안 됩니다. 사실 돈을 쓸 필요도 없습니다. 이것은 아주 좋은 점 가운데 하나이지요. 왜냐하면 돈을 들여서 돌봐야 한다면 모두들 겁을 낼 테니까요. 그렇지 않나요? (대중 웃음) 돈을 들일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가 관음법문을 수행하기만 하면 지구를 돌볼 수가 있습니다. 더 많은 사람이 관음법문을 수행할수록 기후가 점점 변할 것이고, 분위기도 더 선량하고 더 도덕적으로, 더 안정되게 변할 겁니다. 그렇게 되면 무슨 재난이 생기지도 않을 테고, 세상의 마지막 날도 없게 되겠지요.

그렇지 않다면 틀림없이 그날이 올 겁니다. 충분히 상상할 수 있는 일이에요. 이미 제2차 세계대전이 있었으니 제3차 세계대전도 쉽게 일어날 수 있을 겁니다. 강대국들은 현재 파괴적인 핵폭탄을 아주 많이 만들고 있습니다. 만일 어느 날 누군가 미치거나 아내에게 화가 나서 제멋대로 단추를 누르게 된다면 우리는 당장 끝장나고 말 거예요. 미국과 러시아가 전쟁을 할 필요도 없이 핵폭탄을 감시하는 책임을 진 사람이 화가 나는 것만으로도 충분하지요. 무슨 뜻인지 알겠어요? 어쩌면 어느 날 그가 미치거나 아내와 싸우고 화가 나서 중요한 단추 하나를 누른다면 수많은 것들이 곧바로 폭발해 버릴 것

입니다. 전쟁을 시작할 필요도 없이 한두 사람이나 한 단체가 미치기만 해도 충분한 것이지요. 우리는 모든 것을 잃어버리게 되며 이 지구도 끝나 버릴 것입니다.

이런 일은 우리가 제어할 방법이 없으며, 또한 그 책임자를 만나 좋은 말을 들려줄 수도 없습니다. 어쩌면 우리는 그 나라의 대통령에게는 이런 이야기를 해줄 수 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그런 일을 책임지고 있는 사람을 우리가 어떻게 찾아내서 말해 줄 수 있겠습니까? 평화를 유지하려면 단지 대통령에게만 의지해서는 안 되며 그의 부하들에게도 의지해야 합니다. 부하가 일을 그르칠 수도 있으니까요. 그래서 미국의 대통령이나 러시아의 대통령이 평화를 보장한다고 해도 그와 상관없이 우리는 여전히 위험하며 안전하지 않습니다.

게다가 전쟁은 많은 사람들의 합의하에 일어나는 것이지 대통령 한 사람이 결정 내릴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대통령이 전쟁을 좋아하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그와 다른 생각을 가진 장군이나 군인들이 대통령을 쫓아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조금도 안전하지가 않은 것입니다. 가장 안전한 방법은 우리가 수행을 해서 세상의 분위기를 바꾸고, 그런 원한의 기운을 녹여서 없애는 것입니다. 다른 방법들은 모두 소용이 없어요. 우리는 사람의 마음을 사들일 수 없으며, 또한 그들에게 어떻게 하라고 시킬 수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사람의 마음이란 왔다 갔다 바뀌는 것이니까요. 오늘은 여러분이 그에게 평화의 중요성을 알려주어서 그 이야기에 감동한 그가 “좋습니다. 우리는 핵폭탄을 만들지 않겠습니다.”라고 말할 수도 있겠지만,

내일은 그가 아내 때문에 화가 나서 어제의 일을 까맣게 잊고 다시 핵폭탄을 만들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주체적으로 자기 자신을 제어하지 못하고 외부의 영향을 많이 받으니까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은 남편이나 아내와 싸울 때 여러분의 상황이 어떻게 변하는지를 알 겁니다. 아이를 때리지는 않습니까? 아이는 잘못된 게 없어도 매를 맞을 거예요. 손님이 와도 친절하게 대하지 않고 심통이 난 얼굴을 드러내 보이면서 물건도 던지듯이 함부로 다룰 겁니다. 그렇지요? 정치를 하는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들도 평범한 사람이라서 자신들의 집안 분위기에 영향을 받습니다. 그들의 아이가 건강하지 아닌지도 그들에게 영향을 주지요.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 사람들의 마음에 의지하는 것은 안전하지가 않습니다.

이러테면 이상이 같지 않은 몇몇 국가들은 서로를 믿을 수가 없습니다. 그들은 이미 수십 년 동안 서로 만나 회담을 하고 수많은 위스키·콜라·커피를 함께 마셨으며, 많은 쇠고기·돼지고기를 함께 먹고 일류 호텔에서 함께 머무르며 국민의 세금을 썼지만 아직도 제대로 된 성과 하나를 내놓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사람 마음은 왔다 갔다 바뀌는 것이어서 서로 믿을 수가 없는 데다 외부의 영향을 쉽게 받기 때문이지요. 오로지 수행이 높은 사람이라야 외부의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누구라도 다 외부의 영향을 받습니다. 그가 어떤 사람이든 간에, 그가 대통령·왕·경찰, 심지어는 쓰레기를 청소하는 막일꾼이라고 해도 모두 외부의 영향을 받습니다. 그래서 가끔 사람들이 우리에게

좀 잘해 주면 곧바로 기분이 좋아져서 무엇이든 다 허락하지만, 사람들이 우리에게 좋지 않게 대하거나 사장이 우리를 야단칠 때 혹은 남편이나 아내와 싸우거나 할 때는 그렇지 않습니다. 그럴 때는 친구가 와도 말하고 싶지 않고, 손님이 물건을 사러 와도 팔고 싶은 생각이 없지요. 그때는 돈에 신경쓰고 싶지가 않고, 다른 많은 일에도 관여하고 싶지가 않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수행을 하지 않는다면 결코 안전할 수가 없습니다. 안전해지려면 반드시 수행을 해야만 합니다.

나와 출가자들도 여러분을 대신해서 수행을 합니다. 2, 3개월 동안 하안거를 하면서 우리는 아주 고생스럽게 수행을 했습니다. 그렇지만 여러분도 수행을 해야 해요. 수행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수행은 자신에게 좋으라고 하는 것이지 내게 보여 주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어떤 사람은 이곳에 와서야 수행을 하고 집에서는 스승이 없으니 수행을 하지 않습니다. 그렇지요? 내가 말한 내용에 대해서 무슨 질문이 있습니까? 없다면 식사할 준비를 합시다. 먼저 부처에게 공양하고 난 다음에 식사를 하도록 하세요.

부처에게 공양한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바로 크게 깨달은 스승, 세세생생의 깨달은 스승, 시방삼세의 큰스승들, 도덕이 있는 사람들에게 공양한다는 것입니다. 만일 그들이 없다면 우리는 근본적으로 아무런 가치가 없을 겁니다. 고작해야 백 년, 이 신체가 썩을 때까지 산 다음에는 조금의 가치도 없게 되지요.

이『즉각 깨닫는 열쇠(제1권)』라는 책은 어제 막 출판된 것입니다. 아주 기쁩니다! 여러분이 돌아가서 시간이 날 때마다 볼 수도 있고,

그러면 좀더 많은 것을 알게 되겠지요. 전에는 책이 없어서 매달 프린트를 조금씩 해서 나눠 주곤 했어요. 마치 영양분이 부족해서 잘 자라지 못하는 것 같았는데 지금은 책이 있으니 비교적 편리합니다. 이것은 제1권이지만 앞으로 제2, 제3, 제4, 제5, 제6……권의 책들이 나오길 바랍니다. 그렇게 된다면 여러분이 더욱 편리해지겠지요. 날마다 책을 봐도 가파력이 있고 지혜를 열 수 있으니 내 강연을 듣는 것과 거의 같을 겁니다.

오디오테이프도 많이 들으세요. 예컨대 잠이 오지 않거나 무슨 문제가 있을 때 내 오디오테이프를 틀어 놓고 들으면서 잠을 잔다면 나중에 잠에서 깨어났을 때 뭔가 다를 거예요. 또는 내 책을 읽다가 잠이 들어도 깨어났을 때 역시 다를 겁니다. 아니면 내 책을 머리 밑에 두고서 베개로 삼아도 되지요. (어떤 사람: 그래도 됩니까?) 됩니다. 갈수록 지혜가 열릴 거예요. (대중 웃음) (용신평에게 매를 맞지 않을까요?) 아닙니다. (그렇지만 불경에서는 경전을 베개로 삼아서는 안 된다고 했습니다.) 내가 괜찮다고 하면 괜찮은 것입니다. 나는 신식 스승이니깐요. (대중 웃음)

요즘 사람들은 시간이 없으니 책을 베개 삼아 잠을 잔다면 좀더 좋아지는 것을 느낄 수 있을 겁니다. 여러분이 책을 볼 때는 그냥 읽고 지나가기 때문에 기억을 못 하는데, 베개로 삼아 잠을 잔다면 갈수록 더 기억이 잘 될 거예요. 스승이 여러분을 가르치기도 할 테고요. 잠을 잘 때는 가르치기가 더 쉽지요. 그때는 머리가 그렇게 단단하지 않아서 (대중 웃음) 좀더 쉽고 빠르게 구멍을 내서 부수고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도 책은 꼭 봐야 합니다. 베개 삼기만 해서는 안

돼요. 그러면 소용이 없지요. 꼭 날마다 조금씩 봐야 합니다. 한 번에 너무 많이 볼 필요는 없어요. 좋아한다면 한 번에 다 봐도 괜찮습니다만 그래도 날마다 조금씩은 계속해서 꼭 봐야 합니다. 이 신체가 날마다 밥을 먹어야 하듯이 정신도 날마다 공양해야 하는 것이니까요. 내 오디오테이프를 들어도 됩니다. 그렇게 하면 여러분이 좀더 빨리 수행할 수 있도록 도와줄 거예요. 알겠어요? 여러분은 수행이 너무 느립니다.

만일 온종일 시간이 없는 데다 밤조차 시간이 없다면 잠을 잘 때 내 오디오테이프를 틀어서 나 혼자 말하도록 하고 여러분은 자면 됩니다. 그래도 도움이 되지요. 우리는 수행에 도움이 되는 것이라면 어떤 방법이라도 써야 합니다. 왜냐하면 요즘 사람들은 시간이 충분하지 않은 데다가 외부의 영향도 많이 받고 곳곳에 마장魔障도 많으니까요. 마장은 결코 마귀와 같은 그런 모습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분위기나 핵폭탄의 분위기, 방사능의 분위기와 같은 그런 것입니다. 그러한 분위기가 우리에게 대단히 많은 영향을 미치지요.

그리고 할 수만 있다면 일주일에 하루는 뱃속을 비우세요. 이것은 당연히 해야 할 일입니다. 할 수 없다면 두뇌를 하루 동안 비우도록 하세요. 이것이 바로 불교에서 말하는 ‘팔관재계(八關齋戒)’입니다. 여러분은 ‘팔관재계’가 무슨 뜻인지 알 거예요. 끼니를 굶고 경전을 보는 것만으로 충분한 것이 아닙니다. 반드시 관음법문을 수행해야 진정한 ‘팔관재계’인 것입니다. 음류音流를 사용해서 우리 업장을 씻고 외부의 영향을 씻어야 합니다. 이렇게 해야만 우리는 어떤 기회

든 이용해서 수행할 수가 있습니다. 어떤 시간이든 일분일초라도 모두 수행해야 합니다. 잠을 잘 때도 수행을 해야 하지요. 잠을 잘 때 내 오디오테이프를 틀어 놓고 차에서도 틀어 놓으세요. 그리고 차에서도 명상을 하거나 내 책을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해야만 좀더 빨리 수행할 수 있도록 내가 도울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은 수행이 너무나 느립니다. 나는 기다릴 인내심이 없어요. 입문한 지 두 달이 되었는데도 여전히 똑같습니다. 자라지를 앓았어요. 돌아가서 내 법문을 베개 삼아 자기만 하고 수행은 하지 않았던 겁니다. 그렇지요? 여러분, 나를 조금만 도와주세요. 부탁드립니다! 부탁드립니다! 나는 여러분에게 날마다 두 시간 반을 탁발하겠습니다. 괜찮겠지요? 나에게 돈을 줄 필요 없이 날마다 두 시간 반을 주는 것으로 충분합니다. 밥이 없다면 나는 들나물을 먹어도 살 수가 있지만, 만일 여러분이 수행을 하지 않는다면 이 세상은 곧 무너져 버릴 것입니다. 이해하겠어요? 들나물은 내 몸을 보할 수 있지만 돈은 소용이 없습니다.

나에게 공양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바로 관음법문을 수행하는 것입니다. 수행을 많이 할수록 더욱더 좋아요. 물론 때로는 두 시간 반을 수행할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할 수 있다면 꼭 수행해야 합니다. 시간이 있으면 있는 만큼 수행하십시오. 시간이 없다면 화장실에 갔을 때라도 수행할 수 있습니다. 그때는 10분 정도 수행할 수 있겠지요. 만일 화장실에 갈 시간이 있다면 수행할 수 있는 시간도 생기는 것입니다. 그곳에서도 수행할 수가 있지요. 그렇지 않나요? 화장실에 있을 때는 아무도 여러분에게 떠들어대지 않

을 겁니다. 그때는 장사도 내려놓고 남편이나 아내도 모두 문밖에서 기다릴 테니 안심하고 10분을 수행할 수 있지요! 밥 먹을 시간이 있다면 수행할 시간도 있는 것입니다.



7장

히말라야 산에서의
스승님

7장

히말라야 산에서의 스승님

1986. 8. 23. 포모사 타이베이 신디엔

히말라야 산은 세계에서 가장 높은 산으로 날씨가 몹시 추워서 반 년 동안은 그 산에 오를 수가 없습니다. 눈이 아주 깊고 높게 쌓이도록 내리기 때문에 어떤 것으로도 길을 낼 수가 없지요. 어쩌다 길을 냈다고 해도 30분도 안 돼서 또 눈이 가득 쌓입니다. 그곳은 엄청나게 눈이 많이 내리는 데다 몹시 춥고 지세도 아주 험합니다. 국경지대에는 군대가 주둔하고 있는데, 그들이 있는 곳은 지세가 비교적 평탄한 곳이지요. 하지만 그래도 여전히 아주 높은 곳입니다. 그곳에 가려면 양력으로 여름 5월에 올라가기 시작하는 게 가장 좋지만, 반드시 군인들이 작업 도구를 가지고 눈을 파내길 기다렸다가 그들이 눈을 파내는 곳을 따라 차를 운전해서 가야만 합니다. 그러나 때로는 아주 위험합니다. 눈사태가 나기도 하고 큰 얼음 덩어리가 떨어져서 도로를 망가뜨리기도 하니까요. 히말라야 산은 거의 모든 곳이 다 유명하고, 수행을 하는 장소입니다. 날씨도 상당히 춥고요. 인

도에는 많은 법사法師들이 있어서 곳곳에 그들의 발자취가 남아 있긴 하지만 그들을 만나기란 아주 어렵습니다. 어떤 수행자는 얼음 동굴을 파서 옷도 입지 않고 그 속에 살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아무 것도 먹지 않고 지내기도 하지요. 그곳은 공기가 아주 청정하기 때문에 자기가 본래 수행하는 법문에다가 다른 법문을 조금만 더 수행하면 밥을 먹을 필요가 없으며 겨울에도 추위를 느끼지 않게 됩니다.

나는 전에 옷을 입지 않은 수행자를 본 적이 있습니다. 내가 인도에 갔던 그때가 마침 여름 5월이었는데, 그 수행자는 신발도 신지 않은 채 짧은 반바지 하나만을 입고 다녔습니다. 여름 5월이라고 해도 얼음과 눈이 아직 많이 남아 있어서 바깥은 몹시 추웠기 때문에 유럽 사람들은 그곳에 와서 여전히 망토나 외투·방한복을 입었어요. 비록 내가 많이 입은 건 아니었다고 해도 안에는 스웨티와 아주 두꺼운 청바지를 입고 겉에는 비옷을 한 벌 더 껴입고 있었습다. 그래도 나는 가장 적게 입은 축에 들었어요. 거의 모든 사람들이 더 두꺼운 옷을 입고 다녔지요. 그곳에서는 집안에 있어도 너무 추워서 꼭 두꺼운 이불을 덮고 있어야만 했습니다. 그런데도 그 수행자는 짧은 반바지만 입은 채 왔다 갔다 했어요. 키가 크고 몸도 건장했고 피부도 붉은 것이 조금도 문제가 없었습니다. 그 사람은 수행을 아주 오래한 것 같았어요.

그곳의 여름은 이곳의 겨울보다 더 춥습니다. 여러분은 그런 사람이 있다는 것을 믿을 수 있겠어요? 보지 못한 것을 믿기는 힘들겠지만 내가 말한 것은 정말이에요. 그러니 믿어도 됩니다. 다른 많은

수행자들도 마찬가지였어요. 어쩌면 그 사람보다는 조금 더 입었을 수도 있겠지만 그렇게 많이 입지는 않았습시다. 두세 벌 정도가 고작이었지요. 또는 뒀가로 몸을 덮기도 했는데 추위를 막을 만한 것이 별로 없었어요. 그들은 많이 걸어다니기 때문에 너무 많은 짐을 가지고 다닐 수가 없어서 그런 생활이 몸에 배어 있었습시다.

어떤 수행자는 옷을 전혀 입지 않고 작은 천 조각으로 가릴 곳만 가려서 신체의 다른 부분은 추위를 막을 만한 게 전혀 없었고, 다만 온몸에 재를 발랐을 뿐이었습시다. 그들은 모두 진정으로 수행을 하고 있었지요. 어떻게 그들은 그렇게 할 수 있었을까요? 첫 번째는 습관이 되어 있었기 때문이고, 두 번째는 그들에게 아주 큰 신심이 있었기 때문입시다. 우리는 생각하는 대로 변할 수가 있습시다. 원한다면 자신을 훈련시킬 수 있지요. 이진 불가능한 것이 아릅시다.

3개월 전 내가 아직 인도에 있었을 때 마침 12년마다 한 번씩 열리는 수행자들의 큰 모임이 있었습시다. 인도에는 법회法會를 여는 유명한 성지가 네 군데 있습시다. 그 가운데 한 곳이 하리워드 Hariward이라는 곳인데, 하리Hari는 신·보살·부처를 뜻하고 하리와드는 ‘천당으로 통하는 문’, ‘신께 통하는 문’이라는 뜻입시다. 올해 그들이 법회를 열 때 나는 옷을 입지 않은 그런 수행자들을 아주 많이 보았습시다. 인도에는 지금도 그런 사람들이 있지요.

그들은 작은 천으로 가릴 곳만을 가렸을 뿐입시다. 또 밥을 먹을 때는 아주 많은 의식을 치르는데, 이곳에서 우리가 하는 식으로 불법승을 십여 분 동안 외우는 것과는 다릅시다. 그들은 한 동작을 여러 번 반복해서 하고, 음식은 간소하게 다른 사람이 공양한 한 가지

음식만을 먹을 뿐이지요. 또 그들은 자연의 그릇을 사용합니다. 큰 나뭇잎과 천연 견사로 만든 사발이나 접시에 먹을 것을 조금 담고는 계속해서 아주 많은 동작을 합니다. 나는 처음에 그들이 뭘 하는 건지 몰랐어요. 그들이 여러 차례 이런저런 동작들을 반복했기 때문에 보는 것만으로도 아주 지쳐서 ‘그렇게 해야 배가 고파지는 걸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시다. (대중 웃음) 정말 너무나 복잡했어요. 그러고 나서도 그들이 먹는 것은 보지 못했습시다.

대법회가 있는 그날은 참가한 모든 수행자들이 전부 갠지스 강가로 가서 강물에 자기 몸을 깨끗이 씻습시다. 그러고 나면 그들은 영원히 스님이 되고 대수행자가 되는 것이며, 또한 성인이 되고 성인의 단체에 가입하게 되는 것입시다. 그들은 다시는 환속해서 결혼을 하거나 세속의 직업을 가지지 않습시다.

그들 대다수가 젊은 사람들입시다. 게다가 그들은 온몸이 모두 까만데, 어쩌면 그것은 재를 바른 탓일 수도 있습시다. 그들은 모두 똑같아 보여요. 마치 아프리카 사람처럼 온몸이 온통 까만 것이 검은색으로 물을 들인 것 같지요. 그렇지만 아주 건강하고, 그렇게 고행을 하지도 않습시다. 그들이 나란히 함께 앉아 있으면 아주 장엄해 보이지요. 어쩌면 다른 뭘가를 먹어서일지도 모르겠지만 그 점에 대해서는 나도 잘 모르겠어요.

그들이 가진 것은 먹을 때 쓰는 작은 대나무 가지 하나뿐이고 다른 재산이라고는 없습시다. 우리는 외투나 바지, 노란 옷, 빨간 옷이 있지만 그들에게는 아무것도 없어요. 성인聖人이 된다는 것은 바로 그런 것입시다. 작은 천으로 몸을 가릴 뿐 다른 것은 아무것도 없습

니다. 그들은 몸에 걸칠 건 다른 어떤 것도 필요하지 않으며 겨울이나 여름이나 똑같습니다. 히말라야 산에서도 마찬가지예요. 그들은 일찌감치 그런 생활이 몸에 배었습니다. 그들은 천천히 고생스럽게 수행을 하는데, 수행을 하고 나면 몸이 아주 좋아져서 환경에 잘 적응할 수가 있어요. 우리 몸도 훈련하면 됩니다. 할 수 없는 게 아니에요.

내가 전에 들었던 이야기입니다. 영국에 한 여자가 있었는데, 보통의 체조 선수였습니다. 가끔 그녀는 밥 먹는 것을 좋아하지 않았어요. 그녀는 스키를 타러 산에 가면 산 공기가 너무 좋아서 3개월 동안 아무것도 먹지 않아도 괜찮지만, 런던으로 돌아오면 공기도 나쁜 데다가 사람들도 제각각 몹시 바쁘고 감정들도 격하게 오가서 산에 있을 때와는 달리 먹지 않으면 안 된다고 하더군요. 그녀는 산에서는 단식할 수 있지만 돌아온 뒤에는 그렇게 오랫동안 단식할 수가 없다고 말했습니다.

그녀는 3개월 동안 산에서 지내면서 정말 아무것도 먹지 않았지만 몸도 건강하고 아주 편안했다고 합니다. 한겨울 높은 산에 눈이 올 때도 짧은 부츠에 망토도 입지 않은 채 밖으로 나다녔다고 해요. 산에서는 3개월 동안 아무것도 먹지 않고 편안하게 지냈는데 공기가 오염된 곳으로 돌아오자마자 그렇게 지낼 수가 없었던 겁니다. 우리 몸은 다양하게 훈련을 시킬 수가 있어요. 만일 시간을 내서 제대로 수행하기만 한다면 공기가 오염된 곳에서일지라도 단식을 할 수가 있습니다.

미아오리에서 얼마 전 왕성한 비구니 스님 한 분도 이십여 년을

아무것도 먹지 않았습니다. 어쩌면 물만 조금씩 마셨을 수도 있어요. 이런 일은 인도에서는 아주 흔한 일입니다.

(질문: 그렇게 수행하는 것은 외도(外道)가 아닌가요?) 어떻게 외도라고 할 수 있지요? 좋지 않은 법문을 수행하는 것이야말로 외도입니다. 좋은 법문을 수행한다면 문제없습니다. 외도와 내도(內道)의 분별은 마음속에 있는 것인지 겉모습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인도에서 법회가 있었을 때, 그곳에 있던 거의 모든 사람들이 남자였고 여자는 겨우 몇 명뿐이었지만 그녀들은 모두 노란 옷을 입고 있었고, 아무도 고행하는 법문을 수행하지 않았습니다. 나는 또 어떤 사람이 아주 날카로운 못으로 만든 침대 위에 앉아 있는 것을 보았어요. 나는 그렇게 수행하는 것을 외도라거나 내도라고 말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어찌 되었든 그들은 정말로 그런 힘을 갖추고 있었지요. 나는 그들이 외도인지 내도인지 모릅니다. 상관하고 싶지도 않고요. 그렇지만 나는 그들이 아주 존경스러웠으며, 그런 수행자들을 볼 수 있어서 아주 기뻐했습니다.

어떤 출가자들은 노란 옷을 입고 어떤 이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흰 옷을 입은 출가자들도 있는데, 그들은 옷을 노란색으로 물들이는 데에 전혀 관심이 없어서 흰 옷을 그대로 입는 겁니다. 그래도 상관이 없어요. 그들을 보자마자 아주 오랫동안 수행해 왔다는 것을 알 수 있었으니까요. 꼭 노란 옷을 입어야 하는 건 아니에요. 그들은 아주 오랜 세월 동안 비바람을 맞아서 피부가 검고 단단했기 때문에 모기나 지네조차도 물 수 없을 정도였어요. (대중 웃음) 어쩌면 그들을 물려다가 오히려 모기나 지네의 이빨이 부러져 버려서 다시는 사

람의 피를 빨아먹을 수 없게 됐을지도 모르지요. (대중 웃음) 또 어떤 사람들은 아주 젊고도 위엄을 갖추었는데, 그들은 천으로 만든 짧은 바지 대신 철판으로 자신의 몸을 둘러싸서 스스로에게 여자를 가까이 할 생각이 절대 들지 않도록 합니다. 그들은 철판말고는 다른 어떤 것도 입지 않으며 평소에는 나무 아래에 앉아 경전을 봅니다.

누군가 옷을 입지 않았다고 해서 그가 외도인 것은 결코 아닙니다. 알겠어요? 어쩌면 옷을 입지 않는 것이 수행하기에 더 편해서일 수도 있지요. 먼저 그런 식으로 자신을 좀 고생스럽게 훈련시키고 나면 그다지 많은 물건이나 짐을 가지고 다닐 필요가 없어져서 나중에는 어디를 가더라도 별로 문제될 게 없습니다. 나도 그렇게 자유로운 것을 좋아합니다만 내게는 이 신체를 훈련할 시간이 없고, 지금은 또 제자들에게 묶여 버렸습니다. 그래서 전에 나는 제자를 가르치고 싶지 않았습시다. 나는 여전히 자유롭고 싶고 날고 싶었으며, 많은 것들을 배우고 싶고 나 스스로 많은 일들을 훈련하고 싶었지요. 하지만 지금은 그럴 수 없는 상황이 되어 버렸습니다. 갈수록 여러분이 나를 꼭 잡으니 떠날 수가 없지요. 그러니 지금 여러분은 이 완벽하지 않은 스승을 받아들여야만 합니다. (대중 웃음)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옷도 입어야 하고, 음식도 먹어야 하고, 잠도 자야 하는 스승을요. 그렇지만 괜찮아요. 다 마찬가지로이니깐요.

조금 전 얘기했던 그런 요가 수행자들은 아마도 큰 원을 세웠나 봅니다. 중생을 번거롭게 하지 않고, 밥 먹고 잠자고 옷을 입는 이런 일들을 걱정하지 않겠다고 말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스스로를 독립적으로 훈련시키고 생활에 필수적인 것들을 줄였겠지요.

좋은 법문을 수행하는 것이 내도이며, 흑신통을 수행하는 것은 외도입니다. 무슨 옷을 입는다고 외도인 것이 아닙니다. 좋은 옷을 입어도 좋지 않은 법문을 수행한다면 역시 외도입니다. 무엇을 먹는다고 내도이고 먹지 않는다고 외도인 것이 아니에요. 먹고 안 먹고는 마땅히 상황을 보아야 합니다. 예컨대 히말라야 산에서 관음법문을 수행하는데 아예 먹을 것이 없거나 잘 차려 먹을 수 없는데도 여전히 참고 수행을 한다면 그래도 똑같이 정도(正道)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아직 진정으로 이 ‘도’ 안에 들지 못한 것이 바로 외도이니깐요. 석가모니불이 살아 있을 때 경을 설하면서 “그러한 외도인은 수행을 성취할 수가 없다.”라고 말한 적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당시에 살아 있는 부처가 있는데도 사람들이 그를 따라서 수행하지 않고, 스스로 수행을 한다고 하면서 제대로 잘하지도 못했으니까요. 그래서 부처가 그들을 외도라고 말한 것이지 과거·현재·미래에 옷을 입지 않은 사람들 모두를 외도라고 말한 것이 결코 아닙니다.

옷을 입고 있어도 외도일 수 있습니다. 머리를 삭발하고 출가자의 옷을 입어도 외도로 변할 수가 있지요. 마음속으로 명예·이익·신통을 구하려고 하고 큰 사원을 탐하며 다른 사람이 존경해 주길 바란다면, 이런 사람은 어떤 옷을 입든 모두 외도입니다. 살아 있는 스승에게서 법을 전해 받지 않았다면 그것 또한 외도입니다. 외도의 정의를 명확하게 해야 합니다. 부처가 세상에 있을 때만 외도가 있고 지금은 없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모든 시대마다 외도가 있습니다. 만일 마음이 ‘안(內)’에 머물지 않는다면 바로 ‘밖(外)’에 있는 것이지요.

인도에서는 아주 많은 수행자들이 하루에 한 끼만 먹습니다. 그들은 아침만 먹고 점심·저녁은 먹지 않지요. 게다가 한 가지 법문만이 아닌 아주 많은 법문들을 수행합니다. 그들은 스승과 도를 찾아 곳곳으로 다니며 이 스승, 저 스승에게서 배우지요. 그들에게는 고정된 집이 없으며, 어디를 가든 걸어서 다니기 때문에 피부가 검고 몸도 건강합니다. 그들을 보았을 때 피부가 검으면 검을수록 수행을 많이 했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몸은 작을 수도 있겠지만 아주 단단하고 여물지요. 만일 그들이 숲 속에 산다면 아마도 그곳의 모기들은 모두 굶어 죽을 거예요. (대중 웃음) 지네도 그의 '내공(內功)'에 굴복해서 모두 그에게 귀의하고 5계를 받을지도 모릅니다. (대중 웃음)

그러므로 그들은 산에 있어도 뱀이나 호랑이를 무서워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단단해서 호랑이도 물 수가 없거든요. (대중 웃음) 내가 보기에 그들의 피부는 정말 단단해서 못조차도 꿰고 들어갈 수가 없을 거예요. 그들은 날마다 명상을 하고, 밥을 먹거나 잠을 잘 때도 수행을 떠나지 않습니다. 일 분 정도만 명상하고 마는 것이 아니에요. 그러니 여러분도 그들의 내공이 어떤지 알 수 있을 겁니다.

이런 상황에서는 호랑이도 그들에게는 어쩔 수 없는 것 같습니다. 호랑이의 이빨이 아무리 사납다고 해도 쇠못만큼 단단하거나 날카롭지는 않을 테니까요. 그들이 호랑이나 사자를 무서워하지 않는 것도 아마 이런 이유 때문일 거예요. 만일 내가 여러분에게 몇 년 동안 휴가를 받아 그들에게 가서 배운다면, 나중에 돌아왔을 때 여러분에게 들려줄 이야기가 더욱 많아질 겁니다. 그러나 이런 것은 작

은 기교일 뿐 결코 가장 높은 수준은 아닙니다. 여러분이 듣고 싶어 해서 이야기해 준 것뿐이에요. 그러니 지혜를 갖추고 자유자재함을 얻는 것이야말로 가장 중요한 것임을 여러분은 꼭 이해해야만 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불 속을 걸어도 불에 타지 않습니다. 이런 일은 뉴욕에서도 있는 일이라 가끔 신문에 광고가 나기도 합니다. 이런 법문은 우리도 수행할 수 있습니다. 그것도 아주 빨리요. 여섯 시간 정도면 수행을 끝마칠 수 있을 거예요. 그러나 꼭 정말로 믿어야 합니다. 만일 조금이라도 의심이 남아 있다면 아마 반도 못 가서 불에 타 버리고 말 거예요. 대단한 자신감이 있어야 합니다. 주문을 외우면서 의심한다면 효과가 없어서 불에 타 버리고 말 겁니다. 어쨌든 불 속을 걸어가도 불에 타지 않는 사람이 있어요. 이것은 정말 있는 일입니다. 거짓말이 아니에요.

우리에게 잠재되어 있는 힘은 대단히 큼니다. 만일 수행을 잘해서 자기에게 절대적인 자신감이 생긴다면 무슨 일이든 다 해낼 수 있을 거예요. 손오공을 보세요. 그는 한 마리 원숭이에 지나지 않지만 수행을 잘해서 일흔두 가지 다른 모습으로 변할 수 있는神通이 있었습니다. 원숭이도 할 수 있었는데 우리라고 못 하겠습니까?

여러분은 지금 무엇을 수행하고 싶은가요? 물인가요? 아니면 불이나 열음을 수행하고 싶습니까? (질문: 먹지 않아도 되는 법문을 수행할 수 있습니까?) 당신은 먹고 싶지 않습니까? (답: 밥 먹는 것이 너무 번거롭습니다.) 그래서 안 됩니다. 당신이 먹지 않으면 사람들은 오히려 음식을 만들어서 먹으라고 줄 거예요. 그렇게 되면 밥 먹는 것

보다도 더 번거로워질 뿐이지요. 포모사에서는 그런 수행을 할 수가 없으니, 하고 싶다면 히말라야 산에 가서 자기를 가둬 놓고 하세요. 그런데 나는 당신이 그런 환경을 견뎌 내지 못할 것 같아서 걱정이 되는군요. 어제 당신이 나에게 불 피우는 것이 너무 번거로운데 왜 가스를 사용하지 않느냐고 했지요? 히말라야 산에는 가스도 없고, 아가씨에게 목욕하라고 줄 수 있는 뜨거운 물도 없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히말라야 산에 갔지만 한번 가서는 돌아오지 않았 습니다. 그곳으로 성지 순례를 간다고 해도 아주 위험하지요. 많은 사람들이 가고 싶어하지만 선불리 가지 못합니다. 나는 그렇게 위험 하다는 것을 모르고 갔습니다. 만일 알았다라면 아마 나서지도 못했 을 거예요. (대중 웃음) 내가 히말라야 산에서 돌아오자 많은 사람들이 놀라며 물었습니다. “당신은 그곳에 갔다가 어떻게 다시 돌아올 수 있었지요?” 그래서 내가 “왜 돌아올 수 없다는 거지요?”라고 말했 더니 나중에 그들이 여러 가지 위험한 상황을 나에게 알려주었습니 다. 하지만 내가 이미 갔다 온 뒤였지요.

미국에 있는 한 인도인에게 내가 히말라야 산에 갔다 온 이야기를 해주었더니 그가 그러더군요. “나는 인도 사람인데도 아직 그곳 에 가 보질 못했는데 당신은 벌써 가 보았다니, 정말 놀랄 만한 일이 로군요.” 그러나 그는 여전히 갈 엄두를 못 냈어요. 인도 사람의 반 이상이 아직 그곳에 가 보지 못했습니다. 내가 갔던 곳을 그들은 감 히 갈 엄두도 못 내는 거예요.

내가 4, 5년 전에 그곳에 갔을 때 어떤 곳은 3, 40km를 걸어야 했 지요. 그것도 평탄한 길도 아니고 울퉁불퉁하고 험난한 산길이었어

요. 습하고 어두워서 미끄럽고 위험했지요. 어떤 길은 아주 좁아서 겨우 한 사람만 지나갈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높은 히말라야 산에 서 잘못해서 떨어진다면 아마 먼지로 변해 버릴 겁니다. 그러면 물 을 필요도 없을 테니 아주 위생적이겠지요. (대중 웃음) 만일 뜻밖에 갠지스 강에 떨어진다면 때마침 깨끗이 씻은 다음에 천당으로 갈 수 있을 겁니다. (대중 웃음) 인도인들은 갠지스 강에서 목욕을 하면 해 탈할 수 있다고 믿습니다. 그러니 그곳으로 떨어진다고 해도 상관이 없어요. 즉시 해탈할 수 있을 테니까요.

갠지스 강은 인도에서는 성스러운 강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날마다 그곳에서 목욕을 하지요. 참으로 이상한 것은 그들이 갠지스 강에서 목욕을 하고 옷을 빨며 무엇이든 다 강물 속에 넣는데도 갠 지스 강물에는 오히려 독이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는 이곳에서 는 많은 화학 약품을 넣어 물을 소독하지만 그래도 수돗물을 끓이지 않고 마시면 병이 날 수도 있는데, 날마다 갠지스 강물을 마시는 인 도인들은 오히려 병이 나질 않습니다.

히말라야 산의 갠지스 강 양쪽 기슭에는 나병에 걸린 사람들이 사는 곳도 있어서 그들의 배설물까지 갠지스 강물 속으로 배출됩니 다. 인도인은 그다지 위생적이지 않아서 하류 쪽에 사는 사람들은 먹고 마시고 놀고 배설하고 목욕하는 모든 일들을 다 갠지스 강 속 에서 합니다. 그러나 별 문제가 없어요. 나도 그런 물을 마셨습니다. 날마다 목욕하는 김에 조금 마셨지요. 날씨는 너무 더운데 다른 마 실 만한 것이 없었거든요. 그렇지만 마시고 난 뒤에 아무런 문제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상류 쪽 물은 아주 깨끗하고 새파란 것이 마치 보석처럼 아름답습니다. 어떤 곳은 파란 강물이 맑고 깨끗한 하늘빛을 닮아 있었습니다. 너무나 아름다워서 그림으로 그려 낼 수도 없을 정도였지요. 깨끗한 하늘에는 구름 한 점 없으며, 태양은 아주 크게 빛나고, 소나무는 곧고 푸르며, 물은 참으로 맑고 깨끗합니다. 길을 걷다 아래를 보면 깨끗한 청록색의 갠지스 강이 보여서 걷는 데 조금도 피곤함을 느끼지 못합니다. 걸으면서 보는 풍경은 정말 너무나 아름답습니다. 갠지스 강의 어떤 곳은 아주 넓고 어떤 곳은 꽤 좁은데, 그렇다고 해서 그렇게 좁은 것도 아닙니다. 갠지스 강의 수원水源은 히말라야 산에 있지만, 인도인들은 모두 갠지스 강물이 천당에서 흘러 내려오는 것이라고 믿고 있지요.

갠지스 강물은 세상에 오직 하나뿐인 성스러운 물입니다. 깨끗하지 못한 것은 무엇이든 갠지스 강 속에만 들어가면 깨끗하게 변하지요. 강물 속에는 유독한 것이 없습니다. 일찍이 과학자들도 갠지스 강물을 검사해 보았는데 어떠한 독이나 세균도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갠지스 강에서 목욕을 한 다음 다시 갠지스 강물을 마셔도 문제가 생기지 않습니다. 갠지스 강물을 떠다가 병에 담아서 10년 동안 그대로 두어도 썩지 않습니다. 처음 강물을 담았을 때와 똑같이 깨끗하기 때문에 그대로 마실 수가 있지요. 보통 다른 물은 썩거나 냄새가 나지만 갠지스 강물은 그렇지 않습니다. 10년을 병 속에 담아 두어도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질문: 왜 인도에서는 12년 만에 한 번씩만 수행자들의 큰 모임을 갖는 것이지요?) 인도가 그렇게 큰데 어떻게 날마다 모임을 가질 수 있겠어요?

게다가 그들도 평소엔 수행을 해야 합니다. 그들은 정말 은거하며 수행을 하지요. 히말라야 산의 높은 곳에 가서 수행을 하며 수십 년 동안 돌아오지 않습니다. 12년에 한 번도 너무 자주 모이는 거예요. 그들은 1, 2년만을 수행하는 것이 아니라 수십 년, 수백 년, 수천 년을 수행하면서 아직도 존재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여기에서 하는 식으로 하루나 이틀을 수행하고 지쳐 버리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은 선삼의 마지막 날이 되면 '내일이면 끝난다. 집에 돌아갈 수 있어. 남편(또는 아내)이 집에서 나를 기다리겠지. 장사도 내가 돌아오길 기다리고 있을 테고. 남편이 집에서 무슨 말을 했을지 모르겠어. 학생들도 나를 기다리고 있을 거야.'라는 갖가지 생각을 합니다. 우리는 모두 너무 바쁘고, 자기를 너무 중요하게 여깁니다.

인도의 수행자는 아주 단순합니다. 그들 자신은 중요하지 않고 오로지 수행만이 가장 중요한 것이라고 여깁니다. 그래서 자신들이 버린다고 해도 사회가 아직 그대로 있고 우주도 여전히 존재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들은 자신을 그렇게 중요하게 여기지 않기 때문에 꼭 남아서 이 사회를 돕고 이런저런 일을 하며 누군가의 아내나 남편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그런 일에는 관여하지 않지요. 이처럼 그들의 '에고'가 그렇게 크지 않기 때문에 수행이 아주 빠르고, 무엇을 수행해도 다 잘되고 비교적 쉽게 성취하는 것입니다. 나는 더 이상 말하지 않는 것이 좋겠어요. 계속 이야기를 한다면 나는 휴가를 내서 떠나고 싶어질 거예요. (대중 웃음) 이야기를 하면 할수록 휴가를 내고 그곳에 가서 수행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인도는 대단히 커서 해마다 그런 대법회가 열린다면 그들은 참가할 수 없을 겁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모두 걸어다니는 데다 돈이 없어서 평소에는 그저 약간의 음식만 구해서 먹으니까요. 만일 법회에 참석하려면 히말라야 산에서부터 아마도 6개월은 걸어야 도착할 수 있을 겁니다. 그들은 걸으면서 쉬기도 하지요. 아주 빠르게 길을 재촉하며 오는 것이 아니라 쉬엄쉬엄 걸어옵니다. 마치 우리가 날마다 일을 조금씩 하는 것처럼 조금씩 걷습니다. 그렇게 걷다가 어딘가에 도착해서 먹을 것이 있으면 좀 먹고, 다 먹고 난 뒤에는 조금 쉬었다가 갠지스 강에 가서 몸을 씻고, 그러고 나서 명상을 하고 싶으면 명상을 하고, 명상하고 싶지 않으면 산책을 합니다. 다음날 또다시 걷다가 다른 곳에 도착해도 여전히 똑같지요. 별다른 일 없이 아주 태연하고 자유롭습니다.

그러므로 6개월이나 1년이 지나서야 비로소 그 법회에 도착할지도 모릅니다. 시간이 길고 짧은 것은 상관없어요. 왜냐하면 시간은 모두 그의 것이니까요. 어쩌면 걷다가 어딘가에 도착했는데 아주 선량한 사람이 그에게 공양을 하며 경을 설해 주기를 청하면 그 선량한 사람을 위해 2개월이나 6개월 동안 그곳에 머물다 갈 수도 있습니다. 반드시 해야 한다거나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 없습니다. 법회에 가도 좋고 가지 못해도 괜찮습니다. 12년이 지난 뒤에 다시 올 수 있으니까요. 그들에게 시간이란 아주 많습니다. 그들은 어려서부터 그런 단순한 생활을 해 왔기 때문에 다른 일들은 생각하지 않습니다. 어려서부터 경을 외우고 수행하는 것을 알았으며, 그때 이미 명상을 시작했을 수도 있습니다. 식발하고 노란 옷을 입을 때까지 기다렸다

가 명상하는 것을 배운 것이 아닙니다.

인도에서는 많은 어린아이들이 명상을 합니다. 어려서부터 부모와 함께 채식을 하고 수행을 하지요. 인도인은 무슨 종교를 믿든 거의 모두가 이런 습관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녁에 집으로 돌아온 뒤에는 찬불가나 공양가 또는 성가를 부르고, 경을 외우거나 읽어서 가족들에게 들려준 다음에야 잠을 자러 갑니다. 명상을 하고 안 하고는 또 다른 일입니다.

원한다면 이런 습관을 배우는 것도 아주 좋습니다. 저녁에 일을 다 마친 다음 한 번쯤 시간을 내서 가족들에게 경을 한 단락 읽어 준다면 아주 의미 있는 일이 될 거예요. 가족이 스승을 따라 배울 수 없다고 해도 상관없어요. 그들에게 경을 읽어 주면 약간의 도덕적인 관념도 심어 줄 수 있습니다. 불경이나 성경 모두 괜찮아요. 하루에 한 단락씩 좋은 부분을 선택해서 가족에게 들려준다면 그들은 잠도 아주 잘 잘 거예요. 불경을 다 읽고 나면 성경·『도덕경』·『논어』 등을 읽어 줄 수도 있지요. 그들이 자유롭게 배우도록 하는 거예요. 나중에 그들이 무엇을 선택하든 다 괜찮습니다. 오직 불교나 천주교만을 배워야 하는 건 아니에요.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나는 종교를 믿는 것은 그저 경을 읽고 외우는 것만이 아니라 반드시 ‘도를 행해야’ 한다는 것을 어려서부터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경전에서 말하는 대로 우리도 꼭 실천해야 하지요. 예수 그리스도도 명상을 했고 부처도 명상을 했습니다. 부처도 채식을 했고 예수 그리스도도 채식을 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반드시 그대로 따라야 합니다. 명상을 하면서 채식을 하지 않는다면 우리 몸에 좋지 않은

반응이 생길 테니까요.

대법회가 12년에 한 번 열릴 때마다 아주 많은 수행자들이 인도의 곳곳에서 옵니다. 인도의 총리까지도 참가해서 수행자들에 대한 존경심을 드러냅니다. 모두 함께 모여서 수행에 관해 담론을 하고, 동시에 재가자들에게도 자신들을 따라 배우고 자신들에게 공양하며 수행에 관한 질문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줍니다. 한 달이 지나면 그들은 모두 그곳을 떠나 계속 수행을 하러 갑니다.

나는 올해 4월에 그 법회에 참석했다가 포모사로 돌아왔습니다. 이번 법회에는 달라이 라마도 왔습니다. 수행자들이 모두 함께 모이지만 특별히 누군가를 초청하지는 않습니다. 원한다면 달라이 라마가 참가해도 되고 다른 티베트 사람이 참가해도 됩니다. 그렇지만 내가 보기에 법회에 참가한 티베트의 수행자들은 아주 적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다 그곳에서 한 달을 머무르는 것은 아닙니다. 어쩌면 그들은 하루나 이틀, 또는 일주일이나 이주일 동안 머물다가 돌아갈 수도 있습니다.

몇 년 전 나는 달라이 라마를 만난 적이 있습니다. 그는 나를 만날 때마다 아주 기뻐했어요. 친절하게 나와 악수를 하고 가장 귀한 약을 나에게 주기까지 했지요. 그 약은 그가 직접 만든 것인데, 나를 만날 때마다 그 약을 나에게 주었습니다. 내가 크지 못할까 봐 걱정이 되었나 봐요. (대중 웃음) 내가 아주 마르고 작은 것을 보고 가엾다고 느껴서 만날 때마다 약을 주었나 봅니다.

그 약은 아주 귀한 것이어서 그의 친동생일지라도 그 약을 구하려면 사야만 했습니다. 나는 한 번도 그 약을 달라고 한 적이 없는데

도 달라이 라마는 나를 볼 때마다 그의 수행원을 시켜서 약을 가져다주었습니다. 때로 그가 너무 바빠서 곧바로 나를 만날 수 없으면 옆에서 기다리라고 했어요. 본래 그는 아주 바쁩니다. 인도에 갈 때마다 많은 사람들이 그를 보고 싶어하지요. 그러나 그는 아무리 바빠도 시간을 내서 천천히 나와 이야기를 나눴어요. 그는 나와 많은 이야기를 하려고 했지만 나는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한번은 뉴욕에서 그를 만났는데, 그는 나를 보더니 아주 반가워했습니다. 여러 해 동안 만나지 못했거든요. 그가 내 손을 잡고서 가지 못하도록 해서 그때 나는 아주 부끄러웠어요. 왜냐하면 내 뒤로 거의 천 명 가까이 되는 사람들이 그를 만나려고 줄서 있는 것을 보았거든요. 그런데도 그는 “잘 있었습니까? 어디에 살지요? 요즘 무슨 일을 합니까?”라고 물었어요. 나는 뒤를 돌아다보면서 그에게 “저는 이제 가야겠습니다. 너무 부끄러워요.”라고 하고는 그가 물어본 말에는 대답도 하지 못했습니다. 나는 그렇게 특별한 대접을 원한 게 아니었어요. 다만 좋은 벼도 보고 선물도 줄 겸해서 그를 찾아간 것뿐이었습니다. 그렇지만 그는 나를 못 가게 했어요. 그래서 내가 말했지요. “저는 꼭 가야 합니다.” 그랬더니 그가 “잠시만 옆에서 기다리시오. 당신에게 약을 주겠소.”라고 하더군요. 그때 그는 너무 바빴기 때문에 나에게 한쪽에서 잠시 기다리라고 하고는 그의 동생을 불러서 약을 가져다주라고 했습니다.

그는 나에게 특별히 잘해 주었습니다. 그렇지만 나는 결코 그런 귀한 약을 얻고 싶어했던 것은 아니었어요. 내가 그 약을 얻어서 무엇하겠습니까? 그래서 그 약을 받아서 먹지 않고 다른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약에는 동물 성분이 들어 있었으니까요. 비록 달라이 라마가 준 것이지만 먹을 수가 없어서 참 애석했어요. 그래도 나는 받았습시다. 그가 이미 나에게 주겠다고 했기 때문에 나는 그곳에 서서 “내 약이 어디에 있지요?”라고 물었습니다. 그리고 그 약을 받은 뒤에는 다른 사람들에게 주었어요. 그 약을 받은 사람들은 정말 좋아했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그 약을 사려면 어쩔 많은 돈을 주어야만 살 수 있을 거예요. 더군다나 사람들은 내가 받은 그 약이 특별히 달라이 라마가 개인적으로 준 약이니 그 속에 축복의 힘이 더 많이 들어 있을 게 틀림없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렇지만 내가 무슨 축복의 힘을 원했던 건 아니었어요. 나 개인적으로는 이미 사용할 힘이 충분했기 때문에 모두 다른 사람들에게 주었습니다. 나는 그 약을 다른 사람에게 줄 때도 특별한 사람을 찾아서 주었어요. 마음대로 아무에게나 준 것이 아니었지요. 만일 그들이 그 약이 얼마나 귀한지 몰랐다면 나는 주지 않았을 겁니다. 쥐 봐야 소용이 없으니까요.

그런 작은 약은 캡슐 속에 들어 있는데, 한 달에 한 알만 먹을 수 있습니다. 그는 나에게 열 알이 넘는 약을 주었어요. 달라이 라마는 사랑스럽고 좋은 사람입니다. 그는 또 나에게 자신이 친필로 서명한 책도 주었습니다. (스승님이 동수들에게 보여 주심) 설령 티베트 사람이 라고 해도 많은 사람들이 이런 영광을 얻을 수 있는 것은 아니지요. 만일 누군가 달라이 라마가 친필로 서명한 책을 얻는다면 곧바로 그 책을 가지고 돌아가서 예배를 하거나, 날마다 그 책을 머리 위에 올려놓고 걸으면서 다른 사람들에게 보여 줄 겁니다. 사람들에게 자신

이 달라이 라마와 특별한 관계라는 것을 알리고 싶어서 말이지요. 그들에게는 달라이 라마가 살아 있는 부처니까요.

(질문: 스승님께 여쭙겠습니다. 스승님께서는 밀종密宗을 먼저 배우셨나요, 아니면 선禪을 먼저 배우셨나요?) 나는 어려서부터 아주 많은 것을 배웠습니다. 밀종은 전에 이미 배웠어요. 내가 히말라야 산에 살 적에 한번은 티베트 마을 가까이에서 살았는데, 평소에는 별로 특별한 일이 없어서 그곳의 티베트 도서관에 가서 책이나 경전을 보고 돌아와서는 명상을 하곤 했습니다. 명상을 하다가 배가 고프면 먹을 것을 먹고, 먹고 난 뒤에는 목욕하면서 날마다 그렇게 보냈어요. 별다른 일이 없었지요. 만일 누가 강연을 한다고 하면 가서 듣기도 했어요.

내가 살던 그곳은 달라이 라마가 사는 곳과 아주 가까웠습니다. 걸어서 1, 2분이면 도착할 수 있었지요. 그런데 내가 살던 곳은 비교적 은밀한 곳에 있어서 밖에서는 보이지가 않았어요. 그 산속에서 내가 있던 곳은 다른 곳보다 좀더 높았거든요. 그곳은 사방이 높고 큰 소나무로 둘러싸여 있었기 때문에 밖에서는 보이지 않았지요. 안에는 돌로 된 작은 집이 몇 채 있을 뿐이었어요. 그곳 사람들은 시멘트를 사용하지 않고 돌만 사용해서 집을 아주 쉽게 쌓아 올렸습니다. 이쪽 집에서 저쪽 집을 들여다볼 수 있었으며 창문도 필요 없었어요. 비가 들이치고 바람도 드나들어서 아침이 되면 많은 돌들이 떨어져 있었습니다. 그곳에 살면 지금이 무슨 시대인지 잊어버리게 되지요. 무수히 많은 별들과 달도 보게 되고 지네와 곤충들도 이리저리 자유롭게 드나들어 오고 싶으면 아무나 마음대로 올 수가 있었

습니다.

내가 살던 곳에서는 달라이 라마가 사는 곳을 볼 수 있었지만 그는 내가 사는 곳을 볼 수가 없었습니다. 그때 나는 지금보다 더 용감했어요. 때로는 늦게까지 도서관에 있다가 나왔는데도 다른 수행자들을 찾아가서 경전에 대해서 얘기하곤 했지요. 그래서 집으로 돌아올 때는 날이 훨씬 더 어두워지곤 했습니다. 그런 날도 혼자서 산을 오르곤 했는데, 그때는 손전등도 없었고 지팡이 하나만 있었어요. 작은 산길을 따라 어둠 속을 마치 장님처럼 더듬으며 산을 올랐습니다. 비록 그렇게 편하고 쉬운 것만은 아니었지만 상관없었어요. 신심만 있다면 어떤 곳이든 갈 수가 있었으니 마음속으로 아무것도 두렵지가 않았지요.

이 이야기를 하니 당장이라도 히말라야 산으로 돌아가고 싶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곳은 정말로 너무나 청정하고 좋은 곳이에요. 혼자 지내면서 먹고 싶으면 먹고, 자고 싶으면 자고, 가고 싶으면 가면 됩니다. 그곳에는 많은 수행자들이 살고 있는데, 그들은 저마다 다른 법문을 수행합니다. 어쩌면 서로서로 등급도 다르겠지만, 그래도 관계없습니다. 그들 모두 깊은 도심을 가지고 있으니까요.

가끔 우리는 밖을 거닐다가 두세 사람이 나무 아래 앉아서 계곡의 물도 마시고 티베트 빵도 조금씩 나눠 먹었습니다. 티베트 빵은 이곳의 빵과는 달리 납작 보리로 만든 것인데 영양이 아주 풍부하지요. 그 속에 식물성 버터를 발라서 먹습니다. 어쨌든 우리는 앉을 만한 곳을 찾아서 한 장의 넓은 나뭇잎을 땅바닥에 깔고, 그 위에 빵과 작은 물병도 함께 놓습니다. 그런 다음 빵을 조금씩 먹으면서 경

전과 수행에 관해서 서로 얘기합니다. 그곳은 정말 좋은 수행 장소예요. 그곳에서 일분을 사는 것이 이곳에서 일년을 사는 것보다 더 행복합니다.

히말라야 산에서는 동물이든 식물이든 모두 부드럽고 다정한 분위기를 풍긴다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하늘도 자유롭고 편안하며 소나무도 아주 다정하지요. 내가 살던 곳은 무척 높았기 때문에 흰 구름이 몸 주위를 오가는 것을 느낄 수 있었는데 그때는 자신이 마치 구름 위를 걷고 있는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내가 구름과 안개를 타고 하늘을 날았던 게 아니고 흰 구름이 자연스럽게 날아온 것이었어요. 여러분은 때로 구름 위에 사람이 있는 그림을 보기도 했을 거예요. 그런 그림이 바로 내가 말한 것과 비슷합니다. 그런 경지는 천대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속세의 히말라야 산에도 있습니다.

나는 날마다 오후에는 불상을 한두 바퀴 돌고 난 뒤에 집에 돌아왔습니다. 돌아온 뒤에는 무엇을 했을까요? 이웃과 이야기를 나눌 수도 있고, 그렇지 않으면 명상을 하고 잠을 잤습니다. 다음날 일어나고 싶을 때 일어나거나, 일어나고 싶지 않으면 하루 종일 명상을 한다고 해도 아무도 와서 귀찮게 굴지 않았지요. 초인종이나 전화 벨소리의 간섭도 없었고요. 그러다 배가 고프면 음식을 끓여 먹었는데, 기름 화로를 살 수도 있었어요. 아니면 그곳에 나무가 많으니 돌세 개로 아궁이를 만들어 불을 피워서 모든 재료를 함께 넣고 끓이다가 소금만 좀 넣으면 먹을 수가 있었지요. 만일 게으르다면 생으로 먹을 수도 있고요. 나는 가끔은 끓여 먹기도 했지만 평소에는 생으로 먹었습니다. 그게 더 빠르니까요. 들나물 같은 것을 뜯어다가

소금만 조금 치면 바로 먹을 수가 있었어요.

내가 히말라야 산에 있을 때 어떤 곳에서는 음식을 익힐 수가 없었습니다. 그곳의 기압이 너무 낮아서 물을 반나절이나 끓여도 끓지가 않았거든요. 그러니 어떻게겠습니까? 할 수 없이 갠지스 강에 가서 깨끗이 씻은 후에 생으로 먹을 수밖에 없었지요. 그래도 아주 맛있었어요. 나는 그렇게 먹어도 문제가 없었지만 어떤 사람들은 설사를 할지도 모릅니다.

히말라야 산은 가장 좋은 곳입니다. 뜨거운 물이 없어도 괜찮아요. 찬물로 씻는데, 씻을 때 아주 재미있습니다. 왜냐하면 물이 너무 차가워서 몸이 마치 줄어드는 것 같은 느낌이 들거든요. 얼음같이 찬 물속에 들어가서 하나, 둘, 셋, 넷을 세고는 즉시 튀어 올라오지요. 그리고 나면 마치 몸에 꽃이 핀 것처럼 느껴집니다. 나는 너무 재미있어서 다시 한 번 더 해보곤 했어요.

나는 언제나 똑같은 곳에서 안거하지는 않았습니니다. 그때는 티베트 마을 가까이에서 안거했기 때문에 그렇게 위험하지는 않았어요. 물건을 살 수 있는 곳도 있었고 전기도 들어오는 곳이라서 음식을 만들어 먹을 수도 있었거든요. 공기도 그렇게 희박하지 않아서 음식을 끓일 수도 있었지요. 그곳은 겨울에 눈이 좀 적게 내리는 편이었지만 그래도 좀더 높은 곳은 눈이 무척 많이 내렸어요. 내가 살던 곳이 다른 곳보다는 눈이 비교적 적게 내리긴 했어도 언제나 갈 수 있는 그런 곳은 아니었습니다. 여름에는 올라갈 수 있었지만 겨울에는 그럴 수가 없었어요. 올라가려면 아주 힘들었지요.

해마다 많은 사람들이 좀더 높고 깊은 곳으로 성지 순례를 감니

다. 그들은 모두 말을 타고 가거나 누군가에게 업혀 갑니다. 게다가 길 안내자도 있고요. 그런데 오로지 나만 여자의 몸으로 혼자서 걸어갔지요. 그래서 그들 모두 나를 보러 왔습니다. 불가사의하다고 느꼈으니까요. 본래 인도에서는 여자 혼자서 걷는 것을 볼 수가 없습니다. 더욱이 나는 몸집이 작아서 어린이가 같아 보이는데 어떻게 이런 곳을 혼자서 걸어갈 수 있겠어요? 그때 나는 또 옷을 아주 적게 입고 있었어요. 걸으면 너무 더워서 땀을 많이 흘렸기 때문에 목이 올라오는 털 스웨티도 입지 않았지요. 그들은 모두 나를 보고 감탄했습니다. 왜냐하면 자신들은 두꺼운 방한복을 입고 있는 데다가 말 위에 필요한 물건들을 잔뜩 실어 나르고 있기까지 했는데 나는 입은 옷도 얇디얇은 데다가 짐도 아주 간단했으니까요. 그래서 내가 산에 오르고 난 뒤에 많은 사람들이 나와 얘기하고 싶어했고 친구가 되고 싶어했습니다.

올해 인도에 갔을 때 나는 두 명을 입문시켜 주었습니다. 그들은 바로 4, 5년 전 그때 알게 된 사람들로서 한 명은 의사이고 다른 한 명은 그녀의 딸이었지요. 인도에 오면 자신들을 만나러 꼭 와 달라는 편지를 보내왔기 때문에 다시 그들을 만나러 갔는데, 나를 보자 아주 기뻐했습니다. 그녀의 식구들은 모두 다 훌륭한 사람들이었어요. 남편과 아들은 변호사였고 입문한 그녀는 의사였으며, 딸은 아직 학교에 다니고 있었지요.

본래는 온 가족이 다 입문하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내가 하루나 이틀밖에 머물 수 없어서 그들에게 다섯 시에 일어나야 한다고 말을 해 놓았는데 남자들이 그 시간에 일어나지 못해 두 명만 입문을 하

게 된 것입니다. 그렇지만 상관없어요. 나중에 그들은 다른 ‘구루’를 찾아서 배울 수 있을 테니까요. 이것은 인도에서는 문제도 아닙니다.

그러나 그들이 말하길, “반드시 우리를 보러 다시 오셔야 합니다. 당신은 이제 우리 스승이 되셨으니 학생을 보러 꼭 돌아오셔야 합니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내가 “인도에는 많은 ‘구루’들이 있으니 그들을 보러 가면 됩니다. 그러면 마찬가지로 수행할 수가 있습니다.”라고 했지요. 히말라야 산에서 만난 친구는 정말 사랑스러웠어요. 전에는 친구였는데 이제는 학생이 되었지요.

Q: 인도에서는 수행자들을 ‘바바지’라고 부르는데, 이것은 무슨 뜻입니까?

A: 바바지BaBaji는 대왕大王이란 뜻입니다. 마하라지Maharaji 역시 같은 뜻입니다. 인도인이 가장 존경하는 칭호이지요. 이것은 우리가 말하는 세존世尊·불佛·여래如來와 같습니다. 모두 인도에서 번역되어 온 것입니다.

Q: 인도는 혼란스럽고 가난한데, 스승님께서 어떻게 그곳을 복이 있는 곳이라고 말씀하실 수 있습니까?

A: 가난하긴 해도 그들에겐 아직 먹을 것이 있습니다. 복이란 게 반드시 금전의 복을 가리키는 것은 아니에요. 복은 돈으로 살 수가 없는 것입니다. 석가모니불도 돈이 없었습니다. 비록 그가 본래는 왕자였다 할지라도 부귀를 떠난 뒤에는 거지가 되어 날마다 탁발을

하러 다녀야 했으니까요. 설마 그가 그랬다고 해서 복이 없다고 할 순 없겠지요?

인도인들은 복을 상관하지 않고 돈이 많고 적은 것도 상관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모두 너무나 단순하지요. 그렇지 않다면 그들도 돈을 벌려고 노력할 거예요. 인도 사람이나 포모사 사람이나 모두 똑같은 사람인데 어떻게 돈을 벌 줄 모르겠습니까?

돈은 그들에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쓸 만큼의 물건만 있으면 되는 것이지요. 인도에서는 가난한 사람도 수행을 합니다. 심지어 거지도 수행을 하지요. 전에 나의 스승님이 어느 마을엔가 가셨을 때 거의 3백에서 5백 명 정도 되는 마을 사람들이 모두 입문을 했습니다. 남녀노소·닭·소·개·고양이 할 것 없이 모두 왔어요. (대중 웃음) 그곳은 아주 가난한 곳이어서 그렇게 높고 큰 건물도 없었고, 그들의 집도 모두 진흙으로 만들어서 화장실이나 편리한 시설도 없었습니다. 우린 잠도 그냥 맨바닥에서 각자가 가져온 걸 덮고 잤지요. 그렇지만 우리가 갔을 때 그들은 즉시 화장실과 작은 욕실을 지어서 우리가 목욕할 수 있도록 해주었습니다.

우리가 가기 전에는 그들에게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게다가 소와 사람이 모두 함께 살고 있었는데, 그래도 그들은 아주 깨끗했어요. 땅바닥까지도 깨끗할 정도였지요. 하지만 대도시는 더러웠습니다. 인도만 그런 것이 아니라 유럽에서도 대도시는 더럽지요. 반대로 인도의 시골 마을은 깨끗합니다. 나는 수많은 작은 시골 마을을 가 보았는데, 땅바닥은 어디나 깨끗해서 나무 아래에 그냥 누워서도 잘 수가 있었어요. 그렇지만 도시는 오염되고 사람들도 많고 물도

잘 나오지 않습니다. 수도관은 오염되고, 악취를 풍기는 것들도 많고, 먹을 것들은 아무렇게나 막 놓여 있지요. 하지만 시골에서는 그런 문제가 없습니다.

그들은 가난하지만 모두가 깨끗하고 단순합니다. 그들은 모두 수행하기를 좋아하고, 사람들에게 평화로운 분위기를 전해 줍니다. 그들의 아이들은 어려서부터 명상하는 것을 배워서, 어른이 되면 당연히 좋은 사람, 성인聖人·대수행자·큰스님이 되지요. 이것이 그들의 일반적인 생활 모습입니다. 그러나 이곳에서는 나이가 들 때까지도 수행을 하지 않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게다가 고작 사나흘 수행을 하고는 도망가 버려서 몇 년 동안은 보이지 않는 사람도 있지요. 어떤 사람은 선철에 한 번 참가했다가 견디질 못하고 가 버린 다음 다시는 나에게 돌아오지 못하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나에게 야단맞을까 봐 두렵기도 하고 수행의 고통을 견디지도 못하기 때문이지요.

Q: 인도에서 영어가 통합니까?

A: 인도 사람들은 영어와 힌두어 모두 사용합니다. 그렇지만 대다수가 힌두어를 사용하지요. 방언도 많습니다. 거의 모든 인도인들이 영어를 할 줄 압니다. 설령 모른다고 해도 당신에게 “Straight ahead(직진하세요).” 또는 “Very good(아주 좋습니다).”이라는 말은 해줄 수 있을 거예요. 당신이 그에게 반나절을 이야기한다고 해도 언제나 그는 당신에게 “Straight ahead.”라는 한 마디로 대답하며 웃어 줄 겁니다. 당신이 알아듣지 못한다 하더라도 상관하지 않습니다. 세상에는 본래 아무 일이 없으니까요. 당신은 당신의 갈 길을 가고 그는 그

의 갈 길을 가는 거지요. (대중 웃음)

만일 당신이 그에게 어디 어디 지방을 어떻게 가느냐고 묻는다면 그는 여전히 “Straight ahead.”라고 대답할 거예요. 좌회전이나 우회전을 해야 하더라도 그는 상관하지 않습니다. 그러니 당신이 그가 말해 준 대로 간다면 결코 그 지방을 찾지 못할 겁니다. 다른 사람에게 물어봐도 그 역시 “Straight ahead.”라고 대답할 거예요. (대중 웃음) 그의 말을 듣고 그대로 간다면 당신은 목적지에서 갈수록 멀어지게 되어서, 본래는 북쪽으로 가려고 했는데 거꾸로 남쪽으로 가 버린 꼴이 될 겁니다. 마지막에는 반드시 기차를 타고 되돌아와야 하겠지요. 그래서 인도에 가면 꼭 조심해야 합니다. 그 사람이 정말로 영어를 아는지 확실하게 물어봐야 합니다. 만일 그 사람이 “Straight ahead, Ok, Very good.”이라는 대답만 한다면 그를 믿지 않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영어를 모르는 사람도 그런 말은 할 수 있으니까요. 인도에서는 아주 재미있습니다. 모두 “Ok, Very good, How are you?”라는 말을 할 줄 알지요. 아이들도 그렇습니다. 게다가 서로 알든 모르든 상관없이 사람을 보면 모두 웃습니다.

당신 같은 아가씨가 그곳에 가서 무엇을 하겠어요? 당신은 포모사에서 너무나 오랫동안 그저 편안하게만 살았습니다. 택시를 타면 냉방장치가 되어 있는 것은 물론이고, 여름에도 뜨거운 물이 있어야 목욕을 하지요. 이렇게 지내다 인도에 간다면 이틀도 견디지 못할 겁니다. 2km를 걷고 나면 곧 누워 버리고 말겠지요. 더구나 가져간 짐이 많다면 움직일 수도 없을 겁니다. 왜냐하면 어떤 곳은 차도 없고 말도 없어서 자기 짐은 자기가 짊어지고 걸어야만 하거든요. 거

기다 친구와 함께 여행하는 것이 아니라면 더 큰 문제입니다. 여자 친구 한두 명만이라도 함께 갈 수 있다면 그나마 괜찮지요.

크스승은 아무 때나 사람들에게 자신의 모습을 드러내지는 않습니다. 설령 그가 당신의 바로 앞에 서 있다고 해도 반드시 인연이 있고 복이 있어야만 알아볼 수 있습니다. 그가 수행하는 것은 당신에게 보이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당신이 포모사에서 왔다고 하면 그는 어쩔 당신을 보고 싶어하지 않을 거예요. 오히려 당신이 고기를 먹어서 자기가 있는 곳을 오염시켰다고 생각하고는 평범한 사람들 집에조차도 들어가지 못하도록 할 겁니다. 그리고 그들은 모두 꼭꼭 숨어서 수행을 하기 때문에 우리는 그들이 수행하는 곳을 찾을 수가 없습니다. 게다가 어떤 곳은 그들은 갈 수 있어도 우리는 갈 수가 없지요. 그들은神通神通을 사용해서 올라갈 수가 있지만 우리 같은 보통 사람들은 ‘인통人通’을 사용해서 가려니 올라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들이 수행하는 것은 우리에게 보이기 위해서도 아니며 많은 제자들을 붙잡기 위해서도 아닙니다. 그들은 숨어서 청정하게 수행하는 것을 좋아합니다. 나처럼 이렇게 어리석게 나와서 중생과 함께 하려고 하지를 않습니다. (대중 박수)

여러분 정말 가고 싶지 않습니까? (제자: 스승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너무 신기해서 저희들 모두 정말로 가고 싶습니다.) 그러나 내 눈으로 보는 것과 여러분이 보는 것은 다릅니다. 여러분이 인도에 간다면 어쩌면 더러운 면만을 볼 수도 있어요. 여러분은 갠지스 강이 이렇게 더러운데 어떻게 마실 수가 있느냐고 할 겁니다. 그러나 나는 오히려 그곳이 좋습니다.

Q: 스승님께서서는 명상을 할 때 꼭 가부좌를 하지 않아도 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모든 대수행자들이 다 가부좌를 했는데, 가부좌를 하면 비교적 쉽게 선정에 들 수가 있는 겁니까?

A: 혜능대사가 계속 가부좌를 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렇다고 가부좌를 하지 말라고 하는 건 아니에요. 어떤 자세로 앉든 당신에게 알맞은 자세로 앉으면 됩니다. 나중에 습관이 되면 가부좌로 명상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막 시작했을 때는 너무 무리하지 마십시오. 어떤 사람은 몸이 아파서 가부좌를 할 수가 없는데, 그렇다고 해서 그 사람이 수행을 할 수 없을까요? 어떤 사람은 다리가 없는데, 그렇다고 해서 그더러 수행하지 말라고 하겠어요? 마땅히 평등해야 합니다. 누구나 수행할 수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높은 곳에서는 명상을 잘 못합니다. 높은 곳에 앉아서 삼매에 들기가 쉽지 않고 떨어질까 봐 두렵기도 하지요. 그래서 내가 여러분에게 명상이 끝난 뒤에야 조용히 위층으로 올라가게 하는 것입니다. 높은 의자에 앉아 명상을 한다면 반드시 등받이가 있어야 하지요. 안 그러면 선정에 든 뒤에 떨어질 수도 있는데 어떡합니까? 만일 의자에 앉아서 명상을 한다면 등을 곧게 펴고 앉아야 문제가 없습니다. 그리고 누워서도 명상을 할 수 있습니다. 홀가분하게 이완할 수만 있다면 언제든 삼매에 들 수가 있습니다.

너무 자신을 몰아붙인다면 어떻게 선정에 들 수가 있겠습니까? 몸 어딘가가 아프면 마음이 그곳으로 달려갈 텐데요. 평소에는 자기에 다리가 있다는 것을 특별히 느끼지 못하다라도 명상할 때만 되면 두 다리 모두 시끄럽게 굴어서 심지어는 다리가 세 개로 변하기

까지 합니다. (대중 웃음) 여기도 아픈 것 같고 저기도 아픈 것 같지요. 평소에는 다리가 있다는 것을 느끼지도 못했는데 지금은 오히려 다리가 여러 개로 더 많이 늘어난 꼴이 되고 말았습니다. 이러면 정말 이지 방법이 없어요. 제일 좋은 것은 주의력을 자기 다리 위에 두지 않고 지혜안에 두는 것입니다.

선철을 할 때 동수들은 저마다 여러 가지 자세로 명상을 합니다. 어떤 사람은 이렇게 앉고 어떤 사람은 저렇게 앉지만 모두들 높은 체험을 하지요. 그러나 다른 선사들의 선방에서 배우는 학생들은 가부좌도 하고 등도 아주 곧게 펴고서는 꼼짝도 하지 않고 앉아 있지만 아무런 체험도 없습니다. 내가 전에 그런 선철에 참가해 본 적이 있어서 아는 거예요. 사실 별거 없이 그저 고통스럽기만 할 뿐입니다.

사람들은 모두 수행이 꼭 고통스러워야 한다는 잘못된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실 수행은 그렇게 고통스럽지 않습니다. 우리가 본래 부처인데 어떻게 그렇게 고통스러울 수가 있겠어요? 내가 고통을 당했던 것은 업장 때문입니다. (대중 웃음) 한 사람이 다른 사람들의 고통을 대신 받음으로 해서 다른 많은 사람들은 다시 그 고통을 당할 필요가 없게 되는 것이지요. 석가모니불은 6년 동안 힘들게 고행했습니다. 하지만 그의 제자들은 그렇게 힘들게 수행할 필요도 없이 아라한이나 불퇴보살이 되었고, 일세에 성불할 수가 있었습니다. 모든 사람이 다 석가모니불처럼 그렇게 고행해야 하는 것은 아니었지요. 왜냐하면 그가 지닌 복이 그의 제자들에게 나눠 주기에 충분했으니까요.

수행하는 것은 그렇게 고통스럽지가 않습니다. 전에 석가모니불

은 고행을 하고 외도를 닦았기 때문에 그렇게 고통스러웠던 것입니다. 그때는 그도 몰랐으니까요. 그러나 그가 이해하고 난 뒤에는 바로 가장 밝게 빛나는 이 길을 찾았고, 다른 사람들을 인도해서 데려갈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첫 번째 사람이 막 수행을 할 때는 길을 찾지 못할 수도 있어서 좀더 고생스럽게 수행하기도 하지만, 두 번째 사람은 첫 번째 사람이 걸어간 길을 따라 수월하게 갈 수 있고 문제도 없습니다. 그러니 여러분은 히말라야 산에 간다고 해도 별 소용이 없습니다. 그저 나를 따라 배우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8장

팔경법의 새로운 해석

8장

팔경법의 새로운 해석

1987. 12. 29. 포모사 타이베이 신디엔

여러분은 부모가 자녀를 어떻게 생각하는지 알고 있습니까? 여러분이 어떤 사람이 되든, 이를테면 여러분이 왕이 되었다고 해도 부모는 여전히 여러분을 자기들의 아이라고만 생각할 뿐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여전히 여러분을 안아 주려고 할 것이며, 여러분을 위해 사랑의 마음으로 참으로 많은 일들을 하려고 할 겁니다. 석가모니불은 부모의 이런 마음을 이해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자기 이모가 출가한 뒤에 이런 일이 일어날까 봐 걱정했던 것입니다. 그는 이미 성불하여 하늘과 인간의 스승이 되었기 때문에 범부의 어머니에게 규제당할 수 없었습니다. 결코 그가 효순하지 않아서가 아니라, 그렇게 된다면 법을 전하는 일이 쉽지 않을 것이고 곳곳에서 불편하고 어색함을 느끼게 될 것이기 때문이었지요. 한 사람이 늘 옆에 붙어서 하는 일마다 간섭하고 이것저것 물어보며 이렇게 저렇게 하라고 시키면서 구속한다면 어떻게 법을 펼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석가모니불은 자기 이모가 출가하는 것을 허락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아난이 그녀를 위해서 여러 차례 간절히 애원한 다음에야 석가모니불은 이모가 출가하는 것을 허락했습니다. 이 팔경법(八敬法)은 아마 석가모니불이 자기 이모가 출가의 마음을 거두고 돌아가도록 하려는 생각에서 말한 것일 겁니다. 만일 그의 이모가 출가하는 것을 받아들인다면 그 뒤로 많은 여자들을 받아들여야만 했기 때문에 그는 아주 걱정스러웠던 겁니다. 남녀가 오랫동안 함께 있게 되면 문제가 생길까 봐 염려스러웠지요. 왜냐하면 그때까지는 아직 남녀가 함께 모여서 수행한 적이 없었으니까요.

옛날과 지금은 다릅니다. 지금은 어디서나 여자들을 볼 수 있지만 전에는 그것이 그렇게 흔한 일이 아니었습니다. 알겠습니까? 여자들은 모두 숨어 지내야 했으며, 밖에 나가려고 해도 반드시 누군가와 함께 다녀야 했기 때문에 낯선 사람이 접근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때는 결혼하기 전에 미리 아내가 될 사람의 모습이 어떤지 알 수도 없었어요. 신부가 너무 못생겼다고 해도 결혼하고 난 뒤에는 참고 받아들여야만 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여자를 비구니로 받아들인다면 사회적으로 아주 큰 문제와 변화가 생길 것이며, 수행하는 남자 대중의 단체에도 많은 영향을 끼칠 것임을 석가모니불은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모가 출가하는 것을 받아들일 수가 없었던 것이지 결코 비구니가 비구보다 수행을 잘하지 못한다는 뜻이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그가 밖에 나갈 때는 비구와 함께했었는데 만일 비구니

가 온다면, 예를 들어 그의 이모나 그의 아내, 또는 황궁의 여자들이 와서 그에게 출가한다면 지난날 위세가 대단했던 자신들의 행차 때의 습관을 쉽게 바꾸지 못해서 비구에게 이것저것을 지휘하거나 야단치는 일이 벌어지지 않을까 그는 걱정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비구니는 반드시 비구에게 정례(頂禮) (이마가 땅에 닿게 몸을 구부려서 하는 절) 해야만 한다고 정했던 것입니다. 게다가 비구는 그와 함께한 지 아주 오래되었고 비구니는 누구든 모두 출가한 지 얼마 안 된 사람들이니 당연히 비구에게 정례하는 것이 맞지요. 이해하겠어요?

석가모니불은 그녀들 자신이 황실의 혈통이라는 생각을 버리지 못한 채 승단에 와서도 여전히 귀족 행세를 하면서 출가 생활이 얼마나 청빈한지, 그와 함께 수행하는 비구들에게 어떠한 도와 덕이 있는지 깨닫지 못할까 봐 걱정이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를 따라서 수행하는 많은 비구들은 황실에서 온 사람들도 아니고 상류 사회의 신분을 가졌던 사람들도 아니었으니까요. 어떤 사람은 아주 가난하거나 지위가 낮았는데, 그의 이모나 아내가 출가한 뒤에 혹시라도 그런 비구들을 업신여길까 봐 염려되었던 것이지요. 자신들이 석가모니불의 친척이라는 것을 믿고서, 그런 관계에 의지해서 비구에게 좋지 않게 대한다든지 비구를 존중하지 않아서 업장을 지을까 봐 걱정했던 것입니다.

아마도 이런 까닭에 석가모니불이 그렇게 엄격하게 자기 이모에게 물었을 겁니다. “당신은 이런 논리에 맞지 않는 계율을 지킬 수 있겠습니까? 그럴 수 있다면 당신을 받아들일 것입니다.” 이것은 본래 석가모니불이 그녀를 다그쳐 돌려보내려는 뜻에서 했던 말이었습니다.

다. 너무 엄격해서 그녀가 스스로 논리에 맞지 않다고 느낀다면 곧바로 힘들다 생각하며 물러설 테니까요. 그러나 그녀가 어떠한 조건이든 기꺼이 받아들일 것이라고는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그녀의 도심이 워낙 견고하고 겸손해서 결국 석가모니불은 그녀를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 팔경법은 아마 석가모니불로부터 유래되었을 겁니다. 그러나 그것은 그때의 특수한 상황 때문에 그렇게 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오늘날 그런 일에 집착해서는 안 됩니다. 이해하겠습니까? 왜냐하면 오늘날의 상황은 다르니까요. 석가모니불은 이미 세상을 떠났고 우리는 세상에 살아 있는 다른 부처에게 배우고 있으므로 그의 조건은 다릅니다. 시대가 다르기 때문에 그의 조건 또한 마땅히 달라야 합니다. 계율은 나라의 법과 같아서 변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나라마다 법이 다르고, 그 법도 시대마다 변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대중: 그렇습니다.)

전에는 차가 없었으니 당연히 교통에 관한 법도 없었습니다. 차를 어떻게 운전해야 하고 행인은 어떻게 가야 한다는 규정이 없었으며, 또한 신호등도 없었습니다. 그렇지만 오늘날에는 신호등이 있고 오토바이·자전거·비행기·자동차·기차 등이 있습니다. 만일 우리가 여전히 고대의 보행법에 의지한다면 통용되지 않겠지요.

요순시대에는 물건이 밖에 떨어져 있어도 주워 가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게다가 저녁에도 문을 닫을 필요가 없었지요. 그렇지만 요즘은 저녁이 되었는데도 문을 닫지 않는다면 곧바로 문제가 생길 거예요. 요즘은 문을 닫아야 될 뿐만 아니라 잠가야 하며, 밖에 쇠

창살이나 쇠문까지 덧달아야 합니다. 그렇게 해도 충분히 안전한 것은 아니지요. 요순시대에는 그렇지 않았는데 지금 왜 내가 문을 달아야 하느냐고 해서는 안 됩니다. 자신의 지갑은 자신이 잘 챙겨야지 일부러 길에다 두고 사람들에게 줘지 말라고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지갑을 주머니에 단단히 넣어 두었다고 해도 소매치기를 당할 수도 있는데 하물며 길에다 놓아두다니요? (대중 웃음) 돈을 은행이나 집안에 둔다고 해도 사람들이 몰래 문을 열고 들어와서 훔쳐갈 수도 있는데, 길에다 뺨히 놓아두고는 아무도 주워 가지 않기를 바란다는 게 어떻게 가능할 수 있겠습니까?

시대가 다르면 계율도 다릅니다. 고대의 것에 의존해서는 안 됩니다. 하지만 기본적인 계율, 이를테면 ‘훔치지 마라’와 같은 계율은 지금도 여전히 유용합니다. 만일 출가자가 훔치러 간다면 얼마나 보기 흉하겠어요? 나라의 법도 그런 일에는 찬성하지 않습니다. 어떤 계율이든 모두 나라의 법과 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계율에 살생해서는 안 된다고 한 것처럼 나라의 법에도 살인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동물을 죽일 때도 그들이 고통스러워하는 것을 보면 우리는 견딜 수가 없는데 하물며 살인을 하라고 한다면 어떻게 할 수가 있겠습니까? 이것은 아주 기본적인 일입니다. 굳이 계율을 들먹일 필요도 없이 반드시 지켜야 되는 것이지요. 어떻게 출가자가 살생을 할 수 있겠습니까? 어떤 중생이든 사랑하고 보호하는 것은 아주 기본적인 일입니다.

간음하지 말라는 것 역시 당연한 일입니다. 출가자는 바빠서 시간이 없는데 어떻게 간음할 수 있겠습니까? 예를 들어 아내나 남편

을 돌봐야 한다면 언제 자신을 제도하고, 또 언제 중생을 제도하겠습니까? 게다가 아이를 몇 명 더 낳는다면 아침부터 저녁까지 바쁘게 보살펴야 할 텐데, 그러면 수행할 시간을 내지 못하는 것은 말할 것도 없고 재가자와 똑같이 변할 겁니다. 그래서 비구·비구니는 결혼할 수가 없습니다. 이것은 아주 논리적이지요. 만일 그들이 한 팔로 아이를 안고서 탁발한다면 자신이 먹을 것을 탁발하면서 이렇게 물어볼 겁니다. “혹시 우유도 있습니까?” (대중 웃음) 당연히 이래선 안 됩니다.

석가모니불이 그때에 정했던 계율은 모두 승단을 보호하고 수행상의 편의를 봐주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그들은 날마다 걷고 길에서 잠을 자는데 어떻게 아내나 아이가 있을 수 있겠어요? 살생하지 마라, 훔치지 마라, 간음하지 마라, 거짓말하지 마라, 술 마시지 마라 따위의 계율은 모두 기본적인 계율들입니다. 우리가 분명하게 알고 있어야 하며, 마땅히 최선을 다해서 지켜야 하는 것입니다. 그 밖의 계율들, 예컨대 두 주에 한 번씩 목욕해야 한다는 것이나 이틀에 한번 씻어야 한다는 것은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얼마 만에 한 번 씻든 모두 성불할 수 있다고 나는 생각합니다.

팔경법의 제1조에는 “비구니는 계를 받은 지 백 년이 되었다고 해도 이제 막 계를 받은 비구를 만났을 때는 정례를 해야 한다.”라고 규정해 놓았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규칙을 정말 석가모니불이 정한 것인지 아닌지 알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가 이미 세상에 없을 때, 바로 그가 열반한 지 4백 년 정도 지나고 나서야 경전이 문자로 쓰였으니까요. 그때부터 지금까지 벌써 2천 년이 지났으니 여기

저기 베끼고 번역하면서 잘못된 곳이 많이 생겼습니다.

이를테면 계율 가운데 한 부분에 “여자가 결혼을 했다면 12년이 지난 뒤에야 비구니계를 받을 수 있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러나 다른 번역에서는 “여자가 이미 결혼을 했다면 12세에 비구니계를 받을 수 있다.”라고 해 놓았습니다. 그런데 어울락에서는 “결혼한 여자는 반드시 이혼한 지 12년이 지난 뒤에야 비구니계를 받을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다양한 의견들이 많이 있습니다. 어떤 경전에는 아예 12세나 12년은 언급하지도 않고, 다만 숫자 12만 써 놓기도 했습니다. 우리 마음대로 추측해도 되는 것이지요. 그러니 때로는 경전이 그렇게 믿을 만한 것도 아닙니다.

지금 나는 가장 이름난 팔경법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왜냐 하면 많은 비구니들이 나에게 이렇게 말했으니까요. “제가 어디를 가든 비구들은 팔경법을 사용해서 비구니를 누르려고 합니다. 입을 열기만 하면 팔경법을 들먹이며 비구니는 반드시 자신들에게 정례해야만 한다고 시킵니다. 어떤 비구는 수행도 좋지 못하고 경전도 잘 모르면서 비구니들이 무조건 정례하기만을 바랍니다. 우리는 도저히 받아들일 수가 없어요.” 하지만 이것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비구에게 정례하는 것은 돌에게 하는 것과 같으니까요. 석불이나 목불에 대고 정례는 하면서 왜 살아 있는 부처에게는 하면 안 된다는 것이지요? 어떤 중생이든 모두 부처이니 우리가 그렇게 생각해 버리면 그만이에요.

이제 다시 이 팔경법을 석가모니불이 말한 것인지 아닌지를 이야기해 봅시다. 만일 ‘그렇다’고 한다면 왜 그렇게 말했을까요? 그것은

우리가 사는 세상이 줄곧 남자를 중시하고 여자를 경시해 왔기 때문입니다. 어떤 나라에서든 마찬가지입니다. 아시아에 있는 나라에서는 더 심하지요. 이런 남존여비의 관념은 벌써 몇 천 년 동안 이어져 내려왔기 때문에 이제는 바꾸려고 해도 방법이 없습니다. 여자 혼자서 외출하는 것이 왜 곤란한 일이었을까요? 왜 거의 모든 여자들이 외출을 하지 않았던 걸까요? 그 이유는 여자 혼자 밖에 나갔을 때 늘 남자에 의해서 문제가 생겨 위험해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자 혼자서 밖에 나가 흥법을 한다든지 장사를 한다든지 어떤 모험적인 일을 하기가 그리 쉽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로부터 지금까지 여자가 유명해진 경우는 아주 드물지요. 이를테면 여자가 군인이 되려고 해도 남자로 변장을 해야만 했습니다. 화무란(花木蘭)을 비롯한 다른 여자 영웅들도 그랬습니다. 어울락에서 전해 내려오는 관세음보살의 전설에도 관세음보살이 남자로 변장하고 계를 받았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큰 문제는 바로 남녀의 문제입니다. 예로부터 많은 나라가 서로 전쟁한 것도 모두 여자 때문이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많은 왕들이 자신의 왕위를 잃어버린 것도 여자 때문이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사업에 실패하고 생명이나 명예를 잃어버리는 것도 모두 여자 때문이지요. 그래서 남자들이 여자를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한 명의 위대한 인물 배후에는 어김없이 한 명의 위대한 여성이 있다고 합니다. 이 말의 뜻은 여자의 도움이 없었다면 그 남자가 그렇게 훌륭하게 될 수가 없었을 것이며, 그렇게 이름을 떨치지도 못했을 것이라는 말입니다. 나는 왜 일반 사람들이 이렇게 말하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우리는 그런 일에 상관하지 맙시다.

왜 여자를 그렇게 심하게 압박하는 계율이 필요했던 것일까요? 아마도 여자의 힘이 너무 컸기 때문일 겁니다. 남자는 여자를 한번 보기만 해도 곧바로 좋아하곤 합니다. 한번 보기만 해도 벌써 문제가 생기지요. 그러나 여자는 한 남자를 보고 돌아가서도 그렇게 쉽게 미련을 두거나 그리워하지는 않습니다. 그러기가 쉽지 않아요. 그렇지 않나요? 그렇지만 남자는 여자를 보면 비교적 쉽게 문제가 생깁니다. 그래서 석가모니가 성불한 뒤에 남자 제자들만 받았던 것입니다. 그 시대에는 남자만이 출가할 수 있었고 여자는 출가할 수 없었습니다. 석가모니불 다음부터 비구니가 있게 된 것이지, 그전에는 없었습니다.

어제 나는 여러분에게 인도에서는 여자 혼자서 외출한다는 것이 쉽지 않은 일이라고 말했습니다. 포모사·어울락·중국 같은 아시아 여러 나라에도 아직 남존여비 사상이 남아 있어서 남녀의 지위가 그다지 평등하지는 않지만, 그렇다고 여자 혼자서 길을 간다고 해서 그렇게 많은 문제가 생기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인도에서는 아주 큰 문제가 생깁니다. 여자는 영원히 혼자서 외출할 수가 없어요. 지금까지도 여전히 그렇습니다.

내가 인도에서 지낼 때 출가자의 옷을 입고 있었는데도 여자이기 때문에 문제가 있었습니다. 물론 출가자의 옷을 입기 전에는 더 많은 사람들이 나를 주목했지요. 어떤 사람은 나와 이야기를 해보려고 일부러 다가오기도 했지만, 그래도 내가 다 처리할 수 있어서 문제가 없었습니다. 출가자의 옷을 입은 뒤에도 여전히 같은 문제가 있

었습니다. 그래서 고대에 여자를 제자로 받아들인다는 것은 아주 큰 사건이었습니다. 마치 혁명과도 같았지요. 석가모니불은 이런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길 것임을 알고 있어서 여자를 제자로 받아들이는 것을 꺼렸던 것입니다. 그렇지만 그에게 와서 배우려고 했던 첫 번째 여자가 바로 자신의 이모였기 때문에 거절할 수 없었던 겁니다. 게다가 아난까지 이모를 위해서 여러 번 간청했기 때문에 석가모니불은 하는 수 없이 여자도 출가할 수 있도록 허락했던 것입니다. 아난은 말을 아주 잘했습니다. 그는 “부처님이시여! 이모는 당신이 어렸을 때부터 당신을 아끼고 사랑하며 보살펴 주었습니다. 당신은 그녀에게 보답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라고 말했습니다. 그가 이렇게 말을 하니 부처도 또다시 거절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아난은 부처의 충애를 가장 많이 받은 제자였습니다. 그가 여러 번 간청한 뒤에야 마침내 부처도 여자가 출가하는 것을 허락했습니다. 지금도 아난을 기념하기 위해 그의 사진을 모셔 놓은 비구니들의 사원이 많습니다. 이는 아난이 없었더라면 비구니가 없었을 테니 아난을 존중한다는 것을 나타내기 위해서지요.

팔경법의 제1조, “비록 계를 받은 지 백 년이 된 비구니일지라도 처음 계를 받은 비구를 보면 마땅히 일어나서 맞이하며 합장하고 절을 한 다음 앉도록 청해야 한다(雖百臘比丘尼, 見初受戒比丘, 應起迎禮拜問訊, 請坐坐).”를 봅시다. 왜 석가모니불이 이렇게 말했을까요? 석가모니불은 이모가 자신이 있는 곳으로 왔을 때 출가하고자 하는 마음이 아주 굳건했기 때문에, 그녀의 굳은 결심을 보고는 그녀를 돌아가게 할 방법이 없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는 이모가 신발도 신지 않

고 온몸에 먼지를 뒤집어쓴 채 다 해진 옷을 입고 있는 것을 보았는데, 그건 그녀가 아주 먼 곳에서부터 걸어왔다는 걸 보여 주는 것이었습니다. 석가모니불은 그 모습을 보자마자 곧 두려워졌지요. 그녀가 기필코 출가하려고 한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그는 어떤 방법으로 그녀를 돌려보낼지 재빨리 생각해야 했습니다.

왜 석가모니불은 자신의 이모가 출가하는 것을 염려했을까요? 첫 번째는 이모가 황실의 혈통이며 국모였기 때문에 청빈한 생활에 익숙하지 않아서 나중에 견디지 못할까 봐 걱정되었던 것입니다. 신하들이 앞뒤로 옹위하며 따르는 것이 황궁에서의 생활이고, 또 그런 신하들의 보살핌을 받는 것에 익숙해져 있을 테니, 나이도 많은 지금 어떻게 승가 대중의 단체에 들어올 수 있을지 염려가 되었던 것입니다. 부처의 승가 대중은 모두 남자라서 그녀를 보살필 사람이 아무도 없었거든요. 어떻게 남자 출가자가 여자 출가자를 돌볼 수 있겠습니까? 그들은 독신 생활에 익숙해져 있고 아직은 자신조차 제대로 돌보지도 못하는데 어찌 노인까지 돌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게다가 이모는 황실 사람이라서 그녀가 원하는 물건이란 것이 그렇게 손쉽게 구할 수 있는 것들이 아니었습니다. 전에는 그녀가 명령만 한번 내리면 곧바로 몇 백 명의 신하들이 그것을 찾으려고 재빨리 움직였지만, 지금 이곳에 와서도 똑같이 생활하기를 바란다면 문제가 아닐 수 없었지요. 부처가 그녀에게 잘못된다면 효순하지 않은 것이 될 테고, 어쩌면 분위기가 좋지 않게 변할 수도 있었기 때문에 쉽게 그녀를 받아들일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녀는 부처의 이모이기 때문에 어디를 가든 부처를 포함

한 모든 사람들이 그녀를 존경할 것은 당연한 일이었습니다. 그렇게 되면 그녀를 규제할 방법이 없을 테고 그녀에게 무언가를 가르치려고 해도 전부 쉽지가 않을 테니 그녀의 예고가 갈수록 커져 자기의 권리를 믿고서 부처에게 이것저것을 가르칠까 봐 걱정이 되었습니다. 부처가 더 이상 범부도 아니고 그의 아들도 아닌 세존이라는 것을 잊을까 봐, 또 그가 현재는 우주의 자유인이며 우주의 보배라는 것을 잊을까 봐 염려되었던 것이지요. 그래서 석가모니불이 자신의 이모를 받아들이는 것이 그리 쉽지가 않았던 것입니다. 이 점에 대해서 나는 얼마든지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모가 그를 키웠으니 부처에게는 이모가 어머니와 같습니다. 그래서 어쩌면 이모가 다른 아라한들을 존경하지 않을 수도 있고, 끊임없이 이것저것을 요구하면서 계속 사람들을 지휘해서 모든 일이 번거로워질 수도 있었지요. 이렇게 다른 출가승들이 힘들어 한다면 부처도 일을 공평하게 처리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게다가 이모를 받아들인 후에 다른 후궁들이 모두 출가하려 온다면 어떻게 됩니까? 그녀들은 유난히 아름다우니, 이로 인해 비구들은 끝장이 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상상할 수 있겠어요? 후궁들은 황궁에서 너무 총애를 받아서 버릇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녀들은 아름다운 데다 응석받이이기도 하지요. 그런데 그런 후궁들이 만일 승단에 와서 추파를 던지기라도 한다면 비구나 아라한들이 어찌 끝장나지 않겠습니까? 그들은 이제껏 그렇게 아름다운 여자들을 본 적이 없기 때문에 혼비백산하게 될 겁니다.

이 밖에도 이모가 출가한 뒤에 병이 났을 때 후궁들이 그녀를 그

리워해서 다들 보러 올 수도 있습니다. 비록 그녀들이 출가하러 온 것이 아니라 다만 아픈 이모를 보러 온 것일 뿐이라고 해도 문제가 될 수 있으며 번거로워질 수 있습니다. 한 무리의 아름다운 여자들이 울긋불긋하게 화장하고 예쁘게 단장하곤 승가 대중의 단체에 와서 날마다 이모의 시중을 들며 하루 종일 그녀와 함께 웃고 떠들다면, 이것이 아라한이나 비구들에게 문제가 되지 않겠습니까? 석가모니불은 이모를 보자마자 바로 그런 결과가 있을 것을 두려워했기 때문에 이모를 받아들여려고 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렇지만 아난이 여러 차례 애원했기 때문에 할 수 없이 이모의 출가를 받아들였던 것입니다.

그는 본래 받아들일 생각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일부러 논리에도 맞지 않는 여덟 가지 조항의 엄격한 규칙을 정했던 것입니다. 이모가 그 규칙을 보고 놀라서 돌아가도록 할 생각이었던 것이지요. 알겠습니까? 이모는 본래 고귀한 풍격을 갖춘 황족의 혈통인 데다 국모였기 때문에 백성들도 모두 그녀를 존경했습니다. 그래서 계율 제 1조에 반드시 비구에게 정례해야만 한다는 규정을 넣어서 그녀가 그 규칙을 따를 수 있는지 없는지 지켜봤던 것이지요. 전에는 사람들이 모두 그녀에게 정례했었는데, 승단에 들어오자마자 입도 채 열기 전에 비구의 나이가 많고 적음을 막론하고 이제는 그녀가 모두에게 정례해야만 하는 상황이 되어 버린 것입니다.

석가모니불은 보통 사람이라면 곧바로 마음을 접을 것이라고 여겼습니다. 부처가 어떻게 그렇게 불합리하며 비논리적이냐고 생각하고는 어째서 백 살이 된 비구나라도 반드시 스무 살이 된 비구에게

정례를 해야만 하느냐고 따질 것이라고 여겼던 것입니다. 만일 그녀가 입을 열어 따지기만 한다면 바로 끝나는 것이었지요. 그러면 부처는 당장 말했을 겁니다. “좋습니다! 싫다면 즉시 떠나십시오. 내가 정한 규칙은 이렇습니다. 당신이 받아들일 수 있어야만 남아 있을 수 있습니다. 받아들일 수 없다면 떠나십시오.” 그래서 석가모니불은 일부러 팔경법이라는 것을 정했던 것입니다.

내 말은 이 팔경법을 정말로 석가모니불이 정한 것이라면 일부러 그렇게 정했다는 겁니다. 그의 이모가 그 법을 따르기 어렵다고 여기고 물러나게 하기 위해서 말입니다. 그렇지만 지금은 모든 사람들이 석가모니불이 팔경법을 세웠다고 하니, 나도 그들과 논쟁하고 싶은 생각이 없습니다. 팔경법 제1조의 해석이 논리에 합당합니까, 합당하지 않습니까? (대중: 합당합니다.) 석가모니불은 일부러 그렇게 정할 필요가 있었던 것입니다. 이모가 그 계를 받은 다음이라야 석가모니불도 그녀를 규제할 수가 있고, 그녀를 다른 승가 대중과 똑같이 평등하게 대할 수 있기 때문이었지요. 그렇지 않았다면 그녀는 자신이 아주 특별하다고 생각했을 겁니다. 알겠습니까?

그녀는 본래 특별했습니다. 비구니가 된 뒤에는 더욱 특별해졌지요. 부처의 이모이자 가장 위대한 스승의 어머니가 비구니가 되었으니 더더욱 특별해질 수밖에요. 그래서 석가모니불은 먼저 그녀의 예고를 눌러 그녀 스스로 자신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느끼게 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결국 그녀가 부처뿐만 아니라 젊은 비구에 게까지도 정례하면서 자신의 신분을 알게 될 것이라고 생각했던 것이지요. 부처의 뜻은 그녀가 승단에 와서 왕이 되는 것이 아님을 알

게 하고 그녀의 예고를 누르고자 함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모의 태도만 보아도 그녀가 얼마나 간절하게 도를 구했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그렇게 간절하지 않았다면 그녀는 즉시 가 버렸을 테니까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제 제2조 “비구를 욕하거나 비방해서는 안 된다(不得罵謗比丘).”와 제3조 “비구의 죄를 거론하거나 그 과실을 말할 수 없다. 비구는 비구니의 과실을 말할 수 있다(不得舉比丘罪, 說其過失, 比丘得說尼過).”를 설명하겠습니다. 이모는 황족의 혈통이었기 때문에 사람들에게 지시하는 것에 익숙해져 있어서 그곳에 와서도 사람들을 찾아다니며 문제를 일으킬 가능성이 있었습니다. 이를테면 이 비구는 밥 먹는 것이 보기 좋지 않다거나 저 비구는 아주 더러우며 황실의 풍격이 없다고 비평할 수도 있었지요. 석가모니불은 그의 이모와 이십여 년을 함께 살다가 헤어져서 그녀의 성격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말했던 것입니다. 알겠습니까? 그렇지 않다면 그렇게 엄격해야 할 이유가 어디 있겠어요?

보통의 경우 사람들은 자신의 어머니가 찾아온다면 차근차근하게 이렇게 설명할 것입니다. “어머니께서 꼭 알고 계셔야 할 일이 있습니다. 어머니께서 출가하시는 것은 진심으로 환영하지만 반드시 저의 지위를 이해하셔야만 합니다. 저는 아들로서 어머니를 모실 수가 없습니다. 저는 대중을 모두 공평하게 대하기 때문에 어쩌면 어머니께서 마음이 괴롭고 상하실 수도 있을 겁니다. 이제부터 저는 어머니 개인의 아들이 아닙니다.”

우리라면 이렇게 차근차근 어머니를 이해시킬 것입니다. 부처처

럼 “비구니는 반드시 비구에게 정례해야만 한다. 백 살이 된 비구니라 할지라도 스무 살이 된 비구에게 정례해야만 하며, 또한 비구니는 비구를 험담해서도 안 된다. 그렇지만 비구는 비구니를 비평해도 문제가 없다.”라며 단번에 엄격하게 규정하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어쩌면 석가모니불은 이모의 다소 강한 성격을 그다지 좋아하지 않았을 수도 있습니다. 석가모니불은 그녀의 친아들이 아니라 그녀의 언니의 아들이었습니다. 성격이 다른 여러 사람이 함께 모여 살 때는 마땅히 많은 문제들이 생기게 마련입니다. 이를테면 부모자식이나 언니동생이라고 해도 문제가 생기게 마련이지요. 그래서 석가모니불은 이모가 들어오자마자 먼저 분명하게 “당신은 반드시 알아야만 합니다. 당신은 이곳에 문제를 일으키러 온 것이 아닙니다.”라고 말했던 것입니다. 이것은 그들 사이의 문제이고 나는 이렇게 객관적으로 관찰했을 뿐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석가모니불이 어떻게 자신이 가장 사랑하는 사람을 그렇게 엄격하게 대할 수가 있었겠어요? 아마도 석가모니불이 보기에 그녀의 성격상 마땅히 그런 방법을 사용해야만 그녀를 가르칠 수 있고, 그녀의 예고를 없앨 수 있으며, 그녀가 수행을 잘하고 진보해서 어서 빨리 도를 이루도록 도와줄 수 있다고 여겼을 것입니다.

팔경법 제2조와 제3조의 내용은 거의 비슷합니다. 석가모니불은 자기 이모가 사람들을 비평하기 좋아한다는 것을 알고 있었을 겁니다. 황궁에서는 늘 그녀가 사람들을 비평하곤 했기 때문에 신하나 아들·며느리를 비평할 때는 모두들 감히 뭐라고 하지 못했겠지요. 그렇지만 승가 대중의 단체에 온 이상은 달랐습니다. 그때 석가모니

불을 따르던 비구들은 모두 수행을 아주 잘했고, 게다가 출가한 지 도 오래되었습니다. 그들은 고되게 수행해서 어떤 사람은 아라한이 되었고, 어떤 사람은 보살이 되었으며, 어떤 사람은 사다함이 되었는데, 이모가 거기에 와서 범부의 마음으로 그들을 업신여긴다면 안 될 일이었지요. 게다가 승단에 와서도 여전히 비평하는 태도를 버리지 못한 채 그들을 험담한다면 그건 더욱 안 될 일이었습니다. 석가모니불은 이모가 업장을 지을까 봐, 구업口業을 지을까 봐 걱정이 되었던 것입니다.

범부는 아라한이나 보살을 비평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석가모니불이 먼저 그녀에게 자신의 신분을 알도록 분명하게 알려주었던 것입니다. 그녀는 나이가 들어서 출가했기 때문에 공덕도 얼마 되지 않은 데다가 사람들을 비평하는 습관까지 있으니 그곳에 오자마자 바로 구업을 짓기가 쉬웠지요. 그래서 먼저 분명하게 다음과 같이 말해 주어야 했던 것입니다. “설령 당신이 비구니가 되었다고 해도 마음대로 비구를 험담해서는 안 됩니다. 하지만 그들이 당신을 험담하는 것은 관계없습니다.” 석가모니불이 이렇게 말한 것은 그가 불공평해서가 아닙니다. 그가 그렇게 말한 뜻은, 그 비구들은 벌써 아라한이나 성인이 되었기 때문에 그들의 견해가 비교적 정확하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성인의 안목으로 마음을 공평하게 쓰는 것이지 차별하는 마음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는 뜻이지요.

예를 들어, 그의 이모가 어떤 일을 잘못했을 때 비구들은 “당신은 그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라고 그녀에게 말할 수도 있습니다. 그들이 부처를 대신해서 그녀를 가르치는 것이니까요. 그래서 부처는

비구들이 그녀의 잘못된 점을 말할 수 있도록 허락한 것입니다. 이해하겠습니까? 이모가 이제 막 와서 배운 것도 그다지 많지 않고 규칙도 잘 모르기 때문에 많은 실수를 할 수가 있습니다. 또 나이가 들면 정신이 없어서 일을 엉망으로 해 놓기도 하고, 열심히 하지도 않으면서 종종 다른 사람을 야단치기도 하니까요. 황궁에서 몸예 배인 습관 때문이지요. 그래서 석가모니불이 “당신은 비구니가 된 뒤에 비구의 잘못을 말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비구는 비구니의 잘못을 말할 수 있습니다.”라고 말한 것입니다.

이것은 나의 객관적인 관찰에서 나온 것입니다. 정말 이런 이유로 그랬다면 나도 석가모니불의 뜻에 찬성합니다. 왜냐하면 그 비구들은 석가모니불을 따라서 수행한 지 아주 오래되었고 수행도 잘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한 여자가 나타나서, 그것도 노인인 데다가 황실의 혈통이기까지 한 여자가 나타나서는 곳곳에서 자신들을 비평하고 규제하며 업신여기기까지 한다면 당연히 수행에 방해가 될 일이었으니까요. 그래서 석가모니불은 하는 수 없이 그렇게 엄격한 계율을 정한 것입니다. 그 계율은 부처의 이모가 살았던 시대와 그녀 개인에게는 알맞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이 시대나 다른 부처의 제자들에게는 맞다고 볼 수 없으며, 모두가 꼭 그래야만 하는 것도 아닙니다. 이 계율은 오직 그 시대에만 적용될 뿐입니다.

팔경법 제4조는 “큰 승가 대중이 모인 가운데 대계大戒 받기를 청해야 한다(於大僧中求受大戒).”입니다. 이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그때는 비구니가 없었는데 그녀가 어디에 가서 비구니계를 받을 수 있겠습니까? 부처가 말한 뜻은, 그가 개인의 감정이나 개인적인 관계 때

문에 특별히 그녀 한 사람을 위해서 비구니계를 줄 수 없다는 것입니다. 비구니계는 여자와 관련된 문제가 많기 때문에 그가 그녀 한 사람을 두고 말하기가 거북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 앞에서 말함으로써 사람들이 그들 사이에 아무런 문제도 없으며 서로 별 관계도 아니라는 것을 알게 했던 것입니다.

나중의 비구니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단독으로 한 명의 비구에게서 계를 받아서는 안 되고 반드시 대중과 함께 계를 받도록 했습니다. 알겠습니까? 또한 할 말이 있으면 해야 했습니다. 이를테면 여자 대중이 듣기에 그다지 좋지 않은 말이나 남자 대중 앞에서 말하기 꺼려지는 일까지도 말해야만 했습니다. 왜냐하면 대중 앞에서 말해 버리면 신비할 게 아무것도 없으니까요. 이런 이유 때문에 부처가 그렇게 규정한 것입니다. 이해하겠습니까?

부처가 그렇게 말한 뜻은 반드시 대중이 함께한 가운데 계를 받으라는 것입니다. 말을 하게 되면 얼굴이 붉어지거나 오해를 불러올 부분들이 많았으니까요. 여러 가지 생리적인 문제들에 대해 일대일로 이야기하게 된다면 감정이나 욕망이 일어날 수도 있겠지요. 그래서 부처가 “비구니는 반드시 큰 승가 대중이 모인 가운데 비구니계를 받아야만 한다.”라고 했던 것입니다. 이 점에 대해서는 나도 찬성합니다.

제5조는 “만약 승잔僧殘(자격이 일시적으로 중지되는 것)을 범했으면 반드시 이부二部(비구·비구니) 대중이 모인 가운데 보름마다 마나타摩那埵(대중으로부터 격리된 곳에 머물면서 죄를 참회하는 일)를 행해야 한다(若犯僧殘, 應在二部僧中, 半月行摩那埵).”입니다. 그들은 보름마다 한 번

씩 참회를 합니다. 대중 앞에서 참회를 하고 나면 곧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되지요. 이것도 당연한 일입니다. 비구와 비구니가 함께 모여서 수행하기 때문에 무슨 일이 있으면 모두 함께 공개적으로 해야 하는 것입니다. 내가 여기서 누구를 야단칠 때에도 공개적으로 야단쳐서 모든 사람이 그 사람의 업장을 나눠 가지도록 합니다. 내가 그렇게 공개적으로 야단치고 나면 그는 좋게 변하지만 다른 수행자들은 조금 나쁘게 변합니다. 왜냐하면 저마다 그가 지녔던 나쁜 것을 조금씩 가져갔으니까요.

그래서 내가 대중 앞에서 야단치는 것입니다. 여러분을 따로 불러서 야단치지 않고 언제나 대중 앞에서 공개적으로 야단친다고 나를 탓하지 마십시오. 그건 대중 앞에서 야단치는 것이 아주 유용하기 때문입니다. 그들 모두 여러분의 업장을 분담할 테니 한 사람이 조금씩 나눠 가지면 결국 여러분은 깨끗해집니다. 그런 이유에서 내가 공개적으로 대중 앞에서 여러분 대신 참회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제 알겠습니까? (그러나 만일 업장을 씻으려고 일부러 스승을 귀찮게 해서 야단치게 만든다면 오히려 업장이 아주 깊고 무거워집니다.) 그러므로 보름마다 대중 앞에서 자기 업장을 참회해야 합니다. 지금 여러분은 업장이 있건 없건 그저 묵묵히 수행 일기만 써서 나에게 보여 줄 뿐인데 혹시 업장을 모조리 나에게 주려는 건 아닌가요? (대중 웃음)

제6조는 “보름마다 승중 가운데 교수教授해 줄 사람을 청해야 한다(半月當從僧中求教授人).”입니다. 어느 단체든 언제나 새로운 사람이 오게 마련입니다. 또한 어떤 문제들에 대해서 정확하게 모르는 사람도 있게 마련이고요. 그래서 보름마다 한 번씩 다시 일깨워 주어

야만 하는 것입니다. 우리 이곳처럼 말이지요. 나는 항상 말해서는 안 되는 일이 어떤 일인지, 또 해서는 안 되는 일이 어떤 일인지 여러분에게 일깨워 줍니다. 여러분이 계속해서 잘못을 하기 때문에 내가 하는 수 없이 대중을 다시 일깨워 주어야 하는 것이지요. 그것뿐입니다.

제7조는 “비구가 없는 곳에서는 하안거(夏安居)를 해서는 안 된다(不得在無比丘處夏安居).”입니다. 조금 전 내가 말했듯이 인도에서는 여자 대중들끼리만 산다는 것은 아주 위험합니다. 반드시 남자 대중이 있어야만 하지요. 그렇지 않으면 바깥의 남자들이 와서 문제를 일으킬 테니 남자 대중과 함께 머무르는 것이 비교적 안전합니다. 그러면 다른 남자들도 감히 오지 못하겠지요. 그뿐입니다.

제8조는 “안거를 마치면 반드시 비구승을 찾아가서 삼사(三事)를 구해야 하니, 즉 보고 듣고 의심한 것을 자자(自恣)(자진해서 자기의 죄를 지적해 달라고 청하는 의식)해야 한다(安居竟, 應詣比丘僧中求三事, 自恣見·聞·疑).”입니다. 그때만 해도 이것은 당연한 일이었어요. 비구니는 모두 막 출가한 사람들이었던 반면 비구들은 모두 석가모니불에게 출가한 지 오래되었으니 당연히 그녀들의 선생이 될 수 있었습니다. 그것은 아주 간단한 일이었지요. 그렇지만 지금은 시대가 다르니 모든 비구가 무조건 비구니의 선생이 될 수 있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이해합니까? 이 조항의 계율에 대해서 현재 많은 사람들이 잘못 알고 있는데, 그것은 바로 모든 비구가 다 비구니의 선생이 될 수 있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석가모니불을 따라서 수행한 비구만이 그 당시 비구니의 선생이

될 수 있었습니다. 그것은 이전에는 비구니가 없었던 데다가 그때의 비구니들도 모두 막 출가한 사람들이었던 반면, 비구는 석가모니불에게 배운 지 아주 오래되었으며, 그중 많은 비구들이 아라한이 되고 성인이 되어 당연히 힘과 권력과 지혜를 갖추고 있어서 이제 막 배우기 시작하는 비구와 비구니를 가르칠 수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비구니만을 가르친 것도 아니었지요. 이것은 당연한 일이니 쉽게 이해할 수 있을 겁니다.

그렇지만 이 계율을 지금 시대에 인용하려고 해서는 안 됩니다. 오늘날에는 모든 비구가 다 비구니를 가르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시대가 다르고 부처가 다르다 보니 이제는 많은 비구니들이 비구보다 높은 지혜를 지니고 있습니다.

만일 오늘 비구 한 명이 우리 단체에 막 들어왔다면, 그는 먼저 우리 단체에 있는 비구니에게 배워야만 합니다. 내 말은 이곳에는 아직 정식으로 계를 받은 비구가 없기 때문에 비구니에게 배워야 한다는 뜻입니다. 왜냐하면 그녀들은 많은 일을 알고 있으며 우리 단체의 규칙들을 모두 이해하고 있으니깐요. 내가 벌써 다 가르쳐 놓았으니 그녀들은 내 가르침을 잘 알고 있지요. 그래서 그녀들에게 배워야 하는 겁니다. 예전의 팔경법을 뒤바꾸어야만 오늘날의 우리에게 맞는 것이지요. (대중 웃음)

팔경법에 대한 나의 해석은 이렇습니다. 정말 간단하지요? (대중: 예.) 시대가 다르면 계율도 마땅히 달라야만 합니다. 그러니 반드시 부처를 찾은 다음에 계율을 이야기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 부처가 계율을 정할 테니까요. 어찌면 그 부처는 아주 겸손하고 온화

하며 대중과 같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대중이 너무 어리석으면 그는 아마 다른 계율을 하나 더 정할 겁니다. 전에는 비구니의 계율이 없었기 때문에 석가모니불이 비구니계를 정해야만 했던 것처럼요. 알겠습니까?

마찬가지로 시대가 달라졌으니 어쩌면 새로운 비구니계가 생길 수도 있을 겁니다. 출가자는 반드시 가정을 떠나야 하고 개인적인 감정도 없어야 하지요. 만일 그런 감정이 있다면 대중을 위해서 버려야 합니다. 누구든 승단에서 함께 수행하고자 한다면 그런 계율을 받아들여야만 합니다. 개인의 감정은 놓아야만 하지요.

그래서 석가모니불이 육친의 감정을 버린 것입니다. 그는 이모에게 말했지요. “출가하고 싶다면 반드시 비구에게 정례해야 합니다. 다른 대중과 공평해야지 자신을 나의 이모라고 여겨서는 안 됩니다. 무엇을 하라고 시키면 시키는 대로 해야 합니다.” 부처가 이렇게 엄격했던 것은 바로 그녀가 부처의 육친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여러분, 이해하겠습니까? 만일 부처와 친척 관계가 아닌 다른 여자가 출가하려고 했다면 이 팔경법은 생겨나지 않았을 수도 있습니다.

어떤 경전이나 계율도 모두 나름의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는 반드시 정확하게 알아야 하지 맹목적으로 믿어서는 안 됩니다. 왜 그런지도 모르면서 사람들이 말하는 대로 굳게 믿고 의심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바로 지혜가 없는 것입니다. 석가모니불은 결코 사람들이 그렇게 어리석기를 바라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부처까지도 믿지 말라고 했던 것입니다. 우리는 남의 말을 무조건 믿어선 안 되며, 어떤 말이 참말인지 아닌지 증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렇게

해서 무엇이든 우리 스스로 찾은 뒤에야 믿을 수 있는 것입니다.

나는 아주 논리적인 사고를 가지고 있어서 논리에 맞지 않는 것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논리에 맞지 않으면 나는 끝까지 캐묻습니다. 계속 묻다가 논리에 맞으면 그때서야 그만두지요. 논리에 맞지 않는 것이라면 누가 말한 것이든 나는 영원히 믿지 않을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수행을 할수록 더 어리석어질 테고, 사람들이 말하는 대로 그냥 믿어 버리고선 왜 그런지에 대해서는 조금도 모르겠지요. 오늘날엔 고대의 계율을 적용할 수가 없는데 어떻게 그것을 가져다 쓸 수 있겠습니까? 내가 어제 말한 것과 같이 신농神農이나 요순堯舜시대에는 물건이 길에 떨어져 있어도 아무도 주워 가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오늘날에는 가방에 넣어 둔 물건이라 해도 소매치기를 해 가고 심지어는 은행이나 집에 보관해 둔 것도 누군가 들어와서 훔쳐 가는 데, 길에 둔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전에는 자동차·자전거·오토바이가 없어서 당연히 교통법규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만일 우리가 2, 3백 년 전이나 5천 년 전에 길을 갈 때 지켰던 규칙을 오늘날 적용하려고 한다면 분명 아무 소용도 없을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계율도 마찬가지입니다. 쓸 수 있는 것은 쓰고 쓸 수 없는 것은 버리십시오. 그렇지 않으면 진보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시대에 부합하지 못하고 맹목적으로 미신에 빠진다면 아주 안타까운 일이며 조금도 쓸모없는 일이겠지요. 계율에 대한 내 해석은 이렇습니다. 여러분도 찬성합니까? (대중: 찬성합니다.)

관음법문 입문과 5계

【관음법문 입문】

칭하이 스승은 진리를 구하는 신실한 사람들을 관음법문에 입문시킵니다. 한자로 ‘관음觀音’은 소리의 진동을 관觀한다는 뜻입니다. 이 법문은 내면의 빛에 대한 명상과 내면의 소리에 대한 명상, 두 가지로 되어 있습니다. 이 같은 내면의 체험은 고대로부터 세계의 모든 종교 경전에 반복해서 묘사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성경에는 “태초에 말씀이 있었고, 그 말씀은 하나님과 함께 있었으며, 그 말씀이 곧 하나님이니라(요한복음 1장 1절).”라고 써어 있습니다. 이 말씀은 내면의 소리입니다. 또한 이것은 로고스Logos·샤브드Shabd·도道·음류音流·나암Naam, 또는 천국의 음악으로 불려 왔습니다. 칭하이 스승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는 모든 생명의 내면에 진동하고 있으며, 온 우주를 지탱하고 있습니다. 이 내면의 선율은 모든 상처를 치유하고, 모든 갈망을 실현시키며, 모든 세속의 갈증을 해소시킬 수 있습니다. 이는 아주 강력하며, 사랑 그 자체입니다. 우리는 이 소리로 만들어졌으므로 이 소리와 만나면 우리의 가슴에 평화와 만족을 가져다줍니다. 이 소리를 들은 후에는 우리의 모든 것이 변하고, 우리의 인생관이

보다 올바른 모습으로 상당히 바뀝니다.”

내면의 빛, 즉 신의 빛은 ‘깨달음(enlightenment)’이라는 말에 언급된 것과 같은 빛입니다. 이 빛의 강도는 희미한 빛에서부터 수백만 개의 태양빛에 이르기까지 아주 다양합니다. 이 내면의 빛과 소리를 통해 우리는 신을 알게 됩니다.

관음법문 입문은 밀교적인 의식이나 새로운 종교를 갖는 의식이 아닙니다. 입문 중에는 내면의 빛과 내면의 소리를 명상하는 것에 대한 구체적인 지시가 있으며, 칭하이 스승은 ‘이심전심(以心傳心)’으로 법을 전합니다. 침묵 속에서 신의 존재를 처음으로 맛보게 됩니다. 여러분에게 이 문을 열어 주기 위해서 칭하이 스승의 육신이 함께할 필요는 없습니다. 이 이심전심의 전수야말로 이 법문의 가장 핵심적인 부분으로서, 스승의 가피가 없다면 명상법 자체는 거의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입문할 때 즉시 내면의 소리를 듣고 빛을 보기 때문에 이것을 ‘돈오頓悟’ 또는 ‘즉각개오(卽刻開悟)’라고 하기도 합니다.

칭하이 스승은 어떤 배경이나 종교에 구애됨 없이 모든 사람들을 입문시킵니다. 따라서 여러분은 현재의 종교나 신앙을 바꿀 필요가 없습니다. 또한 현재의 생활 방식에 맞지 않는 어떤 단체에 가입하라거나 참여하라고 요구하지도 않습니다.

그러나 비건 채식을 해야만 합니다. 평생 동안 비건 채식을 하겠다고 약속하는 것이 입문의 필수 조건입니다.

입문은 무료로 행해집니다.

관음법문으로 매일 명상하고 5계를 지키는 것이 입문 후의 유일한 조건입니다. 계율은 여러분이 자신과 다른 모든 중생을 해치지 않도록 도와주는 길잡이입니다. 이러한 수행은 첫 깨달음의 체험을 더 깊고 강력하게 해주며, 마침내 여러분 스스로 깨달음의 최고 경지, 또는 성불의 경지에 도달하도록 돕습니다. 그러나 매일 수행하지 않으면 깨달음을 잊게 되어 평범한 의식 수준으로 되돌아가게 됩니다.

칭하이 스승의 목표는 우리가 자립할 수 있도록 가르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스승님은 어떤 장치나 버팀목 없이 누구나 혼자서 수행할 수 있는 방법을 가르칩니다. 스승님은 추종자나 숭배자, 제자들을 구한다든지 회비를 걷는 단체를 설립하든지 하지 않습니다. 스승님은 여러분의 돈이나 선물 또는 큰절을 받지 않으므로 여러분은 이런 것을 공양할 필요가 없습니다.

스승님은 일상생활에서 여러분의 신실함과 여러분 스스로 성인聖人으로 진보하기 위한 명상 수행만을 받아들입니다.

[5계]

1. 살아 있는 모든 존재를 해치지 마라.¹⁾
2. 진실이 아닌 것을 말하지 마라.
3. 자기 것이 아닌 것을 취하지 마라.
4. 성적으로 그릇된 행동을 하지 마라.
5. 중독 물질을 취하지 마라.²⁾

1) 이 계율을 지키기 위해서는 비건 채식을 해야 합니다. 육류·유제품·어류·가금류·계란(유정란이나 무정란 모두)을 먹어서는 안 됩니다.

2) 이에는 술·마약·담배·도박·음란물, 그리고 지나치게 폭력적인 영화나 서적, 비디오 게임과 같은 모든 종류의 독극물이 포함됩니다.

간행물 안내

책

죽각 깨닫는 열쇠

독일어(1-2), 몽골어(1, 6), 스웨덴어(1), 스페인어(1-3), 어울락어(1-15), 영어(1-5), 인도네시아어(1-5), 일본어(1-4), 중국어(1-10), 태국어(1-6), 티베트어(1), 포르투갈어(1-2), 폴란드어(1-2), 프랑스어(1-2), 핀란드어(1), 한국어(1-11), 헝가리어(1).

죽각 깨닫는 열쇠 문답록

독일어(1), 러시아어(1), 불가리아어(1), 어울락어(1-4), 영어(1-2), 인도네시아어(1-3), 일본어(1), 중국어(1-3), 체코어(1), 포르투갈어(1), 폴란드어(1), 프랑스어(1), 한국어(1-4), 헝가리어(1).

1992년 선철 특별판

어울락어, 영어.

1993년 세계 순회강연집 특별판

영어(1-6), 중국어(1-6).

사제지간의 편지

스페인어(1), 어울락어(1-2), 영어(1), 중국어(1-3).

신기한 길을

어울락어(1-2), 중국어(1-2).

스승님이 해주신 이야기

스페인어, 어울락어, 영어, 일본어, 중국어, 태국어, 한국어.

삶을 다채롭게

어울락어, 영어, 중국어.

신은 모든 것을 돌보신다—칭하이 무상사의 지혜 만화집

어울락어, 영어, 일본어, 중국어, 프랑스어, 한국어.

후광이 너무 꼭 꺼요!—칭하이 무상사의 깨달음이 담긴 유머집

영어/중국어.

쉽게 수행하는 비결

어울락어, 영어, 중국어.

신과의 직접적인 연결—평화의 길

영어, 중국어.

신과 인류의 이야기—성경 이야기를 통한 고찰

영어, 중국어.

건강에 대한 깨달음—자연적이고 올바른 생활 방식으로 돌아가기

영어, 중국어.

나는 여러분을 고향으로 데려가기 위해 왔습니다

그리스어, 독일어, 러시아어, 루마니아어, 몽골어, 불가리아어, 스페인어, 아랍어, 어울락어, 영어, 이탈리아어, 인도네시아어, 중국어, 체코어, 터키어, 폴란드어, 프랑스어, 한국어, 헝가리어.

감문범어

독일어/프랑스어, 스페인어/포르투갈어, 영어/일본어, 영어/중국어, 영어/한국어, 영어, 중국어.

무상 주방(1)—전세계 채식 요리

어울락어, 영어/중국어, 일본어.

무상 주방(2)—가정식

영어/중국어.

음악으로 하나 된 평화의 세상

어울락어/영어/중국어.

칭하이 무상사 예술 창작집

영어, 중국어.

S.M. 천의집

영어/중국어.

사람스런 내 인생의 깨들(1, 2)

독일어, 스페인어, 어울락어, 영어, 일본어, 중국어, 폴란드어, 한국어.

사람스런 내 인생의 새들

독일어, 러시아어, 몽골어, 어울락어, 영어, 인도네시아어, 중국어, 프랑스어, 한국어.

고귀한 아생

독일어, 어울락어, 영어, 중국어, 프랑스어, 한국어.

천상의 예술

영어, 중국어.

삶과 의식에 관한 사색(아네즈 드르노프세크 박사의 저서)

중국어.

위기에서 평화로

노르웨이어, 네덜란드어, 러시아어, 루마니아어, 말레이어, 스웨덴어, 스페인어, 어울락어, 영어, 인도네시아어, 일본어, 중국어, 포르투갈어, 폴란드어, 프랑스어, 태국어, 한국어, 헝가리어, 텔루구어.

<http://www.crisis2peace.org>

시 작품집

침묵의 눈물

칭하이 무상사의 시집, 독일어/프랑스어, 스페인어, 어울락어/영어/중국어, 영어, 중국어, 포르투갈어, 필리핀어, 한국어.

무자시

칭하이 무상사의 시집, 어울락어, 영어, 중국어.

잃어버린 기억

칭하이 무상사의 시집, 어울락어, 영어, 중국어.

조약들과 황금

칭하이 무상사의 시집, 어울락어, 영어, 중국어.

나비의 꿈

칭하이 무상사의 시집, 어울락어, 영어, 중국어.

전생의 발자취

칭하이 무상사의 시집, 어울락어, 영어, 중국어.

그 옛날

칭하이 무상사의 시집, 어울락어, 영어, 중국어.

천년의 사랑

칭하이 무상사의 시집, 독일어, 러시아어, 몽골어, 스페인어, 어울락어, 영어, 중국어, 프랑스어, 한국어.

뮤지컬 진정한 사랑 영어.

뮤지컬 진정한 사랑 DVD.

전생의 발자취 (어울락어 시 낭송): 오디오테이프 & CD 1, 2, 3. DVD 1, 2(19개 언어 자막).

사랑의 전설로 가는 길

(저명한 어울락 시인들의 시를 어울락어로 낭송): 오디오테이프 & CD 1, 2, 3.

지난날과 지금 (어울락어 시 낭송): CD.

영원히 간직해 주세요 (어울락어 시 낭송): CD.

황기로운 손길 (유명 가수들이 어울락어로 부른 노래 공연): CD.

한밤의 꿈 (어울락어 노래 공연): CD & DVD.

시간의 그늘(시공을 초월하여) (어울락어 노래 공연): CD & DVD.

사랑으로 보살피주세요 (어울락어 노래 공연): CD.

칭하이 무상사 창작 가곡 모음집 (어울락어, 영어, 중국어 노래 공연): CD & DVD.

사랑의 노래 (어울락어, 영어 노래 공연): DVD.

황금 연꽃 (어울락어 시 낭송): CD & DVD.

보석 시집 (저명한 어울락 시인들의 시를 어울락어로 낭송): CD 1, 2 & DVD 1, 2.

고대의 사랑 (어울락어 시 낭송): CD & DVD.

조국 사랑 (어울락어 시 낭송): DVD.

잘 자라, 아가야 (영어 노래 공연): CD.

칭하이 무상사의 강연·음악·콘서트가 담긴 오디오 및 비디오테이프, MP3, CD, DVD는 다음 언어로 출판되어 있습니다. 광둥어, 그리스어, 네덜어, 네덜란드어, 노르웨이어, 덴마크어, 독일어, 러시아어, 루마니아어, 말레이어, 몽골어, 불가리아어, 스웨덴어, 스페인어, 슬로베니아어, 신할리즈어, 아랍어, 아르메니아어, 어울락어, 영어, 이탈리아어, 인도네시아어, 일본어, 줄루어, 중국어 간체·번체, 체코어, 캄보디아어, 크로아티아어, 태국어, 터키어, 페르시아어, 포르투갈어, 폴란드어, 프랑스어, 핀란드어, 필리핀어, 한국어, 헝가리어, 히브리어 등. 우리 서점 웹사이트를 방문하시면 칭하이 무상사의 최신 출판물 목록과 간략한 내용을 다문받을 수 있습니다.

<http://www.smchbooks.com/> (영어, 중국어)

칭하이 무상사의 출판물 온라인 주문

<http://www.theCelestialShop.com>

<http://www.EdenRules.com>

무료 견본책자 다운로드 사이트(80개 언어)

<http://sb.godsdirectcontact.net> (포모사)

<http://www.Godsdirectcontact.org/sample/> (미국)

<http://www.direkter-kontakt-mit-gott.org/download/index.htm> (오스트리아)

<http://www.Godsdirectcontact.us/com/sb>

주요 연락처

칭하이 무상사 국제협회

P.O.Box 9, Hsihu, Miaoli Hsien, Formosa, Republic of China

P.O.Box 730247, San Jose, CA 95173-0247, U.S.A.

수프림 마스터 텔레비전

이메일: Info@SupremeMasterTV.com

전화: 1-626-444-4385/ 팩스: 1-626-444-4386

<http://www.suprememastertv.com/kr>

경서 팀

이메일: divine@Godsdirectcontact.org

팩스: 1-240-352-5613/ 886-949-883-778

(스승님의 책을 각국 언어로 번역하실 분은 연락 바랍니다.)

뉴스그룹

이메일: lovenews@Godsdirectcontact.org

팩스: 1-801-740-9196/ 886-946-728-475

수행 상담소

이메일: lovewish@Godsdirectcontact.org

팩스: 886-946-730-699

온라인 상점

<http://www.theCelestialShop.com> (영어)

<http://www.EdenRules.com> (영어, 중국어)

SM 보석 주식회사

이메일: smcj@mail.sm-cj.com

전화: 886-2-2226-1345/ 팩스: 886-2-2226-1344

<http://www.sm-cj.com>

러빙푸드 온라인 쇼핑몰

<http://www.lovingfood.com.tw>

러빙훿 인터내셔널

전화: 886-3-468-3345

팩스: 886-3-468-1581

이메일: service@lovinghut.com

<http://www.lovinghut.com/tw>

포모사 칭하이 무상사 국제협회 출판사

이메일: smchbooks@Godsdirectcontact.org

전화: 886-2-8787-3935/ 팩스: 886-2-8787-0873

<http://www.smchbooks.com>

대한민국 칭하이 무상사 국제협회 출판사

이메일: chinghaikpt@yahoo.co.kr

전화: 82-54-535-9251

(영어나 중국어를 한국어로 번역하실 수 있는 분은 연락 바랍니다.)

대한민국 칭하이 무상사 무상예술 연락처

이메일: chinghaiyd@naver.com

전화: 82-54-532-5821/ 팩스: 82-54-532-5822

(해피요기·SM 보석·천의·만세등·그림 등의 주문을 원하시는 분은 영동 센터로 문의해 주십시오.)

관음 웹사이트

신과의 직접적인 연결-칭하이 무상사 국제협회 전세계 인터넷

<http://www.Godsdirectcontact.org.tw/eng/links/links.htm>

이 포털 사이트는 여러 나라 언어로 된 관음 웹사이트 링크를 제공하며 '수프림 마스터 텔레비전'에 24시간 접속할 수 있게 해줍니다. 또한 나라별 언어로 된 『즉각 깨닫는 열쇠』 견본책자를 다운로드하거나 칭하이 무상사 뉴스잡지를 전자책(eBook), 인쇄용 포맷으로 다운로드하거나 구독 신청할 수 있습니다.

즉각 깨닫는 열쇠 제6권

펴낸곳: SM출판사

주소: 경북 상주시 모서면 호음3길 205번지

전화: (054) 535-9251

이메일: chinghaikpt@yahoo.co.kr

웹사이트: <http://www.godsdirectcontact.or.kr>

출판 신고: 제511-5110000251002006000002호 2006년 3월 7일

이 책의 판권은 저자에게 있습니다.

출판사의 사전 허락을 얻으면 이 출판물의 내용을 복제해도 좋습니다.

우리 제자들은 과거 구도의 힘든 과정에서 완전히 깨달은 스승을 만나는 것과 진정한 법문을 구하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잘 알고 있습니다.

고대로부터 모든 참스승들에 의해 전해 내려온 이 법문은 우리 내면에 있는 지혜를 일깨워서 진리를 깨달을 수 있게 합니다.

이 법문을 수행하여 대단히 큰 이로움을 얻은 우리는, 우리와 같이 일세해탈—世解脫을 갈망하는 많은 구도자들을 돕고자 스승이신 칭하이 무상사(The Supreme Master Ching Hai)가 세계 각지에서 강연하신 내용을 책으로 엮었습니다.

이 책으로 여러분은 생명, 삶과 죽음, 수행과 진리 등 모든 의문에 대한 해답을 얻게 될 것입니다.

